

연구보고 2018-26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최효미 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 2018-26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85-5 93330

## 머 / 리 / 말

2017년의 출생아 수는 36만명에 그쳤으며, 여전히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가임기 여성 뿐 아니라 청년 미혼자, 자녀 출산이 완료된 가구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것이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극복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예산 사용과 그 간의 노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결코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찰한 연구로서, 영유아 가구의 지출 실태 및 양육비용, 소비심리 등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본 연구 뿐 아니라 별개의 다른 2개 연구과제의 영유아 가구 대상 설문을 하나로 통합한 조사구 패널 조사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독자들이 이 연구와 함께 관련된 2개의 연구를 함께 참조할 수 있도록 총 4권의 보고서를 한 질로 발간하게 되었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합리적 소비문화의 정착과 양육부담 경감 등 실효성 높은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실태조사와 심층 면담에 응해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새로운 방식의 연구 수행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여 연구를 잘 마무리 해 주신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 목 차

<b>요약</b>	<b>1</b>
<hr/>	
<b>I. 서론</b>	<b>15</b>
<h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2. 연구 수행 체계 및 보고서 구성 .....	19
3. 연구 내용 .....	22
4. 연구 방법 .....	24
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	27
<b>II. 연구의 배경</b>	<b>33</b>
<hr/>	
1. 소비실태조사 관련 연구 배경 .....	35
2. 국내외 양육비용 지출 동향 .....	46
3. 국내 양육비용 지원 정책 개관 .....	55
<b>Part I. KICCE 소비실태조사</b>	<b>73</b>
<hr/>	
<b>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b>	<b>75</b>
<hr/>	
1.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	77
2. 설문지 구성 .....	85
3. 표본 특성 .....	93

<b>PartⅡ.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b>	<b>107</b>
<b>IV.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b>	<b>109</b>
1. 영유아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	111
2.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실태 .....	127
3.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	136
4. 소결 .....	149
<b>V. 영유아 가구의 주거 및 육아용품 관련 소비 행태</b>	<b>155</b>
1. 주거 관련 소비 양태 .....	157
2. 공유 경제 이용 경험 및 요구 .....	175
3. 소결 및 시사점 .....	205
<b>VI. 양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미래 전망</b>	<b>209</b>
1. 양육비용 관련 정책 인지 및 개선 요구 .....	211
2. 육아 소비 성향 .....	222
3. 미래 사회 전망 .....	237
4. 소결 및 시사점 .....	244
<b>VII. 결론 및 정책 제언</b>	<b>249</b>
1. 소비실태 조사 관련 개선점 및 제언 .....	251
2. 양육비용 관련 제언 .....	257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270
<b>참고문헌</b>	<b>272</b>



## 표 목차

〈표 Ⅰ-4-1〉 심층면담 개최 현황 .....	26
〈표 Ⅰ-4-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	26
〈표 Ⅱ-1-1〉 국내 양육비용 연구의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	36
〈표 Ⅱ-1-2〉 국외 양육비용 연구의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	37
〈표 Ⅱ-1-3〉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 분석 가능 자료의 조사 개요(국내) .....	39
〈표 Ⅱ-1-4〉 국내 양육비용 연구의 지출 비목 .....	41
〈표 Ⅱ-1-5〉 국외 양육비용 연구의 지출 비목 .....	42
〈표 Ⅱ-1-6〉 선행 연구의 육아품목 목록 .....	44
〈표 Ⅱ-2-1〉 선행연구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49
〈표 Ⅱ-2-2〉 일본의 연도별 아동(0-18세)당 가계 소비지출 .....	52
〈표 Ⅱ-2-3〉 국가별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용 .....	54
〈표 Ⅱ-3-1〉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지원 정책 .....	57
〈표 Ⅱ-3-2〉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 .....	59
〈표 Ⅱ-3-3〉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 .....	61
〈표 Ⅱ-3-4〉 중앙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	63
〈표 Ⅱ-3-5〉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식비 지원 정책 .....	65
〈표 Ⅱ-3-6〉 중앙정부의 주거비 지원 정책 .....	67
〈표 Ⅱ-3-7〉 교통/통신비 지원 정책 .....	69
〈표 Ⅱ-3-8〉 세제 지원 .....	70
〈표 Ⅲ-1-1〉 KICCE 소비실태조사 목표 표집 수 및 조사결과 .....	79
〈표 Ⅲ-1-2〉 KICCE 소비실태조사 연차별 원표본 자녀 연령 .....	80
〈표 Ⅲ-1-3〉 KICCE 소비실태조사 원표본 가구(1차, 2차 예시) .....	81
〈표 Ⅲ-2-1〉 본조사 설문 문항 및 출처 (가구 설문) .....	86
〈표 Ⅲ-2-2〉 본조사 설문 문항 및 출처 (아동 설문) .....	88
〈표 Ⅲ-2-3〉 온라인조사 설문 문항 및 출처 .....	89
〈표 Ⅲ-2-4〉 양육비용 설문 항목 구성 및 설명 .....	92
〈표 Ⅲ-3-1〉 가계동향(지출)조사과 KICCE 소비실태조사 영유아 가구 표본 특성 비교 .....	94
〈표 Ⅲ-3-2〉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영유아 가구 표본 특성 .....	96

〈표 Ⅲ-3-3〉 자녀수 및 맞벌이 가구 비중	96
〈표 Ⅲ-3-4〉 영유아 가구 부모 특성 비교(가계동향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97
〈표 Ⅲ-3-5〉 영유아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	98
〈표 Ⅲ-3-6〉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	100
〈표 Ⅲ-3-7〉 지역규모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	101
〈표 Ⅲ-3-8〉 자녀 구성 및 맞벌이 여부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 분포	101
〈표 Ⅲ-3-9〉 가구특성별 양육관련 이전소득 수혜 여부	102
〈표 Ⅲ-3-10〉 영유아 자녀 특성	103
〈표 Ⅲ-3-11〉 영유아 가구 지출 총액 비교(가계동향(지출)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105
〈표 Ⅳ-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112
〈표 Ⅳ-1-2〉 총 자녀수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114
〈표 Ⅳ-1-3〉 맞벌이가구 여부별 비목별 생활비 지출	116
〈표 Ⅳ-1-4〉 가구소득 구간별 비목별 생활비 지출	118
〈표 Ⅳ-1-5〉 가구 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120
〈표 Ⅳ-1-6〉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120
〈표 Ⅳ-1-7〉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123
〈표 Ⅳ-1-8〉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 대비 양육비용 비율	124
〈표 Ⅳ-1-9〉 가구 특성별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125
〈표 Ⅳ-1-10〉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	126
〈표 Ⅳ-2-1〉 자녀수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128
〈표 Ⅳ-2-2〉 자녀수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130
〈표 Ⅳ-2-3〉 가구소득 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131
〈표 Ⅳ-2-4〉 가구소득 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131
〈표 Ⅳ-2-5〉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133
〈표 Ⅳ-2-6〉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134
〈표 Ⅳ-2-7〉 가구 소득 구간 및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출액	135
〈표 Ⅳ-2-8〉 영유아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136
〈표 Ⅳ-3-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137
〈표 Ⅳ-3-2〉 가구 지출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138
〈표 Ⅳ-3-3〉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139
〈표 Ⅳ-3-4〉 가구 지출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140
〈표 Ⅳ-3-5〉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142
〈표 Ⅳ-3-6〉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후 가계소비 변화 여부	143

〈표 IV-3-7〉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후 가계소비 변화 여부 .....	144
〈표 IV-3-8〉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후 생활비 지출 비목 간 조정 .....	144
〈표 IV-3-9〉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후 생활비 지출 비목 간 조정 .....	145
〈표 IV-3-10〉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증가한 비목 .....	147
〈표 IV-3-11〉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증가한 비목 .....	148
〈표 IV-3-12〉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감소한 비목 .....	149
〈표 V-1-1〉 가구 특성별 영유아 가구의 주거 현황 .....	158
〈표 V-1-2〉 가구 지출별 영유아 가구의 주거 현황 .....	159
〈표 V-1-3〉 가구 특성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 .....	160
〈표 V-1-4〉 가구 지출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 .....	161
〈표 V-1-5〉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 .....	161
〈표 V-1-6〉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	162
〈표 V-1-7〉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	163
〈표 V-1-8〉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	164
〈표 V-1-9〉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 .....	165
〈표 V-1-10〉 지역규모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 .....	166
〈표 V-1-11〉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 .....	167
〈표 V-1-12〉 가구 특성별 향후 5년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 .....	168
〈표 V-1-13〉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향후 5년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 .....	169
〈표 V-1-14〉 가구 특성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	170
〈표 V-1-15〉 지역규모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	171
〈표 V-1-16〉 가구 지출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	171
〈표 V-1-17〉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	172
〈표 V-2-1〉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	176
〈표 V-2-2〉 지역규모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	176
〈표 V-2-3〉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	177
〈표 V-2-4〉 지역규모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입한 이유 .....	178
〈표 V-2-5〉 가구 특성별 고가 육아용품 구매 후 후회한 이유 .....	179
〈표 V-2-6〉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	179
〈표 V-2-7〉 육아 용품 공유 경험 .....	180
〈표 V-2-8〉 가구소득별 중고 거래 경험 .....	182
〈표 V-2-9〉 자녀수별 중고 거래 경험 .....	183
〈표 V-2-10〉 중고거래 구매처 및 평균 구입 가격 .....	184

〈표 V-2-11〉 가구 특성별 중고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	186
〈표 V-2-12〉 자녀수별 물려받기 경험 .....	190
〈표 V-2-13〉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구간별 물려받기 경험 .....	191
〈표 V-2-14〉 육아용품을 물려 준 사람 .....	192
〈표 V-2-15〉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 물려받기를 하지 않은 이유 .....	194
〈표 V-2-16〉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물려받기를 하지 않는 이유 .....	194
〈표 V-2-17〉 가구 특성별 물려받기 의향 .....	195
〈표 V-2-18〉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 물려주기 경험 .....	196
〈표 V-2-19〉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 물려주기를 하지 않은 이유 .....	197
〈표 V-2-20〉 가구소득별 대여하기 경험 .....	198
〈표 V-2-21〉 육아용품을 대여 기관 .....	198
〈표 V-2-22〉 가구 특성별 대여하기 의향 .....	202
〈표 V-2-23〉 가구 특성별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 처리 방법 .....	203
〈표 V-2-24〉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 처리 방법 .....	205
〈표 VI-1-1〉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경험 .....	212
〈표 VI-1-2〉 보건 의료비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	213
〈표 VI-1-3〉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	215
〈표 VI-1-4〉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	216
〈표 VI-1-5〉 교육·보육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	217
〈표 VI-1-6〉 개별돌봄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	219
〈표 VI-1-7〉 출산·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	219
〈표 VI-1-8〉 식비 및 개인유지비, 교통비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	220
〈표 VI-1-9〉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	221
〈표 VI-1-10〉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	222
〈표 VI-2-1〉 가구 특성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23
〈표 VI-2-2〉 가구 지출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24
〈표 VI-2-3〉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혹은 육아서비스 구입 패턴 ..	225
〈표 VI-2-4〉 가구 특성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	226
〈표 VI-2-5〉 가구 지출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	227
〈표 VI-2-6〉 가구 특성별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	227
〈표 VI-2-7〉 가구 지출별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	228
〈표 VI-2-8〉 가구 특성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	229
〈표 VI-2-9〉 가구 지출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	230

〈표 VI-2-10〉 가구 특성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	231
〈표 VI-2-11〉 가구 지출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	232
〈표 VI-2-12〉 가구 특성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	233
〈표 VI-2-13〉 지역규모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	234
〈표 VI-2-14〉 가구 지출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	235
〈표 VI-2-15〉 가구 특성별 육아상품 및 육아서비스의 가구소득 탄력성 .....	236
〈표 VI-2-16〉 가구 지출별 육아상품 및 육아서비스의 가구소득 탄력성 .....	237
〈표 VI-3-1〉 가구 특성별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 .....	238
〈표 VI-3-2〉 가구 특성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	239
〈표 VI-3-3〉 주관적 사회경제적인 위치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	240
〈표 VI-3-4〉 가구 특성별 미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	240
〈표 VI-3-5〉 가구 특성별 희망하는 자녀 직업 .....	241
〈표 VI-3-6〉 가구 특성별 자녀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 .....	242
〈표 VI-3-7〉 가구 특성별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견해 .....	243
〈표 VI-3-8〉 가구 특성별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사이의 중요성 ....	244

## 그림 목차

[그림 Ⅰ-2-1]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2018년 1차년도 연구 기준) .....	20
[그림 Ⅰ-2-2] 연구과제별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	21
[그림 Ⅰ-3-1]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 연차별 연구 주제 .....	24
[그림 Ⅰ-5-1] 용어 정의와 용어 간 관계 .....	30
[그림 Ⅱ-2-1] 자녀 1인당 양육비용 변화 추이 .....	46
[그림 Ⅱ-2-2] 미국의 2015년 수입 수준 및 아동연령에 따른 한 아동당 가족 지출 ..	53
[그림 Ⅳ-1-1] 비목별 생활비 지출 구성비 .....	113
[그림 Ⅳ-1-2] 총 자녀수별 생활비 지출액 .....	115
[그림 Ⅳ-1-3]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	121
[그림 Ⅳ-1-4] 유형별 양육비용 산출 범위 .....	122
[그림 Ⅳ-3-1]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의 변화 .....	146
[그림 Ⅴ-2-1] 중고 육아용품 거래 불만족 사유 및 미이용 사유 .....	187
[그림 Ⅴ-2-2] 중고 육아용품 구입 의향 품목 .....	188
[그림 Ⅴ-2-3] 중고 육아용품 판매 경로 .....	189
[그림 Ⅴ-2-4]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193
[그림 Ⅴ-2-5]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199
[그림 Ⅴ-2-6] 대여 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불만족 사유 .....	200
[그림 Ⅴ-2-7] 대여하기 미이용 사유 .....	201

## 요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영유아 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부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좀 더 관망적 입장에서 고찰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유사하고 설문지 통합이 가능한 연구과제 3개의 실태 조사를 하나로 묶어 수행함으로써, 연구(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실험적 도전이 포함되어 있음.

#### 나. 연구 수행 체계 및 보고서 구성

- 본 연구는 5개년도 연속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며, 크게 조사 연구인 KICCE 소비실태조사와 연구과제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연구로 구성되어 있음.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설문 대상이 영유아 가구이고, 설문이 가구의 소비행태와 연관되어 있는 총 3개(본 연구 포함)의 연구과제의 실태조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한 조사임.
  - KICCE 소비 실태 조사를 공유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연구과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이 외에는 독립적인 연구 수행 체계를 가짐.
    - 연구과제1(본 연구)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 연구과제2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 방안
    - 연구과제3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 다.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 내용은 크게 ‘KICCE 소비실태조사’(Part I)과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연구(Part II)로 구성됨.
- Part I. ‘KICCE 소비실태조사’와 관련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육비용 관련 국내외 소비실태조사 및 패널조사 방법론 등을 개관.
  - 향후 5년 동안 수행될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프레임을 구성하고, 통합 실태조사 설문을 개발함.
  -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설계 및 구축, 2018년도(1차년도) 실태조사 실시.
  -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분석, 패널 추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
- Part II.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관련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 및 양육비용 측정 방법,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등에 관한 검토.
  - 국내외 양육비용 관련 연구 및 통계자료에 나타난 가계 지출 동향 분석.
  -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2018년 양육비용,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영유아 가구의 주거에 관한 의견 및 공유 경제 이용 경험, 정책 활용도 등 분석.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 자료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안 및 영유아 가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 도출.

## 2.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 가.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 KICCE 소비실태조사(1차조사 기준)는 총 3개 연구과제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통합한 형태의 설문조사로, 본조사 1회와 온라인조사 1회 총 2회의 조사를 실시함.
- 목표 표본은 가구 내 한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1,625가구임.



- 가구 내 영유아 자녀 전체의 육아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아동 단위로 질문함.
  - 가구 내 초등학교학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단위 조사에서는 이들의 소비 지출을 포함하여 조사하지만, 아동 단위 추가 설문은 실시하지 않음.
  - 원표본 가구 기준은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만 1세 이상 영유아는 각 연령별 250명씩 1,500명(가구), 0세(2018년 신생아)는 125명(가구)을 대상으로 표집함.
    - 2018년 출생아는 2019년 2차년도 조사에서 125가구를 추가 표집.
  - 2차년도 조사 이후 조사구를 패널로 유지하여 조사구 내 거주하는 원표본 가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 원표본이 조사구 내에서 이탈되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표본을 대체함.
- 본조사는 가구 방문 면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도구는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진행.
- 온라인 조사는 세부적인 육아용품의 구매 경험과 공유경제 경험, 체감 물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온라인으로 조사.
    - 단, 응답자가 면접조사를 더 희망하는 경우 면접조사로 실시함.

## 나.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의 구성

- 본조사 설문은 크게 가구 단위 응답 설문과 아동단위 응답 설문으로 구분됨.
- 본조사 가구 설문 문항은 일반적인 가구 특성, 가구 경제활동 및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 의사,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육아 소비 성향,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전망 등임.
    - 본 연구는 주로 가구 경제활동 및 양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육아 소비성향, 영유아 가구의 사회 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등이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
  - 본조사 아동 설문 문항은 주로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것으로, 연구과제2가 주로 다루는 주제임.

- 온라인조사 설문 문항은 육아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행태, 육아품목 물가 체감, 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 등임.
  - 본 연구는 육아용품 구매 및 소비행태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활용하며, 물가 체감과 물가 전망 등은 연구과제3에서 주로 활용함.
- 본 조사에 포함된 양육비용 설문 문항은 가계 단위 지출과 자녀별 지출 비용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식비 등 총 13개 비목과 11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됨.

#### 다.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 총 응답 가구는 1,648가구, 가구 내 영유아 2,277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됨.
  - 2017년도 가계동향조사(통계청)와 분석 대상(가구)의 응답자 특성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고르게 표본이 잘 조사된 것으로 보임.
    - 단,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다소 많은 특징이 있음.
  - 양육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62만 9천원으로, 주로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양육관련 이전소득 수혜 경험은 가정 양육수당 수혜자가 25.5%, 육아휴직 급여 수혜자 1.8%, 아이돌보미 0.4%, 출산장려금 2.2% 등임.
  - 영유아 자녀를 기준으로 교육·보육 기관 이용자 비중은 어린이집 49.8%, 유치원 30.3%, 기관 미이용 16.4%, 반일제 이상 학원 3.5% 등임.
  - 통계청 가구지출조사(2017)의 전체 가구 지출 총액은 274만7천원, 영유아 가구 지출 총액은 381만6천원이었으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계 지출 총액은 384만9천원(저축, 원리금 상환, 이전 지출 포함)으로 가계지출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하 본 연구의 생활비 지출은 소비지출 총액으로 저축, 원리금 상환,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임. 단, 가계지출 총액은 가계지출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이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함.

### 3.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 가. 영유아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11만9천원으로, 식비가 81만1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용(41만원), 보험금(36만3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32만3천원), 교통비(26만4천원), 주거비(25만3천원) 순임.
  -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생활비 지출도 증가함.
  - 엔젤 지수는 26.5, 슈바베 지수는 8.7, 엔젤 지수는 29.1임.
    - 엔젤 지수는 외벌이 가구, 자녀가 1명 혹은 3명인 가구,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음.
    - 슈바베 지수는 외벌이 가구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음.
    - 엔젤 지수는 맞벌이 가구와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서 높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음.
- 총 양육비용은 115만1천원이며,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9천원,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66만원임.
  -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이상 자녀 포함)에 대한 양육비용을,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가구 내 영유아별 양육비용을 의미함.
    - 모든 양육비용은 가구 생활비 지출 비목 중에서 주거비를 제외하고 산출.
  - 비목별로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큼.

#### 나.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실태

-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9천원으로, 자녀수가 1명일 때에 비해 2명일 때 증가하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총 자녀수에 따라 식비는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피복비와 보험료 등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비해 다른 집단에서 비해 약간 적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영유아 양육비용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측되며,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비목은 교육·보육비임.
-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식비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반면, 교육·보육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음.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66만원으로,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함.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생활연령 기준) 0세 53만6천원, 1세 51만1천원, 2세 57만5천원, 3세 59만6천원, 4세 70만3천원, 5세 74만9천원, 6세 77만4천원임.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기와 유아기에 큰 차이가 있음.

#### 다.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 영유아 가구들은 현재 지출되는 양육비용에 대해 충분하다는 의견 48.9%, 대체로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 42.1%로 양분됨.

□ 자녀 양육 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교육·보육비가 44.6%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식비(17.7%)임.

- 부담되는 항목이 없다는 응답도 11.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교육·보육비 투자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가구 전체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91.1%였으며, 항목 간 조정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52.7%, 항목 간 지출 변화가 약간 있었다는 응답이 41.7%임.

- 자녀 출산 전후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목은 교육·보육비였으며, 다음으로 식비임.

- 반대로 자녀 출산 전후 비용 지출이 크게 감소한 비목(감소한 비목 없음 제외)은 여가 및 문화 생활비와 개인유지비임.

### 4. 영유아 가구의 주거 및 육아용품 관련 소비 행태

#### 가. 주거 관련 소비 양태

□ 영유아 가구의 주거·관리비 총액은 25만3천원이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임.

- 자녀 출산 후 주택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가 54.9%,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구입해야한다’가 28.7%로,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주거지 선택 시 양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8.3%로, 현재 거주지를 결정하게 된 사유로는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2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였고, 이사하려는 이유도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39.7%로 가장 많음.
-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으로는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36.7%)’,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26.4%)’,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24.1%)’ 순임.
-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해 영유아 가구들은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주택 가격 및 입지 등에서 영유아 가구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일반적인 주거 지원 정책일 뿐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음.
  - 단, 실제 주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우(다자녀 가구 등)의 만족도는 높음.

#### 나. 공유 경제 이용 경험 및 요구

-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비싸다고 느낀 품목은 완구(33.6%), 외출복(28.7%), 도서(21.8%), 기저귀(19.5%), 신발(12.7%)의 순임.
- 공유 경제(중고 거래, 물려쓰기, 대여하기) 경험이 많은 육아품목은 완구, 도서, 이불류를 제외한 피복류 등임.
  - 공유 경제(중고 거래, 물려쓰기, 대여하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침대, 식탁의자, 욕조 등의 기기/집기류는 50%이상인데 반해, 이불류를 제외한 피복류는 10% 미만으로 매우 적음. 이는 피복류의 물려쓰기 경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함.

- 중고거래 경험 비중이 높은 육아품목은 도서, 완구 등임.
  - 중고 거래 주요 구매처는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중고장터, 이웃 혹은 친지 순임.
  - 중고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은 편임.
  - 향후 중고 구매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43.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매 의향이 있는 물품으로는 도서(77.1%), 완구(52.2%), 자전거(35.0%), 유모차(19.2%), 아기식탁의자(16.9%) 등 주로 내구성 육아용품을 선호함.
  - 중고 판매 의향에서도 89.8%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물려받기/쓰기 경험 비중이 높은 품목은 이불류를 제외한 피복류, 완구, 도서류 등임.
  - 물려받기/쓰기의 대상은 주로 아이의 형제자매(59.7%)와 친인척(27.7%) 등으로, 주로 가족 간 이뤄지는 형태를 띠고 있음.
  - 물려받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사유는 ‘주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았고, ‘웬지 꺼림칙해서(34.8%)’, ‘이미 제품이 낡아서(15.6%)’ 등이 응답됨.
  - 물려쓰기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75.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도서(78.4%), 완구(75.1%), 외출복(60.9%), 평상복(58.7%), 자전거(56.7%) 등임.
- 육아용품 대여하기 경험은 기기/집기류는 매우 소수만 응답되었고, 다른 품목에 비해 경험 비중이 높은 완구(8.6%), 도서(4.9%)의 경우에도 높지 않은 비중을 보임.
  - 대여하기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단기간만 사용할 물건이라서’의 응답이 64.9%로 압도적으로 높고, ‘제품구입 비용이 비싸서’ 17.8%, ‘그때그때 유행하는 물건을 이용할 수 있어서’ 8.9% 순임.
  - 대여하기를 이용해 보지 않은 이유로는 ‘남이 쓰던 거라 웬지 꺼림칙해서’ 25.7%, ‘돌려줘야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없어서’ 23.2%, ‘대여업체 등이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13.0%, ‘원하는 물건이 없어서’ 12.3% 순임.

- 유아용품 중 사용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물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7.2%로, 처리를 희망하는 방법으로는 ‘지인에게 물려주고 싶다’ 47.9%, ‘가능한 중고거래(온/오프라인 모두 포함)를 통해 판매하고 싶다’ 22.5%,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부하고 싶다’ 15.0% 순으로 나타남.

## 5. 양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미래 전망

### 가. 양육비용 관련 정책 인지 및 개선 요구

-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 중에서 부모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정책’과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임.
  - 반면, 해당 제도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식비 및 개인 유지비, 통신비 지원정책(37.4%)’, ‘주거관리비 관련 지원(26.9%)’,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의 대민서비스(26.6%)’ ‘보건의료지원정책(18.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모들이 실제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정책’,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출산 양육비용’이 각각 89.2%, 89.3%, 87.7%로 이용율 자체도 매우 높음.
  - 개별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해보지 않다는 응답이 94.6%에 달하는 등 정책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식비 및 개인유지비, 통신비 지원정책(87.7%)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대민서비스(80.5%), 주거/관리비 지원 정책(78.2%) 등의 이용 비중이 매우 낮음.
    - 정책별로 이용률은 낮더라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점 내외(5점 만점)로 낮지 않은 편임.

### 나. 육아 소비 성향

- ‘소득에 맞는 가격의 유아용품 및 육아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72.3%에 달함.
- 유아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기기/집기류, 피복비, 도서, 완구 등 내구재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상품의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바꾸는 편이다’의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꼭 필요한 물품인지 생각해보아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다’ 20.4%,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 또는 이용하는 편이다' 15.7%, '중고거래나 대여하기, 돌려쓰기 등이 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다' 11.6%,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구입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다' 8.3%의 순임.

- 분유, 기저귀, 목욕 및 위생용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소비재 상품도 '최저가나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한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긴 하나,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3.9%로 내구재보다 18.2%p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 기관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는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65.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시간제학원이나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이용과 같은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가격이 올랐을 때 '최저가나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응답과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44%로 비슷하게 나타남.

□ 육아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비목은 여가 및 문화생활비가 59.5%로 가장 높고, 이어서 식비, 개인유지비, 피복비 순임.

- 반면, 교육·보육비는 가격 변동에 매우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임.
- 가구 소득 탄력성(소득이 10% 증가를 가정함)은 육아상품은 8.1, 육아서비스 탄력성은 6.1로, 둘 다 비탄력적이지만, 특히 육아서비스가 비탄력적인 특징을 보임.

#### 다. 미래 사회 전망

□ 영유아 가구들은 현재는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1.1%에 그쳤으나, 미래에는 상층에 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9.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구간에서 두드러짐.

- 하지만, 미래 사회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격차 심화'에 응답한 비율이 62.8%로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미래사회가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일 것이라는 점에는 7.6%만이 동의함.



- 미래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가치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개인의 행복’이 6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부’ 25.2%, ‘공동체 의식’ 6.3%, ‘명예’ 2.3%, ‘기타’ 0.2% 순임.
- 자녀 세대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으로는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응답률이 7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특기적성 관련 공적 인프라 확충’ 50.7%,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49.5%, ‘초등 돌봄 확대’ 33.4%, ‘문화 인프라 확대’ 31.9% 순임.
  -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초등돌봄 확대(38.2%)에 대한 요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서는 ‘부모가 독립적 생활하되, 자녀도 부양책임은 있음’이 6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사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6. 결론 및 정책 제언

### 가. KICCE 소비실태조사 관련 개선점 및 제언

-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구 및 가구 패널 관리 필요.
- 초등 이행 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 필요.
- 응답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사 도구의 다각화.
- 영유아 가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 확대.
- 조사 연구와 연구 과제의 경계 설정 필요.
-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자료 정제 필요.

### 나. 양육비용 관련 제언

- 취약계층 영유아의 아동권 보호 및 격차 완화.
-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공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지원의 다양화.
- 주거비 지원 및 아동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 다양한 방식의 주거 지원 확대.
  - 아동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육아 지원 확장.
  - 공공 기관 대여 서비스의 개선.
  - 육아용품 업사이클링을 위한 정부 지원 및 민관 협력.
- 정책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강화.
  - 정책 홍보 강화 및 접근성 개선.
  - 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확장.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수행 체계 및 보고서 구성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0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이상을 회복한 적이 없으며(통계청, 합계출산율, 2017<sup>1)</sup>), 심지어 2017년의 출생아는 36만명<sup>2)</sup>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2005년의 이듬해인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가장 큰 요인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5)<sup>3)</sup>에 따르면, 기혼여성(15~49세)들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가 29.4%,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이 21.4%로 경제적인 이유가 합쳐서 50.8%에 달했다.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52) 또한 20~50대 성인 남녀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및 준비 부족’

- 
- 1) 통계청 KOSIS, 합계출산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2018. 2. 28. 인출).
  - 2) 2017년 잠정치임. 연합뉴스(2018. 2. 28일자), 합계출산율 예상보다 큰폭 하락…인구감소 시점 당겨질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0AKR20180228084451002.HTML?input=1195m> (2018. 2. 28. 인출).
  - 3) 통계청 KOSIS,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3&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3&conn_path=I2) (2018. 3. 2 인출).

이 43.3%로, 부부의 여가시간 향유(20.4%), 부모로서의 심리·정서적 준비 미비(14.6%), 자녀로 인한 사회활동 지장에 대한 우려(10.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청년(20~39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인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과 김태우(2016: 147)에 따르면, 청년 미혼자들이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안정'이 77.7%<sup>4)</sup>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가입기 여성 뿐 아니라 청년 미혼자, 자녀 출산이 완료된 가구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응답이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을 살펴보면, 해마다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초저출산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2000년 이후로도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어<sup>5)</sup>, 총량적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극복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예산 사용과 그 간의 노력을 고려할 때<sup>6)</sup>,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결코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높아진 소득수준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양육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다 관망적 입장에서 탐색하는 연구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인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비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 혹은 육아용품 등에 대한 소비 심리에 따른 영향인지, 실질적인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면 특히 어떠한 비용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계 지출과의 관계성 속에서 양육비용이 갖는 특징을 고찰해본다. 또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4) 1순위+2순위 통합, 전체가 200%인 비중임.

5) 통계청 KOSIS, 1인당 국민총소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2&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2&conn_path=12) (2018. 2. 28. 인출).

6) 매일경제(2018. 2. 28일자), 저출산 쇼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37573> (2018. 2. 28. 인출).



조망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합리적 소비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행태와 소비문화, 양육비용 등의 분석을 위해 주된 연구방법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본 연구 뿐 아니라 별개의 다른 2개 연구과제의 영유아 가구 대상 설문을 통합한 조사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절 연구 수행체계 및 보고서 구성' 부분에 제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3개 연구가 공유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 2 연구 수행 체계 및 보고서 구성

본 연구인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연구'는 총 3개의 연구과제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 중 하나이다. 즉,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는 연구과제1 :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연구과제2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과제3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로 구성된다.

이때, 이상 3개의 연구가 영유아 가구의 소비 행태와 연관된 공통의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조사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영유아 가구의 지출 및 소비 행태(교육·보육 서비스 선택 및 이용 행태 등을 포함함), 정책 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조사 대상과 설문 내용이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과제별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표집 방식 등에 따라 각각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같거나 주제가 유사한 조사를 하나로 묶어서 조사함으로써 표본을 크고 동일하게 유지하여 보다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연구 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연구과제1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의 Part I 'KICCE

소비실태조사' 부분에 제시한다. 연구과제의 구성과 과제별 연구 방법 사이의 관계는 [그림 I-2-1]을 참조하기 바란다.

■ 그림 I-2-1 ■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2018년 1차년도 연구 기준)

	<b>연구과제1: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art I: KICCE 소비실태조사</b> - 영유아 가구 특성 및 응답자 관리 문항
<b>연구과제1: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art II: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b> - 문헌연구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통계자료 분석 - 해외 사례 조사(출장)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 전반적인 가계 경제 및 소비 실태 -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실태 - 자녀 양육비용 소비 행태 및 소비문화 - 양육비 경감 지원 정책 인지 및 제도 활용, 개선 방안
<b>연구과제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b> - 문헌연구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 향후 육아서비스 수요 - 육아서비스 이용비용 - 서비스 지원 정책 선호 및 요구
<b>연구과제3: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b> - 통계자료 분석 - 육아물가지조사(시장가격조사)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체감 물가 지수 산출 관련 문항 - 소비 심리 지수 산출 관련 문항 ※육아품목에 대한 지출비용 조사를 활용하여 가중치 산출

- 주: 1) 연구과제1: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는 'Part I: KICCE 소비실태조사'와 'Part II: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두 부분으로 구성됨(굵은 선 참조).  
 2) Part I: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연구과제1~연구과제3의 영유아 가구 대상 통합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단, 조사 설계 등 전반적인 조사 관련 내용은 연구과제1의 Part I에 수록될 예정이며, 조사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은 각 연구과제별로 수행됨.  
 3) 상기 내용은 연구과제별 연구방법을 간략히 기술한 것이며, 세 과제의 공통적인 연구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연구과제별 유관 설문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된 연구 방법이자 연구 내용의 하나인 'KICCE 소비실태조사' 이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각 연구과제별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연구과제별로 연구 내용의 범위를 간략히 제시하자면, 먼저 본 연구인 연구과제1은 앞서 그림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통합 실태조사인 'KICCE 소비실태조사'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Part I으로, 전반적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 행태 및 양육비용 등에 관한 연구를 Part II로 하여 구성된다.

연구과제2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즉, 연구과제2는 양육비용 중 서비스 재화의 이용과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히 서비스 재화에 대한 지출 비용을 넘어선 서비스 선택 및 수요 등에 관한 연구를 포괄한다. 이때, 양육비용에 육아서비스 이용비용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연구과제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이유는 육아서비스 이용이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다른 양육비용과는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3은 육아물품의 시장 가격인 육아물가지수와 관련된 연구로 시장 가격조사 등을 독자적인 연구 영역으로 하고 있으나, 영유아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와 소비심리 지수 관련 문항 등은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통합하여 조사한다. 또한, 양육비용 지출과 관련된 설문 문항 중에서 품목별 지출 실태는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산출에 중복적으로 이용된다.

한편, 각 과제별로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될 예정으로 연차별 주요 연구 주제는 그림 I-2-2에 제시하였다.

■ 그림 I-2-2 ■ 연구과제별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연구과제1	연구과제2	연구과제3
1차연구	양육비 설문 개발, 내구재, 주거비 절감방안	육아서비스 서비스 수요 및 이용 행태 분석	육아 필수재 선정, 가중치 산출
2차연구	빈곤 현황 및 문화생활비 격차 해소	육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한 육아물가와 체감물가 관계
3차연구	가계소비 유형별 지출행태 및 소비 심리	인구구조 변화와 육아서비스 수요 변화	육아내구재 소비패턴 및 시장가격 분석
4차연구	생애주기별 소비 양태 변화	육아서비스 공급 지원 체계 및 수급 전략	VAR 등을 활용한 육아물가와 거시경제 지표와의 관계 분석
5차연구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한 소비 실태 추이 분석	5개년 연구에 기반한 수요 변동 고찰 및 종합 대책	육아물가지수 장기 추세 분석
KICCE 소비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과제 5년간 공통 수행, 매년 추적조사</li> <li>- 특정 대상 등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가능</li> <li>- 매년 본조사는 패널 조사로 수행하되, 이달 표본은 매해 대체</li> </ul>		

주: 1) 연차별 연구 주제 및 연구 과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전년도 과제 개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과제2 혹은 연구과제3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수 있음.  
 자료: 총괄과제(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육아물가 연구)의 2018년도 실행계획서, 육아정책연구소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3 연구 내용

본 연구인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는 [그림 I-2-1]에 제시된 ‘연구과제1’에 해당하는 연구로, 크게 ‘KICCE 소비실태조사(Part I)’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Part II)’로 구성된다.

#### 가. 1차년도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전반적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개관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KICCE 소비실태조사(Part I)’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국내외의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산출이 가능한 소비실태조사 및 패널조사 방법론 등을 개관한다. 둘째, 향후 5년 동안 수행될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프레임을 구성하고, 3개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설문문을 개발한다. 셋째, 표본 설계 및 구축 과정을 통해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넷째,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Part II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 및 양육비용 측정 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문 개발 및 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국내외 양육비용 관련 연구 및 통계자료분석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 동향을 파악한다. 셋째,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2018년 기준 양육비용을 산출하고, 비목 및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영유아 가구의 소비행태 및 공유경제 이용 경험 등에 대해 고찰한다. 다섯째,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국내외 양육비용 지원 정책 등을 개관하고,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 활용도 등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조사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발전적 제안 및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 나. 연차별 연구 내용

### 1) KICCE 소비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향후 5개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며 로테이션 패널조사 방식을 응용한 형태로 진행한다. 즉, 조사 대상은 매해 전년도까지 조사된 조사를 기준으로 패널조사 형태의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전년도 응답자가 없는 신규 출생아의 경우에는 매년 추가 표집을 통해 조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매년 조사 대상 가구를 추적조사 하는 것은 해마다 횡단면 표집으로 인한 시계열 자료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하고 응답자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표본은 통계청 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횡단면 조사를 통해서도 가구의 지출 비용 등에 대한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 형태를 응용하여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I장의 내용에 제시하였다.

###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Part II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의 연차별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및 양육비용 지출,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나 인지, 개선 방안 등은 5개년 연구에서 공히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연차별로 차별적이고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1차년도에는 5개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될 양육비용 측정 방법과 기본적인 조사 설문 등을 확정한다. 또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내구재 비용 절감과 관련된 대안으로서의 공유경제 이용 경험과 주거 관련 문항을 좀 더 강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이후 연구는 해마다 주요 이슈가 되는 사항 혹은 비목별 소비 행태들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2차년도에는 사회경제적 계층 및 가구특성에 따른 문화생활비 격차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차년도에는 가계소비 유형별로 지출행태 및 소비 심리에 대한 연구를, 4차년도에는 생애주기별 소비 양태 변화에 관한 연구, 5차년도에는 그 간의 연구를 갈무리하고 5년 동안의 자료 분석을 통한 소비실태 추이 변화 분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심층 연구 주제는 매해 전년도에 실

시되는 연구 계획 수립 시에 심층연구 주제를 발굴, 선정 과정에서 보다 시의성 있는 주제로 변경될 수 있다.

■ 그림 I-3-1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연구 연차별 연구 주제

1차	2차	3차	4차	5차
영유아 가구 생활비 등 지출 실태 비목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관련 소비문화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개선 방안				
-양육비용 설문 개발 -내구재 및 주거 관련 문항	-영유아 가구의 빈곤 현황 -문화생활 관련 문항	-가계 소비 유형별 지출 행태 -소비 심리	-생애주기별 소비 양태의 변화	-장기 시계열 분석 을 통한 소비실태 추이 분석

주: 1) 연차별 상황에 따라 연구 주제는 변경 가능하며, 부가조사 혹은 추가 표집 등이 필요할 수 있음.  
 2) 점선은 5개년 공통 연구 내용이며, 음영 부분은 연차별 심층적 연구 주제로 연도별로 변경 가능.

## 4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 작성을 위해 국내외 양육비용 연구 및 소비 생활과 관련된 설문 및 조사방법 등을 고찰한다. 또한, 국내외 소비실태조사 및 유관 패널조사 등에서 적용한 조사방법론을 살펴보아,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 예정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한편, Part II에 해당하는 양육비용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영유아 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폭넓게 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경감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지원 정책 등을 개관함으로써, 향후 정책 지원 방안 모색에 활용한다.

### 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총 3개 연구과제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통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위

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확보와 함께 시계열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로테이션 패널조사 방식을 차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본조사와 온라인조사 각 1종씩 총 두 번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은 1,625가구를 목표로 했다. 원표본 자녀<sup>7)</sup>를 기준으로 만나이가 1세 이상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각 250가구씩 1,500가구와 2018년 신생아가 있는 가구 표본 125가구를 목표로 했다. 조사 설계와 표본 구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보고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III장에 제시하였다.

#### 다. 해외 출장을 통한 조사 방법 연구

횡단면 조사 자료에 비해 복잡한 표집 체계와 조사 방법을 가진 로테이션 패널 조사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측정 방법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수집하기 위해 캐나다의 통계청을 방문하였다. 캐나다 통계청은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가계조사, 자녀 양육비 조사, 연동 패널 조사 등을 모두 주관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조사 방법론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5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본 연구의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등에 유의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 라. 심층 면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기 육아용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문 문항 확정을 위해 실제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 행태에 관한 고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육아 품목 등을 선정하고 전반적인 설문 문항을 응답자 편이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또한, 전국 표본 조사로 인해 특정한 특성을 지닌 가구의 표본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등에 대해서도 부모 심층 면담 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와

7) 원표본 자녀는 조사 과정에서 가구 내 영유아 자녀 중 1명으로 지정(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령 별 표본 수를 고려하여 임의 지정) 하며, 향후 조사는 이 원표본 자녀를 기준으로 추적을 실시함.

함께 내구재 소비와 관련한 공유경제 경험과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영유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4-1 심층면담 개최 현황

부문	개최일자	참석자 수	비고
설문지 검토(예비조사)	2018. 4. 30	7명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연구소 직원 (유관 분야 전공자 포함)
부모 심층 면담	2018. 8. 30	4명	영유아 부모
부모 심층 면담	2018. 8. 31.	4명	영유아 부모
부모 심층 면담	2018. 8. 31.	3명	영유아 부모
부모 심층 면담	2018. 9. 4.	4명	다자녀 영유아 부모
현장간담회(1차)	2018. 10. 1.	8명	저소득 영유아 부모
현장간담회(2차)	2018. 10. 29.	8명	저소득 영유아 부모(보충면담)

주: 연구과제2와 연구과제3에서 별도로 실시한 면담은 제외함.

####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개발,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양육비용 측정, 정책 방안 마련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영유아 가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개발과 표본 설계 과정에서 선행 연구자와의 집중적인 자문회의<sup>8)</sup>를 통해 5개년 연속 통합 실태조사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코자 하였다.

한편, 내구재 관련 기관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 등을 타진해 보았다.

표 I-4-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부문	개최일자	전문가 현황	자문 내용
표본 설계	2018. 3. 13	통계 1인	패널 표본 구축
표본 설계 및 조사방법	2018. 3. 14	경제, 통계 등 5인	패널 조사 실무
조사 방법	2018. 3. 15	통계실무 1인	통계청, 연동 패널 조사방법
조사 방법	2018. 3. 15	통계실무 2인	통계청, 양육비 측정 방법
설문 개발	2018. 4. 13	소비자학 2인	생활비 비목 구분, 설문 초안 검토
설문 개발	서면	소비자학 1인	생활비 비목 구분, 설문 초안 검토

8) 단, KICCE 소비실태조사(설문 개발 등)와 관련하여 연구과제2 혹은 연구과제3에서 수행된 자문은 본 보고서에는 불포함함.



(표 I-4-2 계속)

부문	개최일자	전문가 현황	자문 내용
조사 방법	2018. 4. 23	교육 등 2인	조사 업체 기술 평가 및 조사방법
설문 개발	2018. 5. 11.	조사업체 2인	최종 설문 확정
조사원 교육	2018. 6. 7.	조사업체 3인	조사원 교육
보고서 검토(중간보고)	2018. 6. 22	소비자학 등 3인	연구 수행 과정 및 보고서
조사 진행	2018. 8. 11.	조사업체 3인	조사진행 점검
공유 경제 관련	2018. 9. 10.	기업가 2인	공유경제 관련 사업체

주: 연구과제2와 연구과제3에서 설문개발 등을 위해 실시한 자문회의 등은 해당 보고서에 표기하고, 본 보고서에는 표기하지 않음.

## 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인데다 단년도 연구를 기준으로 3개의 연구가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형과제이기 때문에, 타 연구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통한 연구 범위의 획정이 요구된다.

### 가. ‘소비’ 혹은 ‘지출’

두산백과에 따르면<sup>9)</sup>, 소비(consumption)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화폐를 지출하는 행위”를 소비지출이라고 정의한다. 즉, 소비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소모하는 행동 전반을 의미한다면, 소비지출 혹은 지출(expenditure)은 화폐를 통한 구매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비’는 교육이나 보육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성림, 2011; 전상민, 2011).

하지만, 실생활과 선행 연구 등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명에도 포함된 “소비실태조사”에서 ‘소비’는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행동과 소비문화, 소비 심리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전적 지출 비용 뿐 아니라,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선택 양태를 비롯하여 실제 금전적 지출을 동반한 구매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우

9)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중 소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872&cid=40942&categoryId=31813> (2018. 2. 21 인출).

에 따라 연구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수혜 받았거나, 돈을 받지 않고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조부모의 개별 돌봄서비스 등도 연구 범위에 모두 포괄된다. 또한, 특정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거나(주거나) 선물 받거나(주거나) 대여하는(해주는) 행위 등도 모두 연구 영역에 포함된다. 다만, 유·무형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모 자체에 의미를 두며, 기회비용과 같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은 연구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즉, 무료로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조부모가 다른 아이를 돌보았다면 받았을 임금 등은 연구 영역을 벗어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소비 행동과 연관된 광의의 의미는 ‘소비’로, 실질적인 금전적 지불 행위 혹은 금액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 ‘지출’로 표기하고자 한다. 즉, 손자녀를 무료로 돌보는 조부모의 서비스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에는 해당하나, ‘지출’에는 속하지 않는다.

## 나. 양육비용과 양육비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비’ 혹은 ‘양육비용’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는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되는 전반적인 가계의 지출 비용을 지칭하는 경우(박세경, 2006; 김승권, 2010;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 2010; 신윤정·김지연, 2010; 한경님, 2010; 김연우, 2013)와 한부모 가구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다른 한쪽 부모(주로 아버지)의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경우(차선자, 2006; 강지원, 2010; 김승권·김상철·최영준, 2011; 김은지·황정임, 2012)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성림(2007)과 이성림(2010) 등은 ‘양육비’의 의미를 전자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하고는 있으나, 비목별 지출 금액을 의미할 때는 ‘소비지출’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총량적인 지출수준 혹은 추정된 비용을 ‘자녀 양육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허경옥(2007)은 ‘자녀양육비’를 자녀 양육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가치로 보아,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사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권미경, 이정원, 최효미와 김혜진(2016)은 자녀 양육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육아비용’이라고 지칭하며 다소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육아비용’은 또한 연구에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비

용(서문희, 2007; 최윤경, 2011)으로 사용되는 등 보육비용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 고제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와 안형석(2015)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구의 지출이라기보다는 양육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가정양육수당 산정을 위한 근간자료로서의 양육비용, 즉 실질적인 지출 비용이 아닌 아동 양육에 꼭 필요한 개념화된 비용으로서 ‘가정양육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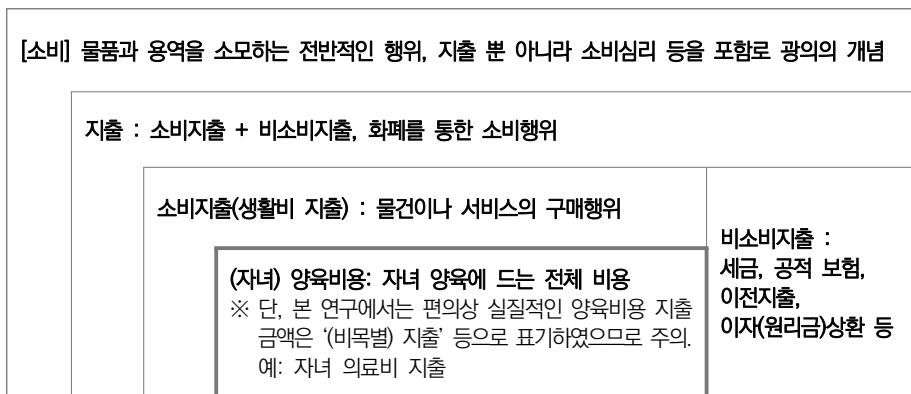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국내 연구 뿐 아니라 국외 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되는 전반적인 가계의 지출 비용”은 선행 연구의 제목을 기준으로 자녀에 대한 ‘지출(expenditure)’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Hori, 2011; Bargain & Donni, 2012; Lino, 2013; Lino, Kuczynski, Rodriguez & Schap, 2017). 하지만, Sarlo (2013)과 NATSEM (2013) 등은 이 비용을 ‘자녀 양육 비용(Cost of Raising Children)’이라고 지칭하였으며, Bonke & Browning (2011)은 ‘Spending on children’이라고 표기하였다. 반면,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비용(Cost)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보육비용(Childcare Cost) 혹은 교육비용(Cost of Education)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Rutter, 2015), 경우에 따라 교육에 대한 지출(expenditure on children’s education)이라고 표기한 경우(Qian & Smyth, 2008; Rizk & Owusu-Afriyie, 2014)도 있어 국외 연구에서도 용어가 명확한 형태로 구분되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요컨대 선행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양육비’ 혹은 ‘양육비용’, 혹은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 등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양육비용’으로 정의한다. 이는 선행연구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양육비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 부담금에 해당하는 ‘양육비’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종종 양육비용이 자녀돌봄비용(보육비용)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의 ‘양육비용’은 자녀 양육을 위해 화폐로 지출되는 전반적인 비용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러한 ‘양육비용’에는 기회비용 및 화폐로 환산되지 않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양육비용’은 여러 가지 하위 비목별 지출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비목별 지출의 경우에는 비목명 단독 혹은 비목명 이하에 지출이라는 용어를 병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진료비는 ‘의료비’ 혹은 ‘의료비 지출’ 등

으로 표기한다. 이때, 가계가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상적으로 쓰는 돈을 의미하는 생활비 지출의 경우에도 비목별 지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목별 지출이 자녀에 국한해서 지출된 비용인지, 가구 전체의 비용인지는 용어상으로 구분이 어렵고, 문맥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을 주지하는 바이다.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용 비목 등은 II장 1절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 그림 I-5-1 || 용어 정의와 용어 간 관계



주: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 등을 조사하지만, 저축은 자산으로 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단, (민간) 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경계가 모호하여 소비지출로 포함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함.

한편, 가구의 전반적인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녀의 양육비용은 소비지출에 국한하여 산출하였다. 가구의 세금, 공적 보험, 이전 지출, 원리금 상환 등은 비소비지출로서, 자녀 양육을 위한 가계의 실질적 비용 지출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지출 중에서도 가구 단위로 소모되어 자녀에 대한 직접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의 경우에는 가계지출에는 포함되지만 양육비용 산출 시에는 제외하였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양육비용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해당 비용으로 인한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인 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1차년도 연구에서는 주거비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포함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응답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문항에 포함된 저축의 경우 지출이라기보다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출 비용 산출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 II

## 연구의 배경

1. 소비실태조사 관련 연구 배경
2. 국내외 양육비용 지출 동향
3. 국내 양육비용 지원 정책 개관







## II. 연구의 배경

### 1 소비실태조사 관련 연구 배경

#### 가. 국내외 양육비용 관련 소비실태조사 개관

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양육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세세하게 묻는 경우(서문희 외, 2010; 신윤정·김지연, 2010)가 있는가 하면, 비목별 지출을 묶어서 묻는 경우도 있었다(권미경 외, 2016). 한편, 별도의 실태조사가 아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양육비용을 추정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박세경, 2006; 서문희 외, 2010; 신윤정·김지연, 2010; 이성림, 2007; 허경옥, 2007).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조사하지만, 어느 정도 비목으로 묶어서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한편, 양육비용은 대부분 가구단위로 산출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대체로 대학 진학 이전까지의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가구 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을 요하는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비용을 추정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반면,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연령층의 자녀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권미경 외, 2016; 서문희 외, 2010; 이성림, 2010; 한경님, 2010),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서는 특정 연령층의 자녀 유무를 식별하기 어렵고, 각 비목별 아동을 위한 소요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으로 사료된다. 국내 대표적인 양육비용 연구의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를 정리하면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국내 양육비용 연구의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구분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방법/추정방법
권미경 외 (2016)	초등3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실태조사	지출 평균
김승권 (2010)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2003/2006/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지출 평균
박세경 (2006)	부모와 자녀세대만이 동거하는 핵가족, 가구주 및 배우자 연령을 20~49세로 한정	2003 가계조사	등가비율측정법
서문희 외 (2010)	부부와 영유아로 구성된 가구	가계동향조사, 실태조사(가계부방식)	1인당 비용 추계 방법
신윤정·김지연 (2010)	핵가족이면서 24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가계동향조사	1인당 비용 추계 방법
이성림 (2007)	가구주가 25세이상 55세이하인 부모가구와 부부와 부양자녀가 있는 가계	2004 가계조사	GLM, 3SLS /Rothbarth방법
이성림 (2010)	6세이하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계	실태조사 (37가지 가계지출조사)	소득탄력성, 소비율, 지출금액, 지출 비중, 최소자승추정법, 토빗분석
한경님 (2010)	만3에서 5세미만 자녀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저소득 가구)	설문조사	$\chi^2$
허경옥 (2007)	핵가족이면서 24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생활시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노동연구원 노동패널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측정함.

주: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동일인의 논문은 연도순으로 정리함.

국외의 양육비용 연구도 대체로 대학 입학 전 혹은 학령기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또, 분석대상이 유사한 국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각 나라의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소비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양육비용을 추정하고 있었다. 다만, 양육비용의 추정 방법은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또한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국외 양육비용 연구의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는 <표 II-1-2>와 같다.

표 II-1-2 | 국외 양육비용 연구의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구분	대상 국가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방법/ 추정방법
CEBR (2015)	영국	21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ONS' Family Expenditure Survey	-
Hori (2011)	일본	2인 이상 가구 (자녀유무무관)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1980년 중반 이후)	1인당 비용 추계 방식 (MLR 적용)
Lino et al (2017)	미국	17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Consumer Expenditure Survey (2011-2015)	비목별 상이 (OLS, tobit) ※식비, 의료비는 budget share/ 교통비 등은 1인당 비용추계 등
NATSEM (2013)	호주	학령기 자녀와 부모(여성 연령을 20~59세 제한)로 구성된 가구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09-2010)	Iso-Prop Method
Sarlo (2013)	캐나다	-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2009)	Budget Standard Estimate

주: 1) 제1저자명을 기준으로 ABC 순으로 정리함.

2) CEBR은 Centre of Economic and Business Research의 약어임.

한편, 기 구축이 완료된 국내 통계자료 중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분석에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대상과 조사주기 등 기본적인 조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일반적인 가구의 소비실태를 조사한 자료로, 분석 대상을 자녀 연령으로 분류한 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양육비용을 추정하는데 활용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규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추정된 양육비용은 어떠한 추정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 가구의 특수한 소비행태를 포착해 내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분석이 가능한 자료의 조사 방식 등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양육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방법(조사 방식, 조사 도구, 표본 구축 등)이 무엇인지를 유추해보기 위함이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상당히 복잡한 설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가계 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응답 피로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

려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실태조사가 적용하고 있는 조사 방법 중에서 응답자들의 응답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러한 응답 피로를 감안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내기 위함이다.

국내에서 공공 및 학술 목적으로 원자료가 공개되는 자료 중에서 영유아 가구(영유아기 전 연령)의 소비실태를 포착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며, 대체로 정책연구기관들에서 수행하는 패널 조사의 활용도 가능한 상태이다.

먼저, 양육비용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단위가 매월(가구 상황에 대한 대면조사는 분기별)인데다, 약 9,000 가구 가량의 가구의 생활비 지출을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다만, 이러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방식은 응답 피로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패널조사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통계청은 매년 표본의 1/3을 강제적으로 순환시켜 조사하는 연동패널(Rotating Panel)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16). 이와 같은 연동패널 조사 방식은 연동 지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정패널조사에 비해 응답자 부담이 적고, 새로운 표본의 추가로 모집단의 새로운 개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패널 조건화 효과<sup>1)</sup>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백지선·김재광·민경아·이상기, 2014: 75). 반면, 연동패널조사는 고정패널조사에 비해 추적조사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으나, 연동 주기에 따라 표본 설계 작업 수행이 빈번하며(백지선 외, 2014: 75), 일부 표본의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동 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설계를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통계청은 조사의 어려움과 응답값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소득 부문 조사와 지출 부문 조사로 분리하고, 지출 부문 조사를 매월 1,000가구씩 연간 12,000가구를 조사하는 ‘가계지출조사’로 변경하였다(통계청, 통계별 설명자료, 가계동향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06&inputYear=2017>, 2018. 6. 14 인출). 결과적으로 응

1) 이전 조사 참여에 따른 응답효과로 이전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 응답이 최초 조사자와 체계적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함.

답자는 한 달 동안의 지출을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작성하고, 가구 일반 현황이나 소득, 내구재 등의 연간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연간 조사(69개 품목 및 전년도 소득 등)에 응답함으로써 응답 부담을 덜게 되었다(통계청, 통계별 설명자료, 가계동향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6&inputYear=2017>, 2018. 6. 14 인출).

한편,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이 가구의 생활비 지출을 비목 수준 이상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들 패널조사 자료는 대규모 표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시계열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패널조사 자료별로 차별적인 장점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패널조사로 다수의 코호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과표집 하였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양육비용 연구 시에 표본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재정패널조사’는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 가계 지출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어, 세분된 지출 비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은 영유아 가구가 식별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가계 소비 지출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가구만의 독특한 육아용품 등에 대한 지출 실태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지출 실태를 알 수 있을 뿐 자녀별 양육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점 또한 양육비용 산출 시 한계라 할 것이다.

▣ 표 II-1-3 ▣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 분석 가능 자료의 조사 개요(국내)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표본규모	조사주기 (1차조사)	조사 방법 (조사도구)	패널조사여부 (표본대체여부)	영유아 가구 분리여부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전국 1인 이상의 일반가구	8,700~ 8,800가구	매월 (2008)	가계부 기장, 대면조사	연동표본 (매년 표본의 1/3씩 교체)	영유아 가구 분리가능
가계지출조사 (통계청)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월 1,000가구씩 연간 12,000 가구	매월 (2017)	월조사:가계부 연간:면접	매월 단위 표본교체	영유아 가구 분리가능

(표 II-1-3 계속)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표본규모	조사주기 (1차조사)	조사 방법 (조사도구)	패널조사여부 (표본대체여부)	영유아 가구 분리여부
여성가족패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19세이상 64세이하 여성	9,997명	2년주기 (2007)	대면면접, (CAPI)	패널조사 (대체안함)	연령별로 분리가능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일반가구 및 가구원	5,634가구 (1차+2차)	매년 (2008)	대면면접, (PAPI)	패널조사 (대체안함)	연령별로 분리가능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가구 및 15세이상 개인	통합표본 : 6,721가구 (98표본 : 5,000가구)	매년 (1998)	대면면접, (CAPI)	패널조사 (대체안함, 12차년도 표본추가)	연령별로 분리가능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일반가구 (3,500) /저소득층 가구(3,500)	1차원표본: 7,072가구 (7차추가: 1,800가구)	매년 (2006)	대면면접, (CAPI)	패널조사 (대체안함, 7차년도 표본추가)	연령별로 분리가능

- 주: 1) 가계동향조사의 1차년도 조사시기는 조사명칭이 변경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최초 조사는 1942년부터 시작하여 간헐적으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정례화되었고, 2006년 조사대상이 1인 가구까지 확대되었음.  
 2) 가계지출조사는 가계동향조사의 일부이지만, 조사방식이 크게 변동되었으므로 별도 자료처럼 처리.  
 3) 표본규모는 패널조사의 경우 원표본 기준이며 가장 최근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  
 4) 여성가족패널은 1차와 2차는 1년 주기, 이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  
 5) 표본 대체는 주기적으로 표본을 대체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원표본 혹은 추가 표본 구축 당시 조사 실패에 따른 표본 대체는 제외함.  
 6) 재정패널조사는 향후 CAPI 도입 예정.

- 자료: 1)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2016).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2) 통계청, 통계실명자료, 가계동향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06 & inputYear=2017](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06&inputYear=2017) (2018. 6. 14 인출).  
 2)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 <http://klowf.kwdi.re.kr/content/intro/summary.jsp> (2018. 3. 2 인출).  
 3)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www.kli.re.kr/klips/contents.do?key=144> (2018. 3. 2 인출)  
 4)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probe/sample.do> (2018. 3. 6 인출)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재정패널조사 1~9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안내. pp.1~22.

## 나. 국내외 선행 연구의 양육비용 비목 구성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양육비용에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양육비용의 포괄 범위와 설문 문항 작성의 근거를 유추해보았다. 양육비용의 범주는 연구자별로 상이하나, 식비, 피복비(의류 및 신발),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등은 대부분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양육비용 비목이었다. 또, 보건/의료비, 교육비, 기타 소비지출 등도 다수의 연구에서 양육비용 비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외식비를 식료품비에서 분리하여 조사(이성림, 2007)하거나, 교육비와 보육비를 구분하여 산출하는 경우와 같이 좀 더 세분된 기준을 적용하여 양육비용을

산출한 경우가 있었으며(권미경 외, 2016; 신윤정·김지연, 2010; 이성림, 2010; 한경님, 2010), 교통비, 통신비, 주거/관리비, 수도/광열비, 기기/집기 등의 구매비 등은 연구자에 따라 포함여부가 상이하였다. 특히 가계 전체의 생활비 지출을 통해 양육비용을 추정하는 경우에 주거/관리비와 같이 가구 단위 지출 비용 혹은 주류 및 음주 등 성인의 지출에만 해당하는 비목(김승권, 2010; 신윤정·김지연, 2010; 이성림, 2007; 허경옥, 2007)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영유아 가구의 지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을 위한 지출(예를 들어 분유, 기저귀 등)을 비목보다 더 세분된 품목별로 조사하여 양육비용을 산출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1-4 국내 양육비용 연구의 지출 비목

구분	권미경 외 (2016)	김승권 (2010)	서문희 외 (2010)	신윤정· 김지연 (2010)	이성림 (2007)	이성림 (2010)	한경님 (2010)	허경옥 (2007)
식비	○	○	○	○	○	○	○	○
주류 및 음주				○	○			
주거/관리비		○		○	○			○
수도/광열비		○			○			
기기/집기		○			○			
피복비 (의류 및 신발)	○	○	○	○	○	○	○	○
보건/의료비	○	○	○	○	○	○		○
교육비	○	○		○	○	○	○	○
보육비	○			○		○	○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양/오락비)	○	○	○	○	○	○	○	○
교통비		○		○	○			○
통신비		○		○	○			○
개인유지비 및 기타 소비지출 (영유아용품 및 서비스 포함)	○	○	○	○	○	○		○

주: 1)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동일인의 논문은 연도순으로 정리함.

2) 권미경 외(2016)은 '육아관련 저축 및 보험납입금'을 구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에만 포함된 지표로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이성림(2007)의 경우에는 식비와 별개로 외식비를 세분하여 제시함.

국의 양육비용 연구에 나타난 양육비용의 비목 구분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식료품비와 피복비, 개인유지비 및 기타소비지출 등이 모든 연구에서

활용된 비목 구분 기준이었다. 한편,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와 교통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도 다수의 연구가 비목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주거(월세 등 포함)/관리비나 수도/광열비, 기기/집기 구매비 등은 연구자에 따라 별도의 추정을 통해 양육비용에 포함시킨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반반 정도로 연구자의 ‘양육비용’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외 연구에서도 아동의 양육비용 산출 시에는 성인을 위한 지출(주류 및 음주) 등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거나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표 II-1-5 국외 양육비용 연구의 지출 비목

구분	Bonke & Browning (2011)	CEBR (2015)	Hori (2007)	Lino et al (2017)	NATSEM (2013)	Sarlo (2013)
분석대상 국가	덴마크	영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식비 (외식비)	○ (가구내 식비만)	○	○	○	○	○ (외식비 세분)
주류 및 음주	△					○
주거/관리비			○	○	○	○
수도/광열비			○		○	○
기기/집기		○	○		○	○
피복비 (의류 및 신발)	○	○	○	○	○	○
보건/의료비			○	○	○	○
교육비		○	○	○	○	○
보육비		○		(통합)	○	○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 (세분)	○		○	○
교통비	○		○	○	○	○
개인유지비 및 기타 소비지출 (영유아용품 및 서비스 포함)	○	○ (세분)	○	○	○ (세분)	○ (세분)

- 주: 1) 저자명을 기준으로 ABC순, 동일인의 논문은 연도순으로 정리함.  
 2) 개인유지비 및 기타 소비지출은 영국은 개인유지비, 용돈, 기타소비지출로 세분되며, 호주는 개별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하였고, 캐나다의 경우 기부금을 분리하여 산출함.  
 3) 통신비를 별도 범주로 구분한 연구는 없음.

한편, 가계 지출은 가구 내에서 성인만을 위한 지출, 아동만을 위한 지출, 가구원 공동이 공유하는 지출 등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는데, 통계청의 기존 통계자료



등은 가계 지출이 비목별 총액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의 세부적인 지출을 식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해당 가구에서 식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는 알 수 있으나, 아이를 위한 식비의 비중은 추정을 통해 산출해야 한다. 물론 가계 지출 중에는 경우에 따라 광열비와 같이 아동을 위한 지출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가구원 공동 소비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비용을 추정을 통해 산출함에 따라 어떠한 산출 방식이 보다 정확하게 양육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추정 방식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가계 소비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양육비용은 특정 조건을 갖춘 가구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추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양육 특성이나 소비 성향 등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유사한 가구 특성을 가진 영유아 가구들 중에서도 유기농 이유식을 선호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를 위한 식비 지출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별로 비용이 분리될 수 있는 지출 비용의 경우에는 추정치 뿐 아니라 자녀별 비용 지출 비중 등을 조사하거나 세분된 육아품목에 대한 지출 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사 방식은 응답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육아품목을 선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성공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 된다. 이때, 아동만이 소모하는 육아품목에 대한 견해도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국내 연구 중에서는 서문희 외(2010)가 육아품목으로 24개, 이성림(2010)은 37개, 최윤경, 박진아와 이세원(2013)은 53개 품목을 제시하였다. 서문희 외(2010)와 이성림(2010)이 몇 가지 품목을 묶어서 하나의 품목으로 질문한데 반해, 최윤경 등(2013)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개별 품목 각각의 지출 비용을 질문함에 따라 육아품목의 개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육아품목의 비목 분류 기준도 연구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데, 서문희 외(2010)와 최윤경 등(2013)은 보육비를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용으로 분류한데 반해, 이성림(2010)은 교육/보육비에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을 묻는 등 보다 세분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최윤경 등(2013)은 기저귀,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을 보건/의료비로, 카세트 등을 여가 및 문화생활비로 구분

한 점이 다른 연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또한, 서문희 외(2010)와 최윤경 등(2013)은 산후조리원을 육아품목에 포함시켰으며, 이성림(2010)과 최윤경 등(2013)은 돌 앨범(성장앨범)과 어린이보험 등을 육아품목에 포함시킨 차이가 있었다. 각 연구별로 육아품목의 구성과 분류 방식은 <표 II-1-6>과 같다. 이때, 각 연구별로 육아품목별로 비목 구분 방식이 상이하고 비목 명칭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비목의 구분 방식은 선행연구자의 의도대로 분류하되, 비목 명칭은 용어 통일을 위해 본 연구의 비목 명칭을 사용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본 연구의 비목 구분과 선행연구의 비목 구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육아품목별 비목 구분과 조사 품목은 논의의 전개를 고려하여 뒷 절인 <표 III-2-8>에 제시하였다.

▮ 표 II-1-6 ▮ 선행 연구의 육아품목 목록

구분	서문희 외 (2010)	이성림 (2010)	최윤경 외 (2013)
조사 방식	가계부 기장	항목별 지출비용	가계부 기장
품목 수	24	37	53
식비	분유 당류 및 과자류 이유식	분유 우유 및 요구르트 치즈 쥬스 빵과 과자 기타 간식	우유, 두유 치즈, 요거트 분유 이유식 시리얼
피복비	의류 신발류	내의 일상복 특별복 (드레스, 한복, 발레복 등) 신발	배냇저고리 상의/하의 외투류, 외출복
기기/집기			내의 신발 침대 아기식탁의자
주거비			이불 겉싸개, 속싸개
보건/의료비	영유아 예방접종	예방접종 의료비 영양제/건강식품	비타민 기저귀 물티슈 삼푸, 치약, 칫솔 로션 욕조 유축기 체온계 예방접종비

(표 II-1-6 계속)

구분	서문희 외 (2010)	이성림 (2010)	최윤경 외 (2013)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유아용 학습교재교구	자녀 모임 회비 장난감 도서/DVD 컴퓨터 게임 견학/관람/놀이동산/여행 등 여가활동 생일파티 비용	카세트 유모차 아기띠 보행기
			블록(장난감) 자전거 놀이방매트 돌앨범
교육/보육비 (*서문희 외, 2010과 최윤경·박진아·이세원, 2013은 교육비만 조사)	유치원 교육비 음악학원, 외국어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가족과 친지 아이 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 어린이집/놀이방/직장보육시설 유치원	영유아 학습지 영유아 책 영유아 교재교구 시간제 학원
		사교육(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어학연수, 문화센터, 아가스포츠팀단, 기타)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젓병 및 이유식기		젓병, 젓꼭지 소독기 아기전용세탁세제 어린이 보험 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추가 비용 산후조리원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성림, 2010은 "영유아용품 및 서비스"로 구분)	아기기지귀	기지귀	어린이 보험
	물티슈	물티슈	어린이집 보육료
	목욕위생용품	구강용 물티슈	어린이집 추가 비용
	산모용품	면봉	산후조리원
	승용용품 및 외출용품	학용품	
	보행완구	비누, 샴푸, 바스 등 목욕용품	
	돌, 백일 위탁비용	치약 및 칫솔	
	장난감	로션, 선크림, 오일 파우더 등 미용용품	
산후조리원	이미용 서비스		
보육시설 등 보육비	성장앨범		
	아기 보험료		
	영유아 자녀 관련 선물비		
	가방 및 장신구		

- 주: 1) 선행 연구의 비목 분류 방식을 존중하되, 비목명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가능한 본 연구의 비목명을 사용함. 단, 본 연구의 비목 구분과 선행 연구의 비목 구분이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2) 동일한 품목에 대한 선행 연구간 비목 구분이 상이한 경우는 음영으로 제시함.
- 자료: 1) 서문희 외(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87.  
 2) 이성림(2010) 가계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생활과학, 13, p.5.  
 3)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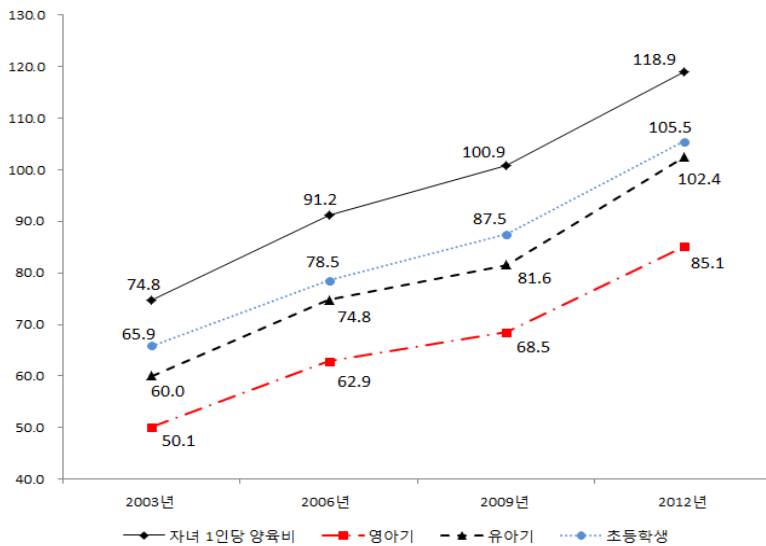
## 2 국내외 양육비용 지출 동향

### 가. 국내 양육비용 지출 동향

자녀 양육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양육 비용을 절감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신윤정·김지연, 2010: 71). 하지만, 양육비용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친 다각적 접근을 요하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 국내 양육비용 연구의 대다수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용을 추정하고 있는데, 횡단면조사이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양육비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2-1]과 같다.

■ 그림 II-2-1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변화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권미경 외(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p.72.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재인용2).

- 2) 원문자료: 1)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4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4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4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p.8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은 원문자료출처로 본 연구는 권미경 외(2016)을 인용함.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육비용은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자녀 연령에 따라 85만1천원부터 118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양육비용 산출 기준이 전년도와 달라 2012년 이전 조사와 결과 값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1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64만8천원, 2자녀 가정 128만6천원, 3자녀 가정 152만9천원으로 나타나(이삼식 외, 2015: 264~265), 가계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조사<sup>3)</sup>’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추정한 연구들도 몇몇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수행되어 최근의 경향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먼저, 박세경(2006: 38)은 2003년 『가계조사』를 이용해 자녀양육비용을 측정하였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항목별 지출액의 총합과 더불어 가족구성원 공동 지출 항목 중 자녀만을 위한 지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등가비율측정법”을 활용하여 자녀양육비용을 측정하였다. 등가비율측정법은 앵겔 지수의 원리를 반영해 부부가족의 총지출 중 식비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가정하는 방법이다(박세경, 2006: 41). 이 연구에서는 총 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 비용을 중심으로 고소득가계와 저소득가계로 구분하고, 자녀가 영아, 유아, 초등, 중고생일 때의 양육비용과 지출대비비율 및 소득대비 비율을 살펴 보았다. 소득과 관련 없이 자녀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양육비용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증가 정도가 고소득 가구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세경, 2006: 42). 0~18세 1자녀 평균 양육비용은 고소득가계의 경우 66만2,050~87만1,060원인데 반해, 저소득 가구의 경우 27만2,053~63만1,332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고소득 가구의 소득수준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지출대비 양육비용 비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박세경, 2006: 42). 또한 자녀수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지출 규모를 살펴본 결과, 2자녀 가구의 경우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이 저소득 가구는 36만3,053원~78만3,900원, 고소득 가구는 58만5,050~134만8,458원 분포를 보였으며, 3자녀 가구의 경우 최고 187만4,683원까지 지출함을 알 수 있다(박세경, 2006: 42). 이러한 추정 방식에 대해 이성림

3) 가계동향조사의 전신인 조사임.

(2007: 3)은 소득수준을 두 집단(고소득과 저소득)으로 양분함으로써 식료품비 비중에 영향을 주는 소득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지 않으며, 식료품비 비율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추정의 타당도와 정밀도가 손상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성립(2007)은 2004년 '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며, 1년 동안 가계부를 기록한 가계만을 포함해, 총 2,553가구를 표본가구로 삼은 다음, GLM분석을 통해 자녀수별 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 수준과 지출 비중의 유의한 차이와 비목별 소비지출 금액과 비중의 소비함수 추정을 통해 자녀수와 연령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수별 균등화 척도로 각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을 조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녀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비목은 식료품비, 교육비, 수도 광열비 세 가지였다(이성립, 2007: 81). 또한 자녀가 없는 부부가계에 비해 유자녀가계에서 소비지출 감소폭이 컸던 비목은 개인유지비였는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유지비의 감소폭도 더욱 커졌다고 보고하였다(이성립, 2007: 82~83).

한편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지출 배분이 증가한 것은 교육비이며,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2세 미만 영아수가 증가할수록, 가구 및 집기, 가사 서비스비 비중은 5세 미만 이하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와 영유아기의 보건의료비, 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집기 및 가사서비스비,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의 통신비는 자녀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비목임을 알 수 있었다(이성립, 2007: 85). 이성립(2007: 89)은 다른 양육비용 추정방법에 비해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지출비목에 주목해 자녀 양육비용을 추정하는 Rothbarth 방법이 엔젤방법이나 Barten-Gorman 방법보다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서문희 외(2010)는 200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영유아 자녀 가구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녀 양육비용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 수가 증가할수록 식료품, 기타상품 및 서비스 항목, 특히 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였다(서문희 외: 2010: 83). 특히 자녀가 처음 출생한 0세와 만 3세 때의 지출 상승이 가장 높는데, 0세 때는 기타상품 서비스(보육료 포함), 보건 관련 지출이 많고, 유아기에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비에서 영유아 양육 전체 가구에서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1인당 8만5천원씩 증

가하는데 반해 맞벌이 가구에서는 자녀 1인인 경우에는 유사한 증가를 보였으나, 자녀가 2인일 때는 일반가구의 1.4배를 교육비에 더 지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2-1 | 선행연구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구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기타																												
서문희 외 (2010)	자녀 1인당 양육비 1명: 85만원 / 2인: 66만원 3명: 53만원	한자녀 가정의 자녀연령별 양육비 추이 영아: 약 90~106만원 유아: 약 127~134만원																												
신윤정·김지연 (2010)	(지출항목별 추계방법) 자녀 1인당 양육비 1명: 월 956,677원 2명: 월 804,092원 3명: 월 635,974원	-																												
이성림 (2007)	(표본평균소비지출수준 기준) 한 달 평균 1명: 약 68만원 2명: 104만원 3명: 118만원	연간비용 1명: 812만원 2명: 1,244만원 3명: 1,415만원																												
김승권·김상철·최영준 (2011)	전체 평균 100.9만원 영아: 68.6만원 유아: 81.6만원 초등: 87.5만원 중학생: 98.2만원 고등학생: 115.4만원 대학생: 141.9만원	부양자녀수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자녀 1명: 115만 2천원 자녀 2명: 100만 6천원 자녀 3명: 84만원 자녀 4명: 66만 6천원 자녀 5명: 40만 8천원																												
한경남 (2010)	가계소득 연 2천만원인 경우, 월평균 최저 424,625원(소득의 28.3%) 가계소득 연 3천6백만원인 경우, 월평균 최고 1,160,510원(소득의 38.7%)																													
허경옥 (2007)	단위: 원(지출 중 양육비 비중)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방법 1</th> <th>방법 2</th> <th>방법 3</th> <th>방법 4</th> </tr> </thead> <tbody> <tr> <td>자녀1인당</td> <td>1,067,753</td> <td>1,036,682</td> <td>-</td> <td rowspan="4">자녀양육생산의 비중이 가정생산의 약 27.3%에 해당됨. 이는 전체 GDP중 자녀양육생산물미 11.0%에 달함.</td> </tr> <tr> <td>전체 평균</td> <td>(48.17%)</td> <td>(46.76%)</td> <td></td> </tr> <tr> <td>한 자녀</td> <td>661,863 (33.33%)</td> <td>647,296 (32.60%)</td> <td>357,207 (18.0%)</td> </tr> <tr> <td>두 자녀</td> <td>1,145,946 (50.00%)</td> <td>1,114,162 (48.61%)</td> <td>688,484 (30.03%)</td> </tr> <tr> <td>세 자녀</td> <td>1,608,915 (66.66%)</td> <td>1,370,289 (56.21%)</td> <td>1,003,621 (41.17%)</td> <td></td> </tr> </tbody> </table>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자녀1인당	1,067,753	1,036,682	-	자녀양육생산의 비중이 가정생산의 약 27.3%에 해당됨. 이는 전체 GDP중 자녀양육생산물미 11.0%에 달함.	전체 평균	(48.17%)	(46.76%)		한 자녀	661,863 (33.33%)	647,296 (32.60%)	357,207 (18.0%)	두 자녀	1,145,946 (50.00%)	1,114,162 (48.61%)	688,484 (30.03%)	세 자녀	1,608,915 (66.66%)	1,370,289 (56.21%)	1,003,621 (41.17%)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자녀1인당	1,067,753	1,036,682	-	자녀양육생산의 비중이 가정생산의 약 27.3%에 해당됨. 이는 전체 GDP중 자녀양육생산물미 11.0%에 달함.																										
전체 평균	(48.17%)	(46.76%)																												
한 자녀	661,863 (33.33%)	647,296 (32.60%)	357,207 (18.0%)																											
두 자녀	1,145,946 (50.00%)	1,114,162 (48.61%)	688,484 (30.03%)																											
세 자녀	1,608,915 (66.66%)	1,370,289 (56.21%)	1,003,621 (41.17%)																											

자료: 1) 서문희 외 (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신윤정·김지연 (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이성림 (2007).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양육 비용과 추정방법. 대한가정학회지, 45(2), 1~14.  
 4) 김승권·김상철·최영준 (201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한경남 (2010).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부담비용 연구-가계소득 연3,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99~318.  
 6) 허경옥 (2007).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2.

신윤정·김지연(2010)은 자녀 연령과 자녀수 및 사회 경제학적 특성(소득수준과 지역, 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양육비용 추계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두당비용 접근법과 지출항목별 추계 방법론을 적용해 한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추계액을 살펴보았는데, 자녀 양육비용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가장 높은 양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박세경, 2006; 서문희 외, 2010; 이성립, 2007)과 마찬가지로 신윤정·김지연(2010: 160)의 연구에서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소되어, 두당 비용 접근법을 적용할 때 두 자녀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월 평균 561,243원인 반면, 세 자녀일 경우 월 평균 321,713원 추가 지출해야 하며, 지출항목별 추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657,507원의 추가 지출비용에서 세 자녀 가계에서는 월평균 299,738원 지출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지출 여력이 많은 높은 소득 계층이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신윤정·김지연, 2010: 162).

한편, 한경님(2010)은 가계소득 연 3,600만원 미만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부담비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만 3-5세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문지를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비용을 추정한 결과 가계소득이 연 2천만원일 때 월평균 최저 424,625원(소득의 28.3%), 가계소득이 연 3천6백만원일 때 월평균 최고 1,160,510원(소득의 38.7%)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님, 2010: 312).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이며, 그 다음이 교육비로 나타나 과도한 교육비지출과 높은 기대교육수준에 대해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한경님, 2010: 313).

허경옥(2007)은 자녀양육비 측정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인 가족구성원의 평균지출 자녀양육비 측정, 지출항목별 자녀양육비 측정, 등가비율 응용 방법(Engel 방법을 응용한 Espenshade 방법, Rothbarth 방법, Barten-Gorman 방법 포함), 자녀양육생산물의 개념을 활용해 추정하고, 각 방법들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새롭게 소개된 자녀양육생산의 개념은 분석에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자녀양



육노동시간과 자녀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소비지출)를 통해 자녀양육이라는 생산물이 발생한다고 보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허경옥, 2007: 30~31). 주로 통계청의 2004년 도시가계조사와 생활시간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조사대상의 한달 평균 소비지출액은 22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두 자녀와 세 자녀 가계의 식비지출 비중이 각각 26% 정도로 16.5%인 한 자녀 가계에 비해 높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허경옥, 2007: 32). 특히 각 방법에 따라 자녀양육비를 다르게 예측하였으며,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등가비율 응용 방법은 최소 자녀양육비 개념으로 활용하여 법정이혼소송과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허경옥, 2007: 19).

이와 같은 최소 자녀 양육비 개념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 김승권·김상철·최영준(2011)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0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조사,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해 양육비를 산정하였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2009년 기준)은 100만 9천원이었으며, 연령별 양육비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비 지출도 증가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약 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양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는 도시(103만 2천원)가 농어촌(87만 5천원)보다 약 18%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승권 외, 2011: 24-25).

## 나. 국외 양육비용 지출 동향

국외의 경우, 자녀를 위한 가계의 평균지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온 점이 특징이며, 특히 자녀수와 자녀 연령, 가계의 소득수준, 가족의 유형(커플가족과 한 부모)을 고려해 양육비용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국외 선행연구들도 대체로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양육비용을 추정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양육비용의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ri(2011)는 일본의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2004-2008년의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 자료를 기반으로 아동당 평균 지출비용을 계산하였다. 전체 소비지출은 0-18세 첫째가 아들인 경우 16,547천엔(둘째 이상이 아들인 경우 5,620천엔), 첫째가 딸인 경우 16,593천엔(둘째 이상이 딸인 경우 5,595천엔)인 것으로 추정되

였다(Hori, 2011: 21~22). 특히 Hori(2011: 23)는 2004~2008년 아동당 가족의 소비 지출 자료와 1984~1988, 1994~1998 자료를 비교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2-2>와 같다. 과거에 비해 2004-2008년에 아동당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총 비용 중 아동에 대한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표 II-2-2 ▣ 일본의 연도별 아동(0-18세)당 가계 소비지출

단위 : 1,000엔

구분	2004-2008			1994-1998			1984-1988		
	1자녀	2자녀	3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아동당 비용	16,570	11,089	9,262	14,300	10,121	8,727	9,195	6,730	5,908
아동에 대한 가계총비용 (부모지출대비)	16,570 (16%)	22,178 (21%)	27,785 (27%)	14,300 (12%)	20,241 (17%)	26,182 (22%)	9,195 (9%)	13,459 (13%)	17,724 (18%)

자료: Hori, M.(2011)의 The expenditure on children in Japan.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279. p.23 표 중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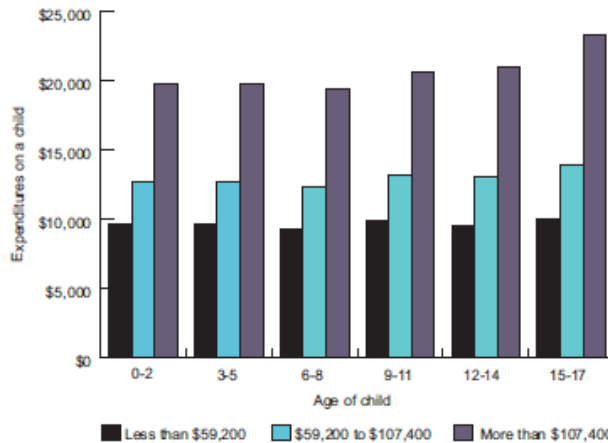
한편, 미국 아동에 대한 소비실태를 조사한 Lino 등(2017)은 미국 인구관리국에서 수행하는 2011~2015년 소비지출 조사 인터뷰(CE)에 포함된 아동에 대한 소비 지출 추정에 사용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구의 세전 소득을 세 개 유형(\$59,200이하 가구, \$59,200~\$107,400 가구, \$107,400 이상 가구)으로 구분하고 아동의 연령과 수입 수준 대비 아동에 대한 가구의 소비지출을 살펴보았다. Lino 등(2017: 10)의 자료에서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년 소비범위가 \$59,200이하 가구에서는 한 아동당 '\$9,330~\$9,980' 범위의 지출을, 가구소득이 \$59,200~\$107,400인 가구에서는 매년 아동에 대해 '\$12,350~\$13,900' 범위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107,400이상인 경우에는 '\$19,380~\$23,380' 정도를 한 아동에게 대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입이 가장 낮은 가구의 경우 한 아동에게 27%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은 16%, 고소득은 11% 정도의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출되는 항목의 비율이 달라졌는데,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한 아동에 대한 아동보육과 교육비용이 가장 높게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Lino et al, 2017: 12).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 중 한부모 가족과 커플가족의 비용 지출을 비교해 본 결과 18세까지 아동 당 총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17만 \$정도로 유사하였으나, 커플가족들의 수입이 평균 \$36,300인데 반해 한부모

가족의 수입 평균은 \$24,400인 것으로 나타났다(Lino et al, 2017: 13).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커플 가족과 한부모 가족 사이에 아동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른 연 지출 비용을 추정하였다.

■ 그림 II-2-2 ■ 미국의 2015년 수입 수준 및 아동연령에 따른 한 아동당 가족 지출

단위 : \$



자료: Lino, M., Kuczynski, K., Rodriguez, N., & Schap, T. (2017).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15. USDA 의 p.10 그림을 재인용함.

한편, Sarlo(2013)는 예산표준추정(Budget Standard Estimate) 방식을 사용해 자녀양육비용의 국제적(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추정을 소개하였다. 비목은 식비, 의류비, 개인 유지비, 생활용품비, 개인 여가 및 교육비로 구분되었으며, 양부모가족을 기준으로 4세와 12세 자녀의 양육비용을 비교하였다. 각 나라별로 포함되는 비목과 대상 연령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연간 자녀양육비용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arlo(2013)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은 만 4세와 12세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추정하였는데, 4세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 자녀 당 캐나다는 2,264달러(한화 약 2,488,553원, 2018. 6. 16일 기준 1,099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미국은 8,810달러(한화 약 9,4682,190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주거비, 교통비와 보건의료비, 아동보육과 교육비가 포함된 비용으로 캐나다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거비와 아동보육비용을 포함한 경우는 9,463.17달러(한화 약 10,191,834원)인데 반해 아동보육비용을 제외했을 때는 4,921달러(한화 약 5,408,486원)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국가별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용

단위 : \$(연간)

대상국가	4세(영국3세)	12세(영국14세)	자료
캐나다	2,264.38	4,115.04	Montreal Diet Dispensary(MDD)가 매해 제공하는 “최소적정비용기준:에 따름
미국	5,860 [8,810]	6,650 [9,600]	USDA 매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Housing을 제외. 교통비와 보건의료비, 아동보육과 교육비 포함 [Housing 포함값]
영국	4,921.28 [7,314.11/ 9,463.17]	7,484.67 [9,671,17]	Oldfield & Bradshaw(2011)의 자료 활용 housing 비용과 아동보육 비용 제외 [아동보육비용만 포함/두 비용 모두 포함]
호주	6세의 경우 (housing 제외하고) 약 5,000달러 추정, 보육비용도 제외하면 약 3,600달러		P. Henman(2005)의 자료 인용

자료: Sarlo, C. (2013).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Fraser Institute, pp.32-38의 내용을 정리한 표임.

각 국가마다 자녀양육비를 추정한 자료와 연령 및 근거가 달라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김승권(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아 1인당 양육비용(월 68만6천원)을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약 823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비용이 적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주거관리비와 아동보육에 지출되는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Sarlo, 2013: 34~36)는 점을 고려해 자녀 양육비용의 비목별 지출 비용과 주거관리비와 보육 및 교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자녀수, 자녀 연령, 가족의 형태, 가계 수입 등을 고려한 양육비용 추정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비용 예측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Hori, 2011)의 경우 자녀의 성별과 출생 순위에 따른 양육비용의 예측도 고려하고 있어, 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별 양육비용에 대한 예측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국내 양육비용 지원 정책 개관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된 국내의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양육비용이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또한 다양한 분야와 양상을 띠고 있어, 논의의 집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를 직접적 수혜자로 하는 비용적 측면에서의 지원 정책으로 국한하여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로 임신·출산기와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한편, 정책 지원 현황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중앙정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양육비용 비목을 중심으로 정책 목적에 따라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크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보편 지원 여부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비용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일부의 경우라도 소득에 따른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생애 주기에 따라서는 임신·출산기에는 주로 보건의료비 지원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그 외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있었다. 임신·출산기의 지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요양비(출산비) 지원이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지원 정책이었으며, 대부분의 보건 의료비 지원 정책도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자녀가 태어나 영유아기에는 임신·출산기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실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교육·보육비용(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정책으로는 만 12세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그리고 시간연장형보육 등의 지원 사업이 있었다. 즉,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로 교

육·보육비와 보건의료비가 보편적 지원의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이상의 보편적 지원에 더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서는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비용 지원 측면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체는 모든 가구에 대해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원 정책<sup>4)</sup> 또한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의 성격을 갖지만, 지원 대상을 전체 가구소득의 9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분히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비용 지원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으로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거하여 다자녀가구에게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하며,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상향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또한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 등의 지원이 있으며, 교통 통신비와 관련하여서는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TV수신료 감면 등의 지원이 있다. 세제지원 정책으로는 연말정산시의 자녀 세액 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이 있다. 단,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주택공급,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상향 및 우대금리 적용과 같은 주택 지원 정책이나, 공공요금 감면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영유아 가구에만 국한된 지원 정책은 아니다. 한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 등의 주거비 지원 정책 등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sup>5)</sup>이기도 하다.

4) 아동수당 지원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므로, 실태조사가 진행된 2018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시행 이전의 정책임.

5)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감면 등은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

표 II-3-1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지원 정책

생애 주기	비목	지원 방식	보편 지원 (소득 무관)	선별 지원 (소득 차등, 다자녀 등)
임신 출산기	보건 의료비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현금	요양비(출산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출산비용지원,
		물품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
	식비	물품	-	영양 플러스
	개인유지비	바우처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영유아 가구	보건 의료비	현금	만 12세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금+물품	선정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교육 보육비	바우처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시간연장형보육	<u>아이돌봄서비스</u>
		현금	가정양육수당	<u>아동수당</u>
	주거비	감면	-	공공주택특별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한 및 우 대 금리 적용,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
	교통 통신비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감면
	세제지원	감면	자녀 세액 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동차취득세 감면

주: 1)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은 소득과 무관하지만 비용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으므로, 비용 지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분류함.  
 2) 아동수당은 전체가구의 90%이하인 경우에 모두 수급 가능하므로 보편적 지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득 차등으로 분류함.  
 3) 세제 지원은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으로 포함하여 살펴보았으나, 1차년도 실태조사 및 양육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p.8~9, p.15~17.  
 2)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 (2018. 3. 13. 인출).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 (2018. 3. 13. 인출).  
 4)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90~98, p.111~115.

- 5)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llid=01&searchCtgld=999&wellInfSno=326&pageGb=1&domainName=&firstIndex=2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 3. 14. 인출).
- 6)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 (2018. 3. 14. 인출).
- 7)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8. 3. 14. 인출).
- 8)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보육료.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8. 3. 14. 인출).
- 9)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유아학비.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2018. 3. 14. 인출).
- 10)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유아학비란?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2018. 3. 14. 인출).
- 11)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금 안내.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18. 3. 14. 인출).
- 12)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절차 안내.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3.do> (2018. 3. 14. 인출).
- 13)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2018. 3. 14. 인출).
- 14)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childCare.do?p\\_sn=64](http://www.voucher.go.kr/voucher/childCare.do?p_sn=64) (2018. 3. 14. 인출).
- 15)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296> (2018. 3. 14. 인출).
- 16) 한겨레(2018. 2. 23.). 국회, '10% 제외 아동수당' 사실상 확정...15만명 못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3389.html> (2018. 2. 26. 검색).
- 17)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서비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iew.do> (2018. 3. 15. 인출).
- 18)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Detail.do?searchIntCllid=02&searchCnDivCd=&wellInfSno=43&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ld=999&pageGb=1&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list&wellSrvTypeCd=01&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lid=&key1=43&stsfCn=> (2018. 4. 3. 인출).
- 19)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4.do> (2018. 3. 14. 인출).

이하에서는 영유아 가구 및 임신·출산기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양육비용 비목별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 보건/의료비 지원

먼저 보건/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임신·출산기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비용지원, 영양비(출산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이 대표적인 임신·출산 관련 보건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임신 출산 중의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 중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이며, 그 외의 중앙정부 지원 정책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원칙이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이용하여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이 있으며, 현금을 지원(개인 통장 입금, 영수증 제출 후 환급 등)하는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요양비(출산비)지원으로 나타났다.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은 보건소에서 물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은 <표 II-3-2>에 정리하였다.

표 II-3-2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

지원 정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소득 무관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 지급(단체아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받음. 이용가능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후 분만 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2)난임부부 시술지원	소득 차등	현금 지원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4회, 1회 최대 50만원
3)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소득 차등	현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임신 20주 이후)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90% 1인당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
4)출산 비용지원	소득 차등	현금 지원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후에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도 해당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아이 1명당 60만원 지원(쌍둥이는 120만원) 여성장애인(1~6급) 아이 1명당 100만원
5)요양비 (출산비) 지원	소득 무관	현금 지원	병원, 의원, 조산소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표 II-3-2 계속)

지원 정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6)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소득 차등	바우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산모 가정 (예외: 특수가정(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대상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 상이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최소 5일~최대 25일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 금액: 국가 지원금 기준 가격(단태아=102,000원; 쌍태아=130,000원; 삼태아 및 중증질환, 장애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152,800원)을 바탕으로 바우처 지급.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 기간: 단태아=출생순위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0일; 쌍태아=출생순위에 따라 최소10~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출생순위 상관없이 최소 15~최대25일 이용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 (예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7)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소득 무관	물품 지급	보건소에 임신을 등록한 임산부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 지급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 지급

자료: 1)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p. 8.;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 (2018. 3. 13. 인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 (2018. 3. 13. 인출).  
 2)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90.;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Id=01&searchCtgId=999&wellInfSno=326&pageGb=1&domainName=&firstIndex=2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 3. 14. 인출).  
 3)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98.  
 4)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94.;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p. 9.  
 5)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95.  
 6)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VouView2.do> (2018. 3. 14. 인출).  
 7)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91.

중앙정부 차원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 외에 활발하게 추진 중인 정책 분야로 보건/의료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영유아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으로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아동입원진료비 지원 등이 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은 가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그 외의 영유아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현금 지원과 물품 지원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외의 지원은 모두 현금 지원(무료 서비스 제공)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등은 <표 II-3-3>에 정리하였다.

표 II-3-3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건/의료비 지원 정책

사업명	소득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소득 무관	현금지원 및 물품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전 신생아 대상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검사(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무료 지원 -환아 관리: 정밀검사 비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제공
2)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소득 차등	현금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급, 재검 시 난청학진검사비 지급
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차등	현금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다자녀가구(3인 이상) 가구 출생 신생아는 소득 상관없이 무료지원	-미숙아 입원치료비: 미숙아의 조건 따라 최대 500만원(2.0-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에서 1000만원(1.5.kg 미만) 지원 -선천성 이상아 입원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치료비: 미숙아의 조건에 따라 최대 1000만원(2.0-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에서 1500만원(1.5.kg 미만)지원
4)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소득 무관	현금지원	만 12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16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인두유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표 II-3-3 계속)

사업명	소득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5)영유아 건강검진	소득 무관	현금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18-24개월, 42-48개월, 54-60개월) 비용 지원
6)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소득 무관	현금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	-출생 후 28일 이내 영유아: 전액면제 -출생 후 28일 이후-만6세 미만 아동: 본인 부담금 10%면제

- 자료: 1)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p. 15.;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11.  
 2)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11.  
 3)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p. 15-16.;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12.  
 4)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p. 17.;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14.  
 5)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p. 16.;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15.  
 6)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15.

## 나. 교육/보육비 지원

영유아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으로는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지급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이 있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서비스 이용 대상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지만,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다.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수당은 당초에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2월 국회에서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90%만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지으며 선별수당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7. 12. 6.; 한겨레, 2018. 2. 23.).

취학 전 만 84개월의 미취학 아동 중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양육 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역시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8. 3. 14. 인출). 보육료 지원은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만 0-5세,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등은 <표 II-3-4>에 정리하였다. 다만,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은 '연구과제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주로 다루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용과 관련해서 간략히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표 II-3-4 중앙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정책

사업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양육수당	소득 무관	현금 지원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지원 금액: 자녀 월령과 거주 지역, 장애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됨.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 지급 지원 기간: 신청한 달부터 아동 취학 전 연령 12개월까지 수당지급일: 통장 입금 매월 25일
2)보육료 지원	소득 무관	아이 행복 카드 결제	만 0-5세 아동 대상 (소득무관 전 계층 대상)	- 어린이집(0~2세) 종일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지원 대상: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이용시간: 7:30 ~ 19:30 (일 12시간) - 어린이집(0~2세) 맞춤형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지원 대상: 종일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이용시간: 9:00 ~ 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만 3~5세 보육료 연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지원 금액: 연령과 보육시간별 차등 지원. 최대 441,000원
3)유아학비지원	소득 무관	아이 행복 카드 결제	유치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	지원 금액: 교육과정 지원금 - 국공립 월 6만원, 사립 월 22만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표 II-3-4 계속)

사업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4)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 자체 :소득 무관 지원금 :소득 차등	국민 행복 카드 바우처	시간제 돌봄: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 양육 가정 기관파견 돌봄: 만 0세-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 시간제 돌봄(일반형): 1회 2시간 이상 사용, 임시보육, 놀이, 급간식, 하원, 준비물 보조해주며, 가시활동 제외, 시간당 7,800원이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정부지원 있음). - 시간제 돌봄(종합형): 가사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시간당 10,140원 - 종일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월 200시간 기준 아동 당 156만원,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171만 6천원.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따라 차등적용 - 기관파견 돌봄: 기관 내 아동 돌봄 보조. 시간당 12,600원 -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소득 상관없이 50%정부지원 받음. 시간당 9,360원 (정부지원 4,680원, 부모부담 4,680원)
5)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소득 무관	바우처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시간연장 보육료: 일반아동 시간당 3000원(지원한도액 180,000원), 장애아동 4000원(240,000원), 이용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월 60시간제한 - 야간 보육료: 연령 따라 441,000-220,000원선 - 24시간 보육료: 연령 따라 661,500-330,000원선 - 휴일보육료(토요일 제외): 정부지원 일보육료*150% 지원
6)아동 수당	소득 차등	현금 지원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90%이하인 가정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자료: 1)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8. 3. 14. 인출)  
 2)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보육료.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8. 3. 14. 인출)  
 3)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유아학비.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2018. 3. 14. 인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유아학비란?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2018. 3. 14. 인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금 안내.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18. 3. 14. 인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절차 안내.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3.do> (2018. 3. 14. 인출)  
 4)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2018. 3. 14. 인출);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childCare.do?p\\_sn=64](http://www.voucher.go.kr/voucher/childCare.do?p_sn=64) (2018. 3. 14. 인출)

- 5)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296> (2018. 3. 14. 인출)
- 6)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17. 8. 16.).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41087&FILE\\_SEQ=211369](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41087&FILE_SEQ=211369) (2018. 3. 14.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17. 12. 6.).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힘. [http://www.mohw.go.kr/m/common/board\\_file\\_dn.jsp?BOARD\\_ID=145&CONT\\_SEQ=343051&FILE\\_SEQ=219315](http://www.mohw.go.kr/m/common/board_file_dn.jsp?BOARD_ID=145&CONT_SEQ=343051&FILE_SEQ=219315) (2018. 3. 14. 인출); 한겨레(2018. 2. 23.); 국회, '10% 제외 아동수당' 사실상 확정...15만명 못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3389.html> (2018. 2. 26. 검색)

### 다. 식비 지원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 중 식비 지원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영양플러스가 있다. 영양플러스는 기준중위소득 80%미만 가구 중에서 영양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임산부, 수유부가 있거나,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다른 현금지원과 다르게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80%미만인 경우에는 식품비 중 10%에 대해 대상 가구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2017: 92).

표 II-3-5 중앙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식비 지원 정책

지원 정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영양 플러스	소득 차등	물품 지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중 혹은 수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 영유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양보충 식품 제공(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인 경우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92.

### 라. 주거비 지원

주거 지원 제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공공주택 우선공급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거하여 민법상 자녀가 3명이상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0%의 공공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을 고려하여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15% 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다자녀특별공급 대상은 무주

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이며, 자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방법의 재산등급 25등급의 상하한의 값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이고, 자동차의 경우 '2,750만원×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대한 조항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입양한 경우 포함)는 공급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특혜를 준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43조).

다음으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통해서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3자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전세자금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만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은 다자녀 가구는 대출 자금 한도를 2천만원 더 높여주고,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확대 지원한다.

한편,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은 모두 대상자의 소득/조건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라진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에 따라 감면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전기요금은 월 8,000원(차상위계층)에서 월 16,000원(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1~3급 장애인) 선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 지원 폭이 더 높다. 도시가스 역시 사회 계층별, 계절별 감면가격이 상이하다. 지역난방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가 월 1만원, 그 외의 지원 대상들은 월 5,000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주거비 요금감면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 혹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서비스. <http://online.boj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2018. 3. 15. 인출).

한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 등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지원 정책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은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최효미·김아름·조숙인·윤지연, 2017: 55), 2018년 기준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32>, 2018. 6.29 인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취사용 420



원, 취난점용은 동절기 6,000원, 기타 월에는 1,650원이 지원 된다(서울도시가스, <http://www.seoulgas.co.kr/>, 2018. 6. 29 인출).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최효미 외, 2017: 55-56).

표 II-3-6 중앙정부의 주거비 지원 정책

사업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 공공 주택 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공공 주택 우선 공급	다자녀특별공급의 지원대상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자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의 재산 25등급 금액의 상,하한의 평균이하이고, 자동차는 '2,750만원×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공주택의 10%를 3자녀 이상의 가구에 우선공급. (지역별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을 고려하여 15% 내에서 확대가능)
2) 전세 자금 대출	소득 기준 적용	대출한도 상한 및 적용우대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	저금리 (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3자녀 이상 가정은 대출한도에서 2천만원 상향가능하며, 0.5%p 우대금리 적용
3) 전기 요금 감면	소득 차등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최대 16,000원/월 여름 최대 20,000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최대 10,000원/월 여름 최대 12,000원 감면
			차상위계층	최대 8,000원/월 여름 최대 10,000원 감면
			1~3급 장애인	최대 16,000원/월 여름 최대 20,000원 감면
다자녀	요금 감면	대가족/다자녀 가구	최대 16,000원/월 해당월 요금의 30%	



(표 II-3-6 계속)

사업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4)도시 가스 요금 감면	소득 차등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취사용: 1,680원,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취사용: 840원 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취사용: 420원 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차상위계층	취사용: 840원 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1~3급 장애인	취사용: 1,680원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다자녀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취사용: 420원 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5)지역 난방비 감면	소득 차등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5,000원/월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5,000원/월
			1~3급 장애인	5,000원/월

- 자료: 1)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공공주택 공급,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lId=13&searchCtgId=999&wellInfSno=147&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3&searchGb=01&searchWel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8.16. 인출).
- 2)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lId=13&searchCtgId=055&wellInfSno=12396&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3&searchGb=01&searchWel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8.16. 인출).
- 3)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서비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xServView.do> (2018. 3. 15. 인출).
- 4)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32> (2018. 6. 29 인출).
- 5) 서울도시가스, <http://www.seulgas.co.kr/> (2018. 6. 29 인출).

## 마. 교통/통신비 지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통/통신비 절감을 위한 지원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TV수신료 감면이 있다. 주거비 요금감면서비스와 더불어 이들 서비스도 소득수준과 장애여부에 따라 감면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할인의 구조로 제공된다. TV수신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와 시청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TV수신료 감면 역시 주거비 요금감면서비스와 같이 본인, 가족 혹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서비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2018. 3. 15. 인출).

표 II-3-7 | 교통/통신비 지원 정책

지원정책	소득 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이동통신요금 감면	소득 차등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기본료면제 (26,000원 한도) 통화료 50% 할인(총 30,000원 한도) 최대 33,500원/월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기본료면제 (11,000원 한도) 통화료 35% 할인 (총 30,000원 한도) 최대 21,500원/월 감면, 가구당 최대 4 회선 감면 가능
			차상위계층	기본료면제 (11,000원 한도) 통화료 35% 할인 (총 30,000원 한도) 최대 21,500원/월 감면, 가구당 최대 4 회선 감면 가능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TV수신료 감면	소득 차등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	면제

자료: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서비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2018. 3. 15. 인출).

## 바. 세제 지원

한편, 양육비용 산출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반적인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 지원 제도로서의 세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소득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있다. 자녀세액공제 지원제도는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표 II-3-8 세제 지원

사업명	소득조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자녀 세액공제	소득무관	세액공제	유자녀 가구	연말정산시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포함)신고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국민연금출산크레딧	소득무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자녀수 2인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마다 18개월을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추가 인정함
3)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감면	소득무관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승차정원이 7명미만 승용 자동차는140만원까지 경감

-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1126.6.2.1.2896133> (2018.8.16. 인출).  
 2)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fSno=26> (2018.8.16. 인출).  
 3) 정부24, 정부서비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1200000008> (2018. 8. 16. 인출).

한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도 세제 지원제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최장 50개월)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최장기간인 50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게 된다. 이때 부모가 모두 가입자인 경우는 합의 하에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지만,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모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

이외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다. 이것은 다자녀가구 즉,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ART I

# KICCE 소비실태조사

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 III

##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1.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2. 설문지 구성
3. 표본 특성





### Ⅲ.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설문 개발 과정, 그리고 표본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단, 앞서 누차 상술했던 바와 같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3개의 연구과제가 통합적으로 하나의 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설계 및 표본 특성 등의 내용은 3개 과제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반면, 설문과 관련된 내용은 설문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머지 2개 연구과제<sup>1)</sup>와 관련한 설문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주로 양육비용 연구와 관련된 설문 개발 과정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 1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sup>2)</sup>

이 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등을 개관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이 조사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임을 전제 한 상태에서 1차년도 조사 설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총 3개 연구과제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통합한 형태로 크게 본조사 1회와 온라인조사 1회 총 2회의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본조사의 경우에는 매년 시의성을 반영하여 설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나가며 향후 5년 동안 수행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계열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연동 패널 조사 방식 등을 응용하여, 해마다 동일한 조사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코자 한다. 다만, 자녀 연령이 증가해감에 따

1) 연구과제2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과제3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를 의미함.  
2) 이 절의 내용은 연구과제 특성상 묶음과제인 연구과제2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과제3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에서도 연구보고서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조사 설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되거나 인용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임.

라 매년 신생아 표본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조사구 소멸 등에 대응하여 일부 조사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의 소비실태조사가 적용하였던 조사 방식인 로테이션 패널 조사 방식을 응용하여, 매년 표본(조사구)의 일부를 교체 혹은 추가하는 형태의 조사를 통해 대표성과 시제열 연속성 모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사를 기획하였다.

## 가. 조사 대상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목표 표본은 가구 내 한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1,625가구 및 가구 내 영유아 자녀 전체였다. 이때, 해당 가구 내에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단위 조사에서는 이들의 소비지출의 전반적 행태가 가구 조사로 통합되어 파악되지만, 아동 단위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양육비용 등의 설문은 가구 단위 지출을 질문하는데 반해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와 관련된 설문의 경우에는 아동 단위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 따른 것이다. 즉, 모든 조사 대상은 가구 단위 설문과 최소한 1개 이상의 아동 단위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유아 자녀의 수만큼 아동 단위 설문의 개수가 추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이들 가구 안에서 특정 연령의 자녀가 편중되어 조사될 경우 각 연령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양육비용 또한 편향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표본 구축 시 자녀 연령별로 할당을 주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막내 자녀를 원표본 자녀로 설정하여, 이 자녀를 기준으로 원표본 가구를 정의하였다. 즉, 원표본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세 이후 각 연령별로 250명씩 1,500가구(혹은 명)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2018년 신생아 가구의 경우에는 면접원들의 접촉 자체가 어렵고 매년 6월~8월 중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상반기 출생아로 조사 대상이 국한되는 문제가 있어 출생 당해연도에는 표본을 125가구로 설정하였으며, 2019년 2차년도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뿐 아니라 하반기 신생아를 고려하여 2018년생에 대한 추가적인 표집(최소 125가구)을 통해 표본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사를 설계하였다.

최종적인 응답 가구 수는 1,648가구였으며, 아동 단위 영유아 수는 2,277명이었다. 원표본 가구 수는 목표 가구 수보다 23가구가 더 조사되었으며, 표집 당시

의 가구 특성(지역규모, 막내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등)에 맞추어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때, 원표본 가구는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2018년생인 가구는 127가구, 1세 265가구 등이었으며, 4세(2014년생)과 6세(2012년생) 표본이 각 240, 248가구로 목표표본보다 살짝 적게 조사되었다.

한편, 원표본 자녀 연령은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응답된 영유아 표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측치가 많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연령별 영유아의 수는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0세 127명, 1세 268명, 2세 294명, 3세 355명, 4세 369명, 5세 403명, 6세 461명이었다.

▣ 표 III-1-1 ▣ KICCE 소비실태조사 목표 표집 수 및 조사결과

단위 : 가구, 명

원표본 자녀 연령 (생활연령 기준)	목표 표본 가구 (원표본 자녀)	조사 결과	
		원표본 가구 (막내자녀 기준)	전체 영유아 표본
0세 (2018년생)	125	127	127
1세 (2017년생)	250	265	268
2세 (2016년생)	250	255	294
3세 (2015년생)	250	256	355
4세 (2014년생)	250	240	369
5세 (2013년생)	250	257	403
6세 (2012년생)	250	248	461
전 체	1,625	1,648	2,277

주: 신생아 표본은 조사시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연령의 절반을 목표표본으로 하였으며, 차년도에 125가구 추가 표집할 예정이다.

## 나. 원표본 정의 및 추적 원칙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원표본 가구(조사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때, 원표본 가구란 1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에 응답한 표본 가구를 의미한다. 다만, 원표본 가구 내에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 첫해<sup>3)</sup> 기준 막내 자녀를 원표본 자녀로 지정하여, 원표본 자녀가 응답 대상 연령(2018년 기준 미취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혹은 조사구)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한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생활연령 기준만 6세(2012년생)와 만 3세(2015년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원표본 자녀는 만3

3) 0세아 및 조사구가 대체된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 조사가 첫째 조사에 해당될 수 있음.

세(2015년생) 자녀가 되며, 2019년도 2차년도 조사가 영유아 자녀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면 이 가구는 2차년도에 조사를 실시하되 6세(2012년생)아의 아동 설문을 조사하지 않는다. 한편, 해당 가구에 2019년도 초 신생아 출산으로 막내 자녀가 변동된 경우에도, 원표본 자녀는 만3세아(2015년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원표본 추적 원칙이 일반적인 가구 혹은 개인 패널 조사와 다른 부분은 특정 가구(혹은 개인)를 추적 한다기보다는 조사구의 가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패널조사 방식의 장점과 가구가 아닌 특정 주소지의 거주자를 원표본으로 하는 로테이션 패널 조사 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것으로, 원표본이 해당 조사구 내에서 완전히 이탈된 경우에는 더 이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구 내의 다른 가구로 대체되게 함으로써 패널 유지 및 표본 마모에 따른 관리 부담을 감소시킨 반면, 해마다 새롭게 조사 대상을 구축함에 따르는 노력과 자료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 III-1-2 KICCE 소비실태조사 연차별 원표본 자녀 연령

출생년도	조사년도 (조사차수)				
	2018년(1차)	2019년(2차)	2020년(3차)	2021년(4차)	2022년(5차)
2012년생	6세	7세	8세	9세	10세
2013년생	5세	6세	7세	8세	9세
2014년생	4세	5세	6세	7세	8세
2015년생	3세	4세	5세	6세	7세
2016년생	2세	3세	4세	5세	6세
2017년생	1세	2세	3세	4세	5세
2018년생	0세	1세	2세	3세	4세
2019년생		0세	1세	2세	3세
2020년생			0세	1세	2세
2021년생				0세	1세
2022년생					0세

주: 1) 셀 안은 조사차수별로 만 나이(생활연령 기준)를 의미함.

2) 조사 시점(6월~8월)을 감안하여 매해 0세와 1세(음영 부분) 표본을 신규로 추가함.

한편, 2차년도 이후의 연구 범위 및 조사 대상의 확장을 본 연구에서 논하기 어렵긴 하지만, 본 연구는 초등기 진입 이후에도 원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 중단 없이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1차년도 표본 및 조사를 설계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해 전년도 신생아 표본을 125가구씩 추가하여 조사를 확장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설계 방식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연차별 원표본 자녀의 연령은 2022년 5차년도 조사에서는 만 10세 초등 4학년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구를 고정한 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원표본 가구를 추적 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주소지 변경이 빈번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원표본이 매해 조사마다 이탈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응답자들의 응답 거부로 인한 표본 마모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본 연구의 표본은 원표본 자녀 기준 각 연령별로 25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의 마모가 데이터의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대규모 가계지출조사 등에서 적용되었던 로테이션 패널 조사 방식을 응용하여, 향후 5년간 원표본 가구가 지정된 조사구 내에서 완전히 이탈된 경우 조사구 내의 다른 가구로 표본을 대체하도록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구를 기준으로 한 패널 조사의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가 패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경우는 해당 주소지에 원표본 가구가 이사를 간 이후 새로 이사 온 가구에 영유아 자녀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조사구를 지정하였다.

표 III-1-3 KICCE 소비실태조사 원표본 가구(1차, 2차 예시)

조사년도	조사구 집단 번호								
	1	2	3	4	5	6	7	8	9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주: 1) 조사구를 블록으로 지정하여 연차별로 로테이션 되는 구조이며, 조사가구 블록 안에 조사구의 수는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음. 연도별로 전년대비 최소 80%이상의 조사구를 그대로 지정함.  
 2) 조사구가 유지된 지역에 거주하는 패널 가구는 최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을 유지하되, 조사구를 벗어나서 이사한 경우는 조사구 내 다른 가구로 대체함. 새롭게 조사구가 추가된 블록의 경우에는 새롭게 패널 가구를 구축함.

이때 원표본 가구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해당 조사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널 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원표본 가구를 찾아가 조사한다. 한편, 조사구 자체가 사라지거나 조사구에 남아 있는 원표본의 수가 적정 수준 미만인

로 적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구를 선정하여 기존 조사구를 대체하도록 하되, 조사구의 변경은 매해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5년을 기준으로 조사구의 변동이 1주기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 구성 방식은 횡단면 자료로서도 적정 수준의 표본 수를 유지하면서, 자료의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sup>4)</sup>.

## 다. 조사 방법 및 조사 도구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는 본조사 1회와 온라인 조사 1회로 구성되는데, 본조사는 표본 구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면접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온라인 조사는 면접조사인 본조사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응답자 편의를 고려하여 본조사 실시 후 동일한 표본에 대해 실시된다.

### 1) 본조사

본조사는 2018년 6월11일~8월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가구의 구축 과정이 포함됐다. 본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표집 단위가 되는 지역에 방문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탐색하여 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적 대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사 도구는 태블릿PC로,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이 다양한 비용 조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설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즉, 가구의 생활비 지출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응답 가구가 세세한 항목별 비용을 정확한 비목으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육아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해당 부문의 설문 문항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가구 내 응답 대상 자녀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 양육비용이 특이 값을 갖는 경우 이를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컴퓨터에 비해서는 지참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단, TAPI 조사의 경우 종이설문에 비해 자료 입력 등의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조사 자료의 신

---

4)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연도 원표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열 및 패널 자료 분석은 가능함.



회도가 제고되는 등의 장점에 비해 면접조사 시간이 길어짐에 따르는 응답자의 응답 피로가 가중될 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표본 구축을 포함하는 1차년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피로가 가중되는 TAPI조사 방식을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응답 시간을 한 자녀가 있는 가구 기준 40분(두 자녀 이상 1시간 이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 응답자 혼자서도 자가 응답이 가능하고 자료의 오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문항은 온라인 조사를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확한 응답과 응답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해 양육비용의 분류 기준 등을 포함하여 실제 태블릿PC로 시연하는 면접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2)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는 주로 세부적인 육아용품의 구매 경험과 공유경제 경험, 체감 물가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조사의 경우 본조사가 완료된 후 응답자에게 자가 응답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조사의 응답 표본 전체가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즉, 온라인 조사 응답자 표본이 본조사 원표본의 수보다 작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소한 온라인 조사 성공률을 90%내외로 설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온라인 접속 등을 위한 추가 조사에 대한 응답 부담으로 인해 종이 설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더 희망하는 경우 종이설문(면접조사)를 통해 온라인 조사 설문을 응답하도록 하여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였다.

## 라. 표집 방법

조사를 위한 목표 표본은 1,625가구로, 전국의 영유아 가구에 대한 모집단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사구 표집 등의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최종표집 블록을 정한 후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면접원이 탐색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쉽게 바꾸어 말하자면, 특정 읍면동 내에서 지리적 범위를 한정 지은 상태로 해당 지역별 할당 가구를 배치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임의로 조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sup>5)</sup>. 지역별 표집 블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 영유아 아동 수, 영유아 연령, 지역규모 등을 반영하여 비례 확률 표집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조사구는 향후 로테이션 패널조사의 근간이 되는 지역 구분 단위에 해당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만으로 표집 조건을 설정할 경우 주간 시간대 접촉 확률이 높은 영유아 가구만이 조사대상으로 포괄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 표집 블록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 등에 대한 최소 할당을 부여하여, 응답자 편중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즉, 표집 시 맞벌이 여부 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맞벌이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은 범주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집 방법은 육아정책연구소(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 2016; 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의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의 가구 조사 설문 표집 방식으로 적용된 표집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다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조사구에 거주하는 원표본 가구를 추적 조사할 예정이므로, 조사 협조도가 높은 사람들로 표본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표집 블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 가능한 형태로 미세하게 조정을 실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지역 내 가구 응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 표본의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표집 블록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로 저소득 가구의 응답이 과소 표집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표집 단위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등의 파악을 위해서 연령별 자녀수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표본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목표 표본 수를 설정하였다. 이때 해당 가구 내에 원표본 자녀 이외의 다른 영유아 자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연령별 아동 표본 수는 최소 목표 표본 수를 상회한다.

지역과 자녀 연령 이 외에 표본 구성에 있어 적정 할당을 적용한 것은 맞벌이 비율과 다자녀 가구 비율, 육아서비스 이용기관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중이다. 맞벌이 비율은 전체 표본에서 약 40%가량이 조사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

5) 블록의 사이즈는 지역별로 상이하나, 가장 큰 표집 블록도 읍면동 단위를 초과하지 않음. 단, 인접한 다른 2개의 표집 블록이 선정될 수는 있음.

며, 다자녀 가구 비율이 약 30% 가량이 포함되도록, 이용기관의 비중은 어린이집이 50%, 유치원은 약 20%가량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강제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용 기준으로, 표본이 지나치게 한쪽 특성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 결과의 경우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른 양육비용의 차이 분석은 의미가 있지만, 영유아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 등을 의미 있는 수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즉,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맞벌이 가구 비중, 다자녀 가구 비중, 이용기관 비중 등은 실질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대표성을 갖는 변수로 활용이 불가하며,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 기준 변수로만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2 설문의 구성

이 절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3개의 연구과제에서 필요로 하는 설문 문항이 주제별로 섞여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별로 설문 문항의 분리가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인 설문의 구성과 구조를 살펴본 이후, '연구과제 1: KICCE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에서 활용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연구과제 1의 경우 가계지출과 자녀 양육비용 조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문 개발 과정은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본조사 설문과 온라인 조사 설문은 앞서 언급한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육아물가 연구』와 관련된 3개의 연구과제 연구진이 협력하여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최초 각 과제별로 관련된 문헌 및 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필요한 설문을 개발한 후 이를 취합하여 중복 문항을 통합하고 설문의 구조를 완성하는 단계를 거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제별 혹은 총괄 과제 단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제고하였으며, 전반적인 설문 구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한 예비조사, 조사업체와의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수차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 가. 본조사 설문 구성

먼저,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본조사는 크게 가구 단위로 응답한 설문 문항과 아동 단위로 응답하는 문항이 구분되는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설문 문항의 개요는 가구 설문과 아동 설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만, 실제 면접 조사 당시에는 아동 단위 설문인 II-1부터 II-4의 내용은 가구단위 설문인 I장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 II-5 앞부분에서 진행되는 설문이다. 이는 해당 설문의 내용이 연구과제2에서 활용하는 핵심적인 설문 문항으로 응답자가 질문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조사 초반에 이뤄질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본조사는 TAPI조사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응답 대상이 되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명확히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와 면접원이 응답 대상 등을 혼동하여 잘못 응답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조사 설문의 주요 문항과 각 설문 작성 시 참고한 자료는 <표 III-2-1>와 <표 III-2-2>에 제시하였다.

한편, 참고로 연구과제1: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는 가구 단위 설문을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며, <표 III-2-1>의 굵은 선 안쪽의 문항들이 주로 연구 결과로 활용된다.

연구과제1에서 활용하는 설문 문항 중 본조사에 포함된 주된 문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양육비용 산출과 관련된 가계 지출, 현재 주거 관련 현황 및 양육을 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의견, 양육비용 지출 우선순위 및 지출 변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양육부담 완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등, 육아서비스 및 물품에 대한 소비 성향,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등이다. 본조사 설문 문항 중 아동 단위 설문의 내용은 주로 연구과제2가 활용하는 변수로, 양육비용 연구에서는 교육·보육비 지출의 구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표 III-2-1 ▮ 본조사 설문 문항 및 출처 (가구 설문)

구분	설문 문항	설문 작성시 참고자료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	응답자 성별,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가계지출조사(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가구원 구성	
	부모 특성 : 생년, 학력, 취업여부, 직업, 근로형태,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결혼 시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표 III-2-1 계속)

구분	설문 문항	설문 작성시 참고자료
I. 가구의 경제활동 및 양육비용	가구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 세후) :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아동패널조사(육아정책연구소)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진아 외(2016)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지난 1개월 1회 수령) : 유아학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아이돌보미, 출산장려금, 기타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 비목 13개, 세부 항목 11개	
	주거 관련 문항 : 현재 주거 현황, 주택 구입의 필요성, 주거관련 양육환경,	
	양육 비용 충분성 및 지출 우선 순위, 비용 부담 자녀 출산 전후 가계 소비 변화	
II-5.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 의사	자녀 연령별 이용희망 서비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자녀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돌봄 방법 육아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	
III.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보건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여성가족부),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교육·보육관련 지원 정책 이용여부, 만족도, 미이용 사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 이용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인지, 이용, 만족도	
IV.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V. 육아 소비 성향	육아상품 가격상승 시 구매패턴	박진아 외(2016)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지출 변화, 소득감소 시 지출 변화(탄력성)	
VI.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가치 관 및 미래 전망	현재 및 미래 사회·경제적인 위치	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경제적 전망	
	미래 자녀세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부모 부양책임, 노후준비와 자녀양육 지출 비중	

주: 굵은 선 안은 연구과제1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art II에서 주로 활용하는 설문 문항을 의미함.

자료 :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 박진아·김나영·이재희·장문영(2016).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3)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안내; 4)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 5)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 육아정책연구소(2017). 한국아동패널조사; 7) 통계청(2017a). 가계금융·복지조사; 8) 통계청(2017b). 가계동향조사; 9) 통계청(2017c). 가계지출조사; 10) 통계청(2017d). 경제활동인구조사; 11) 통계청(2017e). 한국표준직업분류표; 12) 한국노동연구원(2017). 한국노동패널조사;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복지패널조사;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재정패널조사 1~9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안내.

표 III-2-2 본조사 설문 문항 및 출처 (아동 설문)

구분		항목	참고자료	
II.주양육자		주로 돌보는 사람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최효미·김나영· 김태우(2017)	
II-1.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II-2.유치원 이용		유치원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 시간 만족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관련 지출비용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II-3.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기관 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II-4. 기타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이용여부, 시간제 보육 장소		
		이용 빈도, 1회당 평균 이용 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이용여부, 돌봄 장소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개별돌봄 인력 근무형태, 육아도우미 국적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사교육 이용		이용여부, 이용 사교육 개수,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기타 서비스 이용

자료 : 1)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나. 온라인 조사 설문 구성

다음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온라인 조사 설문 구성과 연구과제1과 관련된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조사는 구체적인 육아물품에 대한 구매 경험과 이와 관련된 물가 체감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조사는 응답자가 본조사 설문 응답 후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자가 응답으로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설문 문항 혹은 분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응답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육아용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 등을 통해 주요 육아품목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총 44개의 품목으로 압축하였다. 또한 응답자는 구매한 경험이 있는 육아물품을 클릭을 통해 선택하게 함으로써, 응답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육아물가 체감 등과 관련한 문항의 경우에도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문을 개발하였다.

연구과제1은 온라인 조사 설문 중 주로 중고상품 구매 경험, 물려받기 혹은 물려주기 경험, 대여하기 경험 등에 관한 설문을 활용하여, 육아용품 관련 공유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육아문화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안을 탐색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표 III-2-3 온라인조사 설문 문항 및 출처

구분	항목	참고자료	
I. 육아 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	육아용품 구매	육아용품 구매 경험 : 새상품 구매, 중고상품 구매, 물려쓰기, 대여하기 구매 정보 경로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새상품 구매	새상품 구입주기, 주 구입처, 구입 가격, 비싸다고 생각하는 물품, 비싸도 구매하는 이유, 구입 후 후회여부 및 이유, 구입 희망하나 못한 상품과 이유	
	중고상품 구매/판매	중고상품 구매처, 구입 가격, 만족도, 불만족 사유, 중고 미이용 사유, 중고 구매의향 품목, 중고판매 경험 : 판매처, 재이용 의향, 의향이 없는 이유	권미경 외(2016),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물려받기/주기	물려준 사람 혹은 기관, 만족도, 불만족 사유, 물려받기 미경험 사유, 물려받아 쓸 의향, 물려준 경험 : 품목, 물려준 대상, 미경험 사유	
	대여하기	대여기관 혹은 사람, 대여가격, 대여이용 사유, 만족도, 불만족 사유, 대여 미이용 사유, 향후 대여하실 의향	
	기타	현재 보유 중인 육아물품 처리 방법 가구소득 대비 육아소비 지출 수준	

(표 III-2-3 계속)

구분	항목	참고자료
II. 육아품목 물가 체감	주요 육아 소비재 구입여부, 가격 체감, 부담정도	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최윤경·박진아· 이세원(2013)
	주요 육아 내구재/서비스재 구입여부, 가격 체감, 부담정도	
III. 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	6개월 전 대비 생활형편 및 우리나라 경기	
	6개월 후 생활형편 및 우리나라 경기	
	1년 후 소비자물가 수준 및 육아물가 수준	
	지난 1년 간 육아 물가상승률 체감	

주: 굵은 선 안은 연구과제1 :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Part II에서 주로 활용하는 설문 문항임.  
자료 : 1)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2)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 3) 한국은행(2018). 소비자동향조사.

#### 다. 양육비용 설문 구성

마지막으로 본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양육비용 설문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계 지출 및 양육비용은 비목별 비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가계지출조사’와 같이 가계부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응답자들의 응답 부담 증가와 예산상 어려움 등이 있어, 비목별 비용을 조사하였다. 반면, 통계청의 ‘가계지출조사’가 가구 전체의 지출 상황을 파악하는데 반해, 본 연구는 자녀별 지출 비용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여 양육비용 추정 방식을 거치지 않고 양육비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청 ‘가계지출조사’는 영유아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지출이 파악 가능한 자료이다. 따라서 가구 특성-즉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와 영유아 자녀가 없는 가구-을 비교하여 금액의 차이만큼이 양육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보고 양육비용을 추정하는 양상을 띤다. 단, 이러한 추정 방식은 어떠한 추정 방식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양육비용의 규모가 달라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허경옥, 2007; Bargain, Donni & Gbakou, 2010).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구와의 생활비 지출 실태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여 등가비율 응용 자녀양육비 추정<sup>6)</sup> 등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족구성원 수로 총 소비지출을

6) 앵겔 방법을 응용한 Espenshade 방법, Rothbarth 방법, Barten-Gorman 방법 등이 등가비율 응용 자녀양육비 추정 방법에 해당함(허경옥, 2007: 24).



일률적으로 나누는 형태인 두당 평균 측정 방법의 적용은 가능하나, 이러한 방법은 자녀 양육비가 자녀 연령, 자녀 수, 자녀의 출생순서, 가족 구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현실적 측면을 간과하는 추정방법(허경옥, 2007: 23)이라는 지적을 받곤 한다.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직접적으로 영유아 가구에게 가구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자녀별 지출 비용을 질문하여, 양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영유아 가구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직접 응답하도록 하여, 이 비용에 근거하여 양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계 지출에서 자녀별로 금액의 분리가 불가능한 비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두당 비용을 적용하거나, 자녀 양육비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으로 일부 추정 값을 적용하여 전체 양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양육비용을 총 13개 비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응답자와 면접자가 비목 분류를 헷갈리지 않도록 방지하고 무엇보다 하위 항목에 대한 지출 비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비목의 하위 분류를 통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출 비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례로, 식비 전체를 응답한 다음, 식비 중 외식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추가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주거/관리비의 경우에도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하위 항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식비,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월세, 가족여행, 관람/체험학습, 완구, 도서구매, 휴대전화비, 저축, 보험, 원리금 상환 등 총 11개 항목이다. 특기할 점은 여가 및 문화생활비 비목의 경우에는 하위 4개 항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응답 가구들은 총 13개 비목과 11개 하위 항목까지 총 24개의 가구 전체 지출 비용을 응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었다(표 III-2-4 참조).

한편, 기본적으로는 설문에 제시된 대부분의 비목과 항목에 대해 자녀별 지출 비용도 응답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자녀별로 지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하게 자녀 수가 2명인 가구라 하더라도 0세와 3세 자녀가 있는 가구와 3세와 5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식비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0세 자녀의 분유 값이 식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0세와 3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3세와 5세 자녀가 있는 가구와 식비의 구성 방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별 지출 비용의 경우에는 주거/관리비(하위 항목 2개 포함)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 중 하위 항목으로 가족여행 등 지출비용, 금융상품 중 하위 항목인 원리금 상환, 이전 지출과 기타상품 및 서비스 비목에 대해서는 자녀별 비용을 분리하여 응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질문하지 않았다. 이때 월세, 원리금 상환, 이전 지출과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의 비용은 가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자녀수 및 유무에 따라 비용 산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양육비용 산출 시에도 해당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가족여행비는 응답 가구가 자녀별 비용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하지 않은 비용으로, 가족 수로 1/N하여 양육비용에 반영하였다. 한편, 저축의 경우에는 영유아 가구의 응답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세부 비목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자산에 해당하여 양육비용 산출 시에는 제외하였다.

표 III-2-4 양육비용 설문지의 비목 구성 및 설명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응답 단위	
		가구	자녀별
1. 식비(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하되, <b>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b>	○	○
1-1. 외식비	부모가 직장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 등 기호 식품 값은 제외	○	○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응답	○	×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포함	○	×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	×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아기 침대, 책상 등)	○	○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침구류 포함	○	○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등 (비타민, 한약 포함)	○	○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포함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완구(장난감, 모빌 등), 여가용 도서 구입비, 가족여행 등 포함. 단, <b>교재교구는 교육비로 포함</b>	○	○
7-1. 가족여행 등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여행경비에는 교통, 숙박, 식음료 등이 모두 포함됨)	○	△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	○
7-3. 완구	자녀 완구, 보행기, 장난감	○	○
7-4. 도서구매	<b>교재 교구는 제외</b> ,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	○

(표 III-2-4 계속)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응답 단위	
		가구	자녀별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b>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교통비가 아닌 교육비에 포함.</b>	○	○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	○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	○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품, 주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미용 서비스 등	○	○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 자녀 명의 저축, 상해보험 등	○	○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	-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	○
11-3. 원리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및 원금 납입금	○	x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b>(자녀 돌봄의 대가로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 내 이전지출은 제외)</b>	○	x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	x
14. 총액	자동합산		

주: △는 자녀별 비용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양육비용 산출에는 반영되는 경우, x는 자녀별 비용도 조사하지 않고 양육비용 산출에도 반영하지 않는 경우임. - 저축의 경우에는 자녀별 비용을 조사하였으나, 비소비지출에 해당하여 양육비용 산출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 3 표본 특성

#### 가. 표본 및 응답자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응답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3-1>과 같다. 한편, 자료의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국내 대표적인 소비실태 통계자료 가계동향(지출)조사(2017년)와 응답자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조사는 총 1,64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가계동향(지출)조사에서 영유아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총 1,122가구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라 3명 이하가 37.0%, 4명 47.4%, 5명 이상은 15.7%로 나타나 가계동향(지출)조사와 비

숫하나 4명 이하 비중이 다소 작고 5명 이상의 가구원수 비중이 조금 컸다. 평균 가구원수는 3.8명으로 본 조사와 가계동향(지출)조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맞벌이가구 비중은 46.2%로 가계동향(지출)조사가 37.3%인 것에 비해 다소 높았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 할당을 맞추기 위한 본 연구의 설계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가 13.5%, 300~399만원이 26.7%, 400~499만원 23.3%, 500~599만원 16.4%, 600만원 이상 가구가 20.0%로 나타나 가계동향(지출)조사에 비해 2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중은 작았으나, 300~599만원 가구의 비중은 다소 컸다. 자녀수의 경우, 1명이 38.7%, 2명 49.6%, 3명 이상이 11.7%로 나타나 가계동향(지출)조사에 비해 2명의 비중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1.7명으로 본 조사와 가계동향(지출)조사가 동일하였다.

표 III-3-1 가계동향(지출)조사와 KICCE 소비실태조사 영유아 가구 표본 특성 비교

단위 : 가구(%)

구분		가계동향조사(2017)	KICCE소비실태조사
전체		1,122(100.0)	1,648(100.0)
가구원수	3명 이하	451( 40.2)	609( 37.0)
	4명	499( 44.5)	781( 47.4)
	5명 이상	140( 12.5)	258( 15.7)
평균가구원수		3.8	3.8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419( 37.3)	762( 46.2)
	외벌이	703( 62.7)	886( 53.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71( 24.2)	223( 13.5)
	300~399만원 이하	242( 21.6)	440( 26.7)
	400~499만원 이하	192( 17.1)	384( 23.3)
	500~599만원 이하	154( 13.7)	271( 16.4)
	600만원 이상	263( 23.4)	330( 20.0)
자녀수	1명	463( 41.3)	638( 38.7)
	2명	523( 46.6)	818( 49.6)
	3명이상	136( 12.1)	192( 11.7)
평균자녀수		1.7	1.7

(표 III-3-1 계속)

구분		가계동향조사(2017)	KICCE소비실태조사	
자녀구성	1명	영아	287(25.6)	334(20.3)
		유아	176(15.7)	304(18.4)
	2명	영아만	46( 4.1)	107( 6.5)
		유아만	58( 5.2)	91( 5.5)
		영아+유아	172(15.3)	284(17.2)
		영아+초등	42( 3.7)	65( 3.9)
		유아+초등	186(16.6)	246(14.9)
	3명 이상	영아만	0( 0.0)	2( 0.1)
		유아만	0( 0.0)	1( 0.1)
		영아+유아	20( 1.8)	49( 3.0)
		영아+초등	11( 1.0)	16( 1.0)
		유아+초등	42( 3.7)	52( 3.2)
		영아+유아+초등	34( 3.0)	37( 2.2)
	기타		48( 4.3)	60( 3.6)

주: 영유아가구는 한 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1)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7).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자녀구성의 경우, 본 조사는 영아 1명만 있는 가구가 20.3%로 가장 많았고, 유아 1명만 있는 가구(18.4%), '영아1명+유아1명' 가구(17.2%), '유아1명+초등1명' 가구(14.9%)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가계동향(지출)조사에서는 영아 1명만 있는 가구가 25.6%로 가장 많으며, '유아1명+초등1명' 16.6%, 유아1명만 있는 가구 15.7%, '영아1명+유아1명' 가구가 15.3% 순이었다. 종합해보면, 본 조사와 가계동향(지출)조사의 가구 표본 특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표본 대표성의 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조사의 지역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648가구 중에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716가구로 43.4%를 차지하였으며, 대도시는 662가구로 40.2%, 읍면지역에는 270가구로 16.4%를 차지하였다.

표 III-3-2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영유아 가구 표본 특성

단위 : 가구(%)

구분		KICCE소비실태조사
전체		1,648(100.0)
지역규모	대도시	662( 40.2)
	중소도시	716( 43.4)
	읍면지역	270( 16.4)

주: 영유아가구는 한 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맞벌이 가구와 자녀수를 조합할 때, 자녀가 1명인 638가구 중에 외벌이가구가 331가구(51.9%)로 맞벌이 가구(307가구, 48.1%)보다 많이 조사되었으며, 자녀가 2명인 818가구에서 439가구(53.7%)가 외벌이로, 맞벌이가구(379가구, 46.3%)보다 많았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도 외벌이가구(116가구, 60.4%)가 맞벌이가구(76가구, 39.6%)보다 많게 조사되었다.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 모두 절반(맞벌이가구: 49.7%, 외벌이가구: 49.5%)정도가 2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1명(맞벌이가구: 40.3% 외벌이가구: 37.4%), 3명 이상인 경우(맞벌이가구: 10.0%, 외벌이가구: 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자녀수 및 맞벌이 가구 비중

단위 : 명(%)

구분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전체
자녀수	1명	307 (40.3) [48.1]	331 (37.4) [51.9]	638 [100.0]
	2명	379 (49.7) [46.3]	439 (49.5) [53.7]	818 [100.0]
	3명이상	76 (10.0) [39.6]	116 (13.1) [60.4]	192 [100.0]
전 체		762 (100.0)	886 (100.0)	1,648

주: [ ]안은 행백분율, ( )안은 열백분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조사 가구의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KICCE 소비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모두 부의 연령 분포가 두 조사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고(본 조사: 54.2%, 가계동향조사: 64.4%), 40대 이상(본 조사: 44.9%, 가계동향조사: 32.1%), 20대(본 조사: 0.9%, 가계동향조사: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학력도 두 조사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원 이

상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비중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취업자가 9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의 근로 형태는 임금근로자가 본 조사는 82.9%, 가계동향(지출)조사가 73.7%로 나타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4 ▣ 영유아 가구 부모 특성 비교(가계동향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단위 : 가구(%)

구분		가계동향조사(2017)	KICCE소비실태조사	
부	전체	1,122(100.0)	1,632(100.0)	
	연령	20대	39( 3.5)	15( 0.9)
		30대	723( 64.4)	884( 54.2)
		40대 이상	360( 32.1)	733( 44.9)
	학력	고졸이하	265( 23.6)	298( 18.3)
		전문대졸	209( 18.6)	296( 18.1)
		4년제대학졸	476( 42.4)	927( 56.8)
		대학원이상	108( 9.6)	111( 6.8)
	취업 여부	무응답	64( 5.7)	-
		취업	1,016( 90.6)	1599( 98.0)
		휴직중	42( 3.7)	11( 0.7)
		미취업	64( 5.7)	22( 1.3)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827( 73.7)	1335( 82.9)
		비임금근로자	178( 15.9)	275( 17.1)
무응답		106( 9.4)	-	
모	전체	1,122(100.0)	1,640(100.0)	
연령	20대	125( 11.1)	60( 3.7)	
	30대	855( 76.2)	1153( 70.3)	
	40대 이상	142( 11.6)	427( 26.0)	
학력	고졸이하	306( 27.3)	345( 21.0)	
	전문대졸	276( 24.6)	419( 25.5)	
	4년제대학졸	450( 40.1)	803( 49.0)	
	대학원이상	7( 0.6)	73( 4.5)	
	무응답	83( 7.4)	-	

주: 1) 영유아가구는 한 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 학업, 구직은 미취업자로 분류.

자료: 1)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7).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모의 연령분포는 두 조사 모두 30대(본 조사: 70.3%, 가계동향조사: 76.2%)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본 조사: 26.0%, 가계동향조사: 11.6%), 20대(본 조사: 3.7%, 가계동향조사: 11.1%)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자(본 조사: 49.0%, 가계동향조사: 40.1%)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본 조사는 전문대 졸업자(25.5%), 고등학교 졸업 이하(21.0%), 대학원 이상(4.5%)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계동향(지출)조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27.3%), 전문대 졸업자(24.6%), 대학원 이상(0.6%)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조사의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5>와 같다. 부의 경우, 81.1%가 임금근로자이며, 16.9%가 비임금근로자, 0.9%가 구직 중, 0.7%가 휴직 중, 0.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미취업이 50.4%로 가장 많고, 30.5%가 임금근로자, 9.3%가 비임금근로자, 7.7%가 휴직 중, 1.7%가 구직 중, 0.4%가 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5.3시간으로 나타났고, 모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5.4시간, 출퇴근 소요시간이 부는 54.7분, 모는 42.3분으로 나타나 총 노동시간은 부가 46.2시간, 모 36.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3-5 ■ 영유아 가구 부모의 근로 특성

단위 : 가구 (%), 시간

구분			부	모
전체			1,632 (100.0)	1,640 (100.0)
취업 여부 및 고용 형태	취업	임금근로자	1,324 ( 81.1)	500 ( 30.5)
		비임금근로자	275 ( 16.9)	153 ( 9.3)
		계	1,599 ( 98.0)	653 ( 39.8)
	휴직 중		11 ( 0.7)	126 ( 7.7)
	학업 중		0 ( 0.0)	6 ( 0.4)
	구직 중		15 ( 0.9)	28 ( 1.7)
	미취업		7 ( 0.4)	827 ( 50.4)
노동 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시)		45.3	35.4
	출퇴근 소요시간 (분)		54.7	42.3
	계 (시)		46.2	36.1

주: 노동시간은 취업인 경우(휴직자 제외)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나. 가구 소득 분포

지금부터는 응답 가구의 생활비 및 양육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가구소득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3-6>과 같다. 월평균 총소득은 평균 462만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세목별로 근로소득은 446만원, 공적이전소득 7만4천원,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4만원, 사회보험소득 2만2천원, 사적이전소득 1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월평균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는 540만8천원, 외벌이 가구는 39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다른 세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근로소득의 차이(맞벌이가구: 524만7천원, 외벌이가구: 378만4천원)에 기인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공적이전 소득만 499만원 이하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 들고, 500만원이상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 총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소득은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구성에 따라서는 유아1명인 가구(494만7천원)가 영아 1명만 있는 가구(420만2천원)보다 총소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목별로는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유아1명만 있는 가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은 영아1명만 있는 가구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서는 총소득은 유아만 있는 가구가 498만9천원으로 가장 컸으며, ‘유아1명+초등이상1명’(469만5천원), ‘영아1명+유아1명’(463만4천원), ‘영아1명+초등이상1명’(460만7천원), 영아2명(407만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만 2명인 가구가 공적이전 소득이 20만3천원, 사회보험소득 6만9천원으로 다른 구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유아 자녀만 2명 있는 가구가 기타소득이 5만5천원으로 나타나 다른 구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아 자녀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수급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총소득은 비슷하였으나,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영유아+초등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가 크게 나타났고,

영유아만 3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이 ‘영유아+초등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III-3-6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 소득	계(명)	
전체		446.0	4.0	7.4	1.9	1.4	2.2	462.9(1,648)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524.7	3.0	7.2	1.0	1.6	3.3	540.8( 762)	
	외벌이	378.4	4.8	7.5	2.7	1.2	1.4	396.0( 88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1.1	0.1	10.2	0.5	0.4	2.1	224.5( 223)	
	300~399만원 이하	326.6	0.5	6.4	0.9	0.1	1.1	335.5( 440)	
	400~499만원 이하	418.4	1.5	4.8	0.6	0.4	2.1	427.8( 384)	
	500~599만원 이하	508.9	2.6	8.2	2.0	2.1	2.8	526.7( 271)	
	600만원 이상	744.5	15.2	9.1	5.7	4.4	3.6	782.5( 330)	
자녀수	1명	442.2	2.2	5.8	2.4	0.5	2.6	455.7( 638)	
	2명	446.1	4.1	6.9	1.2	1.2	2.3	461.8( 818)	
	3명이상	458.5	9.0	15.0	3.0	5.4	1.0	491.9( 192)	
자녀구성	1명	영아	403.5	2.1	8.8	1.5	0.9	3.5	420.2( 334)
		유아	484.8	2.4	2.5	3.5	0.2	1.5	494.7( 304)
	2명	영아만	375.5	1.7	20.3	2.1	0.9	6.9	407.4( 107)
		유아만	482.9	2.1	5.0	0.5	5.5	2.9	498.9( 91)
		영아+유아	446.1	3.7	8.1	2.0	1.1	2.4	463.4( 284)
		영아 +초등 이상	449.4	4.3	4.4	1.5	0.0	1.1	460.7( 70)
		유아 +초등 이상	461.0	6.3	1.4	0.3	0.1	0.4	469.5( 266)
	3명이상	영유아만	442.4	2.5	35.3	0.4	8.3	3.8	492.8( 52)
		영유아 +초등 이상	464.5	11.4	7.5	3.9	4.3	0.0	491.6( 140)

주: 1) 근로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으로 계산함.

2) 소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7>과 같다. 대도시가 월평균 총소득이 477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459만9천원, 읍면지역 435만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은 동일하게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나, 공적이전소득과 사회

보험소득은 중소도시 > 읍면지역 > 대도시 순으로,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은 중소도시 > 대도시 > 읍면지역 순으로 세목별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구성 및 맞벌이 여부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 분포는 다음의 <표 III-3-8>과 같다. 영아 1명만 있는 가구에서는 외벌이가구가 355만5천원, 맞벌이가구가 492만4천원으로 136만9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유아 1명만 있는 가구는 외벌이가구 412만8천원, 맞벌이가구 579만9천원으로 167만1천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 표 III-3-7 ▣ 지역규모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 소득	계(명)
전체	446.0	4.0	7.4	1.9	1.4	2.2	462.9(1,648)
지역 규모	대도시	461.2	3.7	6.3	2.4	1.9	477.3( 662)
	중소도시	440.7	4.7	8.4	2.1	1.3	459.9( 716)
	읍면지역	423.2	2.6	7.3	0.2	0.3	435.8( 270)

주: 1) 근로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으로 계산함.  
 2) 소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표 III-3-8 ▣ 자녀 구성 및 맞벌이 여부별 월평균 총 가구소득 분포

단위 : 만원

구분	맞벌이 여부		전 체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전 체	540.8	396.0	462.9		
자녀구성	1명	영아	492.4	355.5	420.2
		유아	579.9	412.8	494.7
	2명	영아만	494.5	341.7	407.4
		유아만	590.1	420.7	498.9
		영아+유아	553.1	400.6	463.4
		영아+초등 이상	574.3	380.4	460.7
	3명 이상	유아+초등 이상	513.3	417.1	469.5
		영유아만	648.3	395.6	492.8
	영유아+초등 이상	564.2	443.2	491.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서는 맞벌이가구는 유아기 자녀 2명만 있는 가구가 590만1천원으로 가장 소득이 컸고, '영아1명+초등이상1명' > '영아1명+유아1명' > '유

아1명+초등이상1명' > '영아2명' 가구 순으로 나타났고, 외별이가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만 2명인 가구가 420만7천원으로 소득이 가장 크고, '유아1명+초등이상1명' > '영아1명+유아1명' > '영아1명+초등이상1명' > '영아2명' 가구 순으로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서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영유아 자녀만 있는 가구가 648만3천원, '영유아+초등 이상'인 가구가 564만2천원으로 영유아만 있는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고, 외별이가구는 영유아만 있는 가구가 395만6천원, '영유아+초등 이상'인 가구가 44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 양육관련 이전소득 수혜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9>와 같다. 전체 가구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25.5%, 육아휴직급여 1.8%,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0.4%, 출산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가정양육수당은 외별이가구가 15.8%, 맞벌이가구가 9.7%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장려금은 맞벌이가구 1.0%, 외별이가구가 1.2%가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399만원이하 소득구간 가구가 다른 구간보다 다소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으며, 소득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수혜가구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0%, 1명인 경우 10.2%, 3명 이상인 경우 3.3%로 나타났다.

▣ 표 III-3-9 ▣ 가구특성별 양육관련 이전소득 수혜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가정 양육수당	육아 휴직급여	아이돌보미	출산장려금	기타
전체		420(25.5)	30(1.8)	7(0.4)	36(2.2)	3(0.2)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160( 9.7)	29(1.8)	5(0.3)	17(1.0)	1(0.1)
	외별이	260(15.8)	1(0.1)	2(0.1)	19(1.2)	2(0.1)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78( 4.7)	2(0.1)	0(0.0)	4(0.2)	1(0.1)
	300~399만원 이하	130( 7.9)	9(0.5)	1(0.1)	12(0.7)	0(0.0)
	400~499만원 이하	72( 4.4)	8(0.5)	2(0.1)	8(0.5)	0(0.0)
	500~599만원 이하	57( 3.5)	3(0.2)	3(0.2)	6(0.4)	1(0.1)
	600만원 이상	83( 5.0)	8(0.5)	1(0.1)	6(0.4)	1(0.1)
자녀수	1명	168(10.2)	12(0.7)	3(0.2)	10(0.6)	1(0.1)
	2명	198(12.0)	13(0.8)	1(0.1)	16(1.0)	1(0.1)
	3명이상	54( 3.3)	5(0.3)	3(0.2)	10(0.6)	1(0.1)

주: 전체 응답자 중 수혜자 비중, 가구단위로 한명이라도 수혜하면 수혜함으로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다.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특성

응답 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49.8%로 가장 많으며, 유치원 30.3%, 기관 미이용 아동 16.4%, 반일제이상 학원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반일이상 기관 유형에 따른 이용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동(생활연령, 만나이)의 나이에 따라서는 만0세는 기관 미이용이 97.6%로 가장 많았으며, 만1세는 기관 미이용 66.8%, 어린이집 이용 32.8%, 만2세는 어린이집 83.0%, 기관 미이용 16.3%, 만3세는 어린이집 94.6%, 만4세는 어린이집 51.8%, 유치원 41.2%, 반일제이상 학원 5.1%, 만5세는 유치원 59.8%, 어린이집 34.5%, 반일제이상 학원 5.5%, 만6세는 유치원 64.2%, 어린이집 28.9%, 반일제이상 학원 6.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미이용자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집 이용은 만1세부터 급격히 늘어나다가 유치원 이용이 가능해지는 만4세부터 이후 약간씩 줄었다. 반면, 유치원 이용아동은 이용이 가능해진 만4세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표 III-3-10 ▣ 영유아 자녀 특성

단위 : 명(%)

구분	반일이상 이용 기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반일이상기관) 미이용		
전체	1,134(49.8)	689(30.3)	80(3.5)	374(16.4)	2,277(100.0)	
성별	남아	576(49.8)	349(30.2)	42(3.6)	190(16.4)	1,157(100.0)
	여아	558(49.8)	340(30.4)	38(3.4)	184(16.4)	1,120(100.0)
만나이 (출생 년도)	0세(2018년생)	3( 2.4)	0( 0.0)	0(0.0)	124(97.6)	127(100.0)
	1세(2017년생)	88(32.8)	0( 0.0)	1(0.4)	179(66.8)	268(100.0)
	2세(2016년생)	244(83.0)	0( 0.0)	2(0.7)	48(16.3)	294(100.0)
	3세(2015년생)	336(94.6)	0( 0.0)	5(1.4)	14( 3.9)	355(100.0)
	4세(2014년생)	191(51.8)	152(41.2)	19(5.1)	7( 1.9)	369(100.0)
	5세(2013년생)	139(34.5)	241(59.8)	22(5.5)	1( 0.2)	403(100.0)
6세(2012년생)	133(28.9)	296(64.2)	31(6.7)	1( 0.2)	461(100.0)	

주: 가중치 미적용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라. 소비지출의 특징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과 양육비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응답가구 특성 측면에서 본 조사와 가계지출조사의 영유아 가구 총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계지출 총액은 본 조사가 384만9천원, 가계지출조사의 영유아가구는 381만6천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가계지출조사의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평균이 274만7천원인 것에 비하면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높은 수준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소비지출 항목에 따라서는 본 조사는 금융상품 97만6천원, 식비 81만1천원, 교육·보육비 41만원 순이었다. 가계지출조사의 영유아가구는 식비 88만2천원, 금융상품 52만3천원, 주거·관리비 31만4천원 순으로 나타나 비목별 지출 금액은 KICCE소비실태조사와 가계지출조사의 영유아 가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KICCE소비실태조사와 가계지출조사가 조사 상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가계지출조사의 경우 KICCE소비실태조사에 비해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은 등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응답가구의 조사 편의를 고려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금융상품에서 한꺼번에 조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이 크게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 저축액, 이전지출 등은 본 연구의 주된 분석 기준인 소비지출(생활비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목을 제외한다면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가계지출조사 사이에 자료 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교육·보육비용 등에서의 차이는 본 연구가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세분된 서비스 이용비용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보다 신뢰성 높은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의 지출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이전 지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는 전체 가구에 비해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가구가 경제적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III-3-11 영유아 가구 지출 총액 비교(가계동향(지출)조사 : KICCE 소비실태조사)

단위 : 만원

구분	가계지출조사(2017)		KICCE소비실태조사
	전체가구	영유아가구	
가계지출총액	274.7	381.6	384.9
1. 식비(외식비포함)	65.4	88.2	81.1
2. 주거/관리비	25.8	31.4	25.3
3. 기기/집기	10.4	15.3	6.2
4. 피복비(의류및신발)	14.2	23.4	18.3
5. 보건/의료비	17.5	20.5	7.0
6. 교육/보육비	15.7	23.4	41.0
7.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5.0	24.5	32.3
8. 교통비	18.8	27.4	26.4
9. 통신비	9.5	13.1	17.1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7	21.3	12.9
11. 금융상품(저축및보험납입금)	31.3	52.3	97.6
12. 이전지출	30.1	27.6	11.8
13. 기타상품및서비스	8.3	13.3	8.0

주: 1) 영유아가구는 한 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가계지출총액은 제시된 13개 비목의 지출을 모두 합산한 총액이며, 저축액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지출액은 아니지만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함. 4장 이하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생활비 지출(소비지출)은 저축과 원리금 상환액, 이전지출 등을 뺀 금액으로, 이 표에 제시된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







#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IV.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 V. 영유아 가구의 주거 및 육아용품 관련 소비 행태
- VI. 양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미래 전망
-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 IV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1. 영유아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2.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실태
3.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4. 소결





## IV.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4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과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통해 전반적인 소비지출의 양상을 살펴보고, 영유아 가구가 특히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영유아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1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활비 지출은 영유아 자녀 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소비하는 소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저축액, 원리금 상환액, 이전 지출 등은 생활비 지출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생활비 지출 총액에 대한 고찰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단순히 양육비용의 증가에만 기인하지 않고 전반적인 가계 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 경제에 있어서의 지출 구성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 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을 보다 잘 포착해내기 위함이다.

#### 가. 생활비 지출 총액 현황 및 주요 지수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11만9천원으로, 식비가 81만1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용 41만원, 보험금 36만3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32만3천원, 교통비 26만4천원, 주거비 25만3천원 순이었다. 이때 주거비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등과 관련된 원리금 상환은 금융 상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주거비가 다소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주거비 관련 세목별로는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으로 월평균 19만7천원, 월세는 4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는 해당 세목에 지출이 없는 경우를 모두 0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월세를 지출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 평균 비용은 낮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단위 : 만원 (%)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총액		생활비 지출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시)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311.9	(100.0)	278.6	(100.0)
1.식비(외식비포함)	81.1	( 26.5)	81.1	( 29.9)
1-1.외식비	25.0	( 8.0)	25.0	( 9.0)
2.주거/관리비	25.3	( 8.7)		
2-1.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19.7	( 6.8)		
2-2.월세	4.2	( 1.5)		
3.기기/집기	6.2	( 1.7)	6.2	( 1.9)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 5.9)	18.3	( 6.6)
5.보건/의료비	7.0	( 2.3)	7.0	( 2.6)
6.교육/보육비	41.0	( 12.0)	41.0	( 13.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 9.8)	32.3	( 11.0)
7-1.가족여행 등	19.8	( 5.9)	19.8	( 6.6)
7-2.관람 체험학습	4.1	( 1.3)	4.1	( 1.5)
7-3.완구	4.0	( 1.3)	4.0	( 1.4)
7-4.도서구매	4.5	( 1.4)	4.5	( 1.5)
8.교통비	26.4	( 8.8)	26.4	( 10.0)
9.통신비	17.1	( 5.9)	17.1	( 6.7)
9-1.휴대전화비	12.5	( 4.4)	12.5	( 4.9)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 4.4)	12.9	( 4.9)
11.금융상품(저축및보험납입금)				
11-1.저축				
11-2.보험	36.3	( 11.6)	36.3	( 11.6)
11-3.원리금 상환				
12.이전지출				
13.기타 상품 및 서비스	8.0	( 2.4)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총 식비 81만1천원 중에 외식비는 25만원이었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에는 가족 여행 등에 소요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관람 및 체험학습, 완구, 도서 구매 등을 위해 월평균 4만원내외의 지출을 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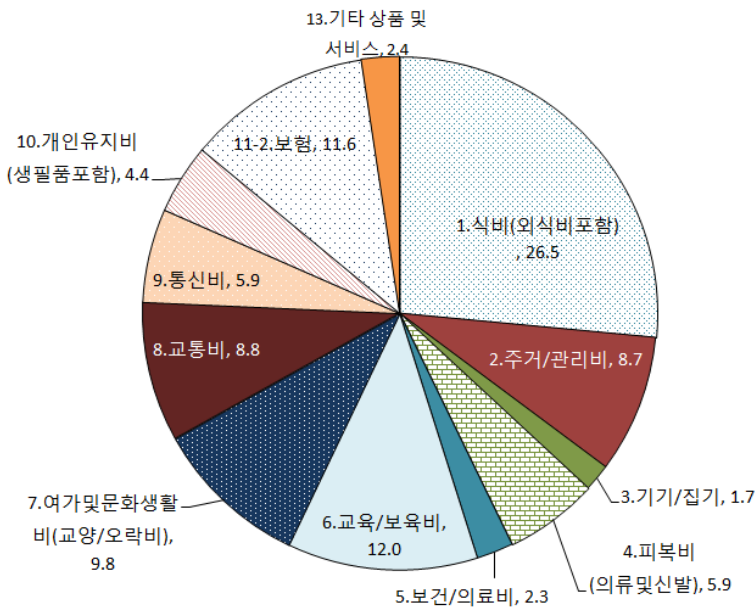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 지출 비목을 양육비용 산출시 비목과 일치시켜 산출해 보면, 즉 생활비 지출 비목 중에서 가구 단위 소비로 자녀별 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운 주거·관리비와 주로 성인을 위한 지출인 기타 상품 및 서비스(담배, 주류 등 기호상품)를 제외한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278만6천원으로 생활비 지출 총액 대비 33만3천원가량이 적었다.

비목별 생활비 지출 구성비(그림 IV-1-1참조)를 살펴보면, 식비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가장 많고, 교육·보육비용이 12%, 보험료 11.6%,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9.8%, 교통비 8.8%, 주거·관리비 8.7% 순이었다. 한편, 기기 및 집기 구매비와 보건 의료비는 전체 생활비 지출 총액의 각각 1.7%와 2.3%로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낮은 비목에 속하였다.

■ 그림 IV-1-1 ■ 비목별 생활비 지출 구성비

단위 : %



주: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표 IV-1-2〉와 [그림 IV-1-2]는 총 자녀수별 생활비 지출액을 보여준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93만1천원, 2명 316만4천원, 3명이상인 경우 355만3천원으로 자녀가 증가할수록 생활비 지출도 커짐을 알 수 있다. 비목별로는 식비, 교육·보육비가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통신비와 보험료도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외 다른 비목의 경우에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어서, 자녀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기기 및 집기류 구매비와 외식비, 가족여행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약간 감소하는 경우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소비 자체를 감소시키는 사치재 성격이 있는 품목으로 보여진다.

그림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지출액 자체는 모든 경우에 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수에 따라 교육·보육비용의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에는 지출액 자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 중 하나이지만, 자녀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 표 IV-1-2 ▮ 총 자녀수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총 자녀수별 가구 생활비 지출			
		1명	2명	3명이상	F
N	1,648	638	818	192	-
총계	311.9	293.1	316.4	355.3	21.4***
1.식비(외식비포함)	81.1	77.5	80.2	96.6	19.3***
1-1.외식비	25.0	25.1	24.9	25.0	0.0
2.주거/관리비	25.3	24.7	25.7	25.8	1.0
2-1.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19.7	19.4	19.9	19.8	0.7
2-2.월세	4.2	3.8	4.4	4.9	0.6
3.기기/집기	6.2	6.9	5.9	5.0	0.9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17.8	18.2	20.2	2.5+
5.보건/의료비	7.0	6.5	7.2	8.1	1.9
6.교육/보육비	41.0	29.9	44.5	63.1	56.9***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31.9	32.6	32.4	0.1
7-1.가족여행 등	19.8	20.1	19.6	19.0	0.1
7-2.관람 체험학습	4.1	3.7	4.3	4.4	3.4*
7-3.완구	4.0	3.8	4.1	4.2	0.8
7-4.도서구매	4.5	4.3	4.7	4.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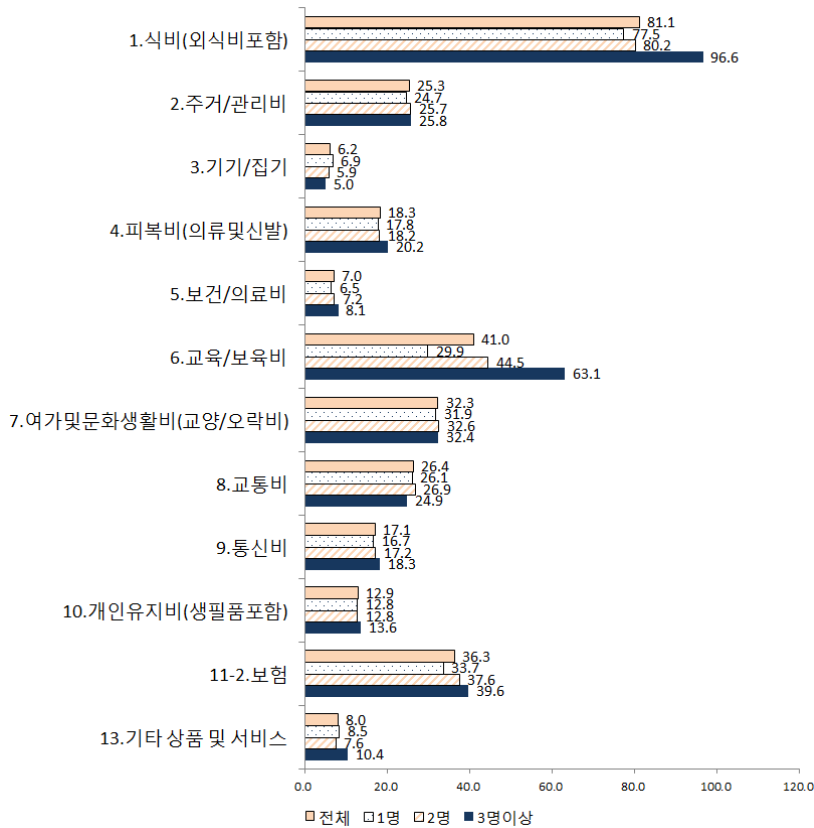
(표 IV-1-2 계속)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총 자녀수별 가구 생활비 지출			
		1명	2명	3명이상	F
8.교통비	26.4	26.1	26.9	24.9	2.0
9.통신비	17.1	16.7	17.2	18.3	5.1**
9-1.휴대전화비	12.5	12.1	12.5	14.1	9.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12.8	12.8	13.6	0.6
11-2.보험	36.3	33.7	37.6	39.6	4.4*
13.기타 상품 및 서비스	8.0	8.5	7.6	10.4	1.2

주: 1) 총계는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2)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

■ 그림 IV-1-2 ■ 총 자녀수별 생활비 지출액

단위 : %



주: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34만5천원으로 외벌이가구 생활비 지출액인 292만5천원에 비해 42만원가량 많았다. 다수의 비목에서 맞벌이 가구의 지출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특히 교육·보육비에서 편차가 크게 벌어져 맞벌이 가구(48만1천원)가 외벌이 가구(34만9천원)에 비해 13만원가량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 양쪽 다 근로를 함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여행비 등 여가 및 문화생활비도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소비액도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기 및 집기류 구매비, 보건의료비 등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항목이었다. 그리고 주거비 세목 중 월세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3만8천원)에 비해 외벌이 가구(4만6천원)에서 소비 지출이 더 큰 항목으로, 이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 및 자산 등이 더 많은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 보여진다.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세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의 지출은 약간 높은 반면 월세 등에 대한 부담이 다소 낮아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 표 IV-1-3 ▮ 맞벌이가구 여부별 비목별 생활비 지출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맞벌이 여부별 가구 생활비 지출		
		맞벌이	외벌이	t
N	1,648	762	886	-
총계	311.9	334.5	292.5	7.1***
1.식비(외식비포함)	81.1	83.8	78.8	2.6**
1-1.외식비	5.0	27.1	23.2	4.4***
2.주거/관리비	25.3	25.5	25.2	0.4
2-1.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19.7	20.4	19.2	2.8**
2-2.월세	4.2	3.8	4.6	-1.3
3.기기/집기	6.2	6.9	5.6	1.3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19.3	17.4	2.9**
5.보건/의료비	7.0	7.1	7.0	0.3

(표 IV-1-3 계속)

구분	가구 생활비 지출	맞벌이 여부별 가구 생활비 지출		
		맞벌이	외벌이	t
6.교육/보육비	41.0	48.1	34.9	6.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36.2	29.0	4.4***
7-1.가족여행 등	19.8	22.5	17.3	3.8***
7-2.관람 체험학습	4.1	4.4	3.7	2.8**
7-3.완구	4.0	4.2	3.8	1.5
7-4.도서구매	4.5	5.0	4.1	2.3*
8.교통비	26.4	28.6	24.5	6.3***
9.통신비	17.1	18.0	16.4	5.3***
9-1.휴대전화비	12.5	13.2	12.0	4.4***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13.5	12.3	2.4*
11-2.보험	36.3	38.5	34.5	2.7**
13.기타 상품 및 서비스	8.0	9.2	6.9	3.9***

주: 1) 총계는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

2)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  $p < .01$ , \*  $p < .05$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 생활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월세 지출액이 낮아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구소득에 따라서 가구 생활비 지출은 모든 비목에서 차이를 보여, 가구 생활비 지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임을 짐작케 했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은 214만5천원이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액도 점차 커져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생활비 지출 총액이 412만2천원에 달했다. 단,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즉,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생활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소득 증가만큼 지출로 사용되는 않고 일부는 소비로 일부는 저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

1) 생활비 지출액이 가구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그 비중이 200%를 초과하는 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각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으로,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용의 비중 299만원이하 가구는 평균 92.6%, 300~399만원 79.7%, 400~499만원 72.6%, 500~599만원 65.9%, 600만원이상 가구는 54.4%였음.

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게 되거나 혹은 소득을 초과하여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자산 형성의 기회가 더욱 적어지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게 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진다.

한편, 월세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지출액이 커지는 양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저 소득 구간인 299만원이하 가구와 최고 소득 구간인 600만원이상 가구 사이에 격차가 가장 크게 나는 비목은 역시 교육·보육비용으로 약 3배에 가까운 편차를 보였으며, 여가문화생활비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이었다. 즉, 영유아 가구에게 있어 교육·보육서비스와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른 비목에 비해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비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될 위험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V-1-4 | 가구소득 구간별 비목별 생활비 지출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 생활비 지출					F
	299만원 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N	223	440	384	271	330	-
총계	214.5	266.9	310.1	345.6	412.2	158.7***
1.식비(외식비포함)	59.4	72.8	84.1	89.1	96.7	45.0***
1-1.외식비	15.7	20.6	26.4	27.8	33.3	45.9***
2.주거/관리비	24.7	23.6	25.5	26.5	26.8	2.7*
2-1.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15.7	18.4	20.3	21.2	22.3	25.5***
2-2.월세	7.8	4.1	3.8	3.9	2.7	5.1***
3.기기/집기	2.0	5.0	5.6	6.8	11.0	8.8***
4.피복비(의류및신발)	11.7	16.0	18.2	20.2	24.3	39.3***
5.보건/의료비	5.1	6.7	6.8	7.9	8.5	4.5**
6.교육/보육비	22.8	28.6	37.1	50.1	66.9	66.3***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7.2	24.4	31.1	38.4	49.5	47.8***
7-1.가족여행 등	9.6	13.9	18.7	23.7	32.5	33.7***
7-2.관람 체험학습	2.9	3.3	3.8	4.9	5.4	15.6***
7-3.완구	2.3	3.3	4.2	4.8	5.1	18.4***
7-4.도서구매	2.3	4.0	4.4	5.0	6.5	10.1***

(표 IV-1-4 계속)

구분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 생활비 지출					F
	299만원 이하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599 만원	600만원 이상	
8.교통비	19.1	23.7	26.9	27.7	33.0	46.6***
9.통신비	15.2	16.4	16.9	17.6	19.1	16.7***
9-1.휴대전화비	11.1	11.8	12.5	12.7	14.4	16.3***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0.3	12.4	12.5	13.3	15.4	10.4***
11-2.보험	22.8	31.3	37.7	39.2	48.3	30.2***
13.기타 상품 및 서비스	4.2	6.0	7.6	9.0	12.8	24.0***

주: 1) 총계는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

2)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  $p < .01$ , \*  $p < .05$

이하에서는 가계 경제와 관련된 주요 경제 지표 중 엔젤 지수(Engel's coefficient)와 슈바베 지수(Schwabe Index), 엔젤 지수(angel coefficient) 등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가계 소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지수들은 가계 총 소비지출에서 특정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가계소비 상황을 간단히 진단해볼 수 있는 지표로, 엔젤 지수는 식비의 비중을, 슈바베 지수는 주거비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엔젤 지수<sup>2)</sup>는 앞의 두 지수와 달리 특정 비목의 비용이 아닌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비용, 즉 양육비용 전체가 생활비에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 엔젤 지수는 26.5, 슈바베 지수는 8.7이며, 엔젤 지수는 29.1이었다. 맞벌이 가구 여부별로는 엔젤 지수는 맞벌이 가구 25.5에 반해 외벌이 가구 27.4로 외벌이 가구에서 높았다. 슈바베 지수도 외벌이 가구가 9.2로 맞벌이 가구 8.2에 비해 높았다. 반면, 엔젤 지수는 맞벌이 가구가 29.4로, 외벌이 가구의 28.7에 비해 높았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슈바베 지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아지고, 엔젤지수는 자녀가 2명일 때 가장 높았다.

2) 엔젤 지수에 자녀 양육을 위한 식비 등을 포함할 것인가를 명확하지 않으나, 본 연구는 편의상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 산출하였음.

표 IV-1-5 가구 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구분		지수 종류		
		앵겔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6.5	8.7	29.1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5.5	8.2	29.4
	외벌이	27.4	9.2	28.7
총 자녀수	1명	27.2	9.1	27.6
	2명	25.8	8.6	30.6
	3명이상	27.4	7.9	27.5

주: 1) 앵겔 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 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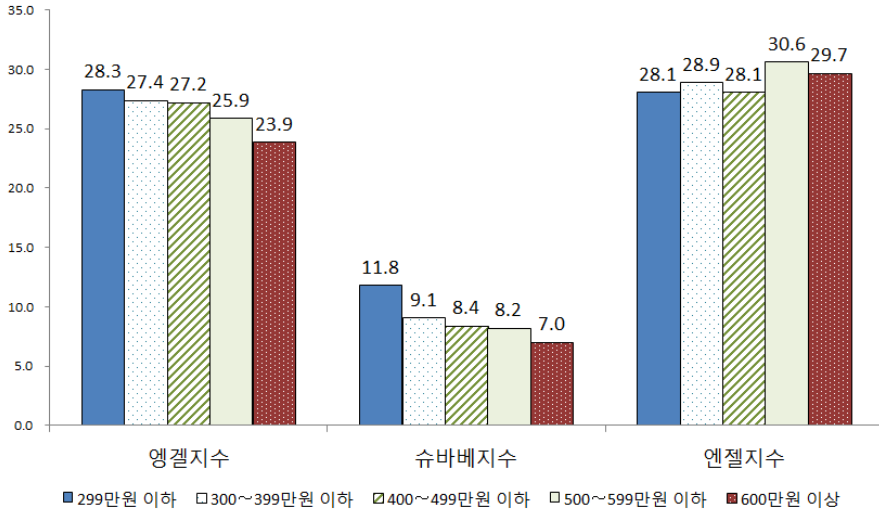
앵겔 지수나 슈바베 지수 등은 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앵겔 지수와 슈바베 지수가 낮아지는 특징이 포착되었다. 즉, 영유아 가구의 식비나 주거비 지출은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긴 하지만, 소득 증가폭만큼 증가하지 않고 비탄력적인 특징을 보였다.

표 IV-1-6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구분		지수 종류		
		앵겔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8.3	11.8	28.1
	300~399만원 이하	27.4	9.1	28.9
	400~499만원 이하	27.2	8.4	28.1
	500~599만원 이하	25.9	8.2	30.6
	600만원 이상	23.9	7.0	29.7

주: 1) 앵겔 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 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그림 IV-1-3 |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주: 1) 영겔 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 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반면, 엔젤 지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에도 엔젤 지수는 28.1로 엔젤 지수가 가장 높은 500~599만원이하 가구(30.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구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가구소득이 늘수록 자녀에 대한 투자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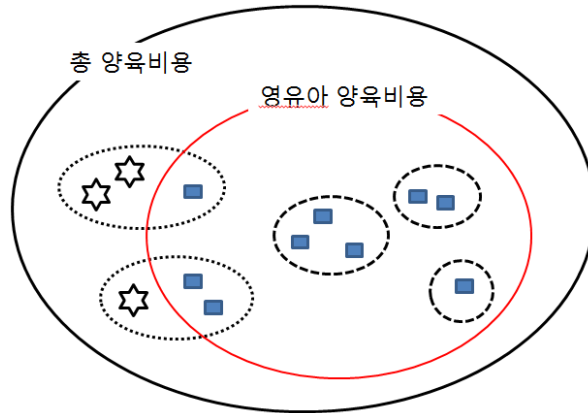
### 나. 유형별 양육비용 현황

이 항에서는 양육비용 산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양육비용 현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비용에서 포괄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총 3가지 양육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먼저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앞서 두 경우와 달리 영



유아 개인 단위로 산출된 금액으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자녀별 양육비용을 별도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자료가 아닌 아동 단위로 자료를 세로로 변환한 후, 이 비용을 평균한 값이다<sup>3)</sup>.

|| 그림 IV-1-4 || 유형별 양육비용 산출 범위



- 주: 1) 네모 블록(■)은 영유아기 자녀, 별표(★)는 초등기 이상 자녀, 점선은 가구내 자녀 구성, 실선은 양육비용이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함.  
 2) 총 양육비용과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단위(점선),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 단위(즉, 네모블록 ■)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임.

이처럼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자녀별 비용을 사용한 이유는 동일한 가구 내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 특성(연령, 출생순위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양육비용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 항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용의 경향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양육비용을 모두 제시하였다. 각 양육비용의 산출 범위는 그림 [IV-1-4]와 같다.

월평균 총 양육비용은 115만1천원이었으며,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9천원,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66만원이었으며, 비목별 지출액이 양육비용 유형별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 양육비용 지출 비목 중 교통비, 통신비 등에 대한 지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반면,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지출은 영유아 양육비용 기준 30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3) 영유아 양육비용을 가구 내 영유아 자녀수로 나눈 값이 아님에 주의를 요함.



표 IV-1-7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단위 : 만원

구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Ⅳ	1,648	1,648	1,648	2,277
총계	311.9	115.1	91.9	66.0
1.식비(외식비포함)	81.1	24.4	19.2	13.8
1-1.외식비	25.0	5.9	4.6	3.3
3.기기/집기	6.2	2.9	2.5	1.8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9.3	7.3	5.3
5.보건/의료비	7.0	4.4	3.8	2.7
6.교육/보육비	41.0	39.2	30.7	22.1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19.2	15.8	11.4
7-1.가족여행 등	19.8	8.9	7.2	5.2
7-2.관람 체험학습	4.1	2.3	1.8	1.3
7-3.완구	4.0	3.8	3.4	2.4
7-4.도서구매	4.5	4.2	3.4	2.5
8.교통비	26.4	0.6	0.3	0.2
9.통신비	17.1	0.5	0.1	0.0
9-1.휴대전화비	12.5	0.4	0.0	0.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5.2	4.5	3.2
11-2.보험	36.3	9.4	7.7	5.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가계 생활비 지출액과 비교해보면 가계 생활비 지출에서는 식비 지출 비용이 가장 높았던데 반해, 양육비용 중에서 가장 지출 비중이 높은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양육비용 중 지출 비중이 높은 비목은 교육·보육비 > 식비 > 여가 및 문화 생활비 순으로 육아 가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육·보육비로 인한 부담이 크을 것볼 수 있었다.

표 IV-1-8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 대비 양육비용 비율

단위 : 만원, %

구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만원)	비목별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 비율		
		총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율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
총계	311.9	35.8	29.1	21.9
1.식비(외식비포함)	81.1	30.7	24.6	18.1
1-1.외식비	25.0	25.8	20.1	14.8
3.기기/집기	6.2	50.4	43.3	34.4
4.피복비(의류및신발)	18.3	54.1	43.9	32.8
5.보건/의료비	7.0	71.5	63.4	49.1
6.교육/보육비	41.0	96.6	79.1	60.8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2.3	62.9	52.8	40.5
7-1.가족여행 등	19.8	45.7	37.4	28.2
7-2.관람 체험학습	4.1	61.8	49.2	37.9
7-3.완구	4.0	95.0	86.9	69.4
7-4.도서구매	4.5	92.4	75.3	59.7
8.교통비	26.4	3.0	1.6	1.2
9.통신비	17.1	2.5	0.3	0.2
9-1.휴대전화비	12.5	3.1	0.3	0.2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9	42.5	35.7	26.9
11-2.보험	36.3	30.4	25.2	18.6

- 주: 1) 비목별 지출 중에서 양육비용 비중을 구함. 즉, 식비 중에서 영유아 자녀의 식비 비중을 의미함.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각 가구별로 "(총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예: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3)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자녀별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총 양육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가구 생활비 지출 대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보육 비용에 대한 생활비 지출 대비 총 양육비용은 96.6%로, 교육·보육에 대한 가계 지출의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소요되는 지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가계 지출의 50%이상이 양육비용(영유아 양육비용 기준)에 기인한 경우는 보건 의료비(63.4%), 여가 및 문화 생활비(52.8%)이었다. 특히 여가 및 문화 생활비 중에서도 완구(86.9%), 도서 구매비(75.3%)의 대부분이 자녀를 위한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 지출 통신비의 0.3%만이 영유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었으며, 가계 지출 중 교통비의 1.6%만이 자녀를 위한 지출에 속하였다. 이 외에 식비의 경우에도 가계 지출 중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비용(24.6%)이 낮은 비목에 속하였다.

가구 특성에 따라 유형별 양육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100만8천원을, 외벌이 가구는 84만2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맞벌이 가구의 지출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를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영유아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어,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 가구는 평균 62만1천원, 600만원이상 가구는 123만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표 IV-1-9 ■ 가구 특성별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단위 : 만원

구분		가구 생활비 총 지출액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N		1,648	1,648	1,648	2,277
총계		311.9	115.1	91.9	66.0
맞벌이가 구여부	맞벌이	334.5	124.9	100.8	74.7
	외벌이	292.5	106.7	84.2	59.0
	t	7.1***	5.5***	5.8***	9.0***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4.5	74.4	62.1	44.6
	300~399만원	266.9	94.1	77.9	55.0
	400~499만원	310.1	113.4	86.7	64.8
	500~599만원	345.6	133.7	107.3	73.5
	600만원 이상	412.2	157.6	123.8	90.8
	F	158.7***	83.0***	60.1***	89.1***
총 자녀수	1명	293.1	83.3	83.3	83.3
	2명	316.4	125.7	97.3	61.3
	3명이상	355.3	176.1	97.0	52.1
	F	21.4***	198.6***	11.6***	93.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특이한 점은 총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의 지출 양태인데,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을 포함하는 총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176만1천원에 달하였다. 반면, 초등이상 자녀의 양육비용을 제외한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인 영유아 양육비용은 총 자녀수가 2명일 때 97만3천원인데 반해, 3명일 때 97만원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총 자녀수가 3명인 가구에 초등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양육비용과 영유아 양육비용 사이의 편차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크게 벌어지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양육비용의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가구소득 대비 유형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총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대비 27.3%, 영유아 양육비용은 22.1%,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16.3%인 것으로 분석됐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에서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포착되지만, 그 비중의 감소가 소득 증가와 비례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자녀에 대한 지출액 자체는 증가하지만, 양육비용의 증가가 소득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감을 크게 느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V-1-10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율

단위 : 만원, %

구분		평균 가구 소득 총액(만원)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율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율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비율
전체		462.9	27.3	22.1	16.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40.8	24.4	19.6	15.2
	외벌이	396.0	29.9	24.2	17.4
		<i>t</i>	-4.6***	-4.0***	-3.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4.5	39.2	33.4	23.7
	300~399만원	335.5	28.2	23.3	17.0
	400~499만원	427.8	26.5	20.3	15.6
	500~599만원	526.7	25.5	20.4	14.7
	600만원 이상	782.5	20.7	16.3	12.7
	<i>F</i>	942.3***	18.5***	17.7***	22.7***
총 자녀수	1명	455.7	19.6	19.6	19.6
	2명	461.8	30.2	23.8	14.8
	3명이상	491.9	40.5	22.9	11.9
	<i>F</i>	2.0	62.7***	5.1**	31.9***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  $p < .005$ , \*\*\*  $p < .001$

## 2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 실태

이 절에서는 영유아 양육비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데 소요된 양육비용 지출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식비 등 9개 비목 및 1개 세목(금융상품 중 보험납입금)의 값을 합산한 값이다. 이하에 제시된 표에서는 연구의 필요에 따라 비목의 하위분류인 세목 단위(예 : 외식비, 가족여행 등)의 비용을 보고하였으나, 양육비용 총액의 합산 시에는 이러한 세목은 중복 합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상품(비목)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인 혹은 가구를 위한 상품이 많아 이를 양육비용에 전체적으로 합산할 경우 양육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부분이 있어, 비목 값이 아닌 자녀를 위한 자녀 명의의 보험 납입금(세목)만을 양육비용에 합산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비 조사 과정에서 자녀별로 지출 비용을 계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대다수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은 이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하지만, 가족여행비 등은 영유아 단위로 금액을 분리하여 어려운 한계가 있어 자녀별 비용을 묻지 않았으므로, 가족 수로 나누어 1인당 여행비용을 산출하여 양육비용에 반영하였다. 한편, 외식비 등 세목에 해당하는 양육비용의 경우에는 특정 세목에 대한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비목을 구성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다만,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세목에 해당하는 가족여행비가 가구단위로만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비목에 준하도록 세목을 구성했기 때문에, 하위의 4개 세목을 합산하여 여가 및 문화생활비 지출 변수를 생성하였다.

한편, 영유아 양육비용 이외에 가구내 초등 자녀의 양육비용을 포함하는 총 양육비용과 영유아 개인 단위로 산출된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 가.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영유아 양육비용은 총 91만9천원으로, 총 자녀가 1명인 경우 83만3천원, 2명인 경우 97만3천원, 3명이상인 경우에는 97만원이었다. 한편, 영유아 자녀수를

기준으로는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용은 74만7천원으로,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영유아 양육비용 평균이 약간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가구 내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감소함을 내포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영유아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양육비용의 증가폭은 크지 않아서 총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에 약 14만원가량 많아지는데 그쳤다. 또한,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인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내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비 지출 패턴이 조정되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총 자녀수에 따라 비목별 지출 비용은 식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보험료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피복비와 보험료 등은 총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총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비해 오히려 지출액이 약간 적은데 반해, 식비의 경우에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식비는 생계와 직접적 관련을 가진 비용으로 절감이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어려운데 반해, 피복비 등은 물려받기 등으로 일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항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식비와 같이 고정 비용의 성격이 강한 품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2-1 자녀수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단위 : 만원

구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전체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F	1명	2명	3명 이상	F
총계	91.9	83.3	97.3	97.0	11.6***	74.7	118.0	164.2	181.8***
1. 식비(외식비포함)	19.2	15.8	20.8	24.0	38.2***	14.7	25.7	40.9	242.3***
1-1. 외식비	4.6	3.7	5.3	4.5	20.1***	3.5	6.3	7.0	72.4***
3. 기기/집기	2.5	2.7	2.4	1.8	0.7	2.1	3.2	3.2	2.5
4. 피복비(의류및신발)	7.3	6.4	8.0	7.4	11.7***	5.8	10.0	11.2	102.7***
5. 보건/의료비	3.8	3.5	4.0	4.0	3.7*	3.0	5.1	6.7	64.2***
6. 교육/보육비	30.7	28.3	32.4	31.3	2.4	25.8	37.8	55.6	37.2***

(표 IV-2-1 계속)

구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전체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F	1명	2명	3명 이상	F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5.8	16.0	16.2	13.4	2.5	13.8	19.4	20.1	24.5***
7-1.가족여행 등	7.2	6.7	7.8	6.5	2.6	6.1	9.2	9.4	19.5***
7-2.관람 체험학습	1.8	1.9	1.9	1.6	0.9	1.6	2.3	2.5	10.8***
7-3.완구	3.4	3.6	3.3	2.8	2.9	3.1	3.9	4.0	9.5***
7-4.도서구매	3.4	3.9	3.3	2.5	3.0*	3.1	4.0	4.3	2.9
8.교통비	0.3	0.3	0.3	0.5	1.7	0.2	0.4	0.7	4.6**
9.통신비	0.1	0.1	0.0	0.1	0.1	0.1	0.1	0.0	0.4
9-1.휴대전화비	0.0	0.0	0.0	0.1	0.3	0.0	0.1	0.0	0.5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5	4.2	4.6	4.8	1.5	3.5	6.0	8.0	67.6***
11-2.보험	7.7	6.1	8.4	9.7	27.2***	5.7	10.5	17.6	148.0***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만 합산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5$ , \*\*\*  $p < .001$

한편, 영유아 양육비용을 구성하는 비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표 IV-2-2>와 같다. 교육·보육비용이 가장 큰 비중(28.7%)을 차지하며, 다음이 식비(23.0%), 여가및문화생활비(17.6%) 순이었다. 반면 교통비와 통신비 등의 비중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총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3명인 경우에 비해 영유아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 총 자녀수 증가에 따라 식비의 비중은 단조 증가, 여가및문화생활비 비중은 단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자녀수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단위 : %

구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전체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1명	2명	3명 이상	F	1명	2명	3명 이상	F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3.0	21.8	23.1	26.9	10.1***	22.6	23.4	27.7	4.2*
1-1.외식비	5.3	4.7	5.9	5.1	9.8***	5.2	5.6	4.5	1.8
3.기기/집기	2.1	2.8	1.7	1.4	7.3***	2.3	1.9	1.5	0.8
4.피복비(의류및신발)	8.8	9.0	8.8	8.1	1.3	8.8	8.9	6.9	2.7
5.보건/의료비	4.6	5.0	4.4	4.4	3.3*	4.7	4.6	4.1	0.5
6.교육/보육비	28.7	27.3	30.0	28.2	3.2*	28.5	29.0	30.5	0.3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7.6	19.1	17.1	14.8	11.8***	18.4	16.6	12.1	11.5***
7-1.가족여행 등	8.1	8.1	8.4	7.3	1.3	8.3	8.1	5.4	3.5*
7-2.관람 체험학습	2.0	2.0	2.0	1.7	1.3	2.0	2.0	1.6	0.7
7-3.완구	3.9	4.5	3.6	3.4	9.6***	4.3	3.4	2.6	9.7***
7-4.도서구매	3.5	4.4	3.1	2.4	15.8***	3.8	3.1	2.5	4.5*
8.교통비	0.3	0.3	0.3	0.4	0.3	0.3	0.3	0.4	0.1
9.통신비	0.0	0.0	0.0	0.1	0.2	0.0	0.0	0.0	0.5
9-1.휴대전화비	0.0	0.0	0.0	0.1	1.1	0.0	0.0	0.0	0.4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7	6.3	5.3	5.5	5.0**	5.7	5.7	5.4	0.1
11-2.보험	9.0	8.3	9.3	10.1	4.4*	8.6	9.5	11.4	4.4*

주: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5$ , \*\*\*  $p < .001$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영유아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다(표 IV-2-3 참조). 가구소득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용은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비목은 교육·보육비였다.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출은 17만2천원에 그쳤으나,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49만7천원에 달했다.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비목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비를 들 수 있는데, 여가 및 문화생활비 관련 세목별 지출에서 특히 가족여행비가 가구소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항목이었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 중 관람·체험학습과 완구, 도서구매 등도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 양상을 띠긴 하지만, 지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금액에서의 현격한 증가라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식비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로 낮은 경우에만 외식비의 차이에 기인하여 분명한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구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3 가구소득 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단위 : 만원(명)

구분	전체	가구소득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F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만원 이상	
총계	91.9	62.1	77.9	86.7	107.3	123.8	60.1***
1.식비(외식비포함)	19.2	16.1	18.2	20.1	21.3	19.9	5.6***
1-1. 외식비	4.6	3.1	3.9	4.7	5.5	5.5	13.8***
3.기기/집기	2.5	1.1	1.9	2.0	2.9	4.3	4.9***
4.피복비(의류및신발)	7.3	5.7	6.8	6.9	8.2	9.0	12.5***
5.보건/의료비	3.8	3.0	3.7	3.7	4.6	3.9	4.5**
6.교육/보육비	30.7	17.2	22.2	26.5	38.6	49.7	48.1***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5.8	8.7	13.0	15.1	18.8	22.7	35.2***
7-1.가족여행 등	7.2	3.6	5.4	6.5	8.7	11.5	29.6***
7-2.관람 체험학습	1.8	1.4	1.5	1.7	2.4	2.2	6.8***
7-3.완구	3.4	2.0	2.9	3.6	4.0	4.2	15.0***
7-4.도서구매	3.4	1.7	3.2	3.3	3.7	4.8	6.2***
8.교통비	0.3	0.3	0.2	0.4	0.4	0.4	0.5
9.통신비	0.1	0.0	0.0	0.0	0.1	0.1	1.2
9-1. 휴대전화비	0.0	0.0	0.0	0.0	0.1	0.1	1.8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5	4.0	4.8	4.0	4.5	4.9	2.3
11-2.보험	7.7	6.0	7.0	7.9	8.2	8.9	6.5***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만 합산한 금액.

\*\*  $p < .005$ , \*\*\*  $p < .001$

가구소득 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비 비중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는 반면, 교육·보육비와 여가및문화생활비 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일종의 사치재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표 IV-2-4 가구소득 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소득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F
		299만원 이하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만원 이상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3.0	28.0	24.5	24.0	21.3	18.0	22.5***
1-1.외식비	5.3	5.2	5.2	5.7	5.6	4.9	1.2
3.기기/집기	2.1	1.4	2.1	2.0	2.1	2.7	1.7

(표 IV-2-4 계속)

구분	전체	가구소득구간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F
		299만원 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4.피복비(의류및신발)	8.8	9.7	9.1	8.5	8.5	8.2	2.6*
5.보건/의료비	4.6	5.2	5.1	4.5	4.7	3.8	5.9***
6.교육/보육비	28.7	23.6	26.2	27.8	30.8	34.9	14.5***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7.6	14.4	16.7	18.2	18.9	19.2	7.7***
7-1.가족여행 등	8.1	6.1	7.4	8.2	9.1	9.8	8.6***
7-2.관람 체험학습	2.0	2.0	1.9	2.0	2.2	1.8	1.0
7-3.완구	3.9	3.3	4.0	4.2	4.0	3.8	1.8
7-4.도서구매	3.5	2.9	3.4	3.8	3.5	3.8	1.0
8.교통비	0.3	0.5	0.3	0.3	0.3	0.2	1.2
9.통신비	0.0	0.0	0.0	0.0	0.1	0.1	0.6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1	0.1	1.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7	7.5	6.7	5.1	4.7	4.9	11.3***
11-2.보험	9.0	9.7	9.2	9.6	8.5	7.9	2.7*

주: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맞벌이가구의 영유아 양육비용은 100만8천원, 외벌이 가구는 84만2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식비 등 대부분 비목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비목은 교육·보육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였다. 특히 교육·보육비는 맞벌이가구가 37만1천원, 외벌이가구 25만2천원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의 차이는 대부분 여기에 기인한다. 이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모 모두가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다소 높은 것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sup>4)</sup>.

4)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 어떠한 교육·보육비용이 선택되면서 비용에 편차를 보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과제2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함.

표 IV-2-5 |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총계	91.9	100.8	84.2	5.8***
1.식비(외식비포함)	19.2	19.2	19.2	-0.1
1-1.외식비	4.6	4.6	4.5	0.5
3.기기/집기	2.5	2.9	2.1	1.5
4.피복비(의류및신발)	7.3	7.5	7.2	0.7
5.보건/의료비	3.8	3.8	3.8	0.2
6.교육/보육비	30.7	37.1	25.2	6.7***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5.8	17.5	14.4	3.9***
7-1.가족여행 등	7.2	8.2	6.4	3.6***
7-2.관람 체험학습	1.8	2.0	1.7	1.5
7-3.완구	3.4	3.5	3.3	1.0
7-4.도서구매	3.4	3.9	3.0	2.3*
8.교통비	0.3	0.3	0.3	-0.8
9.통신비	0.1	0.1	0.0	1.1
9-1.휴대전화비	0.0	0.1	0.0	1.4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5	4.5	4.5	0.0
11-2.보험	7.7	8.1	7.3	2.1*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만 합산한 금액.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5$ , \*\*\*  $p < .001$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양육비용 지출 규모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향이 발견되지만, 다만 식비의 경우 외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출 비용 자체는 거의 동일했던데 반해 비중은 외벌이 가구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외벌이가구의 영유아 양육비용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맞벌이 가구들의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비용의 31.8%를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식비(21.1%)와 여가문화생활비(18.1%) 순으로 응답하였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 지출이 가장 많지만, 식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2-6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비목 구성비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t
총계	100.0	100.0	100.0	
1.식비(외식비포함)	23.0	21.1	24.7	-5.5***
1-1.외식비	5.3	4.9	5.7	-2.8**
3.기기/집기	2.1	2.3	1.9	1.3
4.피복비(의류및신발)	8.8	8.2	9.3	-3.7***
5.보건/의료비	4.6	4.3	4.9	-3.3***
6.교육/보육비	28.7	31.8	26.1	5.7***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7.6	18.1	17.2	1.5
7-1.가족여행 등	8.1	8.6	7.8	2.0*
7-2.관람 체험학습	2.0	1.9	2.0	-0.7
7-3.완구	3.9	3.8	4.1	-1.5
7-4.도서구매	3.5	3.8	3.3	1.7
8.교통비	0.3	0.2	0.4	-2.5*
9.통신비	0.0	0.1	0.0	1.1
9-1.휴대전화비	0.0	0.0	0.0	1.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7	5.1	6.3	-3.7***
11-2.보험	9.0	8.9	9.1	-0.4

주: 가구별로 비목별 비중을 구하여 평균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5$ , \*\*\*  $p < .001$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가 높은 것이 가구소득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구간별 맞벌이 가구여부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비교해 본 결과, 동일 소득 구간일 때 399만원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반면,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인 구간에서는 외벌이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았다. 한편,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구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액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교육·보육비 지출은 맞벌이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필요에 따른 것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가구들의 선호가 미묘하게 뒤섞여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중간 소득 구간(400~499만원)의 교육·보육서비스 수요는 다분히 사교육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에 기인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IV-2-7 가구 소득 구간 및 맞벌이가구 여부별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출액

단위 : %(가구)

구분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전체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8 ( 43)	16.8 (180)	17.2 (223)
	300~399만원	26.4 (116)	20.7 (324)	22.1 (440)
	400~499만원	24.8 (180)	28.0 (204)	26.5 (384)
	500~599만원	39.3 (176)	37.3 ( 95)	38.6 (271)
	600만원 이상	52.7 (247)	41.0 ( 83)	49.7 (330)

주: 1) 가구내 영유아 자녀 전체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출액 평균 값임.

\*\*  $p < .005$ , \*\*\*  $p < .001$

## 나.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본 연구는 양육비용 중에서 특히 영유아 양육비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자녀 연령별 양육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항에서는 연령별 양육비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구특성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자녀별로 개별적인 양육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즉,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양육비용을 가구 내 영유아 자녀수로 나눈 값이 아닌 자녀별 지출 특성을 반영하여 별개로 작성된 자료임을 밝혀둔다.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산출에 쓰인 관측치는 총 2,277명이었다<sup>5)</sup>.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0세가 53만6천원으로 1세(51만1천원)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이후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비목에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교육·보육비용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비도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 지출이 조금씩 커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2세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개인유지비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어린 연령의 자녀일수록 기저귀나 아토피용 목욕용품 등의 사용이 많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5) 가구 내 초등 자녀의 양육비용도 개별적으로 조사되긴 했으나, 영유아기 자녀에 국한하여 일인당 양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아동 당 비용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함.

표 IV-2-8 영유아 자녀 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영유아 자녀연령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F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사례수	(127)	(268)	(294)	(355)	(369)	(403)	(461)	
총계	53.6	51.1	57.5	59.6	70.3	74.9	77.4	22.6***
1.식비(외식비포함)	11.0	12.2	13.0	13.9	14.2	14.8	14.7	5.9***
1-1.외식비	0.6	1.5	3.0	3.6	3.8	4.1	3.9	36.2***
3.기기/집기	4.7	1.4	1.8	1.5	1.8	1.4	1.7	4.1***
4.피복비(의류및신발)	5.8	4.6	4.9	5.2	5.2	5.7	5.4	2.4*
5.보건/의료비	3.3	3.0	3.0	2.6	2.6	2.6	2.6	2.2*
6.교육/보육비	10.3	9.8	14.7	17.2	24.9	30.1	31.9	37.6***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7.1	9.0	10.9	10.9	13.1	12.0	12.6	6.4***
7-1.가족여행 등	3.6	4.6	4.9	5.0	6.4	4.9	5.6	3.5**
7-2.관람 체험학습	0.6	0.6	1.2	1.4	1.5	1.6	1.5	9.9***
7-3.완구	1.5	2.2	2.4	2.3	2.6	2.8	2.4	3.6**
7-4.도서구매	1.5	1.6	2.4	2.2	2.5	2.7	3.2	2.4*
8.교통비	0.2	0.1	0.2	0.2	0.3	0.3	0.3	1.1
9.통신비	0.0	0.0	0.0	0.0	0.0	0.0	0.1	2.8*
9-1.휴대전화비	0.0	0.0	0.0	0.0	0.0	0.0	0.1	3.4**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5.8	5.1	3.7	2.8	2.5	2.6	2.5	32.4***
11-2.보험	5.3	5.9	5.2	5.3	5.7	5.6	5.6	0.8

주: 1) 총계는 세목(외식비, 관리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하고, 비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안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구함.

2)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별 양육비용으로, 아동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  $p < .01$ , \*\*  $p < .005$ , \*\*\*  $p < .001$

### 3 양육비용 부담 및 가계 소비 변화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 양육에 따른 소비 행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소비 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아 가구들은 현재 지출되는 양육비용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체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8.9%, 대체로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42.1%였다. 4점 척도기준 평균 점수는 2.5점으로 약간 넉넉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양육비용을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 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양육비용이 충분하다(매우 충분+대체로 충분)는 점에 더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충분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표 VI-3-1 참조). 가구 소

특이 600만원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충분 4.8%, 대체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62.7%, 약 2/3 가량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13.0%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일부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가구 생활비 구간별로는 생활비 지출이 큰 집단에서 충분하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표 VI-3-2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 생활비 지출이 큰 가구들이 가구소득도 높고, 양육비용 지출도 큰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이 큰 구간에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영유아 양육비용이 40만원이하인 가구에서는 양육비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8.9%, 부족하다는 응답이 44.0%인데 반해, 양육비용을 200만원이상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4.6%, 대체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56.3%에 달했다.

표 IV-3-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가구)

구분	평균점수	양육비용 충분성					계
		매우 충분	대체로 충분	대체로 부족	매우 부족		
전체	2.5	2.9	48.9	42.1	6.1	100.0 (1,648)	
맞벌이 가구	맞벌이	2.6	3.8	55.0	37.3	3.9	100.0 ( 762)
	외벌이	2.4	2.1	43.7	46.2	8.0	100.0 ( 886)
여부	$t / \chi^2$	5.8***	33.403(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	0.9	28.3	55.6	15.2	100.0 ( 223)
	300~399만원	2.4	2.0	43.2	48.9	5.9	100.0 ( 440)
	400~499만원	2.5	2.1	49.2	43.5	5.2	100.0 ( 384)
	500~599만원	2.6	4.8	57.9	33.2	4.1	100.0 ( 271)
	600만원 이상	2.7	4.8	62.7	29.4	3.0	100.0 ( 330)
		$F / \chi^2$	29.8***	122.793(12)***			
총 자녀수	1명	2.6	3.0	56.3	36.2	4.5	100.0 ( 638)
	2명	2.5	3.1	45.6	45.6	5.7	100.0 ( 818)
	3명이상	2.3	2.1	38.5	46.4	13.0	100.0 ( 192)
		$F / \chi^2$	15.0***	39.803(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IV-3-2 가구 지출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가구)

구분		평균 점수	양육비용 충분성				계
			매우 충분	대체로 충분	대체로 부족	매우 부족	
전체		2.5	2.9	48.9	42.1	6.1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2.6	2.8	41.2	44.5	11.4	100.0 ( 211)
	200~299만원	2.6	3.0	44.4	46.2	6.4	100.0 ( 673)
	300~399만원	2.5	2.2	53.2	41.2	3.4	100.0 ( 464)
	400만원 이상	2.4	4.0	57.7	32.3	6.0	100.0 ( 300)
	$F / \chi^2$	7.9***	38.830(9)***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2.6	1.7	45.4	44.0	8.9	100.0 ( 361)
	50~99만원	2.5	3.4	46.3	44.7	5.6	100.0 ( 712)
	100~199만원	2.5	2.9	53.9	38.3	4.9	100.0 ( 488)
	200만원 이상	2.4	4.6	56.3	33.3	5.7	100.0 ( 87)
	$F / \chi^2$	4.5**	19.191(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5$ , \*\*\*  $p < .001$

자녀 양육 시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교육·보육비가 44.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비 17.7%였다. 한편, 부담되는 항목이 없다는 응답도 11.3%에 달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보육비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용 지출도 증가하는 일종의 사치재적 특성을 보인 비목이었지만, 영유아 가구들의 절반 가량이 이 비목이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즉, 영유아 가구들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교육·보육비로 인한 부담감은 절대적인 지출액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불안감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식비에 대한 부담감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 시 식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중은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 28.7%에 달했으며, 300~399만원 구간에서는 19.1%, 400~499만원 구간에서는 17.2%, 500~599만원 구간에서는 13.7%, 600만원이상 구간에서는 12.4%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교육·보육비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가구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400~499만원인 가구가 가장 부담(49.2%)을 크게 느끼고 다음으로 600만원이상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보육비 지출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도 소득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큰 차이를 보였다. 단,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부담되는 항목이 없다는 응답이 15.0%로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에 많긴 하지만 그 증가폭이 매우 큰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영유아 가구에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비용 증가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생활비 지출 구간별로는 생활비 지출액이 적은 구간에서 식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데 반해, 생활비 지출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 양육비용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여전히 발견됐다. 즉,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가구일수록 지출액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소득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사치재적 특성을 보이는 교육·보육비가 영유아 가구들에게는 다분히 고정비용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 표 IV-3-3 ▣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단위 : %

구분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항목												부담되는 항목 없음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전체	17.7	4.0	0.8	1.8	1.6	44.6	5.0	0.8	7.0	4.1	0.7	0.5	1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7	4.5	0.7	0.9	1.8	44.9	5.2	0.8	7.7	4.3	1.0	10.8
	외벌이	18.6	3.6	0.9	2.5	1.5	44.4	4.7	0.8	6.4	4.0	0.5	11.9
	$\chi^2$	12.655(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8.7	4.9	0.9	2.7	1.3	36.8	2.7	1.3	9.0	6.3	0.4	4.0
	300~399만원	19.1	3.6	0.7	2.5	1.8	42.0	5.0	0.9	8.6	3.6	0.0	11.8
	400~499만원	17.2	3.9	1.0	1.3	1.3	49.2	5.2	0.5	6.8	3.6	0.3	9.6
	500~599만원	13.7	4.1	0.0	0.7	1.1	43.9	7.4	1.1	6.6	3.3	1.5	15.1
	600만원 이상	12.4	3.9	1.2	1.5	2.4	48.5	4.2	0.3	4.2	4.5	1.8	14.5
	$\chi^2$	98.504(48)***											
총 자녀 수	1명	18.8	4.2	1.4	1.7	2.2	33.7	5.8	1.1	9.6	4.7	1.1	15.0
	2명	16.3	3.7	0.5	2.1	1.2	51.7	5.0	0.5	5.1	3.5	0.4	9.5
	3명이상	20.3	4.7	0.0	0.5	1.6	50.5	2.1	1.0	6.8	4.7	1.0	6.8
	$\chi^2$	75.269(2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3-4 가구 지출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단위 : %

구분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항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파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상품 및 서비스	부담되는 항목 없음	
전체	17.7	4.0	0.8	1.8	1.6	44.6	5.0	0.8	7.0	4.1	0.7	0.5	11.3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22.7	3.8	0.9	3.3	1.4	27.0	4.3	0.5	10.9	5.7	0.5	0.5	18.5
	200~299만원	20.8	4.0	1.0	1.9	1.9	39.8	5.5	1.5	7.9	4.3	0.7	0.4	10.1
	300~399만원	16.4	4.5	0.6	1.5	1.3	50.2	4.5	0.0	5.8	3.4	0.4	0.2	11.0
	400만원 이상	9.3	3.3	0.3	0.7	1.7	59.0	5.0	0.7	4.3	3.7	1.3	1.0	9.7
	$\chi^2$	98.385(36)***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19.1	4.4	0.6	3.0	0.6	34.1	5.8	1.1	8.3	5.0	0.6	0.3	17.2
	50~99만원	18.8	3.8	0.8	1.4	2.2	44.5	4.1	0.6	7.4	5.2	0.6	0.4	10.1
	100~199만원	16.2	4.3	1.0	1.4	1.6	50.6	5.1	1.0	6.4	1.8	1.0	0.6	8.8
	200만원 이상	11.5	2.3	0.0	1.1	1.1	55.2	8.0	0.0	2.3	4.6	1.1	1.1	11.5
	$\chi^2$	64.883(3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3-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가구들은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26.4%)이 가장 높아, 영유아 가구들의 교육·보육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즉, 양육비용 증 지출 비중과 지출액이 많은 교육·보육비용에 대해 영유아 가구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소득이 증가하면 교육·보육비를 최우선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도 높아, 교육·보육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응답이 14.7%, 추가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14.6%, 원리금 상환이 13.7%로, 소득의 증가분을 당장 쓰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도 상당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14.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항목에 대한 선호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계 소비 지출이나 양육비용 결정에 있어 가구 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으나, 실제 현재 가구 소득이 얼마이든 향후 소득이 얼마나 상승하든지 영유아 가구의 대부분은 교육·보육비, 금융상품, 원리금 상환, 여가 및 문화생활비 등에 소득 증가분을 사용하려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우선 지출에 대한 선호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39.1%로 매우 높은 반면,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9.7%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이때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추가지출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자녀가 3명인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명인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금융상품과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해 높았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당 교육·보육비 지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 투자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내포하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라서 외벌이 가구가 교육·보육비에 대한 우선 지출(28.9%)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우선 지출(13.3%) 비중이 약간 낮은 특징이 있었다<sup>6)</sup>.

6) 가구 생활비 지출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은 <부표 3-14>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V-3-5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단위 : %(명)

구분	추가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비목														계	
	식비	주거/ 관리비	기기/ 집기	파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및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원리금 상환	추가 지출 의향 없음		
전체	8.7	1.6	0.4	0.7	1.0	26.4	14.3	0.4	3.1	14.7	0.3	0.2	13.7	14.6	100.0 (1,648)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8.9	0.9	0.3	0.4	0.5	23.5	14.6	0.3	3.9	16.3	0.3	0.4	15.4	14.4	100.0 ( 762)
	외벌이	8.6	2.1	0.6	1.0	1.4	28.9	14.0	0.5	2.4	13.3	0.3	0.1	12.2	14.7	100.0 ( 886)
	$\chi^2$	25.060(1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7.5	0.9	0.9	0.4	2.7	23.8	11.7	0.0	2.7	16.1	0.0	0.0	10.3	13.0	100.0 ( 223)
	300~399만원	7.3	2.0	0.0	1.1	0.9	28.6	13.9	0.5	3.4	14.3	0.5	0.5	13.0	14.1	100.0 ( 440)
	400~499만원	7.0	2.1	0.3	0.5	0.3	25.3	17.4	0.3	2.9	15.1	0.3	0.3	15.9	12.5	100.0 ( 384)
	500~599만원	8.1	1.1	0.7	0.7	1.1	26.6	15.1	0.0	3.3	13.7	0.0	0.4	11.8	17.3	100.0 ( 271)
	600만원 이상	7.3	1.2	0.6	0.6	0.6	26.4	12.1	0.9	3.0	14.5	0.6	0.0	15.8	16.4	100.0 ( 330)
	$\chi^2$	66.791(52)														
총 자녀수	1명	8.5	1.4	0.5	1.7	0.6	19.7	16.0	0.6	4.9	16.3	0.5	0.0	13.5	15.8	100.0 ( 638)
	2명	9.3	1.7	0.4	0.1	1.0	28.6	13.6	0.1	2.2	13.8	0.2	0.5	14.2	14.3	100.0 ( 818)
	3명이상	7.3	1.6	0.5	0.0	2.1	39.1	11.5	0.5	1.0	13.0	0.0	0.0	12.0	11.5	100.0 ( 192)
	$\chi^2$	68.738(2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5$ , \*\*\*  $p < .001$

한편, 자녀 출산을 전후해서 가계소비가 변화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가구의 91.1%가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전체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표 IV-3-6 참조). 그런데, 출산 전후 가계 소비의 변화 여부는 맞벌이 가구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체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도 전체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87.8%로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전체 지출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1.3%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V-3-6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후 가계소비 변화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자녀 출산 후 가계소비 변화 여부			계
		전체 지출 규모 증가	전체 지출 변화 없음	전체 지출 규모 감소	
전체		91.1	8.2	0.7	100.0 (1,648)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91.7	7.6	0.7	100.0 ( 762)
	외벌이	90.5	8.7	0.8	100.0 ( 886)
	$\chi^2$	0.750(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1.9	7.6	0.4	100.0 ( 223)
	300~399만원	90.2	8.9	0.9	100.0 ( 440)
	400~499만원	92.2	7.3	0.5	100.0 ( 384)
	500~599만원	91.9	6.6	1.5	100.0 ( 271)
	600만원 이상	89.7	10.0	0.3	100.0 ( 330)
	$\chi^2$	6.580(8)			
총 자녀수	1명	87.8	11.3	0.9	100.0 ( 638)
	2명	92.9	6.5	0.6	100.0 ( 818)
	3명이상	94.3	5.2	0.5	100.0 ( 192)
	$\chi^2$	14.410(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5$

현재 가구 생활비 지출액이 199만원이하로 비교적 생활비 지출액 자체가 적은 가구 집단에서는 출산 전후 가계 소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19.4%에 달해 소비 지출이 200만원이상인 집단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영유아 양육비용이 49만원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출산 전후 전체 지출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14.1%로, 영유아 양육비용이 그 이상인 집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7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후 가계소비 변화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자녀 출산 후 가계소비 변화 여부			계
		전체 지출 규모 증가	전체 지출 변화 없음	전체지출 규모 감소	
전체		91.1	8.2	0.7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79.6	19.4	0.9	100.0 ( 211)
	200~299만원	92.3	6.8	0.9	100.0 ( 673)
	300~399만원	92.5	6.9	0.6	100.0 ( 464)
	400만원 이상	94.3	5.3	0.3	100.0 ( 300)
$\chi^2$		42.657(6)***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84.5	14.1	1.4	100.0 ( 361)
	50~99만원	90.9	8.6	0.6	100.0 ( 712)
	100~199만원	95.1	4.3	0.6	100.0 ( 488)
	200만원 이상	97.7	2.3	0.0	100.0 ( 87)
$\chi^2$		34.477(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 출산 전후로 소비 지출액 자체가 증감하는지 뿐 아니라, 지출 항목 자체를 조정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항목 간 비중 변화가 매우 크다는 응답이 52.7%, 항목 간 조정이 약간 있었다는 응답이 41.7%, 항목 간 비중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6%였다. 이 또한 가계 소비 지출액 변화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총 자녀수 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항목 간 조정이 매우 컸다는 응답도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IV-3-8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후 생활비 지출 비목 간 조정

단위 : %(가구)

구분		자녀 출산 후 생활비 지출 비목간 조정			계
		항목간 비중 변화가 매우 큼	항목간 지출 변화가 약간 있음	항목간 비중 변화 없음	
전체		52.7	41.7	5.6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3.8	39.8	6.4	100.0 ( 762)
	외벌이	51.8	43.3	4.9	100.0 ( 886)
	$\chi^2$	3.394(2)			

(표 IV-3-8 계속)

구분		자녀 출산 후 생활비 지출 비목간 조정			계
		항목간 비중 변화가 매우 큼	항목간 지출 변화가 약간 있음	항목간 비중 변화 없음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2.5	43.5	4.0	100.0 ( 223)
	300~399만원	54.1	39.5	6.4	100.0 ( 440)
	400~499만원	51.6	44.5	3.9	100.0 ( 384)
	500~599만원	53.9	41.7	4.4	100.0 ( 271)
	600만원 이상	51.5	40.0	8.5	100.0 ( 330)
$\chi^2$		11.042(8)			
총 자녀수	1명	45.3	46.9	7.8	100.0 ( 638)
	2명	55.0	40.6	4.4	100.0 ( 818)
	3명이상	67.7	29.2	3.1	100.0 ( 192)
	$\chi^2$	37.153(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가구 생활비 지출 규모에 따라서는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항목 간 비중 변화가 컸다는 응답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영유아 양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도 항목 간 비중 변화가 매우 컸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 표 IV-3-9 ▮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후 생활비 지출 비목 간 조정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 후 생활비 지출 비목간 조정			계
		항목간 비중 변화가 매우 큼	항목간 지출 변화가 약간 있음	항목간 비중 변화 없음	
전체		52.7	41.7	5.6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0.8	47.9	11.4	100.0 ( 211)
	200~299만원	53.5	41.8	4.8	100.0 ( 673)
	300~399만원	53.9	41.4	4.7	100.0 ( 464)
	400만원 이상	57.7	37.7	4.7	100.0 ( 300)
	$\chi^2$	24.963(6)***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49.3	43.2	7.5	100.0 ( 361)
	50~99만원	52.0	42.1	5.9	100.0 ( 712)
	100~199만원	55.5	40.0	4.5	100.0 ( 488)
	200만원 이상	57.5	41.4	1.1	100.0 ( 87)
$\chi^2$		9.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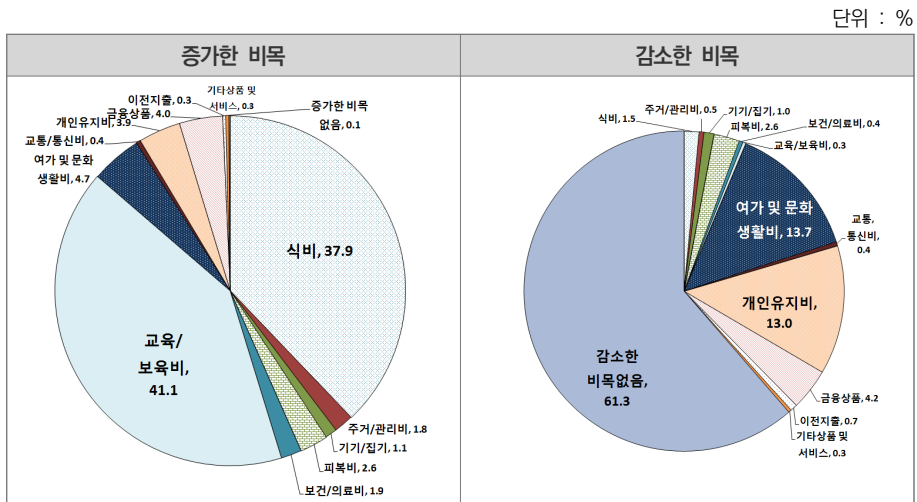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항목 간 지출 비중의 변화가 있는 경우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비목은 역시 교육·보육비(41.1%)였으며, 다음으로 식비(37.9%)였다. 이 외에 다른 비목의 경우에는 10%이하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자녀 출산 후 비용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비목(감소한 비목 없음 제외)은 여가 및 문화 생활비(13.7%)와 개인유지비(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감소한 비목이 없다는 응답이 61.3%에 달해, 자녀 출산 전후로 가계 소비 패턴의 변화는 항목 간 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지출하지 않던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이 출산을 전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3-1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의 변화



자녀 출산 후 비용 지출이 증가한 비목은 맞벌이 가구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적은 집단에서는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비목이 식비라고 응답한 비중이 44.4%로 매우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교육·보육비라고 응답한 비중이 51.0%로 매우 높았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 전후로 필수재인 자녀 식비로 인해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데 반해,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교육·보육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비



해 3명이상인 경우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 증가가 가장 컸다고 응답한 비중이 의미있는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가장 크게 증가한 비목이 식비라는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자녀가 1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6.8%로 다자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1명인 가구의 경우 영아 자녀의 비중이 높아 완구 등의 구매에 비용 지출이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 표 IV-3-10 ▮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증가한 비목

단위 : %

구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증가한 비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증가한 비목 없음	
전체	37.9	1.8	1.1	2.6	1.9	41.1	4.7	0.4	3.9	4.0	0.3	0.3	0.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7.6	2.0	0.6	1.8	1.7	41.5	5.2	0.6	3.8	4.2	0.6	0.3	0.3
	외벌이	38.1	1.7	1.5	3.2	2.1	40.8	4.3	0.2	3.9	3.8	0.0	0.4	0.0
	$\chi^2$	16.029(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4.4	2.3	1.9	3.3	2.3	32.2	3.3	0.0	5.1	3.7	0.0	1.4	0.0
	300~399만원	43.0	1.9	1.2	3.9	3.2	34.2	3.9	0.2	4.6	3.6	0.0	0.0	0.2
	400~499만원	38.5	1.9	0.8	0.8	1.4	42.3	5.1	0.5	4.3	3.8	0.0	0.3	0.3
	500~599만원	32.0	1.5	0.8	2.7	1.9	46.3	5.8	0.8	3.1	3.9	0.8	0.4	0.0
	600만원 이상	30.5	1.3	1.0	2.3	0.7	51.0	5.3	0.3	2.0	5.0	0.7	0.0	0.0
		$\chi^2$	76.668(48)**											
총 자녀 수	1명	38.4	2.4	2.0	3.7	2.7	33.3	6.8	0.3	4.9	4.1	0.5	0.3	0.3
	2명	37.3	1.3	0.6	2.2	1.4	45.5	4.0	0.5	3.2	3.6	0.1	0.3	0.0
	3명이상	38.2	2.2	0.0	0.5	1.6	47.3	1.1	0.0	3.2	5.4	0.0	0.5	0.0
		$\chi^2$	57.600(2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5$ , \*\*\*  $p < .001$

가구 생활비 지출 구간에 따라서는 생활비 지출액이 199만원이하로 적은 가구에서 식비가 가장 지출 증가가 많은 비목이라고 응답한 비중(41.7%)이 높고, 생활비 지출액이 4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교육·보육비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61.5%)이 높았다. 영유아 양육비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가계 지출이 적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 식비를 중심으로 약간의 소비만을 증가시킨 반면 교육·보육비에 대한 선호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비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 지출 자체도 크게 증가함으로 알 수 있었다.

▮ 표 IV-3-11 ▮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증가한 비목

단위 : %

구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증가한 비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증가한 비목 없음	
전체	37.9	1.8	1.1	2.6	1.9	41.1	4.7	0.4	3.9	4.0	0.3	0.3	0.1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1.7	2.1	1.1	5.3	2.7	30.5	2.7	0.5	5.9	5.9	0.0	0.5	1.1
	200~299만원	43.2	2.0	1.4	2.8	2.2	34.0	5.1	0.5	3.4	4.8	0.0	0.5	0.0
	300~399만원	37.1	1.6	0.7	1.8	1.8	42.8	6.3	0.2	3.8	3.4	0.2	0.2	0.0
	400만원	24.5	1.4	1.0	1.4	1.0	61.5	2.4	0.3	3.5	1.7	1.0	0.0	0.0
	$\chi^2$	116.409(36)***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41.0	1.5	1.5	4.8	2.7	31.7	3.9	0.6	5.4	5.7	0.0	0.6	0.6
	50~99만원	41.8	1.5	0.6	2.1	2.2	40.0	4.5	0.4	3.4	3.0	0.0	0.4	0.0
	100~199만원	33.5	2.4	1.5	2.1	1.1	45.3	6.2	0.0	3.2	4.1	0.6	0.0	0.0
	200만원 이상	18.6	2.3	1.2	0.0	1.2	64.0	1.2	1.2	4.7	4.7	1.2	0.0	0.0
	$\chi^2$	85.935(3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반대로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감소한 항목에 대해서는 감소한 비목이 없다는 응답이 61.3%로 매우 높고, 맞벌이 가구여부나 가구소득, 총 자녀수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다수의 영유아 가구가 출산을 전후해서 자녀로 인한 양육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가계 지출이 증가하며, 출산 전에 지출하던 비용에서 비목 간 조정을 통해 가계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2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이후 비용 지출이 감소한 비목

단위 : %

구분	자녀 출산 후 비용 지출이 감소한 비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감소한 비목 없음	
전체	1.5	0.5	1.0	2.6	0.4	0.3	13.7	0.4	13.0	4.2	0.7	0.3	61.3	
맞벌이 가구	맞벌이	1.3	0.6	1.4	2.1	0.4	0.4	14.9	0.6	12.3	4.3	1.0	0.3	60.4
	외벌이	1.8	0.5	0.7	3.0	0.4	0.2	12.7	0.4	13.5	4.0	0.5	0.4	62.0
여부	$\chi^2$	7.917(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	0.0	0.9	3.3	0.5	0.0	12.6	0.0	8.4	2.8	0.0	0.5	68.7
	300~399만원	1.0	1.0	0.5	2.4	0.2	0.0	12.4	1.2	12.4	5.6	0.2	0.2	62.9
	400~499만원	1.9	0.3	1.6	1.6	0.8	0.5	16.5	0.0	14.9	3.3	1.1	0.0	57.5
	500~599만원	2.7	0.0	1.2	2.7	0.0	0.8	14.7	0.0	15.8	5.0	0.8	0.4	56.0
	600만원 이상	0.3	1.0	1.0	3.3	0.3	0.3	11.9	0.7	12.3	3.6	1.3	0.7	63.2
	$\chi^2$	61.085(48)												
총 자녀수	1명	1.5	0.3	0.5	2.7	0.5	0.3	16.0	0.7	10.2	3.1	0.0	0.3	63.8
	2명	1.8	0.6	1.2	2.6	0.4	0.3	11.5	0.3	15.7	4.7	1.3	0.3	59.5
	3명이상	0.5	0.5	2.2	2.2	0.0	0.5	15.6	0.5	10.2	5.4	0.5	0.5	61.3
	$\chi^2$	35.769(2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4 소결

지금까지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과 양육비용, 이에 대한 소비 심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11만9천원으로, 식비 > 교육·보육비 > 보험금 >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 교통비 > 주거비 순이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총 생활비 지출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의 소비 지출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로 교육·보육비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에 기인하고 있어,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출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가계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보인 가구 특성은 가구소득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가구소



득 대비 가계지출은 소득이 낮을수록 큰 비중을 보여, 저소득 가구 영유아 가구의 경우 자산 형성이 어려운 이증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엔젤 지수는 26.5, 슈바베 지수는 8.7, 엔젤 지수는 29.1 이었다. 엔젤지수나 슈바베 지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엔젤 지수는 가구소득 구간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가구 소비 내에서 일정한 비율(약 30% 내외)을 고려하여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결정은 가계 소비의 일정 비율을 할애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액도 커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부담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위험이 높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셋째, 영유아 양육비용은 평균 91만9천원으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폭이 크지는 않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가구 내에서 양육과 관련된 소비지출 패턴을 조정하거나 일부 품목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때 자녀수 증가에 따라 일종의 소비지출 패턴에 변화를 준 경우는 보험료 등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당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복비의 경우에도 자녀가 3명인 경우가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비해 오히려 지출액이 작은 비목에 속하는데, 이는 물려받기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식비의 경우에는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비목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필수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때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고, 다음이 식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순이었다. 이때 가구소득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용의 편차가 가장 큰 비목 또한 교육·보육비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이러한 교육·보육비용의 증가가 실질적인 보육 필요에 기인한 것인지 사교육과 같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호 때문인

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가구소득구간별 맞벌이 여부별 교육·보육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중간소득 구간(400~499만원)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교육·보육비 평균 지출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sup>7)</sup>.

다섯째,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 전체 소비 지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가구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는 비목에 속하며, 사치재적 성격을 보이는 품목이었다. 즉, 저소득 영유아 가구 자녀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여가 및 문화생활에 있어 상대적 소외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자녀 양육 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교육·보육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향후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교육·보육비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이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었다. 교육·보육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용 지출도 증가하는 일종이 사치재적 성격을 가진 비목이어서, 영유아 가구들이 느끼는 교육·보육비로 인한 부담감은 절대적인 지출액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불안감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다만,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소득 증가 시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녀 당 교육·보육비 지출액이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압박감과 박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원은 다자녀 가구 혹은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해 차등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곱째,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혹은 저축(추가지출을 하지 않겠음),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겠다는 응답 비중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가구들도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녀 양육에 있어 영유아기는 그 이상 연령에 비해서는 당장의 지출보다는 미래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여겨지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

7)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연구과제2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기에 적절한 자산(주택 구입 등)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이후 자녀 성장에 따라 육아가정의 경제적 압박이 더 커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자녀가 어린 시기에 영유아가구들이 빠른 속도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여 이후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예를 들어, 주택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 V

## 영유아 가구의 주거 및 육아용품 관련 소비 행태

1. 주거 관련 소비 양태
2. 공유 경제 이용 경험 및 요구
3. 소결 및 시사점





## V. 영유아 가구의 주거 및 육아용품 관련 소비 행태

이 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추가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한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와 공유 경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주거비는 가구 단위의 소비 양태를 보이는 항목으로, 양육비용에는 해당 비목이 포함되지 않아 주거 관련 소비가 양육비용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주거지 이전 등 주거와 관련된 가구의 의사 결정에 있어 자녀 유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영유아 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내구재 및 피복 등 양육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자녀 성장을 고려할 때 물품의 사용 기한이 짧아서 영유아 가구의 가계 지출에 부담을 주게 되는 육아용품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절감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영유아 가구의 공유 경제 활동 실태 및 개선 요구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 1 주거 관련 소비 양태

#### 가. 영유아 가구의 주거 현황 및 주거비

가구 특성별 영유아 가구의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택종류는 ‘아파트’가 8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입주형태는 ‘자가’가 55.1%로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별 주택종류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영유아 가구의 경우 ‘아파트’가 82.1%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영유아 가구 또한 ‘아파트’의 비율(72.2%)이 가장 높았지만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의 비율도 22.0%로 낮지 않았다. 자녀 구성별 주택종류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영유아만 있는 가구의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25.0%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1명인 경우도 영유아 구분과 상관없이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의 비율이 약 20%였다. 한편 가구소득별 입주형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의 ‘자가’라고 응답한 비율(66.1%)이 가장 높았고,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자가(31.4%)’, ‘전세(30.0%)’, ‘월세(38.6%)’의 응답률이 고르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9년이었는데 자녀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자녀가 2명 이하이고 영아만 있는 가구는 평균 거주기간이 2.8년, 자녀가 3명 이상, 영유아만 있는 가구는 3.7년으로 자녀 명수와 상관없이 더 어린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가구 특성별 영유아 가구의 주거 현황

단위 : %(명), 년

구분	주택종류			입주형태			평균 거주 기간	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등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전체	3.9	80.2	15.9	55.1	27.2	17.7	3.9	100.0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8	72.2	22.0	31.4	30.0	38.6	3.4	100.0 ( 223)	
	300~399만원	4.3	79.5	16.1	54.1	27.5	18.4	3.7	100.0 ( 440)	
	400~499만원	2.1	83.6	14.3	59.9	26.0	14.1	4.1	100.0 ( 384)	
	500~599만원	4.1	80.4	15.5	56.1	30.6	13.3	3.9	100.0 ( 271)	
	600만원 이상	4.2	82.1	13.6	66.1	23.3	10.6	4.2	100.0 ( 330)	
$\chi^2/F$					105.674***			3.3**		
자녀 구성	1명	영아	3.3	77.2	19.5	45.8	36.5	17.7	2.8	100.0 ( 334)
		유아	4.3	76.3	19.4	53.9	28.3	17.8	4.3	100.0 ( 304)
	2명	영아만	4.7	83.2	12.1	49.5	29.0	21.5	2.8	100.0 ( 107)
		유아만	6.6	81.3	12.1	58.2	27.5	14.3	3.8	100.0 ( 91)
		영아+유아	1.8	84.2	14.1	49.3	30.3	20.4	3.5	100.0 ( 284)
		영아+초등이상	2.9	92.9	4.3	72.9	12.9	14.3	5.0	100.0 ( 70)
		유아+초등이상	4.5	83.1	12.4	66.9	20.3	12.8	4.7	100.0 ( 266)
	3명 이상	영유아만	3.8	71.2	25.0	50.0	26.9	23.1	3.7	100.0 ( 52)
		영유아+초등이상	6.4	75.7	17.9	64.3	15.0	20.7	5.2	100.0 ( 140)
	$\chi^2/F$		30.851*			58.822***			15.4***	

주: 평균 거주 기간은 현재(2018년)에서 거주 시작 시기(설문 문14)를 빼서 생성한 후 평균한 값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가구생활비 지출별 주택종류와 입주형태를 알아본 결과, 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주택종류를 ‘아파트’, 입주형태를 ‘자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 양육비용별 주택종류와 입주형태를 살펴보면, 49만원이하인 가구와 50~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연립, 다세대 주택 및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9%, 19.6%로 적지 않았으며 ‘월세’의 비율 또한 각각 26.0%, 20.6%로 적지 않았다. 한편 총 양육비용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가’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2】 가구 지출별 영유아 가구의 주거 현황

단위 : %(명), 년

구분	주택종류			입주형태			평균 거주 기간	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및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전체	3.9	80.2	15.9	55.1	27.2	17.7	3.9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7	71.1	24.2	41.2	29.4	29.4	3.3	100.0 ( 211)
	200~299만원	3.9	77.9	18.3	51.7	29.6	18.7	4.0	100.0 ( 673)
	300~399만원	3.0	85.3	11.6	61.2	25.0	13.8	4.0	100.0 ( 464)
	400만원 이상	5.0	83.7	11.3	63.0	23.7	13.3	3.9	100.0 ( 300)
	$\chi^2/F$	27.540***			43.151***			3.1*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5.1	77.0	17.9	45.4	28.6	26.0	3.2	100.0 ( 196)
	50~99만원	3.3	77.1	19.6	48.2	31.2	20.6	3.9	100.0 ( 606)
	100~199만원	3.3	84.2	12.5	61.0	23.7	15.4	4.0	100.0 ( 671)
	200만원 이상	7.4	78.9	13.7	67.4	25.1	7.4	4.0	100.0 ( 175)
	$\chi^2/F$	20.959***			47.685***			4.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가구 특성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표 V-1-3>과 같다. 주거/관리비 총액 평균은 25만3천원이었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였다.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19만7천원, 월세는 4만2천원이었으며 원리금상환은 19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주거/관리비 총액 평균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주거/관리비 총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가 더 유의하게 컸다. 또한 주거/관리비 총액 평균은 총 자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거/관리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유의하게 컸다.

【 표 V-1-3 】 가구 특성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

단위 : 만원, %(명)

구분		주거/관리비 총액		세목별 주거/관리비		원리금 상환 (금융상품)	계	
		총액 평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월세			
전체		25.3	8.7	19.7	4.2	19.6	100.0	(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5	8.2	20.4	3.8	22.6	100.0	( 762)
	외벌이	25.2	9.2	19.2	4.6	17.1	100.0	( 886)
	<i>t</i>	0.4	-4.0***	2.8**	-1.3	3.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4.7	11.8	15.7	7.8	8.2	100.0	( 223)
	300~399만원	23.6	9.1	18.4	4.1	17.4	100.0	( 440)
	400~499만원	25.5	8.4	20.3	3.8	21.2	100.0	( 384)
	500~599만원	26.5	8.2	21.2	3.9	18.8	100.0	( 271)
	600만원 이상	26.8	7.0	22.3	2.7	29.2	100.0	( 330)
	<i>F</i>	2.7*	35.9***	25.5***	5.1***	15.5***		
총 자녀수	1명	24.7	9.1	19.4	3.8	18.3	100.0	( 638)
	2명	25.7	8.6	19.9	4.4	20.4	100.0	( 818)
	3명 이상	25.8	7.9	19.8	4.9	20.8	100.0	( 192)
	<i>F</i>	1.0	5.2**	0.7	0.6	0.8		

주: 원리금상환은 주택 관련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는 가구 내 부채 상환 관련 전체 금액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가구생활비 지출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를 살펴본 결과, 199만 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관리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가장 컸던 반면에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지출은 1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원리금상환은 가구생활비 지출이 400만원이상인 가구가 29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 양육비용별로 알아본 결과, 주거/관리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가구는 49만원이하인 가구였고(12.3%), 월세의 경우 49만원이하인 가구와 50~99만원이하인 가구가 각각 4만6천원, 5만2천원이었다. 또한 원리금상환은 총 양육비용 지출이 200만원이상인 가구가 29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이 4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10.9%) 다른 가구들에 비해 주거/관리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고, 원리금상환은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27만 4천원)가 가장 많았다.

표 V-1-4 가구 지출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

단위 : 만원, %(명)

구분	주거/관리비 총액		세목별 주거/관리비		원리금 상환 (금융상품)	계		
	총액 평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월세				
전체	25.3	8.7	19.7	4.2	19.6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20.7	12.3	16.0	4.2	8.2	100.0	( 211)
	200~299만원	22.6	9.2	17.8	3.7	16.1	100.0	( 673)
	300~399만원	26.8	7.9	21.4	3.9	23.6	100.0	( 464)
	400만원 이상	32.2	6.6	24.2	5.8	29.6	100.0	( 300)
	F	38.2***	66.4***	63.2***	1.8	24.3***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23.8	12.3	17.9	4.6	10.0	100.0	( 196)
	50~99만원	24.8	9.7	18.7	5.2	15.9	100.0	( 606)
	100~199만원	25.5	7.7	20.0	3.9	23.2	100.0	( 671)
	200만원 이상	28.2	5.5	24.5	1.5	29.6	100.0	( 175)
	F	3.0*	85.3***	25.3***	3.7*	17.2***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23.7	10.9	18.2	4.5	12.1	100.0	( 361)
	50~99만원	25.4	8.9	19.5	4.8	18.7	100.0	( 712)
	100~199만원	26.0	7.5	20.4	3.7	25.2	100.0	( 488)
	200만원 이상	27.6	5.2	24.2	1.5	27.4	100.0	( 87)
	F	2.4	52.5***	12.7***	1.9	13.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주택종류별 및 입주형태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를 살펴보면 주택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와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와 원리금상환의 금액이 가장 컸다.

표 V-1-5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주거/관리비

단위 : 만원, %(명)

구분	주거/관리비 총액		세목별 주거/관리비		원리금상환 (금융상품)	계		
	총액 평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월세				
전체	25.3	8.7	19.7	4.2	19.6	100.0	(1,6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23.6	7.6	19.6	3.6	5.8	100.0	( 65)
	아파트	25.1	8.6	20.2	3.6	21.3	100.0	(1,321)
	연립등 기타	26.7	9.6	17.4	7.7	14.9	100.0	( 262)
	F	1.6	6.1**	11.7***	10.3***	10.6***		

(표 V-1-5 계속)

구분	주거/관리비 총액		세목별 주거/관리비		원리금상환 (금융상품)	계	
	총액 평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월세			
입주 형태	자가	22.8	7.6	21.1	0.4	26.0	100.0 ( 908)
	전세	21.6	7.5	19.5	0.2	12.2	100.0 ( 448)
	월세	38.8	14.2	15.9	22.2	11.3	100.0 ( 292)
	F	170.1***	289.3***	42.7***	517.9***	40.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 나. 영유아 가구의 주거지 관련 의견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54.9%)'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구입해야한다(28.7%)'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반드시 구입해야한다'의 응답률은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가구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의 응답률은 500~599만원이하인 가구가 5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0~399만원 이하의 가구였다(56.8%). 맞벌이 여부나 총 자녀수에 따른 응답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1-6 참조).

표 V-1-6 가구 특성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계	
	반드시 구입해야한다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출산 때문에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체	28.7	54.9	14.6	1.8	100.0	(1,648)
맞벌이 가구	맞벌이	30.1	54.1	13.9	2.0	100.0 ( 762)
	외벌이	27.5	55.6	15.2	1.6	100.0 ( 886)
여부	$\chi^2$	1.93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51.6	19.7	3.1	100.0 ( 223)
	300~399만 원	26.1	56.8	15.7	1.4	100.0 ( 440)
	400~499만 원	28.6	54.9	14.6	1.8	100.0 ( 384)
	500~599만 원	28.0	58.3	13.3	0.4	100.0 ( 271)
	600만 원 이상	34.8	51.8	10.9	2.4	100.0 ( 330)
	$\chi^2$	22.428*				
총 자녀수	1명	27.6	55.5	15.4	1.6	100.0 ( 638)
	2명	29.0	54.5	14.7	1.8	100.0 ( 818)
	3명 이상	31.3	54.7	12.0	2.1	100.0 ( 192)
	$\chi^2$	2.22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표 V-1-7〉에 따르면 가구 생활비 지출에 따라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의 필요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반드시 구입해야한다’의 응답률은 400만원 이상인 가구가 39.0%로 가장 높았고,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199만원 이하인 가구가 22.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총 양육비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났는데 ‘반드시 구입해야한다’의 응답률은 2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가장 높았다(38.9%).

▮ 표 V-1-7 ▮ 가구 지출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계	
	반드시 구입해야한다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출산 때문에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체	28.7	54.9	14.6	1.8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 원 이하	19.4	52.6	22.7	5.2	100.0 ( 211)
	200~299만 원	27.8	56.5	14.3	1.5	100.0 ( 673)
	300~399만 원	27.6	57.5	14.4	0.4	100.0 ( 464)
	400만 원 이상	39.0	49.0	10.0	2.0	100.0 ( 300)
	$\chi^2$	54.117***				
총 양육 비용	49만 원 이하	25.0	52.6	20.4	2.0	100.0 ( 196)
	50~99만 원	23.6	58.3	15.5	2.6	100.0 ( 606)
	100~199만 원	31.7	53.5	14.0	0.7	100.0 ( 671)
	200만 원 이상	38.9	51.4	7.4	2.3	100.0 ( 175)
	$\chi^2$	35.08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입주 형태에 따라서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의 필요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드시 구입해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가인 경우가 31.5%로 가장 높았고,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월세가 23.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주택 종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 V-1-8 】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				계		
	반드시 구입해야한다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출산 때문에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체	28.7	54.9	14.6	1.8	100.0	(1,6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26.2	56.9	10.8	6.2	100.0	( 65)
	아파트	28.8	55.1	14.8	1.3	100.0	(1,321)
	연립 등 기타	28.6	53.4	14.9	3.1	100.0	( 262)
	$\chi^2$	12.310					
입주 형태	자가	31.5	55.9	11.3	1.2	100.0	( 908)
	전세	27.9	54.5	15.6	2.0	100.0	( 448)
	월세	21.2	52.4	23.3	3.1	100.0	( 292)
	$\chi^2$	35.36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 심층 면담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영유아 가구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아이가 겪게 될 불안정성과 나중에 주택 구입 하려고 하면 가격이 더 높아져 구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영유아 가구로 하여금 주택 구입을 서두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 2년이 지나니까. 전세를 4천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이거구나 해서. 그때 임신하고 출산을 하긴 했던 시절이긴 한데 안정된 주택은 있어야 한다. 그게 임대아파트이든 안정된 오래 살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9)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그때 너무 분양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르고 나니까. 장기 전세로 살면서 올려줘야 되니까 시세 맞춰서. 크게 느껴질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 받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나가는 게 월세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우리 노후가 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살기만 하면 됐는데. 자산이 이런 거구나. 나라에서 책임져 주질 않으니깐 내가 해야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15)

전세살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세는 2년마다 되어 있는데 금액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저는 신혼집에 전세로 쪽 살고 있는데 이번에 분

양 받은 이유는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둘이 성별이 달라서 이제 방이 셋 칸짜리로 옮기게 되었어요. 만약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중에 분양받았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둘째가 태어나고 집이 비좁아지고 첫째의 활동범위가 커지고, 그리고 아이 간의 성별 차이, 그리고 첫째가 방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보이니까,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사 갈 계획을 잡고 있어요.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 p.13)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 선택 시 양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8.3%였다.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로는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2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22.5%)’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 가구일수록, 총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주거지 선택 시 양육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는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의 응답률이 높았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의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30.1%)’와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21.9%)’의 응답률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총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9】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

단위 : %

구분	주거지 선택시 양육이 영향을 미친 비중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전체	38.3	22.5	4.9	12.2	18.8	28.8	10.3	2.5	
맞벌이 가구	맞벌이	41.1	24.0	9.3	9.6	17.3	25.9	12.1	1.9
	외벌이	36.0	21.0	0.6	14.7	20.4	31.7	8.5	3.1
여부	$\chi^2$	4.457*				33.742***			

(표 V-1-9 계속)

구분	주거지 선택시 양육이 영향 있음 비중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 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2.7	30.1	0.0	21.9	11.0	21.9	8.2	6.8
	300~399만원	38.2	18.5	2.4	14.3	25.0	31.0	7.7	1.2
	400~499만원	37.2	21.7	7.0	9.8	16.1	30.8	12.6	2.1
	500~599만원	38.7	21.9	5.7	8.6	18.1	31.4	12.4	1.9
	600만원 이상	43.3	24.5	7.7	9.8	18.9	25.9	10.5	2.8
	$\chi^2$	6.663	39.797*						
총 자녀수	1명	31.3	28.0	7.5	11.0	13.5	30.0	7.0	3.0
	2명	41.4	19.5	3.8	12.7	20.1	29.8	12.1	2.1
	3명 이상	48.4	21.5	3.2	12.9	25.8	22.6	10.8	3.2
		$\chi^2$	24.803***	19.529					

주: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을 기재.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의 응답률은 대도시가 28.9%로 가장 높았고, '교육 및 보육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20.5%)'와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31.3%)'의 응답률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다.

표 V-1-10 지역규모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

단위 : %

구분	주거지 선택시 양육이 영향 있음 비중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 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전체	38.3	22.5	4.9	12.2	18.8	28.8	10.3	2.5	
지역 규모	대도시	38.2	28.9	5.1	7.9	19.4	25.3	10.3	3.2
	중소도시	40.2	18.8	4.9	13.2	20.5	31.3	9.7	1.7
	읍면지역	33.7	16.5	4.4	20.9	12.1	30.8	12.1	3.3
	$\chi^2$	3.533	23.74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주거지 선택 사유는 주택 종류와 입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38.9%)’와 ‘전세(32.0%)’가 가장 높았고,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는 ‘아파트(32.7%)’와 ‘자가(32.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V-1-11 ▮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자녀 양육과 주거지 선택 관련성

단위 : %

구분	주거지 선택시 양육이 영향 있음 비중	거주를 결정하게 된 사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 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전체	38.3	22.5	4.9	12.2	18.8	28.8	10.3	2.5	
주택 종류	단독주택	33.8	36.4	0.0	22.7	4.5	13.6	13.6	9.1
	아파트	38.5	18.7	4.1	12.4	19.5	32.7	10.6	2.0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	38.9	38.2	9.8	8.8	18.6	12.7	7.8	3.9
	$\chi^2$	0.601	48.129***						
	입주 형태	자가	39.9	18.8	4.7	13.3	18.5	32.0	10.8
전세	38.4	32.0	6.4	8.7	17.4	26.2	7.6	1.7	
월세	33.6	19.4	3.1	14.3	22.4	21.4	13.3	6.1	
$\chi^2$	3.717	25.96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모 심층 면담에서도 현재 주거지 선택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때,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지역 환경을 교육 환경과 잘 분리하지 않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것에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질 뿐 아니라 자녀들의 안전 문제가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거 환경 중에서 층간소음 등 이웃과의 마찰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네에 다른 아이들이 많은 환경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즉, 특별히 어떤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영유아가 많은 동네가 전반적으로 아동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살기 편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주변 환경 유흥업소 이런 거 없으면 좋고, 학교가 좀 더 가까이 있고, 차가 많이 안 다니고.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11)

저희 단지는 또래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좋더라고요. 공동 육아.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가 아플 때 약도 갖다 주고 그럴 수 있는 공동 육아 분위기가 동네가 있어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팔고 옮길 수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동네.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11)

저는 1번이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서 팔고 내려올 때 주거의 목적은 전세는 상관없었어요. 목적은 1층이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당시에는 평수가 다섯 식구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등비등하게 맞았던 거 같아요. (중략) 새로운 곳으로 또 갈지 모르겠지만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애를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학군, 학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상권을 원해요.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2018. 8. 30. 영유아부모 면담, p.14)

한편,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였고, 이사하려는 이유로는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가 39.7%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 위해(24.4%)’였다(표 V-1-12 참조). 이사 이유는 총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는 낮았다.

▣ 표 V-1-12 ▣ 가구 특성별 향후 5년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

단위 : %

구분	이사할 의향이 있음 비중	이사하려는 이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전체	47.7	5.1	1.4	8.1	19.1	39.7	24.4	2.2	
맞벌이 가구	맞벌이	48.8	5.9	2.4	8.1	21.2	39.2	20.7	2.4
	외벌이	46.7	4.3	0.5	8.2	17.1	40.1	27.8	1.9
여부	$\chi^2$	0.719				12.183			

(표 V-1-12 계속)

구분	이사할 의향이 있음 비중	이사하려는 이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9.3	6.4	1.8	8.2	15.5	32.7	31.8	3.6
	300~399만원	48.0	3.8	1.4	8.1	18.5	41.7	25.6	0.9
	400~499만원	43.0	4.2	1.8	9.1	21.2	39.4	22.4	1.8
	500~599만원	49.8	5.2	1.5	4.4	24.4	40.0	22.2	2.2
	600만원 이상	50.0	6.7	0.6	10.3	15.8	41.8	21.8	3.0
	$\chi^2$	4.880	19.305						
총 자녀수	1명	50.5	7.5	1.6	7.5	18.9	41.0	22.4	1.2
	2명	46.6	3.9	0.8	8.7	20.5	39.9	23.4	2.9
	3명 이상	43.2	1.2	3.6	8.4	13.3	33.7	37.3	2.4
		$\chi^2$	3.914	22.672*					

주: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을 기재.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이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세가 60.5%, 월세가 58.2%로 자가인 경우 (38.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표 V-1-13 참조). 또한 입주 형태에 따라 이사 이유에 대한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는 '전세'가 43.5%로 가장 높았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 위해'는 '월세'가 36.5%로 가장 높았다.

표 V-1-13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향후 5년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한 이사 의향

단위 : %

구분	이사할 의향이 있음 비중	이사하려는 이유							
		아이 돌봐줄 친인척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엄마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적당한 규모의 집에 살기위해	기타	
전체	47.7	5.1	1.4	8.1	19.1	39.7	24.4	2.2	
입주 형태	자가	38.0	4.9	1.7	8.4	23.8	41.4	18.8	0.9
	전세	60.5	4.4	1.8	7.0	16.6	43.5	24.0	2.6
	월세	58.2	6.5	0.0	9.4	13.5	30.0	36.5	4.1
		$\chi^2$	76.611***	38.03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으로는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36.7%)’,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26.4%)’,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24.1%)’ 순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표 V-1-14 ■ 가구 특성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단위 : %(가구)

구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주거 밀집 지역	기타		
전체		26.4	12.1	36.7	24.1	0.4	0.4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9	13.1	36.7	22.6	0.3	0.4	100.0	( 762)
	외벌이	26.0	11.2	36.7	25.4	0.5	0.3	100.0	( 886)
	$\chi^2$	3.219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4.7	11.7	40.4	22.0	0.9	0.4	100.0	( 223)
	300-399만 원	24.1	14.8	35.0	25.2	0.7	0.2	100.0	( 440)
	400-499만 원	25.5	9.9	36.7	27.1	0.3	0.5	100.0	( 384)
	500-599만 원	29.5	10.0	38.7	21.0	0.0	0.7	100.0	( 271)
	600만 원 이상	29.1	13.0	34.8	23.0	0.0	0.0	100.0	( 330)
	$\chi^2$	21.697							
총 자녀수	1명	24.0	12.2	38.4	24.9	0.2	0.3	100.0	( 638)
	2명	27.8	12.2	36.7	22.7	0.4	0.2	100.0	( 818)
	3명 이상	28.6	10.9	31.3	27.1	1.0	1.0	100.0	( 192)
	$\chi^2$	12.11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은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의 비율이 높았다.



표 V-1-15 지역규모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단위 : %(가구)

구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주거 밀집 지역	기타			
전체	26.4	12.1	36.7	24.1	0.4	0.4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24.6	11.2	42.7	20.8	0.0	0.6	100.0 ( 662)	
	중소도시	28.1	13.3	32.3	25.4	0.7	0.3	100.0 ( 716)	
	읍면지역	26.3	11.1	33.7	28.5	0.4	0.0	100.0 ( 270)	
$\chi^2$		26.54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또한, 총 양육비용이 적을수록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양육비용이 많을수록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 되는 곳'의 비율은 49만원이하의 가구가 44.9%로 가장 높았다.

표 V-1-16 가구 지출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단위 : %(가구)

구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주거 밀집 지역	기타			
전체	26.4	12.1	36.7	24.1	0.4	0.4	100.0	(1,648)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19.4	14.8	44.9	19.9	0.0	1.0	100.0 ( 196)	
	50~99만원	23.9	12.7	38.1	24.4	0.5	0.3	100.0 ( 606)	
	100~199만원	29.4	11.3	33.5	25.0	0.4	0.3	100.0 ( 671)	
	200만원 이상	31.4	9.7	34.9	24.0	0.0	0.0	100.0 ( 175)	
$\chi^2$		23.92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은 주택 종류와 입주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택종류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립, 다세대주택 및 기타(37.4%)’와 ‘아파트(37.0%)’가 가장 높았고,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은 ‘단독주택’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주형태별로 알아보면,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의 비율은 ‘월세(41.1%)’가 가장 높았고,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은 ‘전세(26.8%)’,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은 ‘자가(28.6%)’가 가장 높았다.

【표 V-1-17】 주택종류 및 입주형태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단위 : %(가구)

구분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	주거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주거 밀집 지역	기타			
전체	26.4	12.1	36.7	24.1	0.4	0.4	100.0	(1,6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18.5	10.8	27.7	43.1	0.0	0.0	100.0	( 65)
	아파트	26.3	12.0	37.0	24.0	0.5	0.2	100.0	(1,321)
	연립, 다세대 주택 및 기타	28.6	13.0	37.4	19.8	0.0	1.1	100.0	( 262)
	$\chi^2$	22.318*							
입주 형태	자가	28.6	11.3	34.9	24.7	0.2	0.2	100.0	( 908)
	전세	23.4	11.8	37.5	26.8	0.0	0.4	100.0	( 448)
	월세	24.0	14.7	41.1	18.2	1.4	0.7	100.0	( 292)
	$\chi^2$	25.82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에서도 주거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다만 영유아 부모들은 아동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의견이 교육 환경보다 더 중요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sup>1)</sup>.

1) 면담 대상자(막내 자녀가 영유아 자녀인 것을 기준으로 함) 중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교육 여건, 소위 학군과 사교육 접근성 등에 대해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네 가까이고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가. 도로로 갈 때 위험요소는 없는가 그리고 주변 유해시설은 없는가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하더라고요.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1, p.14)

저는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는 놀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에 갔거든요. 저는 이사 와서 제일 좋은 게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중략) 하루하루 눈치를 보면서 놀이터를 돌아다녀야 돼요. 엄마들도 자기 아파트 주인이 아니면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날은 다른 놀이터를 가고 그래서 저는 이사 와서 놀이터가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애들도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후략)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1, p.16)

아이들이 있으면 놀이공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1층에 놀이터 바로 있는 곳. 학교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 고려사항이 아이들이었어요. 지금 충분히 안전한 아파트여야 하고 커서도 계속 지낼 수 있는 곳. (2018. 8. 30. 영유아부모 면담, p.13)

## 다. 주거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의견

한편, 정부의 주거 지원, 특히 주택 구입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심층면담 등을 통해 나온 결론은 대부분의 영유아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조건이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게 참 문제예요. (중략) 세 자녀에 대한 보금자리론 같은 것도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2018. 8. 30. 영유아부모 면담, p.15)

저희도 시프트나 임대주택을 알아봤는데도 자격이 되는 곳은 탈락했었어요. (중략) 자영업자들은 안 보이는 소득 때문에 들어가시고.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2, p.13)

(전략) 돈 없으면 못 하는구나 어느 정도 있어야지. 회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대출 받고 들어가니까.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13)

특히 주택 구입과 관련된 정부 지원의 경우 일부 저소득 가구를 제외하고는 결국 주택 구입 가격 혹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데, 이때 주택의 가격과 입지 등이 영유아 가구의 요구와는 다소 맞지 않아 정책에 대한 선호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즉, 일반적인 영유아 가구들은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딱히 육아 가정이라고 특별한 혜택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 지원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자녀가 생기면서 주택 이전의 필요가 높아졌음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번 분양을 받은 적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불만으로 지적되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쉽다는 거죠.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2, p.9)

디딤돌도 아파트에서 1000세대 이상만 되는 곳만 되고 하다 보니 오히려 받아야 하는 사람들 못 받는다니깐요. (중략)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건데 일반 빌라를 사거나 1000세대 이하의 작은 아파트를 사면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2, p.12)

00(지역명)에 처음 살았을 때는 처음 받을 때는 내 생애 처음 그거를 받았고, 그래서 이 집을 살 때는 그런 혜택은 없어졌었어요. 다 하면 얼마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니 실질적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중략) 처음 한번 받은 뒤에는 실거주지 목적으로 사는데도 그런 혜택이 없는 거죠. (후략)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2, p.12)

부모가 자기 앞으로 사놓은 경우 때문에 정작 자기가 결혼해서 아파트를 살 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대출이 값을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맞긴 한데 (후략)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2, p.12)

저는 집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저희는 00(지역명)이고 위치가 변화가는 아니에요. 딱 하나 나가 마음에 들어서 산 이유가 집 바로 뒤에 공원이 있고,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한 200-300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재래시장이 있고 그냥 아기 키우기에 좋은 조건. (후략) (2018. 8. 31. 영유아부모 면담2, p.15)

저는 5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저희가 플랜을 잡은 게 아이들 중학교 때 상환을 하자고 잡았어요. 고등학교때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좀 과하게 원리금 상환을 170-180만 원으로 그 비용으로 꽤 큰 거 같아요. 나름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8)

또한, 정부의 장기 임대 주택 등의 경우 입지적 조건이 좋지 못하거나 임대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이 자녀의 교우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토로하기도 하였다.

아파트가 한 동에 한 단지 안에 임대 아파트랑 같이 있는데 주차금지 표지판이 가운데에 세워둔 거예요. 자기 임대야 재네 애들이랑 놀 수가 없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중략) 한 단지 안에 바로 옆 동인데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대개 살벌하구나.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17)

하지만, 반대로 심층 면담에 참여한 저소득 가구 영유아 부모들 중 정부의 주택 지원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들의 만족도는 예상과 달리 매우 높은 편이었다. 특히 주거 지역에 영유아 가구가 밀집된 경우(다자녀 가구 혹은 신혼 가구 지원이 중심이었던 경우)에는 거주지 내 동질적인 가구들이 살

게 되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 신청 과정 등이 번거로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지금 공공분양이라서 10년을 살고 그 후에 10년 시세가에 몇 퍼센트로 입주하는 걸로 했어요. (중략) 다자녀도 있고, 생애최초로 들어가서, 지금 다자녀 혜택도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경제규모인거 같아요. 신혼부부 3년으로 해서 자녀 있을 때 분양을 해가지고 시설보다 저렴한 분양이었어요.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9)

같이 사는 언니 두 명이 이런 LH에서 공공분양이나 임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듣고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어려운 분들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대기업 다니고 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인식이 임대아파트를 아직도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 중산층이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인식도 있는 거죠. 그거 전에는 그분들이 안 알려줬으면 여기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었을 거 같아요.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13)

서류를 내야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번거로웠고, (2018. 9. 4. 영유아부모 면담, p.14)

## 2 공유 경제 이용 경험 및 요구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내구성 육아용품과 관련된 소비행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내구성 육아용품 소비에 대한 가격인식을 시작으로 하여, 중고 거래 경험, 물려받기와 물려쓰기, 대여하기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공유경제의 이용 경험과 요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가. 고가 육아용품 구입 경험

내구성 육아용품의 공유경제 이용 경험을 살펴보기에 앞서, 육아용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육아용품의 구입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장 먼저,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한 물품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8.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영유아 가구에서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싸다고 인식한 물품 종류를 조사한 결과로는, 완구(33.6%), 외출복(28.7%), 도서(21.8%), 기저귀(19.5%), 신발(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단위 : %(가구)

구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계
		있음	물품 종류					
			완구	외출복	도서	기저귀	신발	
전체		68.6	33.6	28.7	21.8	19.5	12.7	(1130)
맞벌이 가구	맞벌이	68.1	32.0	29.5	23.3	16.4	12.3	( 519)
	외벌이	69.0	35.0	28.0	20.5	22.1	13.1	( 611)
여부		$\chi^2$	-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4.4	28.3	28.3	12.7	28.3	10.2	( 166)
	300~399만원	69.5	34.3	25.8	19.6	19.3	10.1	( 306)
	400~499만원	68.2	35.5	30.5	22.5	18.3	14.1	( 262)
	500~599만원	69.7	31.7	28.0	22.2	22.2	18.5	( 189)
	600만원 이상	62.7	36.2	31.4	30.9	11.6	11.6	( 207)
			$\chi^2$	-				
총 자녀수	1명	69.9	36.3	28.0	24.9	16.4	11.2	( 446)
	2명	67.5	34.2	28.1	21.2	20.5	13.9	( 552)
	3명이상	68.8	22.0	33.3	13.6	25.8	12.9	( 132)
			$\chi^2$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가구특성별로 구분한 결과, 외벌이거나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육아용품을 비싸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많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표 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는, 육아용품 구입 시 비싸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 가구 비중이 대도시지역 71.9%, 중소도시지역 67.7%, 읍면지역 62.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2-2 지역규모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단위 : %(가구)

구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계
		있음	물품 종류					
			완구	외출복	도서	기저귀	신발	
전체		68.6	33.6	28.7	21.8	19.5	12.7	(1,130)
지역 규모	대도시	71.9	34.9	27.1	24.4	21.0	17.0	( 476)
	중소도시	67.7	34.8	29.5	21.6	19.4	10.5	( 485)
	읍면지역	62.6	26.6	30.8	14.8	15.4	7.1	( 169)
		$\chi^2$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표 V-2-3〉의 가구의 생활비나 총 양육비용 지출 등 가구지출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육아용품을 비싸다고 느낀 경험 비중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구생활비나 총 양육비용이 높은 가구의 경우 생활비와 양육비용이 낮은 가구보다 육아용품을 비싸다고 인식한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싸다고 느낀 육아용품을 보면, 가구지출이 낮은 가구에서는 기저귀 등 필수품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고 가구 지출이 높은 가구에서는 외출복, 도서 등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가구 지출에 따라 비싸다고 인식하는 품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V-2-3 ▮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단위 : %(가구)

구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계
		있음	물품 종류					
			완구	외출복	도서	기저귀	신발	
전체		68.6	33.6	28.7	21.8	19.5	12.7	(1,130)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59.7	22.2	24.6	9.5	29.4	11.9	( 126)
	200~299만원	67.6	31.6	27.7	19.3	22.0	9.9	( 455)
	300~399만원	70.3	36.5	29.8	23.3	17.5	16.3	( 326)
	400만원 이상	74.3	39.9	31.4	31.4	11.7	13.9	( 223)
	$\chi^2$	13.202**	-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66.3	22.3	20.0	10.8	33.8	6.2	( 130)
	50~99만원	63.7	35.0	26.7	19.7	20.7	12.7	( 386)
	100~199만원	73.3	36.2	32.1	25.0	17.5	13.4	( 492)
	200만원 이상	69.7	31.1	30.3	27.0	8.2	17.2	( 122)
	$\chi^2$	14.277**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이때,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좀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물건이라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값싼 제품을 찾지 못해서(20.2%)’, ‘비쌀수록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15.0%)’, ‘주변사람들이 다 쓰는 물건이라서(11.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 사유는 영유아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육아 가정들의 정서가 비슷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 사유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지역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좀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물건이라서’ 구매했다는 비중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도시에서는 ‘값싼 제품을 찾지 못해서’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비쌀수록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표 V-2-5>의 비싸다고 인식한 육아용품 구매 후 후회한 물품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후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1.3%,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4%로 나타나 비슷한 응답 비중을 보였다. 이어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후회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생각만큼 필요한 물품이 아니어서’ 후회했다는 응답 비중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매 가격만큼 질이 좋지 못해서(14.4%)’ 후회했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표 V-2-4 ▮ 지역규모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입한 이유

단위 : %(가구)

구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입한 이유									계
	값싼 제품을 찾지 못해서	좀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물건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쓰는 물건이라서	물려줄 수 있어서	중고로 팔 수 있어서	비쌀수록 품질이 좋을 것 같아서	친환경 제품이어서	기타		
전체	20.2	39.2	11.2	3.2	1.2	15.0	4.4	5.6	100.0 (1,130)	
지역 규모	대도시	24.6	40.5	11.1	3.4	1.7	9.5	3.4	5.9	100.0 ( 476)
	중소도시	15.9	38.4	10.9	3.3	1.0	18.6	5.4	6.6	100.0 ( 485)
	읍면지역	20.1	37.9	11.8	2.4	0.6	20.7	4.7	1.8	100.0 ( 169)
	$\chi^2$	36.46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생각만큼 필요한 물품이 아니어서’ 후회했다는 응답 비중이 읍면 지역보다 높은 반면, 읍면 지역은 ‘중고 혹은 대여가능 물품이라서’의 응답 비중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 후 후회했는지의 여부와 후회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가구지출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가구생활비 지출이 2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 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50%가 넘는 반면, 3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50%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지출이 3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고가의 육아용품 구



매 후 '생각만큼 필요한 물품이 아니어서'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구지출이 299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 지출이 적은 가구의 경우,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경험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경험 자체가 적은 반면, 가구 지출이 큰 가구의 경우, 고가 육아용품 구매 경험도 많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상품 구매에 대한 후회 경험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 표 V-2-5 ▮ 가구 특성별 고가 육아용품 구매 후 후회한 이유

단위 : %(가구)

구분	고가 육아용품 구매 후 후회한 이유							기타	계
	생각만큼 필요한 물품이 아니어서	구매 가격만큼 질이 좋지 못해서	주변사람들이 사니까 구매한 것이라서	저렴한 판매처를 뒤늦게 알게 되서	중고 혹은 대여가능 물품이라서	후회한 적 없음			
전체	19.2	14.4	4.6	7.0	3.2	51.3	0.3	100.0 (1,648)	
지역 규모	대도시	20.8	14.5	3.5	6.6	2.7	51.5	0.3	100.0 ( 662)
	중소도시	18.9	14.2	6.3	7.0	2.5	51.1	0.0	100.0 ( 716)
	읍면지역	15.9	14.8	3.0	7.8	6.3	51.1	1.1	100.0 ( 270)
$\chi^2$		28.24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표 V-2-6 ▮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낀 경험

단위 : %(가구)

구분	고가 육아용품 구매 후 후회한 이유							기타	계
	생각만큼 필요한 물품이 아니어서	구매 가격만큼 질이 좋지 못해서	주변사람들이 사니까 구매한 것이라서	저렴한 판매처를 뒤늦게 알게 되서	중고 혹은 대여가능 물품이라서	후회한 적 없음			
전체	19.2	14.4	4.6	7.0	3.2	51.3	0.3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13.3	11.4	3.8	3.8	3.8	64.0	0.0	100.0 ( 211)
	200~299만원	17.7	13.2	4.8	7.0	4.2	52.9	0.3	100.0 ( 673)
	300~399만원	21.3	16.4	5.4	7.8	1.9	47.0	0.2	100.0 ( 464)
	400만원 이상	23.3	16.3	3.7	8.0	2.7	45.3	0.7	100.0 ( 300)
	$\chi^2$	35.421**							
총 양육비용	49만원 이하	16.3	10.7	5.1	4.6	4.1	59.2	0.0	100.0 ( 196)
	50~99만원	19.1	13.9	4.1	6.8	3.8	51.8	0.5	100.0 ( 606)
	100~199만원	19.1	16.2	5.2	7.0	2.5	49.8	0.1	100.0 ( 671)
	200만원 이상	22.9	13.7	3.4	10.3	2.9	46.3	0.6	100.0 ( 175)
	$\chi^2$	19.50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한편, 이러한 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연구는 공유경제(중고상품 구매, 물려쓰기, 대여하기) 활용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이상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경험 여부를 육아용품의 품목에 따라 질문한 결과, 침대, 식탁의자, 욕조 등의 기기/집기류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0%이상인데 비해, 이불류를 제외한 피복류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0% 미만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피복류의 경우 물려쓰기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며, 응답 비중이 자녀가 2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나, 주로 가족과 친지간에 물려쓰기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완구는 공유 경제 활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10%, 도서는 20% 정도로 조사되어 육아용품의 종류에 따라 공유경제 활용 경험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유경제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물려쓰기 비중이 모든 육아용품의 품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육아용품 종류에 따라 경험 비중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피복류는 물려쓰기의 비중이 절반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는데 반해, 완구와 도서는 중고상품 구매 비중이 10% 정도로 다른 육아용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대여하기의 경우에도 완구류의 경우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6%, 도서 4.9%로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이용 경험을 보였다.

표 V-2-7 육아 용품 공유 경험

단위 : %

구분		경험 여부			
		중고 상품 구매	물려쓰기	대여하기	경험 없음
기기 /집기	침대	3.2	15.4	1.9	70.4
	이기식탁의자	3.1	20.3	0.2	67.9
	젓병 소독기	3.0	15.5	0.2	72.2
	욕조	2.2	19.5	0.1	66.4
	유축기	2.0	15.8	1.2	75.1
	카시트	3.3	24.6	0.2	55.3
	유모차	4.4	29.1	0.2	54.1
	자전거	3.6	22.9	0.3	57.6
	놀이방매트	1.6	20.0	0.1	61.0
	아기띠(힙시트포함)	1.2	14.5	-	71.4

(표 V-2-7 계속)

구분		경험 여부			
		중고 상품 구매	물려쓰기	대여하기	경험 없음
피복비	평상복_상의	2.9	48.1		2.9
	평상복_하의	2.9	48.7		2.9
	외출복	3.3	48.4		2.0
	내의	-	31.9		7.5
	신발	2.5	41.7		5.1
	이불	0.4	22.2		47.2
	속싸개	0.1	13.3		73.8
보건의료비	체온계	0.2	12.7	0.1	66.8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9.3	41.4	8.6	10.8
	도서	10.9	40.3	4.9	20.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심층 면담 시에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육아용품이 공유경제를 활용하기에 적절한 아이템이라 보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아주 짧게 쓰는 거 둘 이전 아이들은 두세 달에 바뀌어요. 아이가 누워 있다가 앉을 수 있고 그거 1년 안에 다 벌어지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요람 같은 거 모빌이 돌아가는 거 위주로 사고 그거 두세 달밖에 못 써요. 그리고 앉을 수 있게 하는 보조의자도 두세 달밖에 못 쓰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제품이 사망할 때까지 30집 넘게 돌아도 티가 안 나는 거 같아요. (2018.8.31. 영유아부모 면담1, p.18)

## 나. 중고상품 구매

지금부터는 중고상품 구매 경험 및 활용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가구의 소비 행태를 살펴보았다. 중고상품 구매 경험이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피복비나 완구, 도서 등의 여가 및 문화생활 관련 육아품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기기/집기류 중에서도 유모차의 중고거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가구소득이 400만원미만인 가구에서는 유모차의 중고 거래 경험이 5%이상으로 나타나지만, 4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3.4%이하에 그쳐, 가구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유모차를 직접 구매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가구소득별 중고 거래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소득별					$\chi^2$	
		299만원 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기기 /집기	침대	3.2	4.0	3.6	2.1	2.6	3.6	2.883
	아기식탁의자	3.1	4.0	3.9	2.1	2.2	3.3	3.599
	젓병 소독기	3.0	4.5	3.9	1.8	3.0	2.1	5.566
	욕조	2.2	2.2	2.5	1.6	3.0	1.8	1.858
	유축기	2.0	3.6	2.3	0.8	1.8	2.1	5.995
	카시트	3.3	3.1	4.5	2.6	1.8	3.9	4.899
	유모차	4.4	7.2	5.7	3.4	2.6	3.3	9.822*
	자전거	3.6	3.6	5.0	2.3	3.0	3.9	4.611
피복비	놀이방매트	1.6	1.8	1.8	1.6	0.7	1.8	1.585
	평상복_상의	2.9	4.0	3.0	1.8	2.6	3.3	2.959
	평상복_하의	2.9	4.0	2.7	1.8	2.6	3.6	3.424
	외출복	3.3	4.5	3.6	2.6	2.2	3.9	3.102
	내의	-	-	-	-	-	-	-
	신발	2.5	1.8	2.7	2.6	2.2	3.0	1.003
	이불	0.4	0.0	0.5	0.0	0.4	0.9	5.020
여가및 문화 생활비	속싸개	0.1	0.0	0.0	0.0	0.0	0.3	3.996
	완구	9.3	8.1	11.8	10.2	8.9	6.4	7.441
	도서	10.9	10.3	11.1	10.4	10.7	11.8	0.49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영유아 부모에 대한 면담 결과에서도, 영유아 부모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에 대해 중고거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유모차와 같이 부피가 큰 기기나 완구류, 피복류의 거래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아기가 지난 유아가 있는 가구에서는 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중고 거래도 활발하다고 응답하였다.

저희는 육아용품 중에서 부피가 있는 거 중에서도 완구류 등 손상이 많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도서, 옷도 가끔 거래하고요. 특히 한복처럼 한 번씩 입는 것들. 카시트 유모차 등이요. (2018.8.30. 영유아부모 면담. p.16)

(육아용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많으셨어요?) 엄청 활발했죠. 옷도 빨리 입고 팔고 그렇게 받아서 입고. 메이커 같은 경우는 하루 입히기 좋잖아요. (2018.8.30. 영유아부모 면담. p.17)

그리고 요즘 스포츠용품들도 많이 나와요. 테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2018.8.30. 영유아부모 면담. p.17)

한편, 자녀수별에 따라서도 유모차의 중고거래 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1명일 때는 유모차의 중고거래 경험이 3.1%이지만, 3명 이상인 경우 9.4%로 높게 나타났다(표 V-2-9 참조). 반면, 전체적으로 중고거래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품목인 도서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중고거래 경험이 7.8%로 자녀가 2명인 경우(12.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도서 구매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비중이 낮은 것은 이하에서 살펴보게 될 물려쓰기의 비중이 다자녀 가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된다.

중고상품 구매 시의 구매처는 기기/집기류의 경우 온라인사이트가 47.2~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중고장터(18.2~33.3%), 이웃 혹은 친지(9.1~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피복류 역시 온라인사이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16.7~36.4%), 이웃, 친지로부터의 구매가 23.8~33.3%로 다음이었다(표 V-2-10). 한편, 완구와 도서의 경우에도 역시 온라인사이트에서의 중고상품 구매 비중이 42.2%와 50.0%로 가장 높았고, 오프라인 중고장터, 이웃 혹은 친지, 바자회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육아용품의 중고거래는 용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라인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피복의 경우는 이웃 혹은 친지로부터의 구매 비중이, 기기/집기, 완구, 도서의 경우는 오프라인 중고장터의 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V-2-9 ▮ 자녀수별 중고 거래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자녀수			$\chi^2$	
		1명	2명	3명이상		
기기/집기	침대	3.2	2.0	3.5	5.2	5.664
	아기식탁의자	3.1	2.4	3.5	3.6	1.924
	젓병 소독기	3.0	3.1	2.4	4.7	2.805
	욕조	2.2	1.7	2.1	4.2	4.206
	유축기	2.0	2.5	1.2	3.6	6.009
	카시트	3.3	2.4	3.8	4.7	3.528
	유모차	4.4	3.1	4.2	9.4	13.931**
	자전거	3.6	3.3	3.4	5.7	2.719
	놀이방매트	1.6	0.9	1.7	3.1	4.723

(표 V-2-9 계속)

구분		전체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chi^2$
피복비	평상복_상의	2.9	2.7	2.7	4.2	1.357
	평상복_하의	2.9	2.7	2.7	4.2	1.357
	외출복	3.3	2.8	3.5	4.2	1.046
	내의	-	-	-	-	
	신발	2.5	2.5	2.7	2.1	0.237
	이불	0.4	0.6	0.1	0.5	2.664
	속싸개	0.1	0.0	0.1	0.0	1.015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9.3	10.2	9.2	7.3	1.521
	도서	10.9	10.0	12.3	7.8	4.13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한편, 중고 상품의 평균 구입가격은 피복비가 대체로 1만원대, 완구류가 2만5천원, 도서 7만7천원 등이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인 유모차는 11만6천원, 카시트는 10만9천원 등에 구입했다고 응답되었다.

|| 표 V-2-10 || 중고거래 구매처 및 평균 구입 가격

단위 : %, 만원

구분		중고 상품 구매처					평균 구입가격
		오프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사이트	이웃혹은 친지	바자회	기타	
기기/집기	침대	21.2	59.6	15.4	3.8	-	8.1
	아기식탁의자	25.5	54.9	15.7	3.9	-	3.4
	젓병 소독기	22.4	59.2	16.3	-	2.0	4.4
	육조	33.3	47.2	19.4	-	-	2.7
	유축기	18.2	66.7	15.2	-	-	3.3
	카시트	23.6	61.8	9.1	5.5	-	10.9
	유모차	30.6	51.4	15.3	2.8	-	11.6
	자전거	20.0	51.7	25.0	3.3	-	4.2
	놀이방매트	23.1	65.4	11.5	-	-	6.9
피복비	평상복_상의	19.1	36.2	25.5	17.0	2.1	1.5
	평상복_하의	17.0	36.2	25.5	19.1	2.1	1.5
	외출복	18.2	36.4	25.5	18.2	1.8	1.9
	내의	-	-	-	-	-	-
	신발	16.7	33.3	23.8	23.8	2.4	1.6
	이불	16.7	16.7	33.3	-	33.3	3.4
	속싸개	100.0	-	-	-	-	1.0

(표 V-2-10 계속)

구분		중고 상품 구매처					평균 구입가격
		오프라인 중고장터	온라인 사이트	이웃혹은 친지	바자회	기타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26.0	42.2	14.9	14.9	1.9	2.5
	도서	30.6	50.0	12.2	6.7	0.6	7.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이러한 현상은 최근 지역 단위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에서 영유아 부모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중고거래의 경우 과거에는 전국 단위의 사이트나 앱을 통해 택배를 이용한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지역단위의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이 개발되면서 지역주민들끼리 면대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매우 편리하고 믿을 수 있어졌다는 의견들이었다. 이 같은 지역 내 거래의 경우 택배비가 들지 않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하고, 직접 물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이 용이하다는 점, 한 동네에 사는 이웃들 간의 거래라서 믿을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 지역 중고거래 장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중고거래가 진짜 힘들었어요. 가격도 비싸고 택배료 문제 등도 조율이 안됐고 그런데 중고거래 장터가 지역별로 뭉쳐서 생기자 보니까 차량이 있으면 가는 길에 교환도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2018.8.30. 영유아부모 면담. p.16)

중고품이 크지 않은데 택배비가 붙잖아요. 그거를 누가 부담하고 문제. 크기가 크면 택배비도 커지고. 그래서 직거래를 선호하고.(2018.9.4. 영유아부모 면담.p.25)

둘 이전의 아기 꺼는 부피가 커요. 그런 경우는 직거래 우선…… 신랑이 회사 주변에 있는 곳에서, 가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거래를 하고 작거나 포장이 되거나 택배가 되는 경우는 온라인 거래도 하고. (2018.8.31.영유아부모 면담1 p.18)

지역카페는 가까이에서 마트가면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깨끗하고 직거래하기도 편하고…… 근데 가격은 (전국단위의) oooo보다 저렴해요.…… 택배비도 안 들어가니까 좀 저렴하게 내놓는 거예요.……oooo 는 좀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고 그만 큼 살 때도 싸게 사니까 애들이 물고 빠는 거 빼고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2018.9.4. 영유아부모 면담. p.23)

지역주민들끼리 받을 거 다 받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2018.9.4. 영유아부모 면담. p.23)

육아용품의 중고구매에 대한 만족도(표 V-2-11 참조)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6.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5.3%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중고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표 V-2-11 가구 특성별 중고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중고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5.3	76.5	8.2	0.0	3.1	100.0 (43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8	77.7	8.5	0.0	3.1	100.0 (188)
	외벌이	16.4	75.6	8.0	0.0	3.1	100.0 (250)
	$\chi^2/t$	0.557				-0.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0.1	79.7	10.1	0.0	3.0	100.0 ( 69)
	300~399만원	20.0	71.9	8.1	0.0	3.1	100.0 (135)
	400~499만원	16.3	73.8	10.0	0.0	3.1	100.0 ( 80)
	500~599만원	10.8	81.1	8.1	0.0	3.0	100.0 ( 74)
	600만원 이상	15.0	80.0	5.0	0.0	3.1	100.0 ( 80)
	$\chi^2/F$	6.690				0.9	
총 자녀수	1명	13.3	76.0	10.7	0.0	3.0	100.0 (150)
	2명	17.1	75.6	7.3	0.0	3.1	100.0 (234)
	3명이상	13.0	81.5	5.6	0.0	3.1	100.0 ( 54)
	$\chi^2/F$	3.08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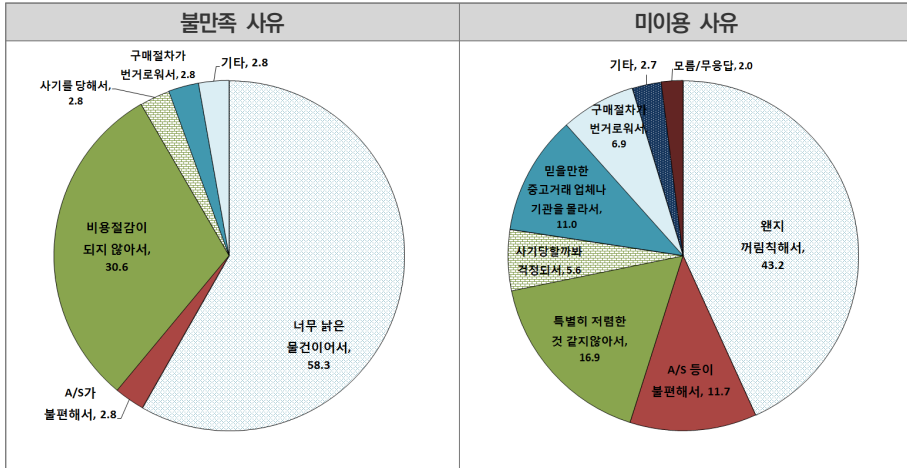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육아용품 중고구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들이 중고 육아용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낡은 물건이어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아서'의 응답비중이 3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V-2-1 | 중고 육아용품 거래 불만족 사유 및 미이용 사유

단위 : %



주: 불만족 사유 응답대상자 수는 36명에 불과하며, 미이용 사유 응답자 수는 1,210명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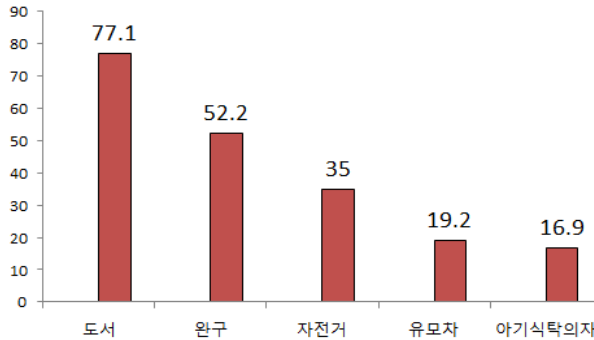
한편, 육아용품의 중고상품 구매에 한 번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중고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웬지 꺼림칙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특별히 저렴한 것 같지 않아서' 16.9%, 'A/S등이 불편해서' 11.7%, '믿을만한 중고거래 업체나 기관을 몰라서' 11.0%, '구매절차가 번거로워서' 6.9% 순으로 나타났다.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가구특성별로는 자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3명이상 있는 경우는 '웬지 꺼림칙해 보여서'의 응답 비중이 30.4%로 다소 낮았으며, '특별히 저렴한 것 같지 않아서' 21.7%, 'A/S 등이 불편해서' 15.2%의 응답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가 많은 경우는 중고상품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보다는 가격이나 A/S 등 실제적인 불편함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육아용품 구입 시 중고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43.4%가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구매의향이 있는 물품은 도서가 77.1%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52.2%, 자전거 35.0%, 유모차 19.2%, 아기식탁의자 16.9% 등으로 주로 내구성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V-2-2 || 중고 육아용품 구입 의향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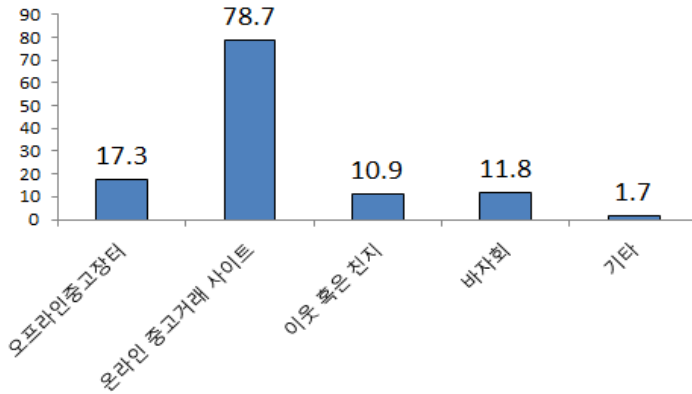
주: 품목별 이용 의향을 질문하였으며,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중고물품 구매가 아닌 판매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중고물품 판매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25.6%로 1/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처를 질문한 결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가 78.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오프라인 중고장터 17.3%, 바자회 11.8%, 이웃 혹은 친지 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구특성 중에서는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중고용품 판매경험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V-2-3 참조).

한편, 육아용품의 중고 판매경험은 가구지출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생활비 지출을 199만원이하로 하는 가구와 400만원이상으로 지출하는 가구에서 판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0% 정도로 높은데 비해, 200~299만원 이하 24.4%, 300~399만원이하 22.6%로 중규모로 지출하는 가구에서는 판매 경험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25 참조).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의 중고 판매를 다시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89.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중고 판매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판매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43명)에 한해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절차가 번거로워서'의 응답 비중이 53.5%로 절반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잘 팔리지 않아서' 25.6%,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해서' 11.6%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3-26 참조).

|| 그림 V-2-3 || 중고 육아용품 판매 경로

단위 : %



주: 응답자 수는 422명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이처럼 설문조사나 심층면담 결과를 보면, 많은 영유아 부모가 향후에 육아용품을 중고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실제 중고판매의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건을 내놓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다는 것은 중고판매를 하지 않게 되는 주된 이유였으며, 일부 영유아 부모들은 중고거래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이 중고거래를 강하게 희망하지만 과정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감안할 때, 편의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중고마켓 같은 것은) 그걸 할 여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쉽지 않은 거 같긴 하거든요……있으면 사실 좋긴 하지만 그런 시간과 여력을 내기에는 각자의 삶이 바쁜 거 같아요. (2018.8.31. 영유아부모 면담2. p.23)

중고거래는 그거 자체가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고거래는 귀찮아서 기다리기도 산다는 사람도 바로 연락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2018.8.31.영유아부모 면담2. p.17)

좀 나라에서 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좀 고르고 싸게 살 수 있는 마켓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연락하고 조율하고, 택배 불러야 하고 좀 귀찮아서. (2018.9.4. 영유아부모 면담. p.24)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중고거래를. 근데 차라리 어떤 센터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를 하는 거고. 근데 중고거래는 저희가 금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고거래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으면 좋은 거 같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명품도 그런 가

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게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 옷도 보면 때 지나서 새 거인데, 한두 번 입히면 버려야 되는데 저희도 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부도 좋지만. (2018.8.31. 영유아부모 면담2. p.21)

### 다. 물려받기/쓰기 경험

다음으로 물려받기/쓰기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육아용품 중 침대, 아기식탁의자, 유모차, 카시트 등의 기기/집기류는 15.4%~29.1%가 물려받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유모차는 29.1%로 물려받기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불류를 제외한 피복류와 완구, 도서류는 물려받기의 비중이 31.9%~48.7%로 기기/집기류보다도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물려받기 경험은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 3명이상인 경우에 모든 항목에서 확연하게 높게 나타나 형제자매간 물려받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표 V-2-12 ▣ 자녀수별 물려받기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자녀수			$\chi^2$	
		1명	2명	3명이상		
기기/집기	침대	15.4	6.9	20.7	20.8	57.276***
	아기식탁의자	20.3	11.0	25.1	30.7	58.752***
	젓병 소독기	15.5	7.5	19.2	26.6	57.347***
	욕조	19.5	8.9	24.6	33.3	82.060***
	유축기	15.8	8.0	20.3	22.4	47.974***
	카시트	24.6	11.0	31.8	39.6	109.779***
	유모차	29.1	13.9	37.4	44.3	119.698***
	자전거	22.9	10.2	30.1	34.9	97.769***
	놀이방매트	20.0	6.0	27.8	33.9	132.269***
피복비	평상복_상의	48.1	31.2	57.6	63.5	120.859***
	평상복_하의	48.7	31.5	58.4	64.1	124.681***
	외출복	48.4	31.7	57.8	63.5	118.295***
	내의	31.9	17.6	39.4	47.9	104.057***
	신발	41.7	25.4	50.7	57.3	116.462***
	이불	22.2	8.3	29.8	35.9	119.805***
	속싸개	13.3	5.8	17.0	22.4	54.615***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41.4	24.9	51.8	52.1	117.109***
	도서	40.3	23.8	50.2	52.6	117.69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또한, 영유아 양육비용 구간별로 물려받기의 경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이 다수였는데, 아기식탁의자, 젓병 소독기, 욕조, 유축기, 유모차, 놀이방 매트와 같은 기기/집기류나, 내의나 이불 등 피복관련 용품과 도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영유아 양육비용이 큰 가구들에서 물려받기의 경험이 높았다. 이는 물려받기가 가구 내 형제자매간에 성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제자매가 많은 가구는 대체로 영유아 양육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V-2-13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구간별 물려받기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영유아 양육비용 구간별				$\chi^2$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	200만원 이상		
기기/집기	침대	15.4	12.7	14.3	18.4	17.2	6.295
	이기식탁의자	20.3	18.3	18.3	24.4	21.8	7.912*
	젓병 소독기	15.5	11.4	13.5	19.9	25.3	20.405***
	욕조	19.5	15.5	17.3	25.0	24.1	16.471***
	유축기	15.8	10.8	13.8	21.7	19.5	22.796***
	카시트	24.6	21.1	23.7	27.9	28.7	6.342
	유모차	29.1	26.6	27.0	33.2	34.5	7.858*
	자전거	22.9	25.5	20.5	24.6	23.0	4.462
놀이방매트	20.0	15.5	18.0	25.2	26.4	16.864***	
피복비	평상복_상의	48.1	44.0	48.3	50.2	50.6	3.470
	평상복_하의	48.7	44.0	48.6	52.0	49.4	5.344
	외출복	48.4	43.2	48.7	51.6	48.3	5.971
	내의	31.9	25.2	31.2	37.1	36.8	14.614**
	신발	41.7	37.4	40.9	45.5	44.8	6.189
	이불	22.2	19.7	19.4	27.3	27.6	13.289**
여가 및 문화생활비	속싸개	13.3	10.8	11.5	16.8	18.4	11.072*
	완구	41.4	38.2	40.4	45.1	42.5	4.533
도서	40.3	37.7	38.2	44.7	43.7	6.62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한편, 육아용품을 물려준 사람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형제자매가 모든 육아용품에서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인척, 직장동료 및 친구, 지역주민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4 육아용품을 물려 준 사람

단위 : %

구분		육아용품을 물려 준 사람						
		아이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역주민 이웃	직장동료 및 친구	공공기관	온라인 사이트	기타
기기/집기	침대	59.7	27.7	7.5	9.9	0.0	1.6	0.0
	이기식탁의자	61.1	26.3	6.6	8.4	0.0	2.1	0.3
	젓병 소독기	62.5	24.2	6.6	9.8	0.0	1.6	0.0
	욕조	66.1	23.9	5.9	5.6	0.0	1.9	0.0
	유축기	56.5	25.4	4.6	11.5	0.8	2.7	0.8
	카시트	62.6	27.6	6.7	6.7	0.0	0.7	0.0
	유모차	62.9	26.7	5.6	7.9	0.2	1.5	0.0
	자전거	57.7	28.0	10.1	7.7	0.3	1.1	0.0
피복비	놀이방매트	73.6	17.0	7.3	5.2	0.0	1.2	0.0
	평상복_상의	52.8	37.8	14.8	18.1	0.1	0.4	0.0
	평상복_하의	52.2	38.0	14.2	18.6	0.2	0.4	0.0
	외출복	50.3	39.5	14.1	18.3	0.1	0.6	0.0
	내의	58.0	34.0	12.2	16.2	0.0	0.8	0.0
	신발	51.4	36.7	15.4	18.2	0.1	0.9	0.0
	이불	73.0	22.4	5.2	7.9	0.3	0.3	0.0
여가 및 문화생활비	속싸개	68.9	23.7	5.0	10.0	0.0	0.9	0.0
	완구	58.1	33.1	12.2	15.2	0.4	2.5	0.0
	도서	57.2	34.0	10.2	14.5	0.2	2.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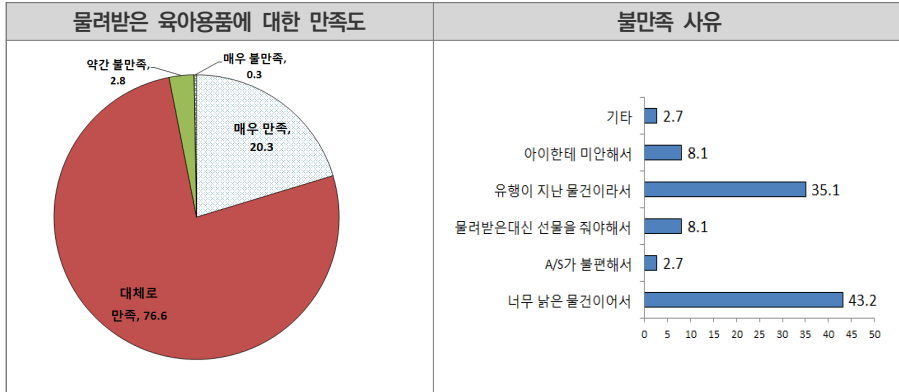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물려받아 사용한 육아용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만족' 76.6%, '매우 만족' 20.3%로 전체의 96.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불만족' 2.8%, '매우 불만족'은 0.3%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려받아 사용한 육아용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낡은 물건이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는 '유행이 지난 물건이라서'가 35.1%이었다. 이외에 '아이한테 미안해서'와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 해서'가 8.1%였다.

그림 V-2-4 |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단위 : %



주: 만족도에 응답한 응답가구는 1,124가구, 불만족 사유에 응답한 가구는 377가구에 불과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물려받기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물려받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건에 의해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웬지 꺼림칙해서'가 3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제품이 낡아서'가 15.6%로 나타났다.

한편, 물려받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맞벌이 가구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외벌이의 경우 '주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비중이 맞벌이에 비해 5.7%p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의 경우 '웬지 꺼림칙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외벌이에 비해 2.9%p,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 해서'라는 응답 비중은 외벌이에 비해 5.7%p로 높게 나타났다(표 V-2-15 참조). 물려받기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총 자녀수에 따라서도 달라져,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주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이미 제품이 낡아서'의 응답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주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려받기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중은 대도시에서는 41.8%인데 비해, 중소도시 33.5%, 읍면지역 29.0%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확연히 적게 나타나며, '웬지 꺼림칙해서'라는 응답 비중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33.3%, 38.9%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25.8%로 도시지역에 비해 10%p가량 낮게 나타났다(표 V-2-16 참조).



표 V-2-15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 물려받기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가구)

구분	물려받기를 하지 않는 사유					계	
	웬지 꺼림칙해서	이미 제품이 낡아서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해서	주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려받기 업체나 알선 기관을 몰라서		
전체	34.8	15.6	6.2	36.3	7.0	100.0 (454)	
맞벌이 가구	맞벌이	36.2	16.2	8.9	33.6	5.1	100.0 (235)
	외벌이	33.3	15.1	3.2	39.3	9.1	100.0 (219)
여부	$\chi^2$	10.009*					
총 자녀수	1명	32.9	13.0	4.7	42.2	7.3	100.0 (301)
	2명	38.9	19.0	9.5	27.0	5.6	100.0 (126)
	3명이상	37.0	29.6	7.4	14.8	11.1	100.0 ( 27)
	$\chi^2$	20.52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표 V-2-16 지역규모별 육아용품 물려받기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가구)

구분	물려받기를 하지 않는 사유					계	
	웬지 꺼림칙해서	이미 제품이 낡아서	물려받은 대신 선물을 줘야해서	주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려받기 업체나 알선 기관을 몰라서		
전체	34.8	15.6	6.2	36.3	7.0	100.0 (454)	
지역 규모	대도시	33.3	13.2	5.3	41.8	6.3	100.0 (189)
	중소도시	38.9	16.7	3.9	33.5	6.9	100.0 (203)
	읍면지역	25.8	19.4	16.1	29.0	9.7	100.0 ( 62)
	$\chi^2$	19.45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육아용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물려받아 쓸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75.6%가 물려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물려받을 의향이 있는 품목은 도서 78.4%, 완구 75.1%, 외출복 60.9%, 평상복 58.7%, 자전거 56.7% 순으로 조사되었다.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쓸 의향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7.6%p 물려받기의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 자녀수에 따라서도 육아용품 물려받기의 의향은 다르게 나타나,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4.4%인데 비해 2자녀 이상인 경우는 80%이상으로 15%p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V-2-17 가구 특성별 물려받기 의향

단위 : %(가구)

구분		육아용품 물려받기 의향						계
		의향있음	물품 종류					
			도서 (전집포함)	완구	외출복	평상복	자전거	
전체		75.6	78.4	75.1	60.9	58.7	56.7	(124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1.5	79.1	76.5	59.6	57.4	57.4	( 545)
	외벌이	79.1	77.9	74.0	61.9	59.8	56.1	( 701)
		$\chi^2$	-					
총 자녀수	1명	64.4	77.4	72.3	51.3	50.1	56.2	( 411)
	2명	82.9	80.4	76.7	64.2	60.9	56.0	( 678)
	3명이상	81.8	72.6	75.8	72.0	72.0	60.5	( 157)
		$\chi^2$	70.74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물려받기에 이어 반대로, 자녀가 사용했던 육아용품을 아이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물려줘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V-2-18>과 같다. 전체의 51.3%가 물려주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려준 대상은 친인척이 49.2%로 가장 많고, 직장동료 및 친구 26.3%, 지역주민이웃 22.3% 순이었다. 물려주기의 대상은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친인척에게 물려준 경우가 가장 많지만, 외벌이 가구는 지역주민이웃에 물려줬다는 비중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고, 맞벌이 가구는 직장동료 및 친구의 비중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러한 육아용품의 거래가 자녀의 모와 근접한 인맥 관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가구소득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400만원미만인 경우 물려주기를 경험한 가구의 비중이 50% 미만인데 비해, 가구소득이 400~199만원인 경우 50.8%, 500~599만원인 경우가 56.1%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물려주기 경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자녀수별로 분석한 결과,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인 경우 44.4%가 물려주기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자녀수 2명 54.3%, 3명이상 61.5%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물려주기를 경험한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8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 물려주기 경험

단위 : %(가구)

구분	물려주기 경험있음	물려준 대상						계	
		친인척	지역주민 이웃	직장동료 및 친구	공공기관	온라인 사이트	기타		
전체	51.3	49.2	22.4	26.3	0.2	1.8	0.1	100.0 (845)	
맞벌이 가구	맞벌이	52.0	47.7	18.7	31.1	0.3	2.0	0.3	100.0 (396)
	외벌이	50.7	50.6	25.6	22.0	0.2	1.6	0.0	100.0 (449)
여부	$\chi^2$	0.273(1)	12.753(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7.5	49.1	20.8	27.4	0.0	2.8	0.0	100.0 (106)
	300~399만원	47.0	51.2	22.7	24.6	0.0	1.4	0.0	100.0 (207)
	400~499만원	50.8	49.2	22.1	27.2	0.5	0.5	0.5	100.0 (195)
	500~599만원	56.1	50.0	22.4	25.0	0.0	2.6	0.0	100.0 (152)
	600만원 이상	56.1	46.5	23.2	27.6	0.5	2.2	0.0	100.0 (185)
	$\chi^2$	9.976(4)*	10.310(20)						
총 자녀수	1명	44.4	43.5	20.1	33.9	0.4	2.1	0.0	100.0 (283)
	2명	54.3	52.7	22.1	23.2	0.2	1.8	0.0	100.0 (444)
	3명이상	61.5	50.0	28.8	19.5	0.0	0.8	0.8	100.0 (118)
	$\chi^2$	23.144(2)***	23.185(1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표 V-2-19〉은 자녀가 사용했던 육아용품을 아이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물려줘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라고 응답한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주변에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28.8%, '물려받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16.8%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녀수가 1명 혹은 2명인 경우 '주변에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물려주지 못했다는 비중이 다자녀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 '물려받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의 응답 비중이 6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2-19 가구 특성별 육아용품 물려주기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가구)

구분	물려주기를 하지 않은 이유							계	
	내아이가 쓰던 물건을 다른 아이가 쓰는 것이 꺼림칙해서	제품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물려받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주변에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알선 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이용이 불편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13.1	34.9	16.8	28.8	1.7	3.6	1.1	100.0 (803)	
총 자녀수	1명	15.5	21.4	16.3	36.9	2.5	5.9	1.4	100.0 (355)
	2명	12.6	41.2	18.7	24.1	1.1	1.9	0.5	100.0 (374)
	3명이상	4.1	67.6	9.5	13.5	1.4	1.4	2.7	100.0 ( 74)
	$\chi^2$	84.239***							

주: 카이제곱 차이검증은 모름/무응답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 라. 대여하기 경험

육아용품의 대여하기 경험은 기기/집기류에서는 침대 1.9%, 유축기 1.2%, 자전거 0.3% 등 소수가 대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완구와 도서는 각각 8.6%, 4.9%로 대여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대여하기 경험이 모든 물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어서는 육아용품의 대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용품별 대여 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V-2-21 참조). 대여 경험이 가장 높게 조사된 완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의 대여가 6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간대여업체가 15.5%였다. 도서의 경우도 공공기관이 66.3%로 가장 높고, 민간대여업체가 13.8%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기기/집기류 중 1.9%의 대여경험 비중을 보인 침대는 민간대여업체가 67.7%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커뮤니티 12.9%, 친인척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의 대여경험 비중을 보인 유축기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대여와 직장 동료 및 친구로부터의 대여가 26.3%로 동일하게 높았지만,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육아용품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게 된 주된 이유는 '단기간만 사용할 물건이라서'의 응답이 64.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V-2-5 참조). 이어서는 '제품구입 비용이 비싸서' 17.8%, '그때그때 유행하는 물건을 이용할 수 있



어서' 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용품 대여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이 74.2%, '매우 만족'이 17.3%로 나타나, 육아용품 대여 시 만족하는 경우가 전체의 91.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V-2-20 가구소득별 대여하기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가구소득별					χ <sup>2</sup>	
		299만원 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기기/집기	침대	1.9	0.9	0.7	2.6	2.2	3.0	8.211
	아기식탁의자	0.2	0.4	0.0	0.3	0.0	0.3	2.563
	젓병 소독기	0.2	0.0	0.0	0.3	0.0	0.6	5.098
	육조	0.1	0.0	0.0	0.0	0.0	0.3	3.996
	유축기	1.2	1.8	1.8	0.5	0.7	0.9	4.440
	카시트	0.2	0.0	0.2	0.3	0.0	0.3	1.346
	유모차	0.2	0.0	0.2	0.0	0.4	0.3	1.944
	자전거	0.3	0.4	0.2	0.0	0.4	0.6	2.446
	놀이방매트	0.1	0.0	0.0	0.0	0.0	0.3	3.996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8.6	5.8	10.2	8.9	7.4	9.1	4.297
	도서	4.9	3.6	6.4	4.4	4.8	4.2	3.36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표 V-2-21 육아용품을 대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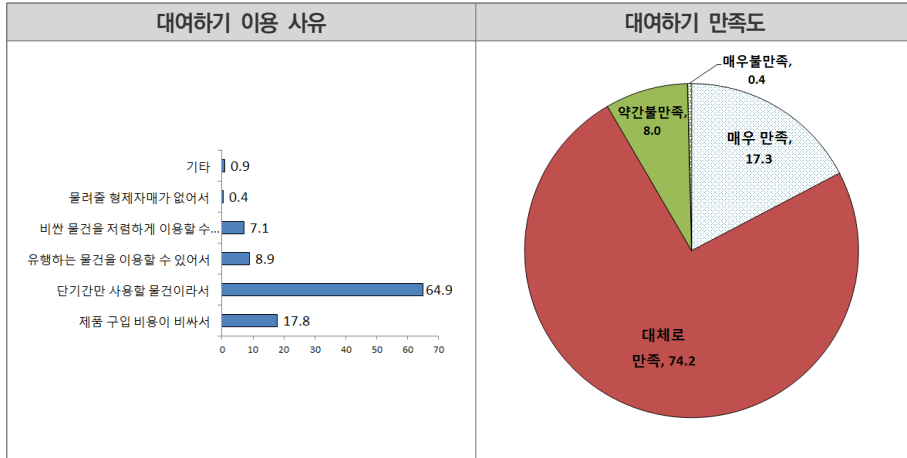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육아용품을 주로 대여해 준 기관							
	민간 대여업체	공공기관	친인척	지역주민 이웃	직장동료 및 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기타	
기기/집기	침대	67.7	3.2	9.7	0.0	6.5	12.9	0.0
	아기식탁의자	33.3	33.3	33.3	0.0	0.0	0.0	0.0
	젓병 소독기	33.3	0.0	33.3	0.0	33.3	0.0	0.0
	육조	0.0	0.0	100.0	0.0	0.0	0.0	0.0
	유축기	15.8	26.3	5.3	0.0	26.3	15.8	10.5
	카시트	66.7	0.0	33.3	0.0	0.0	0.0	0.0
	유모차	33.3	33.3	33.3	0.0	0.0	0.0	0.0
	자전거	20.0	20.0	20.0	0.0	0.0	20.0	20.0
	놀이방매트			100.0	0.0	0.0	0.0	0.0
여가 및 문화생활비	완구	15.5	69.0	7.0	2.1	2.8	3.5	0.0
	도서	13.8	66.3	10.0	5.0	1.3	3.8	0.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그림 V-2-5 | 물려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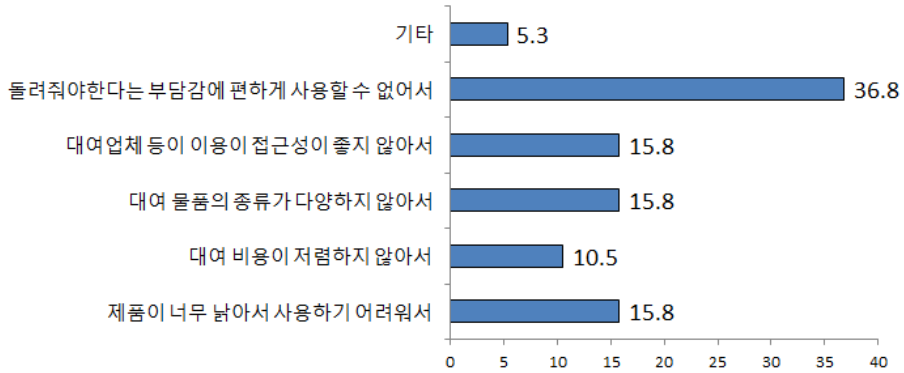
주: 대여하기 이용 사유 및 만족도 응답자는 225명, 만족도 평균 점수는 3.1점이었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육아용품 대여경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만족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내 물건처럼 편하게 사용하지 못해서'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품이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워워서', '대여업체 등의 이용이 접근성이 떨어져서'와 '대여물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가 동일하게 15.8%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 수치는 19명에 대한 조사 결과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앞서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구류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경우가 69.0%로 높게 나타나, 주로 대여 용품에 대한 불만은 공공기관 대여서비스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영유아 부모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정부의 장난감 대여 사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장난감을 빌려주는 센터의 접근성이 낮으며, 망가지거나 분실한 경우 곤란을 겪게 되어 이용을 꺼리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 그림 V-2-6 ■ 대여 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불만족 사유

단위 : %



주: 대여받은 육아용품에 대한 불만족 사유는 19명에 대한 응답결과로 주의가 요구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센터에서 장난감 빌려준다고 해서 갔는데 은근 멀어요. 주차도 힘들고 그래서 해준다고 해도 번거로웠어요. 두 세 번 하고 말았던 거 같아요. 주차하는 곳에서 뱅뱅 돌고 세워서 그 무거운 거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2018.9.4. 영유아부모 면담. p.23)

국가지원 중에 장난감을 빌려주는 국가지원이 있었어요. 그거 진짜 불편해요. 차라리 구매가 낫다는 거죠. 중고 구매를 하면 4천 원에 아이에 계속 갖고 놀게 하고 망가져도 부담이 없고. 근데 거기서 빌리러 가는데 시간낭비이고 갖고 와서 애가 갖고 놀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a/s해서 비용내야하고... (2018.8.30. 영유아부모 면담. p.18)

애가 어리면 데리고 다녀야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애를 데리고 가서 부피 큰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가성비가 진짜 떨어져요. 제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 되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2018.8.30. 영유아부모 면담. p.18)

그거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붙어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뗄 수도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그런 걸 규제를 하더라고요. 물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블록도 조금만 거 없어지면 물어내야 하고 그래서 장난감 나라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빌려보는 건 부담이 되고. 갖고 놀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놀다가 봉지에 넣으라고 하면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애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중고를 하나 사주는 게 낫겠다 싶고. 이거 없어졌어요, 어머니 하면 제가 사서 보내줘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서는 저희도 일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하고 스티커가 찍어진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2018.8.31. 영유아부모 면담1. p.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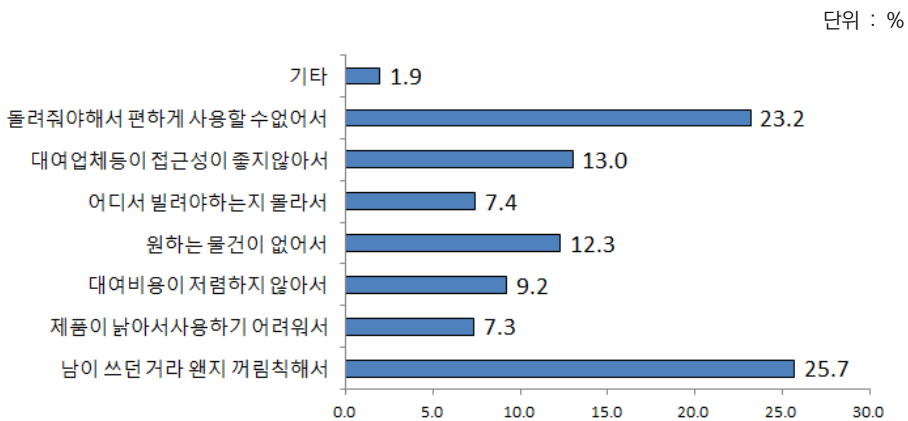
유축기의 경우도 공공기관에서의 대여경험이 26.3%로 꽤 높게 나타났지만, 심층 면담 결과 유축기 대여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기간이 짧아서 그냥 중고로 샀어요..... (기간이 얼마정도 돼요?) 한 2주..... 첫째 때 쓰던 거 팔고 둘째 때는 없어도 되잖아 했는데 2주 부족해서 또 구매했거든요..... 한번 빌려 쓰면 오래 쓰는데 2주이니까.(2018.9.4. 영유아부모 면담. p.23)

한편, 육아용품 대여경험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대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이 쓰던 거라 왠지 꺼림칙해서’ 25.7%, ‘돌려줘야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없어서’ 23.2%, ‘대여업체 등이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13.0%, ‘원하는 물건이 없어서’ 12.3% 순으로 다양했다(그림 V-2-7 참조).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자녀의 육아용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대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표 V-2-22>와 같았다. 전체의 45.6%가 대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여할 의향이 있는 물품은 도서 65.8%, 완구 62.1%, 자전거 33.4%, 침대 21.0%, 유모차 16.2% 순으로 제시되었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299만원 이하 가구는 55.2%가 대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0~399만원이하 47.0%, 400~499만원 43.5%, 500~599만원 42.8%, 600만원이상 41.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여하기의 의향 비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V-2-7 ■ 대여하기 미이용 사유



주: 대여하기 미이용자는 1,423명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표 V-2-22 가구 특성별 대여하기 의향

단위 : %(명)

구분		육아용품 대여하기 의향						계
		의향있음	물품 종류					
			도서 (전집포함)	완구	자전거	침대	유모차	
전체		45.6	65.8	62.1	33.4	21.0	16.2	(75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3.4	61.6	60.4	32.6	23.3	18.4	(331)
	외벌이	47.4	69.0	63.3	34.0	19.3	14.5	(420)
$\chi^2$		2.598	-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5.2	65.9	60.2	36.6	17.1	14.6	(123)
	300~399만원	47.0	64.3	62.8	34.3	24.2	17.4	(207)
	400~499만원	43.5	70.1	66.5	29.3	19.2	14.4	(167)
	500~599만원	42.8	68.1	61.2	30.2	20.7	13.8	(116)
	600만원 이상	41.8	60.9	58.0	37.0	22.5	20.3	(138)
	$\chi^2$	12.028*	-					
총 자녀수	1명	46.7	66.1	62.8	38.9	22.1	17.8	(298)
	2명	44.6	66.0	62.2	29.3	20.5	15.3	(365)
	3명이상	45.8	63.6	59.1	31.8	19.3	14.8	( 88)
	$\chi^2$	0.636	-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마. 육아용품 처리 방법

이하에서는 현재 가구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우선, 육아용품 중 사용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물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7.2%로, 육아가구의 절반가량이 처리하지 못한 육아용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버린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으며, '지인에게 물려주고 싶다' 47.9%, '가능한 중고거래(온/오프라인 모두 포함)를 통해 판매하고 싶다' 22.5%,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부하고 싶다' 15.0%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부분이 타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경제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후속출산을 대비하여 보관할 것이다'도 9.4% 정도 있었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총 자녀수 정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1명인 경우에 확실히 '후속출산을 위해 보관' 하겠다는 응답이 20.1%로 높고,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무상 기부하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2-23 가구 특성별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 처리 방법

단위 : %(가구)

구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음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 처리 희망 방법							계	
		지인에게 물려주고 싶음	중고 거래 하고 싶음	무상 기부 하고 싶음	후속 출산을 위해 보관	지인에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음	버림	기타		
전체	47.2	47.9	22.5	15.0	9.4	1.2	3.5	0.5	100.0 (778)	
총 자녀수	1명	48.4	44.0	20.1	12.6	20.1	1.9	1.3	0.0	100.0 (309)
	2명	46.8	50.7	25.1	15.7	2.9	0.8	4.4	0.5	100.0 (383)
	3명이상	44.8	50.0	19.8	20.9	0.0	0.0	7.0	2.3	100.0 ( 86)
	$\chi^2$	0.883	88.59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그런데,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육아용품을 물려주거나 중고판매를 하기에는 낡거나 오래되어 거래가 힘들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육아용품들이 많고, 유모차나 왜건 같은 대형 육아용품들은 버리는데도 비용이 들어서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쌓아놨는데 팔기는 낡았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면 주겠는데 애매한 물건들이 많고. 애기 침대, 미끄럼틀. 엄청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저는 왜건 자동차, 부피는 큰데 가끔 필요하니까 복도에 쌓아두고..... 주려고 했다가 때도 타고 팔기도 좀 어렵고..... 고민이에요. 유모차 이런 건 좀 버리기가 그렇고 비용도 들고, 너무 멀쩡한데 버리니까. .... 오래됐지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년수는 오래됐지만 더 끌 수 있는 거 같은데. 디럭스 같은 거는. ....버리거나 만약에 안 되면 기증하는 곳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깔끔하게 닦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비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드림하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2018.9.4. 영유아부모 면담. p.25-26)

일부 영유아 부모들은 육아용품의 공유경제를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물품을 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육아용품을 일반가정에게 '드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필요가 더 큰 취약계층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장난감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곳에 보내어 기부하게 된다면,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리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 버리기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지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 같기도. 젊은 엄마들이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사고 그러니까 주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엄청 쌓여 있어요. (2018.9.4. 영유아부모 면담. p.26)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마음먹으면 저가든 고가든 사줄 수는 있잖아요. 아예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저소득층, 미혼모 이런 아이들은 정말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가끔 생각하기를 이걸 굳이 물림이나 드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택배비가 들더라도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못 쓸 물건은 주지 않고 한 번은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 애들한테 새 옷도 보내고 둘째 셋째를 낳았으니까 새 옷이 들어와도 둘째 셋째를 위해서 굳이 새 옷을 입고 싶지 않아서 그건 모아서 미혼모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2018.8.31. 영유아부모 면담1 p.26)

……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장난감 수리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택배비만 내면 공짜로 고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 그 장난감 연구소 운영방식이 자기들이 수리한 게 마음에 들면 기부금 형태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신선했어요. 아이들 물건이 조금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드림을 받는다면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분에게 기부하는 걸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살 때 3만 원이고 중고가격은 만 원인데 내가 이걸 팔아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런 기관이 생기면 그냥 편하게 주고 마음 편하게 기부도 하고. …… 고장 난 건 다른 사람에게 주기 그렇기도 하고. (2018.8.31. 영유아부모 면담1 p.26)

한편, 육아용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가구생활비나 총양육비용 등 가구 지출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생활비 지출이 높은 가구의 경우 미사용 보유 중인 육아용품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미사용 보유 중인 육아용품의 처리희망을 묻은 결과에서는 가구 지출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미사용 보유 중인 육아용품의 처리 방법은 총 양육비용 지출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총 양육비용이 높은 가구에서 ‘지인에게 물려주고 싶다’의 응답 비중이 총 양육비용이 낮은 가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총 양육비용이 낮은 가구에서는 ‘후속출산을 위해 보관할 것이다’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자녀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총 양육비용도 적은 것과 상관된 것으로 보인다.

표 V-2-24 가구 지출별 육아용품 처리 방법

단위 : %(가구)

구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음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 처리 희망 방법							계	
		지인에게 물려주고 싶음	중고 거래 하고 싶음	무상기 부하고 싶음	후속 출산을 위해 보관	지인에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음	버림	기타		
전체	47.2	47.9	22.5	15.0	9.4	1.2	3.5	0.5	100.0 (77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37.4	48.1	21.5	12.7	12.7	2.5	1.3	1.3	100.0 ( 79)
	200~299만원	46.1	46.1	22.6	14.2	11.0	1.0	4.8	0.3	100.0 (310)
	300~399만원	50.0	50.4	21.6	15.1	8.6	0.9	2.6	0.9	100.0 (232)
	400만원 이상	52.3	47.8	24.2	17.8	5.7	1.3	3.2	0.0	100.0 (157)
	$\chi^2$	13.045**	13.572							
총 양육용	49만원 이하	41.8	45.1	19.5	13.4	19.5	2.4	0.0	0.0	100.0 ( 82)
	50~99만원	45.7	45.5	22.0	15.2	12.3	1.4	3.2	0.4	100.0 (277)
	100~199만원	48.9	49.7	23.5	14.3	5.8	0.6	5.2	0.9	100.0 (328)
	200만원 이상	52.0	51.6	23.1	18.7	4.4	1.1	1.1	0.0	100.0 ( 91)
	$\chi^2$	5.182	32.25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3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주거 관련 의견 및 공유 경제 활용 경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자 비중이 높았으며, 자가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았다. 이로 인해 주거관리비는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항목별로는 저소득 가구는 월세액이, 그 외 구간의 경우에는 관리 및 수도/광열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원리금 상환액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어, 주택 구매가 고소득 가구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대체로 상당액의 부채를 감수하면서 주택을 구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 출산 후 주택 구입 필요성에 대해 구입하는 편이 좋다(반드시 구입+기왕이면 구입)에 80%이상이 동의하였으며, 이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았다. 즉,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확실히 주택 구입에 대한 선호도 높으며, 이로 인한 가계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영유아 가구들이 주거지 선택 기준은 주변 환경이 아이 키우기에 좋은 장소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높은 지지(28.8%)를 받았으나,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22.5%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영유아 가구들이 생각하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 조건으로는 주거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3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아동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 순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아 가구가 밀집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주로 출산 지원 정책 분야에서 추진되는 신혼부부 혹은 육아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은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되고 지원될 때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육아 가정의 2/3가량은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완구, 외출복, 도서 순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비싸다고 인식한 육아용품 중 구입 후 후회한 물품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절반가량이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사유는 생각만큼 필요한 물품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입한 이유는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물품이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른 값싼 제품을 찾지 못해서가 다음이었다. 이를 통해 육아 가정이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과정 중에 육아용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하거나 대체재를 알지 못해 고가의 물품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상태에서 육아 필수품과 양질의 저렴한 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이뤄진다면, 좀 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육아 가정의 경우 의외로 중고구매나 대여하기 이용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피복류 및 완구, 도서 등 일부 품목에서의 물려받기 경험이 절반가량 포착된 것 이외에는 대체로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육아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유 경제 활동은 물려쓰기로 특히 가구 내 형제 자매 혹은 친인척 등을 통한 물려쓰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아직도 영유아 가구들에게서 남이 쓰던 물품에 대한 우려와 터부가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향후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고 상품이나 대여 상품 등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육아 가정의 중고 거래는 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지역 단위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앱 등이 개발되어 편의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세분된 지역별 커뮤니티는 중고 거래 상품의 거래 과정에서의 접근성 개선 및 신뢰도 제고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유명한 제품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중고 거래의 폭을 좁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물건들이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는 현행 직거래로 진행되는 중고 거래 방식을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간 매개 기관 혹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물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도서 지역이나 후진 국가 등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영유아 가구들은 특히 대여하기 경험이 적었는데, 주로 대여하기를 이용하는 물품인 완구나 도서의 경우에는 민간 대여업체보다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때, 대여하기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이용 경험 자체가 적어 이러한 소비 패턴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 가구들이 대여하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위생상 문제(납이 쓰던 거라 꺼림칙하다거나) 혹은 돌려줘야한 불편함(편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현재 공공기관이 주로 지원하는 대여하기 물품은 완구와 도서 등이지만, 이러한 물품은 영유아 자녀가 직접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대여보다는 구매(중고 구매 포함)를 선호하는 품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여하기를 통해 영유아기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현재 민간 대여업체가 주로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는 카시트, 유모차, 침대, 식탁의자, 젓병소독기 등과 같은 내구성 육아용품을 장기간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 VI

## 양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미래 전망

1. 양육비용 관련 정책 인지 및 개선 요구
2. 육아 소비 성향
3. 미래 사회 전망
4. 소결 및 시사점







## VI. 양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미래 전망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들의 양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과 미래에 대한 전망, 육아 소비 성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부분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 부담감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부분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 1 양육비용 관련 정책 인지 및 개선 요구

본 연구에서는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을 가구 생활비 비목을 기준으로 하여 유목화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비목은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지원, 식비 및 개인 유지비, 통신비 지원, 주거/관리비 관련 지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로 구분된다.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 중에서 부모들이 사이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정책’과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였다. 이들 사업은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인 각각 72.3%와 35.1%로 제도 명칭 뿐 아니라 어떠한 서비스가 지원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홍보가 되어 있는 정책이었다. 반면, 해당 제도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식비 및 개인 유지비, 통신비 지원정책(37.4%)’, ‘주거관리비 관련 지원(26.9%)’,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의 대민서비스(26.6%)’ ‘보건의료지원정책(1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이들 사업은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혹은 다자녀 가구와 같이 특정되어 있는 사업들로, 실제 제도 이용 대상이 아니면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들이 실제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정책’, ‘기관보육교육 서비스’, ‘출산

양육비용'이 각각 89.2%, 89.3%, 87.7%로 이용율 자체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해보지 않다는 응답이 94.6%에 달하는 등 정책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비 및 개인유지비, 통신비 지원정책(87.7%)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대민서비스(80.5%), 주거/관리비 지원 정책(78.2%) 등의 이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조사됐다. 하지만, 각 정책을 이용해 본 부모들의 만족도(5점 만점)는 3점 후반대를 상회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원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인지도가 낮고, 이용률도 높지 않지만, 일단 이용한 경우에는 만족도 자체는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경험

단위 : 점, %(가구)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이용자 만족도 (평균)	계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보건 의료비	보건의료 지원정책	27.5	54.4	18.1	42.4	57.6	4.0	100.0	(1,350)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	72.3	26.1	1.6	89.2	10.8	4.1	100.0	(1,622)
교육 보육비 지원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	-	-	89.3	10.7	4.0	100.0	(1,648)
	개별돌봄서비스	-	-	-	5.4	94.6	3.8	100.0	(1,648)
	출산 양육비용	-	-	-	87.7	12.3	3.7	100.0	(1,648)
식비 및 개인유지비, 통신비 지원 정책	13.5	49.1	37.4	12.3	87.7	-	100.0	(1,031)	
주거/관리비 관련 지원 정책	20.5	52.5	26.9	21.8	78.2	-	100.0	(1,204)	
여가 및 문화 생활비	장남감 도서 대여 서비스	35.1	53.9	11.0	30.2	69.8	3.9	100.0	(1,467)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대민서비스	19.6	53.8	26.6	19.5	80.5	4.0	100.0	(1,209)

주: 1) 보건의료 지원 정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선형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이 포함됨.  
 2) 예방접종및건강검진 지원 정책은 만 12세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정책이 포함.  
 3)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정책에는 교육보육비용은 목을 묶어서, 하나라도 이용하면 응답되도록 처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이하에서는 지원 정책의 각 범주별로 부모들의 인지 및 이용여부 등이 가구특성, 지역규모, 가구 지출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 보고서의 가독성을 위해 가구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만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 가. 보건의료비 지원정책의 인지 및 이용 여부의 특성

### 1) 보건의료 지원정책

보건의료비 지원정책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만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총 자녀수가 3명이상인 가구가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이용해본 비율도 51.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는 ‘모름’(20.8%)의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이용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61.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 > 중소도시 > 대도시 순으로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과 실제 이용 비율이 높았다. 보건의료비 지원정책이 읍면 지역에서 오히려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읍면 지역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자녀수가 많은 것 과도 일부 연관이 되어 있으며, 또한 읍면 지역의 경우 보건소 이용 등이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 표 VI-1-2 ▮ 보건 의료비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 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전체	27.5	54.4	18.1	42.4	57.6	100.0	(1,350)
총 자녀수	1명	23.7	55.5	20.8	38.2	61.8	100.0 ( 505)
	2명	29.0	54.0	17.0	43.3	56.7	100.0 ( 679)
	3명이상	34.4	52.1	13.5	51.8	48.2	100.0 ( 166)
	$\chi^2$	13.108*			9.853**		

(표 VI-1-2 계속)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 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지역 규모	대도시	25.7	58.5	15.9	34.3	65.7	100.0	( 557)
	중소도시	27.7	53.4	19.0	45.3	54.7	100.0	( 580)
	읍면지역	31.9	47.0	21.1	55.9	44.1	100.0	( 213)
	$\chi^2$	11.006*			32.868***			

주: 보건의료 지원 정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형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만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지원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2)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정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는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의 이용자 비율(93.9%)이 대도시 지역의 이용자 비율(84.7%)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 지출 규모가 작은 가구(199만원이하)에서 이에 대한 인지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가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총 양육비용이 많은 가구일수록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 양육비용이 많은 가구에 다자녀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출산한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정책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즉,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영유아 가구에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한 집단에서 정책 인지가 낮아 사각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정책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1-3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전체		72.3	26.1	1.6	89.2	10.8	100.0 (1,622)
지역 규모	대도시	73.4	25.4	1.2	84.7	15.3	100.0 ( 654)
	중소도시	70.9	27.4	1.7	91.6	8.4	100.0 ( 704)
	읍면지역	73.3	24.4	2.2	93.9	6.1	100.0 ( 264)
	$\chi^2$	2.522			24.143***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58.3	37.4	4.3	85.1	14.9	100.0 ( 202)
	200~299만원	72.8	26.0	1.2	89.2	10.8	100.0 ( 665)
	300~399만원	76.9	22.0	1.1	90.0	10.0	100.0 ( 459)
	400만원 이상	74.0	24.7	1.3	90.9	9.1	100.0 ( 296)
	$\chi^2$	32.057***			4.600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63.8	34.2	2.0	85.4	14.6	100.0 ( 192)
	50~99만원	69.3	28.5	2.1	87.9	12.1	100.0 ( 593)
	100~199만원	75.7	23.1	1.2	91.1	8.9	100.0 ( 663)
	200만원 이상	79.4	20.0	0.6	90.8	9.2	100.0 ( 174)
	$\chi^2$	19.396**			6.919		

주: 예방접종및건강검진 지원 정책은 만 12세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정책이 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 나. 교육·보육비 지원정책의 인지 및 이용 여부의 특성

### 1) 교육·보육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

교육·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은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개별돌봄, 출산 양육비용 등의 지원이 포함되는데, 2013년 이후 무상보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영유아 가구가 정책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인지가 매우 높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정책 인지 여부 자체를 질문하지는 않았다. 현재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가구는 89.3%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가구생활비 지출이 높은 가구일수록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비율도 높았다. 한편, 총 양육비용이 4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이용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 구간의 가구들에 자녀수가 적고 영아 자녀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표 VI-1-4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있음	없음		
전체		89.3	10.7	100.0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0.7	19.3	100.0	( 223)
	300~399만원	86.8	13.2	100.0	( 440)
	400~499만원	91.9	8.1	100.0	( 384)
	500~599만원	91.5	8.5	100.0	( 271)
	600만원 이상	93.3	6.7	100.0	( 330)
	$\chi^2$		29.707***		
총 자녀수	1명	76.5	23.5	100.0	( 638)
	2명	97.3	2.7	100.0	( 818)
	3명이상	97.4	2.6	100.0	( 192)
	$\chi^2$		177.099***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77.7	22.3	100.0	( 211)
	200~299만원	88.6	11.4	100.0	( 673)
	300~399만원	92.2	7.8	100.0	( 464)
	400만원 이상	94.3	5.7	100.0	( 300)
	$\chi^2$		41.986***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61.2	38.8	100.0	( 196)
	50~99만원	90.1	9.9	100.0	( 606)
	100~199만원	95.2	4.8	100.0	( 671)
	200만원 이상	94.9	5.1	100.0	( 175)
	$\chi^2$		191.81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 2) 교육·보육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한편, 교육·보육 관련 세부 지원 내용별로 이용률을 살펴보면, 3-5세 보육료 지원이 72.3%, 0-2세 보육료지원이 67.4%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가구특성, 지역규모, 가구지출별로는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외벌이 가구'(33.9%), 가구소득 '300~399만원 이하'(17.1%), 총 자녀가 '2명'(36.3%)의 가구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대도시 거주(29.4%)와 중소도시 거주(27.7%) 가구의 이용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 생활비 지출이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0-2세 보육료지원의 이용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이용률은 가구소득, 총 자녀수, 가구생활비 지출, 총 아동양육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300~399만원이하'(18.5%) 가구, 총 자녀수가 '2명'(41.4%), 가구생활비 지출이 '400만원이상'(79.0%), 총 아동양육비용이 '100~199만원 이하'(81.4%)인 가구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가구소득의 경우 '400~499만원 이하'(12.0%)가구, 총 자녀수가 '2명'(27.8%), 가구생활비 지출이 '400만원 이상'(63.3%), 총 아동양육비용이 '200만원이상'(68.6%)인 가구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이용률은 자녀수가 '2명'(10.0%)인 가구와 총아동양육비가 '100~199만원이하'(20.6%)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료 지원'의 이용률은 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이용률은 가구소득 '300~399만원이하'(5.3%), 총 자녀수 '2명'(10.5%)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생활비 지출과 총 양육비용이 많을수록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 중 맞벌이 여부와 거주 지역의 규모 면에서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이용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0-2세 보육료 지원 시 두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VI-1-5 ▣ 교육·보육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전체		67.4	72.3	47.4	18.1	5.8	18.6	100.0	(1,648)
맞벌이 가구	맞벌이	33.5	33.7	22.1	8.6	2.4	9.4	100.0	( 762)
	외벌이	33.9	38.7	25.2	9.5	3.4	9.2	100.0	( 886)
여부		$\chi^2$	16.298***	0.180	0.148	0.231	0.857	2.74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4	8.3	4.5	2.2	0.7	1.8	100.0	( 223)
	300~399만원	17.1	18.5	11.7	5.3	1.9	5.3	100.0	( 440)
	400~499만원	15.8	17.7	12.0	4.6	1.6	5.0	100.0	( 384)
	500~599만원	12.0	12.2	7.8	2.8	0.7	2.2	100.0	( 271)
	600만원 이상	14.2	15.6	11.5	3.3	0.8	4.2	100.0	( 330)
			$\chi^2$	10.958*	23.399***	35.827***	2.599	5.827	13.305**

(표 VI-1-5 계속)

구분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총 자녀수	1명	21.1	20.6	11.6	4.4	1.8	4.5	100.0	( 638)
	2명	36.3	41.4	27.8	10.0	3.0	10.5	100.0	( 818)
	3명이상	10.0	10.3	8.0	3.7	1.0	3.6	100.0	( 192)
	$\chi^2$	89.007***	190.128***	137.348***	45.565***	4.718	44.406***		
지역 규모	대도시	29.4	28.5	19.4	6.3	2.3	6.8	100.0	( 662)
	중소도시	27.7	31.9	21.2	8.6	2.5	9.0	100.0	( 716)
	읍면지역	10.3	12.0	6.8	3.2	1.0	2.8	100.0	( 270)
	$\chi^2$	17.361***	0.995	4.545	4.416	0.131	3.976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59.2	57.8	25.1	15.6	7.1	12.3	100.0	( 211)
	200~299만원	66.3	71.0	43.5	19.5	5.6	18.1	100.0	( 673)
	300~399만원	68.8	76.5	52.8	18.1	5.4	20.3	100.0	( 464)
	400만원 이상	73.7	79.0	63.3	17.0	6.0	21.7	100.0	( 300)
$\chi^2$	12.532**	33.486***	82.024***	1.947	0.852	8.287*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49.0	41.8	15.8	9.2	5.1	5.6	100.0	( 196)
	50~99만원	67.2	70.5	39.9	18.2	6.3	16.0	100.0	( 606)
	100~199만원	70.5	81.4	57.8	20.6	5.8	23.5	100.0	( 671)
	200만원 이상	77.1	78.3	68.6	18.9	5.1	23.4	100.0	( 175)
$\chi^2$	40.772***	122.626***	152.675***	13.307**	0.555	38.02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3) 개별돌봄 관련 지원 정책

한편, 개별돌봄 관련 지원 정책에는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돌봄,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주로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관된 지원들이 포함된다. 개별돌봄 관련 지원 정책을 이용한 가구는 5.4%로 미이용 가구가 94.6%로 대다수였다. 다만, 맞벌이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이 각각 7.1%, 10.9%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6 개별돌봄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있음	없음		
전체		5.4	94.6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1	92.9	100.0	( 762)
	외벌이	4.0	96.0	100.0	( 886)
	$\chi^2$	7.887**			
총 자녀수	1명	3.3	96.7	100.0	( 638)
	2명	5.7	94.3	100.0	( 818)
	3명이상	10.9	89.1	100.0	( 192)
	$\chi^2$	17.267***			

주: 개별돌봄 지원에는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돌봄, 아이돌보미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이 포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 4) 출산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

출산 양육비용 관련 지원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아동수당 등이 포함되며, 출산 양육비용 관련 지원을 수혜받은 가구는 87.7%로 높게 나타났는데, 가구 특성, 지역규모, 가구지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총 자녀수가 2명이나 3명인 경우 수혜한 경험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표 VI-1-7 출산·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있음	없음		
전체		87.7	12.3	100.0	(1,648)
총 자녀수	1명	84.6	15.4	100.0	( 638)
	2명	89.7	10.3	100.0	( 818)
	3명이상	89.1	10.9	100.0	( 192)
	$\chi^2$	8.98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다. 식비 및 주거비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특성

식비 및 개인유지비, 교통비 관련 지원에는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감면 등이 포함되며, 주거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감면, 지역난방비 감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원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혹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식비 및 개인유지비, 교통비 관련 정책의 인지 및 이용 여부는 가구특성과 가구생활비 지출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측면에서는 ‘외벌이 가구(15.6%),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22.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28.6%)에서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 이용 비율도 위와 유사한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생활비 지출이 ‘199만원이하’인 가구의 인지여부(18.5%)와 이용율(20.9%)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표 VI-1-8 ▮ 식비 및 개인유지비, 교통비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 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전체	13.5	49.1	37.4	12.3	87.7	100.0	(1,03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0	49.9	39.1	8.8	91.2	( 464)
	외벌이	15.6	48.4	36.0	15.2	84.8	( 567)
	$\chi^2$	7.530*		9.47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9	41.3	35.9	28.7	71.3	100.0 ( 143)
	300~399만원	10.7	52.7	36.6	10.0	90.0	100.0 ( 279)
	400~499만원	13.0	50.0	37.0	10.3	89.7	100.0 ( 242)
	500~599만원	11.4	49.1	39.5	10.4	89.6	100.0 ( 164)
	600만원 이상	13.0	48.5	38.5	7.9	92.1	100.0 ( 203)
	$\chi^2$	22.815**		41.915***			
총 자녀수	1명	8.8	49.1	42.2	6.5	93.5	100.0 ( 369)
	2명	13.6	49.9	36.6	11.9	88.1	100.0 ( 519)
	3명이상	28.6	45.8	25.5	28.7	71.3	100.0 ( 143)
	$\chi^2$	55.038***		47.022***			

(표 VI-1-8 계속)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 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18.5	51.7	29.9	20.9	79.1	100.0 ( 148)
	200~299만원	14.4	49.2	36.4	12.1	87.9	100.0 ( 428)
	300~399만원	11.2	49.8	39.0	7.1	92.9	100.0 ( 283)
	400만원 이상	11.3	46.0	42.7	14.0	86.0	100.0 ( 172)
	$\chi^2$	14.003*			17.86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라. 여가 및 문화생활비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특성

### 1)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를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는 부모들은 35.1%였으며, 실제 이용해본 경우는 30.2%에 해당되었다. 특히 가구소득 '300~399만원이하'(37.3%), '400~499만원이하'(37.8%) 가구와 총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중소도시 거주 부모들에 비해 대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부모들의 인지도가 각각 37.0%, 37.4%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VI-1-9 ▮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전체	35.1	53.9	11.0	30.2	69.8	100.0 (1,46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1.4	53.8	14.8	27.4	72.6	100.0 ( 190)
	300~399만원	37.3	53.0	9.8	31.0	69.0	100.0 ( 397)
	400~499만원	37.8	54.4	7.8	31.9	68.1	100.0 ( 354)
	500~599만원	35.4	55.0	9.6	33.5	66.5	100.0 ( 245)
	600만원 이상	31.2	53.9	14.8	26.0	74.0	100.0 ( 281)
		$\chi^2$	15.846*			4.953	
총 자녀수	1명	32.0	54.5	13.5	28.1	71.9	100.0 ( 552)
	2명	37.7	53.5	8.8	32.0	68.0	100.0 ( 746)
	3명이상	34.4	53.6	12.0	29.0	71.0	100.0 ( 169)
		$\chi^2$	10.732*			2.489	

(표 VI-1-9 계속)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지역 규모	대도시	37.0	54.5	8.5	31.8	68.2	100.0 ( 606)
	중소도시	32.4	55.0	12.6	27.0	73.0	100.0 ( 626)
	읍면지역	37.4	49.6	13.0	34.5	65.5	100.0 ( 235)
	$\chi^2$	10.158*			5.85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2)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가구특성과 가구지출 측면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읍면지역이 20.0%, 대도시가 19.9%로 중소도시 거주 가구 (1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표 VI-1-10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구분	인지여부			이용 및 수혜 여부		계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있음	없음		
전체	19.6	53.8	26.6	19.5	80.5	100.0 (1209)	
지역 규모	대도시	19.9	60.1	19.9	18.9	81.1	100.0 ( 530)
	중소도시	19.1	49.9	31.0	18.4	81.6	100.0 ( 494)
	읍면지역	20.0	48.5	31.5	24.3	75.7	100.0 ( 185)
	$\chi^2$	27.183***			3.241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 2 육아 소비 성향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관련 소비 성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영유아자녀를 위한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에 맞는 가격의 육아용품 및 육아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유아 가구의 3/4가량

이 적정수준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19.5%로,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입한다는 응답률 8.1%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가구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에 지출수준에 대한 인식은 총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는 소득보다 낮은 가격대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비중이 1~2명의 자녀를 둔 가구보다 5%p 이상 높게 나타났다.

▮ 표 VI-2-1 ▮ 가구 특성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가구)

구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지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계
		매우 높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다소 높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소득에 맞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다소 낮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매우 낮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전체		2.8	16.7	72.3	7.6	0.5	100.0 (1648)
총 자녀수	1명	3.8	17.9	71.2	6.9	0.3	100.0 ( 638)
	2명	2.1	16.0	74.6	7.0	0.4	100.0 ( 818)
	3명이상	2.6	16.1	66.7	12.5	2.1	100.0 ( 192)
	$\chi^2$	22.33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가구 지출 수준에 따라서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수준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표 VI-2-2 참조). 영유아 양육비용으로 200만원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에서는 소득에 맞는 용품과 서비스를 지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2.1%로, 영유아 양육비로 200만원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에 비해 10%p 정도 낮은 반면, 소득에 비해 높은 가격대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응답은 29.8%로 200만원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에 비해 8%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VI-2-2 가구 지출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의 지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가구)

구분	소득대비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지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식					계	
	매우 높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다소 높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소득에 맞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다소 낮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매우 낮은 가격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전체	2.8	16.7	72.3	7.6	0.5	100.0 (1648)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3.0	11.1	75.9	8.9	1.1	100.0 ( 361)
	50~99만원	2.1	17.6	71.6	8.1	0.6	100.0 ( 712)
	100~199만원	3.5	18.0	72.5	5.9	0.0	100.0 ( 488)
	200만원 이상	3.4	26.4	62.1	6.9	1.1	100.0 ( 87)
	$\chi^2$	24.96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다음으로 구입하던 육아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과 관련해 통상 어떠한 구매패턴을 경향을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기기/집기류, 피복비, 도서, 완구 등 내구재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상품의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바꾸는 편이다'의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꼭 필요한 물품인지 생각해보아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다' 20.4%,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 또는 이용하는 편이다' 15.7%, '중고거래나 대여하기, 돌려쓰기 등이 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다' 11.6%,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구입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다'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유, 기저귀, 목욕 및 위생용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소비재 상품도 '최저가나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한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으나,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3.9%로 내구재보다 18.2%p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섭취하거나 직접적인 이용도가 높은 소비재의 특성 때문에, 가격상승에도 기존제품을 그대로 쓰려는 경향이 내구재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관이나 사교육 등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이 올랐을 때는 내구재나 소비재와 같은 물품의 구매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우선, 서비스 중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 기관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는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65.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가구는 30.5%로 사

용하던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가구에 비해 절반이 채 안 되게 조사되었다. 시간제 학원이나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이용과 같은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가격이 올랐을 때 ‘최저가나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응답과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중이 4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기존의 것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내구재, 소비재보다는 높지만 기관 서비스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재화에 비해,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품변경이 쉽지 않지만, 서비스의 종류와 필요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VI-2-3 ▣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혹은 육아서비스 구입 패턴

단위 : %(가구)

구분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혹은 육아서비스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 혹은 서비스로 변경	대체 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	중고거래 상품이나 대여하기 등을 이용	구입 자체를 하지 않음	가격 변동에 둔감한 편	기타	
내구재 가격이 올랐을 때	15.7	42.9	20.4	11.6	8.3	1.0	-	100.0 (1,648)
소비재 가격이 올랐을 때	33.9	45.9	14.3		4.9	1.0	-	100.0 (1,648)
육아기관 서비스 비용이 올랐을 때	65.8	30.5			2.3	1.3	0.2	100.0 (1,648)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이 올랐을 때	44.1	44.2			9.9	1.3	0.5	100.0 (1,64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이어서 내구재, 소비재, 기관서비스,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의 구매패턴을 가구특성 혹은 가구지출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봤다. 우선 내구재의 경우 이용하던 육아물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10%p 가량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최저가 혹은 적정 가격 제품으로 변경’한다는 응답은 그만큼 낮게 나타났다. 즉, 육아용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가구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600만원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만 가격탄력성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자녀수에 따라서는 3명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자녀수가 1~2명인 가구에 비해 4%p 낮은데 비해, ‘중고거래상품이나 대여하기 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나 ‘구입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구매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육아용품의 가격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VI-2-4 ▮ 가구 특성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	최저가 혹은 걱정가 제품으로 변경	대체 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	중고거래 상품이나 대여하기 등을 이용	구입 자체를 하지 않음	가격 변동에 둔감한 편		
전체	15.7	42.9	20.4	11.6	8.3	1.0	100.0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1	38.1	24.2	13.5	11.7	0.4	100.0 ( 223)
	300~399만원	13.0	44.3	19.1	14.1	8.2	1.4	100.0 ( 440)
	400~499만원	13.8	43.2	24.7	9.9	7.6	0.8	100.0 ( 384)
	500~599만원	14.0	48.7	14.4	11.8	8.9	2.2	100.0 ( 271)
	600만원 이상	25.5	39.1	19.7	8.8	6.7	0.3	100.0 ( 330)
	$\chi^2$	57.796(20)***						
총 자녀수	1명	19.7	42.0	19.6	9.1	8.6	0.9	100.0 ( 638)
	2명	13.9	44.4	20.8	12.6	7.3	1.0	100.0 ( 818)
	3명이상	9.9	39.6	21.9	15.6	11.5	1.6	100.0 ( 192)
		$\chi^2$	24.622(1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내구재의 가격이 올랐을 때 가구 지출별로 구입패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구 지출이 높은 가구일수록 ‘최저가 혹은 걱정가 제품으로 변경’한다는 응답 비중이 낮고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 양육비용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특이한 점은 최귀위 구간(가구생활비 지출이 400만원이상인 경우, 영유아 양육비용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서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 표 VI-2-5 ▮ 가구 지출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	대체 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	중고거래 상품이나 대여하기 등을 이용	구입 자체를 하지 않음	가격 변동에 둔감한 편		
전체	15.7	42.9	20.4	11.6	8.3	1.0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10.9	49.8	19.9	10.9	8.1	0.5	100.0 ( 211)
	200~299만원	12.3	42.8	21.8	12.6	9.5	0.9	100.0 ( 673)
	300~399만원	16.8	41.6	19.0	12.7	8.4	1.5	100.0 ( 464)
	400만원 이상	25.0	40.3	20.0	8.0	5.7	1.0	100.0 ( 300)
	$\chi^2$	39.040***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12.5	47.4	20.2	11.4	7.5	1.1	100.0 ( 361)
	50~99만원	13.6	43.4	21.2	11.2	9.3	1.3	100.0 ( 712)
	100~199만원	18.0	40.2	20.3	13.1	7.8	0.6	100.0 ( 488)
	200만원 이상	33.3	35.6	16.1	6.9	6.9	1.1	100.0 ( 87)
	$\chi^2$	33.33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한편, <표 VI-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재의 경우도 내구재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11%p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거나', '구입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고소득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VI-2-6 ▮ 가구 특성별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	구입자체를 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전체	33.9	45.9	14.3	4.9	1.0	100.0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0.0	45.7	15.7	7.6	0.9	100.0 ( 223)
	300~399만원	28.0	47.0	18.4	5.2	1.4	100.0 ( 440)
	400~499만원	34.4	44.8	15.4	4.4	1.0	100.0 ( 384)
	500~599만원	34.7	48.7	11.1	4.4	1.1	100.0 ( 271)
	600만원 이상	43.3	43.6	9.1	3.6	0.3	100.0 ( 330)
	$\chi^2$	36.56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이어 <표 VI-2-7>에서와 같이 소비재의 가격이 올랐을 때 가구지출별로 구입 패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구지출이 낮을수록 대체로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라는 응답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 표 VI-2-7 ▮ 가구 지출별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내구재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육아상품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사던 제품을 구매하는 편	최저가 혹은 적정가 제품으로 변경	대체가능한 물품을 찾는 편	구입자체를 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전체	33.9	45.9	14.3	4.9	1.0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26.5	51.2	15.2	6.2	0.9	100.0 ( 211)
	200~299만원	29.3	46.4	17.4	6.2	0.7	100.0 ( 673)
	300~399만원	38.6	44.8	11.2	4.1	1.3	100.0 ( 464)
	400만원 이상	42.3	43.0	11.3	2.3	1.0	100.0 ( 300)
	<i>F</i>	37.083***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25.5	53.6	17.3	2.6	1.0	100.0 ( 196)
	50~99만원	30.2	48.0	14.9	6.1	0.8	100.0 ( 606)
	100~199만원	37.0	43.7	13.7	4.8	0.9	100.0 ( 671)
	200만원 이상	44.6	38.9	10.9	4.0	1.7	100.0 ( 175)
	<i>F</i>	28.464**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27.1	52.4	16.1	3.6	0.8	100.0 ( 361)
	50~99만원	32.0	45.8	15.2	5.9	1.1	100.0 ( 712)
	100~199만원	38.3	43.0	13.1	4.7	0.8	100.0 ( 488)
	200만원 이상	52.9	36.8	5.7	3.4	1.1	100.0 ( 87)
	<i>F</i>	32.94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기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도 600만원이상인 고소득 집단의 소비패턴은 내구재, 소비재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관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73.0%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응답은 25.8%로 적었다(표 VI-2-8 참조). 이때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이 400~499만

원의 중소득 집단의 구매 패턴이다. 이 집단은 기관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71.1%,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응답은 25.3%로, 600만원이상의 고소득 가구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내구재와 소비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의 중소득 집단의 구매 패턴이 이보다 소득이 낮은 집단과 유사하게 탄력적이었던데 반해, 기관 교육·보육서비스에 있어서는 고소득 집단과 마찬가지로 비탄력적인 행태를 보여, 이들 소득 구간의 가구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이 교육·보육서비스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표 VI-2-8 ▮ 가구 특성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	이용하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기타		
전체	65.8	30.5	2.3	1.3	0.2	100.0 (16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3.4	38.1	6.3	1.3	0.9	100.0 ( 223)
	300~399만원	63.0	33.0	2.0	2.0	0.0	100.0 ( 440)
	400~499만원	71.1	25.3	2.3	1.0	0.3	100.0 ( 384)
	500~599만원	64.2	33.2	1.1	1.5	0.0	100.0 ( 271)
	600만원 이상	73.0	25.8	0.9	0.3	0.0	100.0 ( 330)
	$\chi^2$	54.727***					
총 자녀수	1명	60.8	35.1	2.8	0.8	0.5	100.0 ( 638)
	2명	69.6	26.7	2.1	1.7	0.0	100.0 ( 818)
	3명이상	66.1	31.3	1.6	1.0	0.0	100.0 ( 192)
		$\chi^2$	21.27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가구 지출 구간별로 기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구입패턴을 분석한 결과, 가구 지출이 높은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은 가구 지출이 낮은 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응답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2-9 참조).

이러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의 구입 패턴을 가구특성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표 V-2-10 참조).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결과는 앞서의 기관 서비스 가격에 따른 구입패턴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의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400~499만원의 중간 소득 집단도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표 VI-2-9 ▮ 가구 지출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육아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	이용하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음	가격 변동에 둔감한 편	기타	
전체		65.8	30.5	2.3	1.3	0.2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52.1	38.9	6.2	1.9	0.9	100.0 ( 211)
	200~299만원	63.7	32.7	2.5	1.0	0.0	100.0 ( 673)
	300~399만원	69.4	27.6	1.1	1.7	0.2	100.0 ( 464)
	400만원 이상	74.3	24.0	1.0	0.7	0.0	100.0 ( 300)
	<i>F</i>	52.144***					
총 양육비용	49만원 이하	51.5	40.3	6.1	1.0	1.0	100.0 ( 196)
	50~99만원	61.9	34.0	2.5	1.7	0.0	100.0 ( 606)
	100~199만원	70.5	26.8	1.6	0.9	0.1	100.0 ( 671)
	200만원 이상	77.1	21.1	0.0	1.7	0.0	100.0 ( 175)
	<i>F</i>	58.382***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59.0	34.3	5.3	0.8	0.6	100.0 ( 361)
	50~99만원	63.1	33.6	1.7	1.7	0.0	100.0 ( 712)
	100~199만원	72.1	25.4	1.4	0.8	0.2	100.0 ( 488)
	200만원 이상	80.5	17.2	0.0	2.3	0.0	100.0 ( 87)
	<i>F</i>	48.00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표 VI-2-10 가구 특성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	이용하던 서비스를 자체를 이용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기타		
전체	44.1	44.2	9.9	1.3	0.5	100.0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6	50.2	15.2	2.2	2.7	100.0 ( 223)
	300~399만원	38.2	48.2	12.3	1.4	0.0	100.0 ( 440)
	400~499만원	50.3	40.6	7.8	1.0	0.3	100.0 ( 384)
	500~599만원	43.2	46.9	8.1	1.5	0.4	100.0 ( 271)
	600만원 이상	55.2	37.0	7.0	0.6	0.3	100.0 ( 330)
	$\chi^2$	75.223***					
총 자녀수	1명	41.7	47.3	8.9	0.9	1.1	100.0 ( 638)
	2명	45.5	41.9	10.8	1.6	0.2	100.0 ( 818)
	3명이상	45.8	43.8	9.4	1.0	0.0	100.0 ( 192)
	$\chi^2$	12.19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다음으로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구입 패턴을 가구 지출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에서도 가구 생활비 지출,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의 지출 정도가 높은 구간일수록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한다'의 응답률이 높아지며,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한다'의 응답률은 대체로 낮아졌다. 또한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이용하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가구 지출 정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 지출 및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에서 가격 변동에 따라 교육적 소외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을 내포한 결과로,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기초적인 교육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VI-2-11 가구 지출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단위 : %(명)

구분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구입 패턴					계
		가격과 무관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	최저가 혹은 적정가 서비스로 변경	이용하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음	가격변동에 둔감한 편	기타	
전체		44.1	44.2	9.9	1.3	0.5	100.0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31.8	46.4	18.0	1.4	2.4	100.0 ( 211)
	200~299만원	39.4	47.4	11.7	1.2	0.3	100.0 ( 673)
	300~399만원	51.5	39.9	6.9	1.3	0.4	100.0 ( 464)
	400만원 이상	51.7	42.3	4.7	1.3	0.0	100.0 ( 300)
	<i>F</i>	68.704(12)***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33.2	43.9	18.4	1.5	3.1	100.0 ( 196)
	50~99만원	38.4	49.8	10.1	1.5	0.2	100.0 ( 606)
	100~199만원	48.7	41.4	8.8	0.7	0.3	100.0 ( 671)
	200만원 이상	57.7	36.0	4.0	2.3	0.0	100.0 ( 175)
	<i>F</i>	78.957(12)***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36.3	44.9	15.8	1.4	1.7	100.0 ( 361)
	50~99만원	42.6	46.5	9.1	1.7	0.1	100.0 ( 712)
	100~199만원	49.2	42.2	7.8	0.4	0.4	100.0 ( 488)
	200만원 이상	59.8	34.5	3.4	2.3	0.0	100.0 ( 87)
	<i>F</i>	50.794(12)***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유아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어떤 비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는지 질문한(2개의 비목을 복수응답 가능) 결과,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5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식비(외식비 포함) 48.8%, 개인유지비 27.5%, 피복비 22.1%, 금융상품 10.7%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보육비는 7.8%, 주거·관리비는 4.7%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구소득의 변동에 대해 교육·보육비가 대단히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4장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한편, 가구 소득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600만원이상의 고소득 집단은 금융상품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며,

400~600만원미만의 집단은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 대한 응답 비중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반면, 저소득 집단은 식비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이 현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저소득 영유아 가구 자녀들의 영양과 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경제가 악화되거나 육아용품 혹은 육아서비스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양육비용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아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VI-2-12 ▮ 가구 특성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단위 : %(명)

구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상품 및 서비스	모름	
전체	48.8	4.7	4.4	22.1	1.0	7.8	59.5	3.9	27.5	10.7	5.8	1.9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0	5.2	4.1	23.0	0.7	8.0	57.5	4.6	29.7	11.0	6.0	1.6	0.3
	외벌이	50.5	4.2	4.6	21.4	1.2	7.6	61.3	3.4	25.6	10.5	5.6	2.1	0.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4.3	9.0	4.0	21.1	0.9	7.6	56.5	4.0	22.9	9.4	4.5	1.3	1.3
	300~399만원	49.5	3.9	4.3	20.0	1.4	7.7	61.4	3.6	27.0	10.2	7.3	2.5	0.0
	400~499만원	48.7	2.1	4.2	24.0	1.0	9.1	62.0	5.2	23.7	10.9	5.5	2.3	0.3
	500~599만원	46.9	4.4	5.2	22.9	0.7	5.5	62.0	3.0	33.6	9.6	5.2	0.4	0.0
	600만원 이상	46.1	6.1	4.2	23.0	0.6	8.2	54.2	3.6	30.6	13.0	5.8	2.1	0.6
총 자녀수	1명	49.7	6.0	2.7	22.7	0.6	6.6	57.4	4.7	28.5	10.7	6.7	1.4	0.5
	2명	46.7	4.5	5.1	22.6	1.1	7.9	61.5	3.4	27.0	11.1	5.1	2.1	0.4
	3명이상	55.2	1.0	6.8	18.2	1.6	10.9	58.3	3.6	26.0	9.4	5.7	2.6	0.0

주: 중복 응답 항목으로 집단간 차이 검증이 불가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지역규모별로 양육비용 증가에 따른 우선 조정 비목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비중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64.5%, 58.0%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51.5%로 10%p 가량이 낮은 반면, 식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45.5%, 49.6%로 절반 이하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55.2%로 높게 나타났다. 피복비나 개인유지비에 대한 응답도 대도시는 20.4%, 30.2%, 중소도시는 25.3%, 27.1%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18.1%, 21.9%로 낮았다. 하지만 주거관리비나 교육 및 보육비, 금융상품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다. 즉, 외부요인으로 양육비용이 증가했을 때, 도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보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 개인유지비, 피복비를 줄이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식비, 주거관리비, 교육/보육비,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률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VI-2-13 지역규모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단위 : %(명)

구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식비	주거/관리비	가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모름	
전체	48.8	4.7	4.4	22.1	1.0	7.8	59.5	3.9	27.5	10.7	5.8	1.9	0.4	
지역 규모	대도시	45.5	3.9	4.7	20.4	1.2	7.3	64.5	3.9	30.2	10.0	6.5	1.5	0.0
	중소도시	49.6	4.2	3.9	25.3	0.7	6.1	58.0	4.2	27.1	10.6	5.7	2.0	0.4
	읍면지역	55.2	7.8	4.8	18.1	1.1	13.3	51.5	3.3	21.9	13.0	4.4	2.6	1.1

주: 중복 응답 항목으로 집단간 차이 검증이 불가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이어서 가구생활비, 총양육비용, 영유아양육비용 등 가구지출에 따른 조정 비목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양육비용의 지출정도가 큰 가구들은 지출 정도가 적은 가구들보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 금융상품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높아졌으며, 지출 정도가 적은 가구들은 식비, 주거관리비, 교통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VI-2-14 가구 지출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단위 : %(명)

구분	외부요인에 의한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 조정 비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 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모름	
전체	48.8	4.7	4.4	22.1	1.0	7.8	59.5	3.9	27.5	10.7	5.8	1.9	0.4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49.3	8.1	4.3	23.2	0.9	5.2	54.5	7.1	28.0	9.5	5.2	2.8	0.0
	200~299만원	50.1	5.5	4.6	23.0	1.0	7.4	60.5	3.6	23.8	10.3	6.1	1.8	0.6
	300~399만원	44.8	3.2	4.7	19.4	0.9	9.7	62.7	4.1	30.4	10.6	6.3	2.4	0.0
	400만원 이상	52.0	2.7	3.3	23.7	1.0	7.3	56.0	2.3	31.0	13.0	5.0	0.7	0.7
총 양육 비용	49만원 이하	47.4	10.2	3.6	25.0	1.5	3.1	55.6	5.1	29.6	11.2	5.1	2.6	0.0
	50~99만원	50.8	4.8	4.6	21.3	0.8	8.4	58.4	4.8	25.1	10.2	5.8	1.8	0.5
	100~199만원	47.7	3.4	4.5	22.7	0.7	8.3	61.0	3.1	28.3	10.4	6.6	1.9	0.3
	200만원 이상	48.0	2.9	4.0	20.0	1.7	8.6	62.3	2.9	30.3	13.1	4.0	1.1	0.6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49.9	6.9	5.8	26.0	1.1	6.6	55.4	4.7	25.5	8.6	5.3	2.8	0.3
	50~99만원	51.5	3.8	4.4	19.0	0.7	9.0	61.0	4.1	26.8	10.3	6.2	1.4	0.3
	100~199만원	45.1	4.5	3.7	25.0	1.4	6.8	60.5	3.5	28.1	11.7	5.7	2.3	0.4
	200만원 이상	43.7	3.4	2.3	16.1	0.0	8.0	59.8	2.3	37.9	18.4	5.7	0.0	1.1

주: 중복 응답 항목으로 집단간 차이 검증이 불가함.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는 가구소득의 변화에 대한 육아상품과 서비스 구매의 탄력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이 10% 줄어든다면 육아상품(분유, 기저귀 등)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각각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 질문한 결과, 육아상품은 8.1, 육아서비스는 6.1로 나타나 육아상품이 서비스보다 더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15 가구 특성별 육아상품 및 육아서비스의 가구소득 탄력성

구분		(소득 감소시) 가구소득 탄력성		계
		육아상품 탄력성	육아서비스 탄력성	
전체		8.1	6.1	(1,64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9.1	7.9	( 223)
	300~399만원	7.7	5.9	( 440)
	400~499만원	8.3	5.8	( 384)
	500~599만원	8.0	5.8	( 271)
	600만원 이상	7.9	5.6	( 330)
	<i>F</i>	1.6	3.5**	
총 자녀수	1명	7.6	6.3	( 638)
	2명	8.1	5.5	( 818)
	3명이상	9.6	7.7	( 192)
	<i>F</i>	5.7**	6.3**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또한, 가구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과 총 자녀수에 따라 육아상품 또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구간이 낮은 가구일수록 육아서비스의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가구소득 299만원이하의 가구에서 다른 가구들에 비해 탄력성이 확연히 낮게 나타나 지출이 줄어들면 육아서비스를 줄이는 정도가 저소득가구의 경우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수의 경우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육아상품에 대한 탄력성은 높아지지만, 육아서비스의 경우 자녀수가 두 명인 경우는 외동이나 세 자녀이상 다자녀일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가구 지출별 육아상품과 육아서비스의 가구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표 VI-2-16), 가구생활비 지출이 400만원이상인 고지출 가구에서는 육아상품의 탄력성이 7.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가구소득이 줄어들어도 다른 가구들에 비해 육아상품의 구매를 줄이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영유아 양육비용이 49만원이하로 지출이 적은 가구들의 경우, 육아서비스의 탄력성이 7.1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육아서비스 구매에 대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16 가구 지출별 육아상품 및 육아서비스의 가구소득 탄력성

단위 : 명(%)

구분		(소득 감소시) 가구소득 탄력성		계
		육아상품 탄력성	육아서비스 탄력성	
전체		8.1	6.1	(1648)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 이하	8.0	7.0	( 211)
	200~299만원	7.8	6.1	( 673)
	300~399만원	8.9	5.7	( 464)
	400만원 이상	7.6	5.9	( 300)
	<i>F</i>	2.9*	1.3	
영유아 양육 비용 총액	49만원 이하	7.8	7.1	( 361)
	50~99만원	8.1	6.0	( 712)
	100~199만원	8.4	5.6	( 488)
	200만원 이상	7.9	5.2	( 87)
	<i>F</i>	0.7	2.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

### 3 미래 사회 전망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 가진 생각과 미래 준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양육비용 결정의 심리적 기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 가구 특성별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질문한 결과, 현재와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74.4%, 8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미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보다 '중층'의 비율이 낮았고, '하층'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층',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응답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현재의 지위를 '중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낮았고(70.8%), '하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높았다(28.6%). 또한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미래의 지위를 '중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낮았으나(76.6%), '상층'(11.5%)과 '하층'(12.0%)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높았다.

표 VI-3-1 가구 특성별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

단위 : %(가구)

구분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전체		1.1	74.4	24.5	9.0	81.0	10.0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9	76.4	22.7	9.8	82.7	7.5	100.0 ( 762)
	외벌이	1.2	72.7	26.1	8.2	79.6	12.2	100.0 ( 886)
		$\chi^2$	3.038			10.73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9	43.9	55.2	6.3	67.3	26.5	100.0 ( 223)
	300-399만원	0.7	72.5	26.8	5.9	83.0	11.1	100.0 ( 440)
	400-499만원	0.3	76.8	22.9	5.2	87.0	7.8	100.0 ( 384)
	500-599만원	1.1	84.5	14.4	10.3	85.2	4.4	100.0 ( 271)
	600만원 이상	2.7	86.4	10.9	18.2	77.3	4.5	100.0 ( 330)
			$\chi^2$	172.664***			133.382***	
총 자녀수	1명	1.6	73.4	25.1	8.9	81.5	9.6	100.0 ( 638)
	2명	0.9	76.0	23.1	8.4	81.7	9.9	100.0 ( 818)
	3명 이상	0.5	70.8	28.6	11.5	76.6	12.0	100.0 ( 192)
			$\chi^2$	5.111			2.99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유아 가구들은 현재는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1.1%에 그쳤으나, 미래에는 상층에 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9.0%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600만원이상)에 두드러지는데, 현재 고소득인 가구의 경우에는 향후 자녀 양육에도 불구하고 더 잘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도 미래에는 상층에 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경우가 6.3%에 달해,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구 상황이 아닌 미래 사회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격차 심화'의 응답률이 62.8%로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미래사회가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일 것이라는 점에는 7.6%만이 동의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영유아 가구들의 생각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가구에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현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I-3-2 | 가구 특성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단위 : %(가구)

구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계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	지금과 유사	지금보다 격차 심화	모름		
전체	7.6	26.8	62.8	2.9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9	26.5	62.2	2.4	100.0 ( 762)
	외벌이	6.4	27.0	63.3	3.3	100.0 ( 886)
	$\chi^2$	4.65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1	26.5	59.6	5.8	100.0 ( 223)
	300~399만원	7.5	27.0	62.5	3.0	100.0 ( 440)
	400~499만원	6.5	25.3	65.1	3.1	100.0 ( 384)
	500~599만원	6.6	29.2	62.4	1.8	100.0 ( 271)
	600만원 이상	9.4	26.4	63.0	1.2	100.0 ( 330)
	$\chi^2$	15.163				
총 자녀수	1명	8.6	27.6	60.7	3.1	100.0 ( 638)
	2명	7.1	26.5	63.7	2.7	100.0 ( 818)
	3명 이상	6.3	25.0	66.1	2.6	100.0 ( 192)
	$\chi^2$	3.226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현재 주관적 사회경제적 위치별로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현재 자신의 가구가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미래 사회는 더 평등할 것이라는 점 (16.7%)에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이긴 했으나,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도 66.7%가 동의하여 다른 집단과 약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현재 자신의 가구가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영유아 가구가 18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통계적으로 현재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3-3 주관적 사회경제적인 위치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단위 : %(가구)

구분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				계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	지금과 유사	지금보다 격차 심화	모름		
전체	7.6	26.8	62.8	2.9	100.0 (1,648)	
주관적 사회경제적 위치	상층	16.7	16.7	66.7	0.0	100.0 ( 18)
	중층	7.7	26.9	62.6	2.7	100.0 (1,226)
	하층	6.7	26.7	63.1	3.5	100.0 ( 404)
	$\chi^2$	4.341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한편, 미래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가치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개인의 행복'이 6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부' 25.2%, '공동체 의식' 6.3%, '명예' 2.3%, '기타' 0.2% 순이었다. 그런데, 현재 가구 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경우 '개인의 행복(69.5%)'과 '공동체 의식(7.6%)'이라고 답한 비율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표 VI-3-4 가구 특성별 미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단위 : %(가구)

구분	미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계	
	사회경제적 부	명예	개인의 행복	공동체 의식	기타		
전체	25.2	2.3	65.9	6.3	0.2	100.0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9.3	1.8	69.5	7.6	1.8	100.0 ( 223)
	300~399만원	25.9	3.0	66.1	5.0	0.0	100.0 ( 440)
	400~499만원	24.5	2.9	65.9	6.8	0.0	100.0 ( 384)
	500~599만원	26.6	2.2	64.9	6.3	0.0	100.0 ( 271)
	600만원 이상	28.2	1.2	63.9	6.7	0.0	100.0 ( 330)
	$\chi^2$	36.15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1$ .

한편,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으로는 '전문직'이 3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 공무원'이 17.1%로 많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전문직'의 응답률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생각해보지 않음'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교사, 공무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299만원이하 가구에서 가장 높은(18.8%) 반면,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낮았다(15.2%).

▣ 표 VI-3-5 ▣ 가구 특성별 희망하는 자녀 직업

단위 : %(가구)

구분	희망하는 자녀 직업									계	
	전문직	교사, 공무원	대기업 또는 금융	언론인	자영업 고용주	문화 예술인	전문 기술직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전체	33.0	17.1	6.0	1.9	2.2	8.8	7.4	3.6	20.0	100.0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0	18.8	4.9	1.3	2.7	9.9	9.4	5.4	25.6	100.0 ( 223)
	300~399만원	30.7	17.0	6.6	0.7	1.8	8.9	7.3	3.4	23.6	100.0 ( 440)
	400~499만원	31.5	17.4	8.6	1.6	1.3	7.6	8.3	3.4	20.3	100.0 ( 384)
	500~599만원	38.7	17.7	3.7	4.1	3.3	5.9	4.8	4.1	17.7	100.0 ( 271)
	600만원 이상	40.6	15.2	4.8	2.4	2.4	11.8	7.3	2.4	13.0	100.0 ( 330)
$\chi^2$	71.587***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01$ .

자녀 세대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으로는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응답률이 7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특기적성 관련 공적 인프라 확충' 50.7%,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49.5%, '초등 돌봄 확대' 33.4%, '문화 인프라 확대' 31.9% 순이었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초등돌봄 확대에 대해 38.2%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지를 보였다. 또, 고소득 가구들은 평등성이 보장된 대입전형에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공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가구들이 공교육 내실화에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등성이 보장된 대입 전형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이나 특기 적성 관련 공적 인프라 확충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가구소득이나 자녀수에 무관하게 고른 지지를 받았다.

표 VI-3-6 가구 특성별 자녀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

단위 : %(가구)

구분	자녀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								계	
	공교육 내실화	특기 적성 관련 공적 인프라 확충	문화 인프라 확대	초등 돌봄 확대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평등성이 보장된 대입 전형	영유아 양육 비용 절감	기타		
전체	73.1	50.7	31.9	33.4	49.5	29.7	30.1	0.3	(1,6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9	51.4	31.4	38.2	48.3	29.3	30.1	0.3	( 762)
	외벌이	75.7	50.1	32.4	29.3	50.6	30.0	30.1	0.3	( 88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2.6	54.3	34.5	27.4	49.8	26.0	35.0	0.0	( 223)
	300~399만원	76.6	49.1	28.2	34.3	48.2	27.5	34.8	0.2	( 440)
	400~499만원	75.8	52.3	34.9	34.1	48.2	28.4	25.0	0.5	( 384)
	500~599만원	70.5	48.3	30.3	35.8	50.6	32.5	29.2	0.7	( 271)
	600만원 이상	67.6	50.6	33.0	33.6	51.8	34.2	27.3	0.0	( 330)
총 자녀수	1명	69.6	50.0	32.6	35.3	50.6	33.4	27.6	0.0	( 638)
	2명	75.1	51.2	31.4	33.6	49.8	26.7	30.4	0.5	( 818)
	3명 이상	76.0	51.0	31.8	26.6	44.8	30.2	37.0	0.5	( 192)

주: 중복 응답 항목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부모가 독립적 생활하되, 자녀도 부양책임은 있음'이 64.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나 '전혀 부양하지 않아도 됨'도 30.2%로 적지 않았다. 특히 가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가구의 '전혀 부양하지 않아도 됨'도 응답률이 32.3%로 나타났으며,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모가 독립적 생활하되, 자녀도 부양책임은 있음'은 69.8%,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좋음'은 6.3%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Ⅱ 표 VI-3-7 Ⅱ 가구 특성별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견해

단위 : %(가구)

구분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견해				계	
	반드시 부양해야 함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좋음	부모가 독립적 생활하되, 자녀도 부양책임은 있음	전혀 부양하지 않아도 됨		
전체	0.7	4.9	64.3	30.2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8	4.5	64.8	29.9	100.0 ( 762)
	외벌이	0.6	5.2	63.9	30.4	100.0 ( 886)
	$\chi^2$	0.83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4	8.5	58.7	32.3	100.0 ( 223)
	300~399만원	0.7	4.8	66.6	28.0	100.0 ( 440)
	400~499만원	1.0	4.9	65.9	28.1	100.0 ( 384)
	500~599만원	0.4	3.3	62.7	33.6	100.0 ( 271)
	600만원 이상	0.6	3.6	64.5	31.2	100.0 ( 330)
	$\chi^2$	14.284				
총 자녀수	1명	0.8	4.5	62.5	32.1	100.0 ( 638)
	2명	0.6	4.8	64.4	30.2	100.0 ( 818)
	3명 이상	0.5	6.3	69.8	23.4	100.0 ( 192)
	$\chi^2$	6.048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사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둘 다 비슷'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이 더 중요한 편'이 21.3%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성이 가구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3-8 | 가구 특성별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사이의 중요성

단위 : %(가구)

구분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 사이의 중요성					계	
	노후 준비가 훨씬 중요	노후 준비가 중요한 편	둘 다 비슷	자녀 양육이 더 중요한 편	자녀 양육이 훨씬 더 중요		
전체	3.9	12.7	59.3	21.3	2.8	100.0 (1,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8	13.9	60.4	19.0	2.9	100.0 ( 762)
	외벌이	4.1	11.6	58.4	23.3	2.7	100.0 ( 886)
	$\chi^2$	5.51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	10.8	62.8	20.6	3.1	100.0 ( 223)
	300-399만원	3.6	13.2	59.5	21.6	2.0	100.0 ( 440)
	400-499만원	3.9	9.4	59.6	23.7	3.4	100.0 ( 384)
	500-599만원	5.2	17.0	55.0	19.6	3.3	100.0 ( 271)
	600만원 이상	4.2	13.6	59.7	20.0	2.4	100.0 ( 330)
	$\chi^2$	15.285					
총 자녀수	1명	3.4	12.9	62.1	19.0	2.7	100.0 ( 638)
	2명	4.4	12.5	57.9	22.1	3.1	100.0 ( 818)
	3명 이상	3.6	13.0	55.7	25.5	2.1	100.0 ( 192)
	$\chi^2$	6.51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임.

##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과 육아소비 성향,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용 관련 지원 정책 중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원 정책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과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였다. 반면, 식비 및 개인 유지비, 통신비 관련 지원 정책과 주거관리비 관련 지원 정책, 보건 의료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들 사업은 주로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혹은 다자녀 가구와 같이 특정되어 있는 사업들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할지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는 모든 영유아 가구에게 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율은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자녀가 많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인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영유아 자녀 모두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의료 지원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구 지출 규모가 낮은 가구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가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을 위험이 높다고 보여진다. 즉, 보편적 의료 지원 정책의 경우 산부인과나 지역 공동체 등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소득 가구들이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식비 등 생필품 지원과 관련된 지원에서는 외벌이 가구, 저소득가구, 다자녀 가구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실제 이용 비율도 이들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영양플러스, 저소득 기저귀 지원 사업 등이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수혜율은 평균 12.3%이며, 가구특성별로 수혜율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도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혜택이 실제 저소득 가구 등 정책 대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있는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구 혹은 저소득층과 같이 해당 지원 정책의 수혜가 꼭 필요한 집단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을 때 영유아 가구들이 보이는 구입 패턴을 살펴보면, 내구재 > 소비자재 > 사교육 및 개별돌봄서비스 > 육아서비스 순으로 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내구성 육아용품의 가격 변동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구입 패턴이 변화할 수 있으나, 육아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육아서비스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서비스에 대한 가격 변동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쉽게 변동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3년 무상 보육 이후 육아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부 관리가 일부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마다 보육·교육기관을 옮기기 힘든 영유아 가구의 입장에서 장기에 걸쳐 가격이 안정화되길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가격 조절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간 소득 구간인 400~499만원 집단의 구매 패턴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 구간의 영유아 가구들은 소비재나 내구재 구매에 있어서는 이하의 소득 구간과 유사하게 탄력적인 구입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육아서비스 수요에 있어서는 고소득 집단과 유사한 비탄력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영유아 가구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4장의 결론을 감안할 때,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인 집단이 육아서비스 수요에 있어서 일종의 변곡점과 같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간소득 집단의 소비 행태가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매우 주요할 것이며, 특히 육아서비스 수급 계획 등에 있어 이들의 의향 변화가 정책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진다.

여섯째,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최저가로의 변경 혹은 서비스 및 상품 구매를 포기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저소득 가구들은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우선 조정 비목으로 식비를 응답하여, 저소득 가구 영유아들이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와 영양 및 발달 등에서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은 시장의 상황이 열악하게 변화하게 되더라도 저소득 가구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기본적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지원을 꾸준히 한다거나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하는 등으로 저소득 가구 아동들이 사회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일곱째, 영유아 가구들은 미래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들에게서 팽배한 인식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유아 가구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 인식을 가진 반면, 미래의 자녀 세대가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영유아 가구 부모들은 미래 사회에는 사회경제적 부보다도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에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자녀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으로는 공교육 내실화, 평등성이 보장된 대입 전형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절반가량의 영유아 가구가 특기 적성 관련 공적 인프라의 확충, 안정과 건강의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요컨대, 영유아 가구의 부모들은 미래 세대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개인적 노력보다는 제도적, 사회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 높은 동의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해 대체로 부모가 독립적 생활을 하되 자녀도 부양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1/3가량으로 적지는 않았다. 이때, 노후 준비와 자녀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약 60%의 가구가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24.1%로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응답 16.6%에 비해 약간 높았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건대, 현재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를 더 우선하는 것에는 자녀가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주거비 및 금융 상품 등에 대한 선호보다 현재 자녀의 교육·보육비 지출을 우선하는 영유아 가구들의 소비 행태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노후에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고, 이는 현재 가구 소비에 있어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저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VII

## 결론 및 정책 제언

1. 소비실태 조사 관련 개선점 및 제언
2. 양육비용 관련 제언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인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방법과 관련된 제안과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관련된 정책 제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1 소비실태 조사 관련 개선점 및 제언

먼저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는 1차년도 연구에서 향후 5년간의 조사를 고려하여 조사 방법과 틀을 구성하여 둔 상태이다. 다만, 2차년도 이후 연구 예산의 확보 상황에 따라, 이의 적용에 있어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대표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

#### 가.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구 및 가구 패널 관리 필요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설문문의 내용이 가계 지출 및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방대하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횡단면 가구 조사를 통해서만 안정적인 결과 값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3개 과제가 연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조사의 난이도가 높은 특징으로 인해 대규모 표본의 구성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영유아 가구의 거주지를 식별할 수 있는 모집단<sup>1)</sup>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대표성 있는

1) 영유아 수는 연령별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대표성 있는 가구 단위의 자료를 통해서만 영유아 가구의 규모 및 모집단을 알기 어려움.

자료의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본을 고정시켜 조사하는 방식의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다수의 비용 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KICCE 소비실태 조사는 해마다 표본이 변동에 따르는 조사 결과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특징(특히 가구소득)을 매해 유사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구(PPS)를 고정시킨 형태의 패널 조사 방식을 적용하고, 조사구 내에 전년도 영유아 가구가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면 해당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설계하였다. 이는 연동패널조사 방식에 가구패널조사 방식을 접목한 형태로, 주소지를 고정한 후 일부 조사구를 교체하는 연동패널조사에 비해 조사구의 범위가 넓은 반면 조사구 내 동일 가구는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사구 내에 누가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를 조사하면 되는 일반적인 가구조사<sup>2)</sup>와 달리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협소한(특정) 주소지를 조사 단위로 설정할 경우 거주자가 영유아 가구가 아닐 경우 대체 표본이 지나치게 많아져 조사에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표본의 특성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 표본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횡단면 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시계열 안정성 확보가 쉽지 않은데, 본 연구와 같이 가계 지출과 관련된 다수의 비용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본의 규모가 크지 않는 표본 조사의 경우에는 특히 가구 소득 특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야 비용의 변동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표집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모집단 자료의 경우 영유아 가구를 식별해 내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구 소득은 아예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본 구축을 통해서도 장기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조사구를 설정한 상태에서 조사구 내에서의 이동까지를 포함하여 응답 대상 가구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구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패널 가구의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1차년도 연구에서 자료 관리

2) 동일한 주소지(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예: 1인 가구, 고소득 가구가 많은 조사구)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에 기반한 표집 방식임.

가 이뤄져야 하며, 매년도 연구 사이에 패널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방식의 특성상 매해 표본의 일부는 추적 조사가, 일부는 대체가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패널 표본과 대체 표본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사방법과 통계적 처치 등 후속 작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 나. 초등 이행 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 필요

한편,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일부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표본을 영유아(조사원년 기준 막내자녀)로 국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해 영유아 자녀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년도 연구에서부터는 매해 0세(당해년도 출생아)와 1세(2018년도 0세) 표본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추가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가 표본의 구축 틀은 기존의 조사구를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원표본인 영유아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경우, 해당 가구 내에는 영유아 자녀가 없어지기 때문에<sup>3)</sup>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령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가구의 소비 지출 변화 패턴과 서비스 이용 패턴의 변화 등은 저출산 연구 등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의 구축이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학령기까지 확장되어 진행된다면,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완벽한 가구 패널 조사는 아니지만 다수의 가구 표본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된 자료를 통해 초등 전이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다 엄격하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되므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자료의 유용성이 높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해마다 제외되는 표본 없이(초등학령기) 최소 250명 이상의 표본이 추가(0세, 1세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조사 비용과 시간 등에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영유아기 자녀의 서비스 이용에 집중하여 조사 설계되어 있는 설문지 등은 초등학령기 자녀를 위한 설문을 추가 개발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사 결정을 1차년도 연구 마무리 혹은 2차년도 연구 개시시점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3) 추가 자녀의 출산으로 영유아가 있는 경우더라도 원표본 여부는 무관하므로, 추적조사 하지 않음.

하여 연구를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현재 보육분야 대표 통계로서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가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사는 서비스 이용, 특히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 의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계 경제 상황과 소비 행태 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높으며, 이미 기 구축된 표본과 자료가 있는 만큼 초등학교령 자녀를 본 연구에서 포괄하여 확장해나감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응답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사 도구의 다각화

1차년도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본조사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조사의 경우에도 가구가 방문을 희망할 경우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조사 도구로 본조사의 경우에는 TAPI(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조사도 온라인상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설문문의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비용에 대한 설문문이 포함되어 있어, 비목구분에 대한 이해가 응답자마다 달라져 결과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차후 지속적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가구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본조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면접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볼 직하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특성상 가구로 방문하여 장시간의 조사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아이의 낮잠 시간에 면접 조사를 위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일 면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에 면접원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 등-을 감안할 때, 표본 유지 및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방법이다.

다만, 이처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비용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목의 구분과 조사 문항의 의미가 영유아 가구들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조사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설문 문

항을 온라인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부터, 실제 두 조사 도구 사이에 도구로 인해 초래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지 등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등의 통계적 후속 작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 라. 영유아 가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 확대 방안

차년도 이후 연구에서는 초등 학령기 자녀의 추적조사 뿐 아니라 영유아기 자녀 표본도 확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 예산의 한계로 인해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각 연령별 250가구(0세는 125명)로 목표 표본을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서비스 이용자 혹은 정책 수혜자의 비중이 매우 작아 관측치가 많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부 집단별 정책 선호와 특징을 연구함에 있어 몇 가지 제약이 생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저소득 가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표본의 규모가 확장되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히 조사만을 위해 연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또한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응답 대상자가 동일(혹은 유사)하고 연구 주제의 연관성이 높은 몇 가지 연구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조사를 실시하는 매우 실험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응답 대상 가구들은 여러 개의 조사에 응답해야하는 부담이 줄게 되었으며, 연구진은 유사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즉, 조사마다 응답 가구의 표본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응답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하나의 조사 자료를 공유함에 따라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개의 과제에서 분리되어 조사되던 실태조사를 하나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비용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개별 과제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조사 표본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 확대는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즉,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개 연구과제의 실태조사를 KICCE 소비실태조사로 통합 혹은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표본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차년도 심층 분석 주제인 ‘영유아 가구의 빈곤’ 연구 혹은 ‘영유아 가구의 문화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를 별도의 연구 주제로 분리하여 개발하되, 실태

조사는 KICCE 소비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표본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마. 조사 연구와 연구 과제의 경계 설정 필요

하지만, 앞서 제시한 연구 수행 체계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진 간의 매우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데다, 설문 분량이 방대해지거나 연구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자료를 강제적으로 분절해야하는 등<sup>4)</sup>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자료의 구축과 자료 관리 등을 별도의 하나의 과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즉, 여러 개의 과제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담은 하나의 대표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조사 연구를 다른 연구 과제들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조사 연구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때,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 과제를 사전에 기획하여, 해당 연구는 주로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연구와 연구과제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를 기준으로 볼 때 Part I의 조사 연구와 Part II의 양육비용 연구과제는 분리하여 진행하는 방식<sup>5)</sup>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 바.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자료 정제 필요

기 구축된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공공 데이터로서 학계 및 정책연구 등에 두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자료는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구축된 자료로 연구진의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자료 정제 과정을 거친 상태이므로, 현재 형태 그대로는 일반 공개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본 자료가 포함하는 각종 비용과 설문 문항이 방대하여 일반 유저들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본 자료에는

4) 설문 문항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작성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의 과제에서 동시에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강제 분할 하였음.

5) 연구과제2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과제3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는 이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함께 수행하지만 독립된 연구로 분리되어 있음.

패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 패널 조사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수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자료 검증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자료를 일반 공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기관의 패널 조사와 유사한 수준의 자료 정제 및 조사 관리 등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배치가 요구되며, 자료 공개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양육비용 관련 제언

지금부터는 양육비용 및 양육부담과 관련된 영유아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차년도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비목 등에 관한 심층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비용과 관련된 정책 제언은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제언되었으며, 특정 정책의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은 차후 2차년도 연구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가. 취약계층 영유아의 아동권 보호 및 격차 완화

앞서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비용 지출 현황 등 모든 부문에서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아동들이 처한 위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착되었다. 먼저, 저소득 가구 영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적었으며,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소외될 위험이 높았다. 특히, 저소득 가구들은 육아물품 및 육아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육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필수재에 속하는 식비 등의 소비 자체를 축소하거나 일부 품목의 구입을 포기해야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저소득 가구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 양육 및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현재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지원이 저소득 가구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영양플러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과 같이 식비 혹은 생필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전기요금 등 주거관련 필수재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 가구에 국한된 지원은 아니지만, 무상 보육 정책으로 기본적인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비용 할인이 적용되는 등의 보육서비스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즉, 영유아 가구들에게 가장 소비 지출이 많은 비목인 식비, 교육·보육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들이 소외되지 않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용 경감 및 생애 초기 출발선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서 6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지원인 정책 몇 가지를 제외하면 지원 대상이 특정된 사업에 대한 수혜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들은 보편적 의료 지원 서비스의 수혜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제도가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저소득 가구가 이용하기에 제도적 한계(지원 대상 선정과 혜택 범위 등)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저소득 가구 자체가 이러한 육아서비스의 필요에 대해 둔감한 것일 수도 있다<sup>6)</sup>.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저소득 가구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일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 비용 지원 체계상에서 저소득 가구는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무상 보육지원체계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가구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계와 관련된 부분(식비, 생필품 등)에서 소외받지 않고, 아동권의 보호 측면에서의 양육비 지원 체계의 정립과 정착이 요구된다.

한편, 저소득 가구들은 육아 물가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

6)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으므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이 이러한 물가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바우처 형태의 생필품 지원은 양육비용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지원금이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 혹은 더 필요한 상품의 구매를 불가능하게 하여 비효율을 초래한다거나, 이를 받아주는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거나, 구입 가능한 상품의 질이 낮다거나, 물가의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 지원 방식과 사용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sup>7)</sup>.

## 나.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1)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

가구 특성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용은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았다. 그런데, 교육·보육비의 지출은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비목으로, 특히 가구소득이 400~499만원인 구간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벌이 가구의 교육·보육비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건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부가 2013년 모든 영유아 가구에 대해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한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는 매우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자녀의 기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이들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한다. 즉,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자녀 돌봄의 공백을 메꾸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

7) 저소득 가구의 아동권 보호 및 양육비용 절감 방안 등은 후속 연구인 2차년도 연구에서 심층 분석을 통해 좀 더 보완하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이 외에도 추가적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용의 압박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은 보육·교육 지원 정책은 가구의 상황을 보다 잘 고려하여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비용을 부모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가구에 지원되는 공적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사적 서비스의 질과 큰 차이를 보인다면, 결국 이러한 공적 서비스는 아무리 지원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맞벌이 가구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 직장 어린이집이나 산업단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선호에 비해, 거주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형 서비스 이용율이 매우 낮은 점 등을 보아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유사한 예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경우에도 실제 맞벌이 가구들은 가구소득 기준이 높아 서비스 이용이 용이치 않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다수의 맞벌이 가구들이 공적 서비스가 아닌 민간의 아이돌보미들을 채용하여 활용하게 된다. 물론 모든 보육·교육서비스를 공적 영역이 관여하고 공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공적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이용에 현격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경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나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시간 이용은 실질적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공동체 돌봄에 속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확장 시 맞벌이 가구 위주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한편, 다자녀 가구들은 자녀수가 많은 만큼 자녀 양육비용이 모든 비목에서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자녀 증가에 따른 양육비용의 증가는 자녀수에 비례적 증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일인당 자녀 양육비용은 훨씬 적은 상황이다. 이때 다자녀 가구가 자녀 일인당 양육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주로 교육·보육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 등에서의 절감이 크며,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 부모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보육·교육서비스의 시간적인 측면보다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의 우선권 보장과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물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입소 대기 우선순위에서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1순위이긴 하나(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sup>8)</sup>, <http://www.childcare.go.kr/>, 2018. 11. 12인출), 이러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자녀 이 외에도 초등이상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은 영유아 자녀 뿐 아니라 초등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하여 이뤄져야만, 정책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우선순위 배정 등에서 초등학생 자녀수를 포함한 상태로 입소 우선권을 받도록 하는 등이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직하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혹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한 명의 자녀의 질병 등으로 자녀가 기관 보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구 내 다른 자녀와 환아를 분리하여 돌볼 수 있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휴가 등의 사용이 용이치 않으므로 재택 혹은 환아 보호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요구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use/infect.go>, 2018. 11. 12 인출), 제도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지도가 낮고 실시간 매칭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실제로 필요한 때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8)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신청 안내.

## 다. 공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지원의 다양화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에 대한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투자를 가장 먼저 증가시키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자녀의 교육·보육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즉, 영유아 가구들의 교육·보육에 대한 높은 열의와 태도는 자칫 과도한 사교육을 초래하거나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영유아 가구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교육·보육비에 대한 영유아 가구들의 높은 지출과 선호가 공교육에 대한 낮은 신뢰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같은 공교육·보육에 대한 낮은 신뢰와 교육·보육비에 대한 집중적 투자는 주로 공교육·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영유아 가구들의 부정적 인식을 대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매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며, 교육·보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계층 간 갈등 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단순히 영유아 가구들이 원하는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영유아 가구들의 소비는 매우 비탄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가구소득이 증가에 따라 급격한 지출 편차를 보이는 사치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영유아 가구들이 요구는 그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모든 영유아 가구에 대해 누리과정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을 실시하면서 무상 보육지원 체계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실제적인 ‘무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가 적정 서비스인가 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다만, 영유아 가구들의 정책에 대한 요구와 현행 지출 수준 등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제공해야하는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은 지금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신 영유아 가구들은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연한 서비스 질의 개선이 선행된다면 다수의 영유아 가구들은 공교육·보육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비용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현행과 같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가격 책정, 차등 지원 등을 통해 공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영유아 가구들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확충, 표준 보육시간의 설정과 수익자 부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특별활동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수의 보육 정책이 이러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행 어린이집 보육지원 체계의 개편 논의를 통해 향후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변화 추이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라. 주거비 지원 및 아동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 1) 다양한 방식의 주거 지원 확대

영유아 가구들의 주거비 지출은 가구 총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는 원리금 상환금 등을 금융상품으로 분리하여 조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월세액이 많은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들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주택 구매는 영유아 양육비용에 직접적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80%이상의 영유아 가구들이 자녀 출산 후 주택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구입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하여, 영유아 가구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주택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영유아 가구들이 자녀 출산 후 주택 구입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주된 이유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심리에 기인한다. 그런데, 특히 수도권역의 경우 주택 가격의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주거지 이전이 불가피해질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원리금 상환 등 주택 구입에 따르는 가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구입이 투자의 측면으로나 거주지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생각이 영유아 가구들이 가진 인식이었다. 또한, 심층면담 등에서 영유아 부모들은 언젠가 주택을 구입해야한다면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보다는 자녀가 어린 연령인 영유아기에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육아 가정에 대해 공공 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우선공급)이나 추가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주로 무주택자 혹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어, 영유아 가구들은 이들 정책은 육아 지원(출산 지원) 정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 주택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 이용에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한편, 영유아 가구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수준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결국 영유아 가구들은 가구 지출에서 목돈으로 지출되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육아로 인한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 정책에 대한 체감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정부의 육아 가정에 대한 주택 구입 등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확대와 함께 육아 환경이 좋은 지역(입지)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정부의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육아 가정의 경우 자녀 출산에 따라 보다 큰 평수나 보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많이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첫아이 출산 가구 혹은 다자녀 가구 등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육아 가정마다

선호하는 입지 조건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임대 주택 등 특정 지역으로 입지가 고정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금리 혜택이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강화해주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외에도 소소하지만, 오히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1층을 선호하는 육아 가정들도 많은 점에 착안하여 자녀를 기준으로 첫 주택인 경우 아동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거 관련 용품(안전 도어락, 육아 관련 인테리어 지원)을 지원한다면, 육아 가정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sup>9)</sup>.

## 2) 아동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한편,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 조건으로 안전을 교육 환경보다 높게 보았다. 또한,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아동 관련 인프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주거지 내에 쾌적한 놀이 공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가구 특성이나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가구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임 알 수 있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안전한 주거 지역에 대한 요구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안전한 환경에 대한 지지가 높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교육 환경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매우 필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교육 환경과 아동 관련 인프라 등에서의 지역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 환경의 조성은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 안전 혹은 양육 관련 지역 환경에 관한 정부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들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인증사업은 해당 조건을 갖춘 도시에 정부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주로 여성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 정책과 관련된 지표와

9) 이러한 사업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을 것임.

자녀 양육에 적합한 도시 환경 조성 등도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20). 즉, 여성친화도시인증 사업의 지원 내용 중에는 가족친화적이고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되므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마. 공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육아 지원 확장

### 1) 공공 기관 대여 서비스의 개선

육아용품 관련 공유 경제 경험 중에서 대여하기 서비스의 이용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공공 대여의 경우 장난감 도서관이나 도서대여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물건의 파손이나 훼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유아 부모들이 이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완구의 경우 자녀가 입으로 빨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물건이기 때문에 대여한 물품의 위생상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품목의 육아용품은 대여하기 등의 서비스 방식이 영유아기 자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육아 가정의 양육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육아용품 대여라면 대형 완구(설치완구 및 보행완구) 혹은 카시트, 유모차, 아기 침대 등과 같은 부모가 사용하는 내구성 육아용품의 대여가 보다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내구성 육아용품은 고가의 상품이 많은데 반해, 자녀와 맞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sup>10)</sup>에 대여하기를 통해 이후 지속적 사용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도 육아비용 절감에 도움일 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육아용품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을 통한 대여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 기관을 이용할 경우 임대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유아 부모들은 차라리 중고 판매 등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내구성 육아용품을 대여해 줄 경우 이에 대한 육아 가정의 수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육아용품은 부피가 크고 설치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정에 이를 배송

10) 예를 들어, 대형 유모차의 경우 구입 후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음.



해주는 서비스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보다 장기간의 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2) 육아용품 업사이클링을 위한 정부 지원 및 민관 협력

육아 가정들은 가구 내 자녀 간의 물려쓰기 이 외에는 중고 육아용품 거래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중고 거래 절차나 경로 등은 최근 세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나 온라인 업체 등이 많이 생겨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비교적 쉽고 용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동네 혹은 인접한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영유아 가구들의 중고 거래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플라마켓이나 박람회 등을 통해 육아용품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들은 이를 양육비용 절감 목적 뿐 아니라 문화생활과 아이들의 경제 교육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하면서 비교적 널리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아용품의 중고 거래 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과 같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맡겨두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통상 세분된 지역 단위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 한계를 갖게 된다. 즉, 육아 가정이 원하는 물건을 특정 시점에 해당 지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국 육아 가정은 새로운 물건의 구매를 하게 되어 육아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중간에서 물건을 당분간 보관하거나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업체 혹은 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약간의 수선과 수리가 필요한 육아용품은 리폼하여 판매하게 된다면,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공유 경제 관련 기업과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업사이클링 과정과 물품의 보관 등은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비용 수익성이 맞지 않지 않는 부분이 크다. 즉, 육아용품의 경우 몇몇 고가의 물품을 제외하고 주로 완구류나 도서류가 주된 중고 거래 용품인데, 이러한 물건을 수거하여 수선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새제품의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제대로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매개자에 해당하는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단순히 육아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sup>11)</sup>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장난감 수리 등 육아용품의 수리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중고 육아용품의 지역 연계를 위해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심층면담에 참여한 육아 가정의 상당수는 중고거래를 통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렴한 가격의 기부 등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즉,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이 낙후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영유아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공유도 사실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품을 기부하는 영유아 가정에는 물품 수거 서비스, 기부물품 금액에 따른 소정의 쿠폰 혹은 세제 혜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를 매개하는 기업 혹은 기관에 대한 지원 혜택과 정책 홍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바. 정책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강화

### 1) 정책 홍보 강화 및 접근성 개선

영유아 가구들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인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등에 대한 정책 인지는 매우 높은 반면, 그 외 다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한편, 정책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해당 정책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태였다. 다수의 영유아 가구들은 정책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 등을 주로 주변인 혹은 부모 커뮤니티, 온라인 등을 통해 접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영유아 가구에 그대로 전달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육아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유발되기도 하였다.

11) 자원의 재활용이나 일자리 창출 등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원이 육아 가정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육비용 경감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정책을 제안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육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의 제공이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첫째 자녀 출산 가정의 경우에는 육아 관련 정보에 있어 훨씬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한 시행착오와 양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원 사례로는 여성가족부의 출산·육아 바스켓 가이드 제공, 보건소 등을 통한 영유아 검진 안내, 지자체 사업이기는 하나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sup>12)</sup>’과 같은 사업 등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유관 지원 정책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정부 3.0 보도자료<sup>13)</sup>, 2016. 3. 31일자: 5) 등이 있다. 즉, 육아 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은 기 구축되고 완료된 자료와 정보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이긴 하나, 이러한 정보의 습득에 있어 영유아 가구가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개선 노력과 정책 홍보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개별 사업별 혹은 부처별로 실시되기보다는 영유아 가구의 입장에서 쉽게 색인이 가능한 형태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 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확장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가 살아야 할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문에 현재 자녀에 대한 투자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교육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증가시 이 이상 교육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나,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소비는 가장 나중에 축소하겠다고 응답하는 등의 경향성에서도 드러난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보육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들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점이다.

12)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육아 상담, 부모 자조 모임 등에 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안내,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20007/d2\\_20040.jsp](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20007/d2_20040.jsp), 2018. 11. 12 인출).

13) 정부 3.0 보도자료(2016. 3. 31).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현재 정부의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주로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줄지 않고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더디고 정책 효과성이 낮아지는 주된 원인은 이러한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에 근거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집중적인 투자가 실제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기우로 인해 어린 나이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교육서비스를 시키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 발달 및 육아 방법에 관한 부모 교육을 통해 차츰 개선해 나가야하는 문제라 사료된다.

한편, 최근 영유아 부모들의 사회적 참여는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유 경제도 제법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사이의 물려받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고물품이나 대여물품 등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첫째 자녀를 출산한 육아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여, 사용 빈도가 많지 않은 고가의 육아용품을 구매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육아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육아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 콘텐츠로는 앞서 정책 홍보 강화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출산·육아 바스켓, 영유아 건강검진 등 보건·위생 관련 교육,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 정책, 합리적 육아용품 활용을 위한 공유 경제 및 업사이클링 교육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써, 향후 5년동안 연구가 지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나 연구의 한계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양육비용에는 원리금 상환, 저축 등 금융 자산과 주거비 등 일부 비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라고 할 때 이러

한 비목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의 부채와 자산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 비용 문제를 좀 더 다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자산과 유사하게 본 연구는 세금 등 이전 지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이는 영유아 가구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으로, 1차년도 표본 구축 당시 이로 인해 표본 구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조사 차수가 쌓여감에 따라 본 조사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신뢰가 쌓인다면, 이러한 이전 지출 등에 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가구 지원에 있어 세제 지원 정책 등을 다시금 재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영유아 양육비용은 영유아 가구의 응답에 기초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산출되었다. 영유아 양육비용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조사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추정을 통해 현실적인 양육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sup>14)</sup>. 이때, 면밀한 양육비용의 산출이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해진다면,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실제 가계 지출 등을 질문하는 설문 문항을 축소하고, 정책 문항과 영유아 가구의 소비 행태 등에 관한 설문을 대폭 추가하여 정책의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한 조사 자료로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14) 1차년도 연구의 시점은 2018년인데 반해 다른 조사자료의 값은 2017년 이전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이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지원(2010).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관련 쟁점. 보건복지포럼, 168, 90~101.
- 고제이·신윤정·강신욱·오미애·안형석(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승권(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Issue & Focus, 68, 1~8.
- 김승권·김상철·최영준(201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우(2013).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의 격차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 57~68.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지·황정임(2012).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세경(2006).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11, 33~49.
- 백지선·김재광·민경아·이상기(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동패널 표본설계와 횡단가중치 작성 연구. 통계개발원.
- 박진아·김나영·이재희·장문영(2016).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7). 결혼, 임신, 출산에서 육아까지 내 손 안의 정책 50.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서문희(2007).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소요비용 차이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1(1), 61~96.
-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신윤정·김지연(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 육아정책연구소(2017). 한국아동패널조사.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림(2007).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양육 비용과 추정방법. 대한가정학회지, 45(2), 77~90.
- 이성림(2010). 가계의 영유아 자녀양육비. 생활과학, 13, 1~24.
- 이성림(2011). 영유아 자녀 가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소비 실태. 생활과학, 4, 117~134.
- 전상민(2011).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만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77~101.
- 차선자(2006). 적정양육비 산정 기준을 위한 제안. 가족법연구, 20(3), 103~130.
- 최윤경(2011). 취약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육아정책연구, 5(2), 23~45.
-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아름·조숙인·윤지연(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7a).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2017b).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2017c). 가계지출조사.
- 통계청(2017d).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7e). 한국표준직업분류표.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2016).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 한국노동연구원(2017). 한국노동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재정패널조사 1~9차년도 조사자료 사용자 안내.
- 한국은행(2018). 소비자동향조사.
- 한경님(2010).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부담비용 연구-가계소득 연 3,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99~318.
- 허경옥(2007).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2.
- Bargain, O., Donni, O., & Gbakou, M. (2010). The measurement of child costs: evidence from Ireland.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41(1), 1-20.
- Bargain, O., & Donni, O. (2012). Expenditure on children: a Rothbarth-type method consistent with scale economies and parents' bargaining. *European Economic Review*, 56(4), 792~813.
- Bonke, J., & Browning, M. (2011). Spending on children: direct survey evidence. *The Economic Journal*, 121(554), 123~143.
- CEBR(2015). Cost of a child: from cradle to college. Centre of Economic and Business Research.
- Hori, M. (2011). The expenditure on children in Japan.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279, 1-28.



- NATSEM(2013). Cost of kids: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in Australia. AMP.NATSEM Income and Wealth Report.
- Lino, M. (2013).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12. USDA.
- Lino, M., Kuczynski, K., Rodriguez, N., & Schap, T. (2017).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2015. USDA.
- Qian, X., & Smyth, R. (2008). Educational expenditure in urban China: income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the demand for domestic and overseas education. Asian 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Unit Discussion Paper, 60, 1~26.
- Rizk, R., & Owusu-Afriyie, J. (2014). Determinants of household expenditure on children's education in Egyp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Economics and Development, 5(4), 332~360.
- Rutter, J. (2015). Childcare Costs Survey 2015. Family and Childcare Trust.
- Sarlo, C. (2013).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Fraser Institute.

### 〈홈페이지〉

-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 (2018. 3. 13. 인출).
-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childCare.do?p\\_sn=64](http://www.voucher.go.kr/voucher/childCare.do?p_sn=64) (2018. 3. 14. 인출).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중 소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872&cid=40942&categoryId=31813> (2018. 2. 21 인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3) (2018. 3. 13. 인출).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 <http://www.childcare.go.kr/> (2018. 11. 12인출).

-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6> (2018.8.16. 인출).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보육료.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2018. 3. 14. 인출).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양육수당.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2018. 3. 14. 인출).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영유아, 유아학비.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2018. 3. 14. 인출).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요금감면서비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2018. 3. 15. 인출).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 (2018. 3. 14. 인출).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안내,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4.do> (2018. 3. 14. 인출).
-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공공주택 공급,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13&searchCtgId=999&welInfSno=147&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3&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8.16. 인출).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326&pageGb=1&domainName=&firstIndex=2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 3. 14. 인출).
- 복지로,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13&searchCtgId=055&welInfSno=12396&pageGb=1&domainName=&>

- 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3&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8.8.16. 인출).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6> (2018. 3. 14. 인출).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2&searchCnDivCd=&welInfSno=43&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999&pageGb=1&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key1=43&stsfCn=> (2018. 4. 3. 인출).
- 서울도시가스, <http://www.seoulgas.co.kr/> (2018. 6. 29 인출).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안내,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20007/d2\\_20040.jsp](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20007/d2_20040.jsp) (2018. 11. 12 인출).
-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2018. 3. 14. 인출).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use/infect.go> (2018. 11. 12 인출).
-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 <http://klowf.kwdi.re.kr/content/intro/summary.jsp> (2018. 3.2 인출).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유아학비란?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2018. 3. 14. 인출).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금 안내.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18. 3. 14. 인출).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절차 안내. <http://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3.do> (2018. 3. 14. 인출).

- 정부24, 정부서비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1200000008> (2018. 8. 16. 인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1126.6.2.1.2896133> (2018.8.16. 인출).
- 통계청, 통계별 설명자료, 가계동향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06&inputYear=2017> (2018. 6. 14 인출).
- 통계청 KOSIS,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기혼여성(15~49세)의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3&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3&conn_path=I2) (2018. 3. 2 인출).
- 통계청 KOSIS, 합계출산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2018. 2. 28. 인출).
- 통계청 KOSIS, 1인당 국민총소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2&conn_path=I2) (2018. 2. 28. 인출).
-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www.kli.re.kr/klips/contents.do?key=144> (2018. 3. 2 인출).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probe/sample.do> (2018. 3. 6 인출).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32> (2018. 6.29 인출).

#### 〈보도자료〉

- 매일경제(2018. 2. 28일자), 저출산 쇼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37573> (2018. 2. 28.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17. 8. 16.).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41087&FILE\\_SEQ=211369](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341087&FILE_SEQ=211369) (2018. 3. 14. 인출).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17. 12. 6.).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힘. <http://www.mohw.go.kr/m/commo>

n/board\_file\_dn. jsp?BOARD\_ID=145&CONT\_SEQ=343051&FILE\_SEQ=219315 (2018. 3. 14. 인출).

연합뉴스(2018. 2. 28일자), **합계출산율 예상보다 큰폭 하락...인구감소 시점 당겨질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8/020000000AKR20180228084451002.HTML?input=1195m> (2018. 2. 28. 인출).

정부 3.0 보도자료(2016. 3. 31).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한겨레(2018. 2. 23일자). **국회, '10% 제외 아동수당' 사실상 확정...15만명 못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3389.html> (2018. 2. 26. 검색).

---

## Abstract

# A Study on the Spending and Childrearing Cost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Hyo Mi Choi · Eun Jin Kang · Mi Ra Cho · Sook In Cho · Tae Woo Kim

Amid the persistence of low birthrates despite the increased support for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here is currently a need to identify the true nature of the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such households, as well as for a more broad-based approach to considering why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have failed to be actually effective.

By consolidating the factual studies of three research projects with similar or overlapping (and thus mergeable) topics and questionnaire items, this study represents an experimental challenge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It represents Wave 1 in a continuous 5-year study, and largely comprises a survey - the 'KICCE Spending Survey' and a research project - the study on the childrearing cost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Meanwhile, the 'KICCE Spending Survey' is shared by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rojects, each of which is structured independently in terms of research with the exception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 Research Project 1 (the current project): 'A Spending Survey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the KICCE Spending Survey and a Study on childrearing Costs (I)'
- Research Project 2: The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nd Policy Responses
- Research Project 3: A Study of the KICCE childrearing Price Index

First, a brief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Part I of the study – the ‘KICCE Spending Survey’ – is as follows. The ‘KICCE Spending Survey’ (as of Wave 1) is a survey that integrates the factual surveys from three different research projects, and is conducted in two rounds consisting of a main survey and an online survey. The target sample includes all young children in 1,625 households with at least one young (preschool) child. If school-age or older children are present within a household, their expenditure is included in the household-level survey but no separate individual-level surveys are administered to them. From Wave 2 onwards, enumeration districts will be incorporated into a panel, such that the original sample households residing within those enumeration districts will be tracked for continuous future surveying. This survey was conducted via face-to-face interviews by interviewers using the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tool at the respondent household.

The questionnaire of the main study largely comprises the household-level questionnaire and the individual child-level questionnaire. The household questionnaire includes items on general household characteristics, economic activity and childrearing costs, preference regarding childcare services and willingness to use the, views on policy support measures for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views and needs regarding policies on childcare services for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propensity for childrearing spending, and the socioeconomic values and future outlook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he questionnaire for childrearing spending within the main survey distinguishes between household-level expenditure and expenditure per each child, and includes 13 categories (e.g. food, etc.) and 11 sub-items. The online survey included questions on the purchase of childrearing goods and spending habits, perceived price levels of childrearing goods, in addition to perceived state of the economy and future outlook.

Upon conclusion of the survey,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648 households and 2,277 young children. Looking at the household / respondent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Statistics Korea) reveals that the sample has

been collected evenly, with no substantial departures between studies. However, this sample's study had a somewhat larger number of two-earner households compared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Next, a brief summary of the findings regarding the childrearing spending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from Part II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average monthly living expense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s 3,119,000 KRW, with 'food expenses' taking up the largest share at 811,000 KRW followed by 'education / childcare' costs (410,000 KRW), 'insurance contributions' (363,000 KRW),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323,000 KRW), 'transportation costs' (264,000 KRW), and 'housing costs' (253,000 KRW). The total childrearing cost was 1,151,000 KRW, with the childrearing cost for young children being 919,000 KRW (660,000 KRW on a per-child basis). While an increase from one young child to two young children was associated with a rise in childrearing costs, an increase from two young children to three was not associated with substantial changes in cost. The per-child care costs for young children tended to increase as the child got older.

Meanwhile, the responses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garding their current level of spending on childrearing were mostly evenly split into 'sufficient' (48.9%) and 'insufficient' (42.1%). Of the items that were most burdensome in terms of childrearing costs, the foremost factor by far was 'education / childcare costs' (44.6%), followed by 'food expenses' (17.7%). However, it is somewhat ironic that households responded that they were most willing to increase spending on 'education / childcare' if more income were to become available to them. 91.1% of households responded that they saw increases in overall household spending following childbirth, with 52.7% responding that major adjustments had been made in the composition of spending items and 41.7% responding that there were minor adjustments. The spending item that saw the greatest increase following childbirth was 'education / childcare' followed by 'food expenses'. In contrast, the spending items that saw the greatest decrease following childbirth (in



households that had not responded 'no cuts in spending items') were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and 'personal maintenance cost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with regards to the 'KICCE Spending Survey',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enumeration districts and household panels to ensure stability in the data. Other necessary items that were emphasized include: a tracking study on the transition to primary school, diversification of interview tools to enhance respondent convenience, expanding the sample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for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clearly delineating between the survey study and the research project, and implementing data cleaning for making the data open to the public.

Next, regarding the alleviation of childrearing costs for young children, we proposed measures such as: protecting the child rights of at-risk young children and the closing of gaps, strengthening support for two-earner households and multi-child households, enhancing the servic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 childcare services and diversification of support measures, expanding various housing support measures and creating child-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s, improving public rental services while strengthening government support and public / private cooperation for the upcycling of childcare goods, strengthening efforts to promote policies and raising awareness thereof, and providing more education / training to parents to help guide their perceptions and spending practices.

**Keyword :** Childrearing costs for young children, Reducing the burden of childrearing, KICCE Spending Survey(Spending Survey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87952-85-5